『울산의 인물』

조사 자료

<고대~고려 인물>

거도(居道, ?~?)

신라 상대의 족장. 거도(居道)는 신라 탈해 이사금 때의 장군으로 삼국사기에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거도의 성씨와 출신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병합한 일로 미루어 거도의 집단을 이 지역으로 비정한다. 그는 탈해 이사금 때 간(干)이었다.

당시 신라 근처에는 우시산국(于尸山國)과 거칠산국(居柒山國)이 있었는데, 우시산국은 현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온양읍 일대이며, 거칠산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근이다.

당시 이들이 신라의 국경에 존재하여 위협이 되었다. 이에 거도는 두 나라를 병합하려 했다. 우선 거도는 군사들을 시켜 말을 타는 놀이[馬叔(技)]를 하게 하였다. 몇 해 동안 마숙의 놀이가 계속되니 두 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양국의 경계가 약해지자 거도는 습격하여 이들을 병합하였다.

거도가 양국을 병합한 때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일은 동국통감, 동사강목에 탈해 이사금 23년인 79년에 벌어진 일로 나와 있다.

한편, 삼국사기 탈해 이사금 23년 조에는 봄 2월에 별이 동쪽과 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만에 사라졌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 삼국사기 열전에 이사부는 거도의 권모를 모방하여 가야국을 속여 빼앗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삼국유사』『동국통감』『동사강목』

김굉(金鍠, ?~?)

울산김씨 시조. 김황(金湟), 호 덕지(德摯).

울산 김씨(蔚山金氏)의 시조인 그는 신라 경순왕과 죽방부인(竹房夫人) 박씨 소생의 둘째 왕자이다.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에 봉군되고, 학성 일대를 식읍으로 받았기 때문에 학성의 지금 이름인 울산으로 본관을 삼는 것이다.

그는 935년(경순왕 9) 10월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신라의 천년사직을 양위하려 하자 형

인 일(鎰 : 마의태자)과 함께 이를 극력 반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처자를 버리고 형과 함께 개골산(금강산의 겨울이름)에 들어갔다고 하며 스스로 범공(梵空)이라는 이름으로 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의 14세손 환(環)이 고려조 충숙왕 때 삼중대광(三重大匡) 정1품으로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지고 문숙(文肅)이란 시호를 하사 받았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울산으로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

『한국인의 성보』, 한국인의 성보 편찬위원회, 1986

김극기(金克己, 1148~1209)

고려 명종 때의 문신. 본관은 경주. 호는 노봉(老峰).

어릴 때부터 문명이 있었으며, 40대에 이르러 명종의 부름을 받고 의주방어판관이 되었으며, 직한림원을 거쳐 예부 원외랑일 때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진정국사호산록(眞淨國師湖山錄)』에는 1209년으로 추정되는 기사년에 사망했다고 했으며, 문집 서문에서 6품 당하관으로 죽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귀국한 뒤에 다시 전원생활을 하다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1150년경에 출생하여 60세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거사' 노릇을 하면서 유랑생활을 오래 했던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문장가로서 특히 농민반란이 계속 일어나던 시대에 핍박받는 농민들의 모습을 친근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농촌문제를 자신의 일로 고민했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다.

당시 문인들이 그의 시를 평하여 "문장의 표현이 맑고 활달하며 말이 많을수록 내용이 풍부하다."고 하였으며, 이인로(李仁老)는 그의 문집 『김거사집(金居士集)』의 서에서 "참으로 난새나 봉황 같은 인물이었다."고 하여 벼슬에 연연하지 않는 고고한 행적을 찬양했다.

고려 말엽에 간행된 『삼한귀구감』에 의하면 그의 문집은 135권 또는 150권이나 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동문선』·『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시가 많이 남아 있다.

울산 태화루에 올라 시서(詩序)와 시(詩)를 지었는데, '태화강'이란 이름을 최초로 기록했

다. 이외에도 '전화앵' 등 울산 관련 시가 있다.

【참고문헌】

『동문선』『신증동국여지승람』『보한집』
『한국문학통사2』, 조동일, 지식산업사, 1983
『대한차인연대표』, 차생활문화대전, 홍익재, 2012
『여지승람』 울산 누정

김씨부인(金氏婦人, ?~?)

신라 상대의 충신 박제상의 부인.

박제상이 고구려에서 왕제 복호를 환국시키고 그 즉시 왜에 잡혀있는 왕제 미사흔을 구하기 위해 집에도 들리지 않고 바로 말을 달려 율포로 나아가 배에 오르고 있었다.

박제상의 아내가 듣고 포구까지 달려와 배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잘 다녀오시오" 하니 박제상은 뒤돌아보며 이르되 "나는 왕명을 받고 적국에 들어가니 그대는 다시 만나 볼 생각을 마시오"하고 바로 떠나고 말았다.

그는 세거지가 있던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에서 매일 치술령 꼭대기에 있는 한 바위에 네 자녀와 함께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그러나 훗날 들려오는 소식에 박제상이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고 하니 막내인 아들과 아들을 양육할 둘째 딸을 내려 보낸 후 두 딸과 자진(自盡)하니 몸은 굳어서 망부석(望夫石)이 되고 혼은 새가 되어 날아 건너 산 바위틈에 깃더니 은을암(隱乙岩)이라 한다. 훗날 치술신모(鵄述神母)가 되었다.

박제상이 배향되어 있는 치산서원 신모사에 같이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삼국유사』『영해박씨세보』
『경주문화』 제2호, 「박제상의 도왜시 발선처에 관한 연구」, 이상도, 1996

김취려(金就礪, 1172~1234)

고려 후기의 무신. 본관은 언양(彦陽).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출생.

조부 언량(彦良)은 금오위섭랑장(金吾衛攝郎將)이고, 아버지 부(富)는 예부시랑(禮部侍郎)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을 지냈다. 어머니 대부인 주씨는 검교장군행랑장(檢校將軍行郎將) 세명(世明)의 딸이다.

1172년(명종 2)에 출생하여 무관이 된 후 수차례의 거란군을 물리치면서 진급하여 상장군(上將軍)이 되었으며, 1232년에 수재(首宰), 1233년에 시중(侍中)이 되신 후 1234년(고종 21)에 돌아가니 향년 63세이다. 시호는 위열(威烈)이며 고려 고종묘(高宗廟)와 숭의전(崇義殿)에 배향되었다.

거란이 몽고의 공격을 받아 1216년(고종 3)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북방지역으로 밀려올 때 그는 대장군으로 후군병마사가 되어 조양진(朝陽鎭)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또, 연주에서는 거란 군사가 강성해 모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장군 기존정(奇存靖)과 함께 앞장서 적군의 포위를 돌파하였다. 이에 힘입은 군사들이 적군을 무찔러 목을 베고 사로잡은 군사들이 2천4백 명이나 되었고, 거란은 드디어 청새진을 넘어서 퇴거하였다. 이 전투에서 맏아들이 전사하였다.

1217년 거란군 5천여 명이 다시 남으로 내려오자, 금교역(지금의 황해도 서흥)에서 5군을 재편성해 상장군 오응부(吳應夫)를 중군병마사, 상장군 최원세(崔元世)를 전군병마사, 차상장군 공천원(貢天源)을 좌군병마사 등으로 삼았다. 그러나 5군이 출발을 지체하는 동안 동주(지금의 강원도 철원)가 함락되었다. 이에 당시의 집정자 최충헌(崔忠獻)에 의해 상장군으로 전군병마사에 임명되어, 거란군을 명주(지금의 강원도 강릉) 방면으로 패주시켰다. 그 해 다시 거란이 여진족과 연합해 침입하자, 예주(현재 함경남도 정평)에서 교전했으나 병으로 돌아왔다.

1218년 병마사가 되어 서북면원수 조충(趙沖)과 함께 거란적을 강동성으로 쫓아냈다. 이때 동진국(東眞國)을 쳐서 신하로 따를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 또한 거란을 토멸하겠다는 명분으로 동북면 지방으로 들어와 공동작전을 제의한 몽고군과 그리고 동진국과 힘을 합쳐 강동성을 함락시켰다. 1219년 의주별장 한순(韓恂)과 낭장 다지(多智) 등의 반란을 이극서(李克偍)·이적유(李迪儒)와 함께 평정해 북방을 편안하게 하였다. 1221년 추밀원사 병부상서 판삼사사를 거쳐, 참지정사 판호부사가 되었다. 1228년 수태위 중서시랑평장사 판병부사가 되었으며, 그 뒤 시중에 제수되었다.

사람됨이 정직·검약했으며, 군사통제에 엄격하고 공정해 사졸들이 조금도 범함이 없었고,

존경하였다. 많은 공을 세웠으나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 칭찬의 소리가 높았다.
또한, 정승이 되어서는 안색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려 사람들이 감히 속이지 못했으니, 진실로 충성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고려사절요』
『영남인물지』, 2004
『고려명장 문하시중 위열공 김취려 사료집』, 언양김씨대종회, 2011

김흥경(金興慶, ?~1374)

공민왕의 총신(寵臣).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출신. 문하시중 김취려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적선옹주 유씨. 자질이 총명 민첩하여, 고려 31대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여러 벼슬을 거쳐 좌승선(左承宣)·밀직대언(密直代言)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1365년 왕비 노국대장공주의 하세(下世)로 공민왕은 심경변화를 일으켜, 미모의 청소년을 뽑아 왕의 좌우에 두고 시중을 들게 하는 이른바 제자위(弟子衛)를 궁중 내에 설치하게 되자, 그는 이를 총관하면서 왕을 보필하였다. 한편 전법총랑 양윤발(楊允發)을 개인감정으로 투옥시켰는가하면, 재장 이성림(李成林)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녀와 놀아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양광도 도순문사로 좌천시켰다. 그의 모 유씨를 교주·강릉·양광삼도기은사(三道祈恩使)로 삼고, 곧이어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으로 봉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다가 1374년 공민왕시해사건이 일어나 우왕이 즉위하자, 우사의(右司議) 안종원(安宗源), 문하사인(門下舍人) 김도(金濤), 정언 노숭(盧嵩) 등의 탄핵을 받아 언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주살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사강목(東史綱目)』
『영남인물지』, 2004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낭지(朗智, ?~?)

신라 후기의 승려. 청량면 문수산 동쪽 영취산에 있으면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살았다. 항상 『법화경』을 강하였으며 신통력이 있었다. 661년경 『추동기』를 지은 지통(智通)이 보현보살의 계시를 받고 출가하자 제자로 삼았다.

원효(元曉)도 울산 반고사(磻高寺)에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저술하였다. 일찍이 구름을 타고 중국 청량산(淸凉山)에 가서 강설을 듣고 잠깐 동안에 돌아오곤 하였다 하며, 최소한 135세 이상을 살았다고 한다. 머물던 암자를 혁목암(赫木庵)이라 하는데 옛날 가섭불(迦葉佛) 때의 절터였다.

또한 그곳에는 인도와 신라의 영취산에만 유일하게 자라는 혁목이 있는 곳으로서, 혁목이 자라는 산에 주하는 보살은 법운지보살이라고 한 『화엄경』의 설에 따라 십지보살로 존경받았다. 원성왕 때 연회(緣會)가 영취산에 와서 살면서 그의 전기를 지었다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삼국유사』

박구(朴球, ?~1289)

고려 후기의 무신. 울주에 속한 부곡 출신.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원종 때 뇌물로 상장군이 되었다. 충렬왕이 즉위하여 원나라에서 귀국할 때 왕과 공주를 호종하였으며, 1278년(충렬왕 4) 우승지가 되었다.이듬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동정군사를 사열하였으며, 뒤이어 동지밀직사사가 되었다. 또, 그해 소용대장군·좌우부도통이 되고 호두금패와 인신을 받아 이듬해 만호(萬戶)가 되어 원수 김방경을 따라 일본정벌에 참전하였다.

1282년 동지밀직사사로 합포(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에서 진수하였으며, 이듬해 지밀직사사가 되어 성절사로 원나라에 다녀왔고, 그 뒤 찬성사가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고려사절요』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박윤웅(朴允雄, ?~?)

고려 개국공신, 울산박씨(용당박씨) 시조. 시호 장무공(莊武公)

박윤웅은 신라 경명왕의 막내아들인 국상공(國相公) 박교순(朴交舜)의 6세손으로서, 신라 901년(효공왕 5년) 지금의 울산 학성(鶴城·당시 하곡현 신두산)에 정착하여, 신학성장군(神鶴城將軍)이 되어 이 지역을 통치하는 호족장으로서 세력을 확장하여 번창하였다.

918년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할 때, 930년(경순왕 4년) 9월 사신 최환(崔奐)을 고려에 파견하여 하곡현을 스스로 복속시켰다. 이 공을 가상히 여긴 태조는 하곡(河曲)·동진(東津)·우풍(虞風) 3현을 흥려부(興麗府)로 격상하고, 그에게 흥려백(興麗伯)으로 봉작하는 한편 대장군에 배명(拜命)하고 통치하던 전 지역을 사채지(賜采地)로 하사하여 자치에 맡겼다. 여기서 '흥려'는 말 그대로 '고려를 흥하게 했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유포(柳浦)의 미역바위 12개소와 농소지방을 채지로 내렸다

【참고문헌】

『고려사』『동국문헌비고』

박제상(朴堤上, ?~?)

신라 상대의 충신. 영해박씨 세보에는 양주(良州,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에서 태어났다(363년 9월)고 하나, 이름에서 엿보듯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의 월평제(月平堤) 위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은 김제상(삼국유사), 자는 중운(仲雲), 호는 도원(挑園, 挑源), 석당(石堂), 관설당(觀雪堂).

영해박씨(寧海朴氏)의 시조로 신라 내물마립간 때부터 눌지마립간 때까지 활동하였다. 『삼국사기』에 박제상은 신라 시조 혁거세의 후손으로 제5대 파사이사금의 5세손이며 할

아버지는 아도갈문왕(阿道葛文王), 아버지는 파진찬(波珍飡) 물품(勿品)으로 되어 있다.
신라는 백제 세력을 견제할 필요에 의해 402년(실성왕 1) 내물왕의 셋째아들인 미사흔(未斯欣)을 왜에, 412년에는 내물왕의 둘째아들인 복호(卜好)를 고구려에 파견해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왜와 고구려는 이들 왕자를 인질로 감금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내물왕의 큰아들 눌지왕은 즉위 후 두 동생을 고구려와 왜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군신을 불러 협의하였다. 그 결과 박제상이 그러한 역할을 맡을 역량이 있는 적절한 인물이라고 천거되었다. 당시 박제상은 양산 지방인 삽량주간(歃良州干)이라는 직책에 있었다. 그는 418년(눌지왕 2) 왕명을 받들어 먼저 고구려에 가서 장수왕을 언변으로 회유해 복호를 구출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귀국한 즉시 왜에 인질로 가 있는 미사흔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도 들리지 않고 떠났다. 그는 왜에 이르러 마치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해 온 것처럼 속였다. 마침 백제 사신이 와서 고구려와 신라가 모의해 왜를 침입하려 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말하였다. 이에 왜가 군대를 파견해 미사흔과 박제상에게 길을 인도하게 하여 신라를 침략하고자 하였다. 왜의 침략 세력이 신라를 치러 오는 도중에 박제상은 강구려(康仇麗)와 협력해 왜병을 속여 미사흔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그 자신은 붙잡혀 왜 왕 앞에 끌려갔다. 왜왕은 그를 신하로 삼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회유했으나, 그는 차라리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결코 왜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해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마침내 유형에 처해져 불에 태워지는 참형을 받아 죽었다. 이러한 사실이 신라에 알려지자 눌지왕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를 대아찬으로 추증하고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책봉했으며, 둘째 딸을 미사흔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치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울산 두동면 일대에서 세거하였다고 짐작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삼국유사』
『성씨와 본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경주문화』 제2호,「박제상의 도왜시 발선처에 관한 연구」, 이상도, 1996

박추(朴諏, ?~?)

고려 후기의 문신. 호는 사은(沙隱). 본관은 흥려(興麗), 장무공 박윤웅(朴允雄)의 후손.

고려말 문과에 급제한 후 한주지사를 거쳐 충청 감사로 있을 때,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을 건국하자 군자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하여 72명의 선비들이 관복과 관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지조를 지키다가 조정에서 지른 산불에 타죽고 말았는데, 그도 관을 벗어 성의 남쪽에 걸고 관직을 떠나, 범서면 사양동(砂良洞)에 내려가 움막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양산시 웅상 용당리의 용강사(龍岡詞)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울주군지』 하,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법장(法藏, 1350~1428)

고려 말 조선 초의 승려. 호는 고봉(高峰) 또는 지숭(志崇).

울산 태원암(太元庵)에 거주한 법장선사는 려말선초의 고승으로 조계산 수선사(修禪社)의 제16세 사주였다. 법장선사의 성은 김씨로 본관은 신주(愼州)이고 어머니는 임씨(林氏)였다. 선사는 20세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젊어서 승과에 급제하였으나, 명리를 위하는 길이라 하여 버리고 입산수도하던 중 나옹(懶翁)을 스승으로 삼고 법맥을 이었다. 항상 머리털을 두 치 정도 기르고 바리 하나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며 풀피리를 잘 불어 사람들은 그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였다. 30년 동안 명산대찰을 찾아 소요하다가 봉화의 청량산에 청량암(淸凉庵)을 짓고 선정을 닦았다. 1395년(태조4)에 남쪽의 여러 산을 유력하던 중 금전산(金錢山) 금둔사(金芚寺)에서 유숙하다가 꿈속에서 한 사찰을 보았다. 다음 날 우연히 송광사(松廣寺)에 이르렀는데 꿈에 본 사찰과 같았다. 제자들과 함께 송광사를 새로 일으켜 옛 모습대로 완전히 복원할 것을 서원하여 1399년(정종1) 국가의 힘을 빌어서 불(佛)·법(法)·승(僧) 전당 30채를 지었다. 그 뒤 다시 김해 신어산(神魚山) 각암(覺庵)과 경주 원원사(遠願寺), 울산 태원암(太元庵) 등에 머물다가 1414년(태종 14)에 송광사로 돌아왔다. 이때 그는 방문(榜文)을 지어서 낙성회를 베풀고 중인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1428년 7월 11일에 병을 얻었으나 평소의 의식을 그대로 행하다가 21일 인시에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유언에 따라 유골을 거두어 침실에 안치하였는데, 이듬해에 유골에서 사리가 나왔고, 그 뒤로 여러 차례를 두고 사리가 분신한 것을 합해서 78개를 얻어 백동함

에 넣어 송광사 북쪽 언덕, 현재의 청진암(淸眞庵)터에 승탑을 세웠다.
송광사를 중창한 공로와 그 도덕으로 송광사 16국사의 서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자로는 신찬(信贊)·혜성(惠性)·상제(尙濟)·홍인(洪仁) 등이 있으며, 송광사 국사전에 모셔진 고봉 법장 선사의 진영은 16국사탱 가운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고려 시대의 15국사와는 달리 조선 시대의 국사로 머리가 긴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조선불교통사』, 이능화, 신문관. 1918

소벌공(蘇伐公, ?~?)

경주최씨의 시조. 한국의 삼한 신라 기원 최씨들은 원조 최소벌도리(蘇伐都利)공과 24대손 시조 최치원을 중심으로 상하대에서 분적, 분파되었는데, 한국최씨의 대종가 경주최씨는 관가정공파(觀稼亭公派), 광정공파(匡靖公派), 정랑공파(正郞公派), 사성공파(司成公派), 화숙공파(和淑公派), 충렬공파(忠烈公派) 등 6대파를 주축으로, 2,100여 년 간 세계를 이어 오고 있다. 삼한시대 진한 사로 6촌의 하나인 돌산고허촌 촌장 소벌도리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소벌도리와 알평(謁平 : 급량부의 시조)·구례마(俱禮馬 : 모량부의 시조)·지백호(智伯虎 : 본피부의 시조)·지타(祉沱 또는 只他 : 한기부의 시조)·호진(虎珍 : 습비부의 시조) 등 6명이 하늘에서 내려와 각기 육촌의 촌장이 되고, 동시에 육부의 시조가 되었다.
기원전 69년 6촌장이 알천의 둑 위에 모여 나라를 세울 것을 논할 때 마침 남쪽 양산 밑의 나정에서 발견한 박혁거세를 양육하여 왕으로 추대하고 천강인(天降人)으로 신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워 개국 좌명공신이 되었다. 신라 유리이사금 9년(서기 32)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이 사량부(沙梁部)로 개편되며 최씨(崔氏) 성을 받았고 516년에 사량부 대인에서 충선공(忠宣公)으로 시호되었으며, 658년에 문열왕(文烈王)에 추봉되었다.
사량부의 위치에 대한 번잡한 해석을 정리해보면 경주남산의 서남쪽이니 오늘의 경주 내남면과 울산 두동면 두서면 일대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성씨와 본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연회(緣會, ?~?)

신라 원성왕 때의 승려. 『삼국유사』에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그는 영취산 영취사(靈鷲寺)에 숨어 살면서 『법화경』을 읽고 보현보살의 관행법을 닦았다. 임금이 그를 국사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암자를 버리고 도망갔다.

서쪽 고개의 바위 사이를 넘어가는데 한 노인이 밭을 갈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물었다. 이에 그는 나라가 벼슬로 얽매려 하므로 피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국사를 맡지 않고 피하는 것은 오히려 이름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책망하였다.

이에 노인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충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갔다. 조금 후 시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나 같은 질문을 받았다. 똑같이 응답하니 노파는 앞의 노인이 문수보살임을 알려주면서 그의 잘못을 깨우쳐주었다.

급히 노인에게로 달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수보살의 권유에 따라 국사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수보살에게 시냇가의 노파가 누군지를 묻자, 문수보살은 변재천녀라 말하고 숨어버렸다. 그 뒤 그는 대궐로 가서 국사가 되었다 한다. 고승 낭지(朗智)의 전기를 지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삼국유사』

원진(元眞, ?~?)

신라 하대의 대신으로 관문성을 축조하였다고 전한다.

722년(성덕왕 21)에 각간(角干)으로서 축성감독자가 되어 모화군에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둘레 6,792보, 높이 5척이 되는 석성을 3만 9,262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쌓았는데, 이 성을 이름하여 관문성(關門城)이라 한다. 이는 신라 왕경 부근 제1의 웅장한 석성으로, 일명 만리성(萬里城)이라 한다.

지금도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에서 북구 달천동, 중산리를 거쳐 기백이재 북쪽까지 이어지

는 협곡에 웅장한 석성으로 남아 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진의 축성비가 성 곁에 서 있었다고 전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전화앵(囀花鶯, ?~?)

나말여초의 기녀.

전화앵에 관한 사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화앵의 묘가 있는 열박령은 경주부의 남쪽 30리에 있다'는 것과 노봉 김극기의 전화앵을 기리는 시가 같이 수록되어 있으며, 육당 최남선이 쓴 『경주읍지』, 『동경통지』(1933)에 '전화앵은 고려명기'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과 경주일대에서 전승되어오던 구비자료를 토대로 구성된 내용은 '신라가 패망하자 고관대신들이 경순왕과 함께 고려에 귀부하기 위해 개경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이 즐겨 찾아 아끼던 기생 전화앵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전화앵은 되레 "대감들이나 가서 잘 사시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신라를 지키겠소"라며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

1996년 울산의 언론인이 활천리 일대 촌로들로부터 예부터 유명한 기생의 묘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거리를 측정해보니 경주성을 기준으로 성벽에서 30리 거리에 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열박령과 일치했다고 하여 2009년 발굴조사를 한 결과 도굴된 흔적이 있는 통일신라시대인 7세기 말의 묘로 횡혈식 석실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

『창기와 명기의 애환』, 이현희, 명문당, 1988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정포(鄭誧, 1309~1345)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중부(仲孚), 호는 설곡(雪谷). 도첨의찬성사 해(瑎)의 손자이다. 판선공 책(責)의 아들이며, 최문도(崔文度)의 사위이다.

정포는 1326년(충숙왕 13) 과거에 급제하였다. 얼마 뒤에 예문수찬으로 원나라에 표를 올리러 가다가 마침 원나라에서 귀국 중이던 충숙왕을 배알하게 되어 총애를 받게 되었다. 충혜왕 때에 전리총랑에서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가 되었다.

당시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상소하였다가 도리어 파면 당하였다. 이때에 어떤 이가 정포가 원나라로 망명하려 한다는 참언을 하여 끝내 울주(지금의 울산)로 유배당하였다. 유배 중에도 오히려 태연자약하여 활달한 장부의 기질을 잊지 않고 풍류생활을 즐겼다.

이때가 그의 나이 34세 때인 충혜왕 복위 3년(1342년) 가을인데,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에서 울주군수로 좌천되어 다음해 여름까지 근무했는데, 기간은 약 1년 이었다.

당시 울주의 풍광이 빼어난 여덟 곳을 골라내어 '울주팔경(蔚州八景)'이라는 사(詞)를 지었는데, 그 대상은 '태화루(太和樓)', '평원각(平遠閣)', '장춘오(藏春塢)', '망해대(望海臺)', '벽파정(碧波亭)', '백련암(白蓮巖)', '개운포(開雲浦)', '은월봉(隱月峯)' 등이며, 그 내용은 그의 문집인 설곡집(雪谷集)에 실려 있다.

정포는 유배지에서 풀리자 다시 출세의 의지를 가지고 원나라에 건너갔다. 원나라 승상인 별가불화(別哥不花, 別哥普化)가 그를 한번 보고 매우 호감을 가지게 되어 원나라 임금에게 추천하였다.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37세의 나이로 죽었다.

정포의 글 가운데 울산을 소재로 한 시가 다수 전한다.

【참고문헌】

『고려사』『신증동국여지승람』『익재난고(益齋亂藁)』『목은집(牧隱集)』『동문선(東文選)』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울산신문』, 2011.04.07

지통(智通, 655~ ?)

신라 후기의 승려. 의상의 10대 제자 가운데 1인이다. 이량공(伊亮公)의 하인으로 지내다가 7세 때 까마귀가 날아와 영축산(靈鷲山)에 있는 낭지(朗智)의 제자가 되라고 하였다.

영축산 골짜기에서 보현보살을 만나 계품을 받고 낭지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그가 영축산 동쪽에 있을 때 영축산 서북쪽의 반고사(磻高寺)에 있던 원효와 자주 접촉하였고, 원효는 그를 위하여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저술하였다. 그 뒤 의상의 제자가 되어 화엄종을 선양하였다.
의상이 소백산 추동에서 90일 동안 3,000명의 대중에게 『화엄경』을 강의하였을 때 그 요지를 뽑아 『추동기』 2권을 지어 세상에 유포하였다. 또, 『열반경라습역출십사음변』 1권을 저술하였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현재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지통골이라는 지명이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삼국유사』

차원부(車原頫, 1320~1398)

고려말 조선초의 학자·화가.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사평(思平), 호는 운암(雲巖), 시호는 문절(文節).
아버지는 지방어사 종로(宗老)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간의대부에 이르렀다. 정몽주(鄭夢周)·이색(李穡) 등과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다. 고려말 정치가 문란해지자 관직에서 물러나 평산의 수운암동에 은거했다. 이성계(李成桂)가 요동을 공격하게 되어 그 계략을 묻자 출병에 반대했다. 뒤에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가 공신으로 책록하려 했으나 굳이 사양했고, 정언·판전농시사 등의 벼슬도 받지 않았다. 일찍이 정도전(鄭道傳)·하륜(河崙) 등이 차씨(車氏) 외손의 서속(庶屬)이었음을 족보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그들의 원한을 샀는데, 평산으로 돌아가던 도중 송원에서 하륜 등이 보낸 자객에 의해 가속 80여 명과 함께 살해되었다. 고려에 충성을 다하던 송도의 두문동(杜門洞) 72인 중 한 사람으로 그림을 잘 그렸으며 특히 매화에 뛰어났다. 세종 때 황보인(皇甫仁)의 청원으로 신원되어 시중에 추증되었고, 울산 웅촌면 통천리의 자암서원(紫巖書院), 순천(順天) 운암사(雲巖祠) 등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운암실기(雲巖實記)』『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대동야승(大東野乘)』

처용(處容, ?~?)

신라 하대의 관리. 출신지 울산 개운포. 처용랑

설화 상으로는 동해 용왕의 아들이다. 헌강왕이 개운포에서 놀다가 돌아가려고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 길을 잃었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까닭을 물으니, 일관이 "이는 동해 용의 조화이오니 좋은 일을 행해 풀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그래서 이곳을 '개운포'라 하였다.

동해의 용이 기뻐해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덕을 찬양해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왕의 정사를 도왔다. 그리고 이름을 처용이라 하였다. 왕이 그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여 머물러 있도록 하고, 급간(級干: 級飡)의 관등을 주었다. 아내가 대단히 아름다워 역신(疫神)이 흠모한 나머지 사람으로 변해 밤에 몰래 그 집에 가서 동침하였다.

이 때 밖에서 돌아온 처용은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에 역신은 본래의 모양을 나타내어 처용 앞에 꿇어앉아 "내가 당신의 아내를 사모해 잘못을 저질렀으나 당신은 노여워하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긴다. 맹세코 이제부터는 당신의 모양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일로 인해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린 부적을 문에 붙여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들였다고 한다.

처용이 지어 부른 노래를 처용가(處容歌)라 하고, 춘 춤을 처용무(處容舞)라 하여 후대까지 전해 내려왔다. 한편, 처용을 당시 울산지방에 있었던 호족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혹은 당시 신라에 내왕하던 아라비아 상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는 경문왕가와 화랑의 친연성을 고려하여 화랑집단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삼국유사』『고려사』

『신라문화』 제26호, 「헌강왕대의 정치사회와 '처용랑망해사'조 설화」, 전기웅, 2005

효심(孝心, ?~1194)

고려 중기의 민란 주도자. 1193년(명종 23) 망명자를 모아 초전(지금의 울산)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정에서는 대장군 전존걸(全存傑), 장군 이지순(李至純)·이공정(李公靖)·김척후(金陟侯)·김경부(金慶夫)·노식(盧植) 등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특히, 이의민(李義旼)은 경주 출신으로 신라를 부흥할 뜻을 품고 효심·사미(沙彌) 등과 내통하니 적은 많은 물자를 제공하였다. 이의민의 아들 지순도 효심의 유혹에 이끌려 서로 통하자 군중의 기밀이 누설되어 여러 번 공격을 하여도 실패하게 되었다.

1193년 상장군 최인(崔仁)을 남로착적병마사, 대장군 고용지(高湧之)를 도지병마사로 삼아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토벌한바 효심 등 남적(南賊)은 타격을 입었다.

그러므로 득보(得甫)가 항복하고 다음 해 김사미도 투항하였다. 이어 남적의 괴수가 이순(李純)을 궁궐에 보내 항복하고 효심도 붙잡혀 반란은 평정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고려사절요』

『한국사』 7,「농민·천민의 난」, 변태섭, 국사편찬위원회, 1973

<조선 전기 인물>

고경명(高敬命,1533~1592)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 1557(명종 7)에 진사, 1558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성균관전적, 공조좌랑, 형조좌랑을 거쳐 3사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동 16년(1563)에 권신 탄핵사건에 연루되어 울산군수로 좌천되었다가 파직되었다. 선조 때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당쟁에 휘말려 사직, 파직, 복직을 거듭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서 항전하였고, 금산(錦山)에서 아들과 함께 순절하였다. 문집 『제봉집(霽峰集)』이 있다.

그가 울산군수로 재직할 때 쓴 시 "울산에 좌천되어 벗에게(癸亥冬 自弘文校理左授蔚山郡示金舜擧)", "유감(有感)", "국화(蔚山席上口號)", "갈매기(見白鷗有感)", "홀로 새는 밤 (夜坐)", "거문고를 켜면서(聞琴有感)", "대나무를 보고(新竹有感)", "봉화불(見夕烽有感)", "석류꽃(見榴花開有感)" 등이 전해진다.

【참고문헌】

『명종실록』『선조실록』『해동명신전』『제봉집(霽峰集)』

『태화강에 배 띄우고』, 송수환 역주

권근(權近, 1352~1409)

여말~선초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사숙(思叔), 호는 양촌(陽村)·소오자(小烏子). 시호는 문충(文忠).

1368년에 성균시 합격,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검열·성균관직강·예문관응교 등을 역임했다. 공민왕이 서거하자 정몽주(鄭夢周)·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배원친명(排元親明)을 주장했다. 1389년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로서 문하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다. 1393년(태조 2)에 왕의 부름을 받고 계룡산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 새 왕조의 창업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올리고, 왕명으로 정릉(定陵)의 비문을 지어 바쳤다. 그 뒤 새 왕조에 출사하여 예문관대학사(藝文館大學士)·중추원사 등을 지냈다. 하륜(河崙) 등과 『동국사략』을 편찬하였다.

그는 성리학자이면서도 사장(詞章)을 중시해 경학과 문학을 아울러 연마했다. 이색(李穡)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문하에서 정몽주·김구용(金九容)·박상충(朴尙衷)·이숭인(李崇仁)·정도전 등 당대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정진해 고려 말의 학풍을 일신하고, 이를 새 왕조의 유학계를 계승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저서에는 시문집으로 『양촌집』 40권을 남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편에 "태화루기"를 남겼다.

기문에 "울산 고을은 동쪽과 남쪽으로 큰 바다에 접해 있고, ...고을 서쪽 수리나 되는 곳에 큰 내가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이어 바다로 들어간다. 그 내가 동으로 꺾이는 곳에 물이 더욱 넓고 깊으니 이곳을 황룡연이라 한다. 그 북쪽에 돌 언덕이 깎은 듯이 벽처럼 섰으며, ...신라 때 절을 북쪽 언덕에 세우고 대화(大和)라 했는데, 서남쪽으로 누각을 이루었고 아래로는 못에 임했으며, ...건문(建文) 원년(1399) 기묘년 봄에 지금 국구(國舅)인 여흥백 민제(閔霽) 공이 사신으로 여기 왔다가 그 남쪽 누각이 이미 허물어진 것과 서쪽 역시 썩어 기울어진 것을 보고 사절을 머물고 주저하며 바라보다가 탄식하던 끝에 개연히 새로 지을 뜻을 가졌다. 조정에 돌아와서 잠시도 이를 잊지 못하더니, 3년 후 신사년 봄에 판사 안로생(安魯生) 군이 나가 이 도(道)를 관찰하게 되어 공에게 가서 작별하니 공이 그 일을 말했다. 이에 안군이 대답하기를 '어찌 감히 주야로 이 누각을 새로 세우고자하는 공의 부탁하심을 잊어오리까?'하였다. 임소에 가서... 한 달도 못되어 이루어 졌는데, 그 규모와 제도는 옛것보다 더욱 웅장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양촌집(陽村集)』『해동잡록(海東雜錄)』

김대위(金大渭, ?~?)

성종대 문신.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반와(盤窩)이며, 울산 연암동 출신. 절효공(節孝公)

김극일(金克一)의 증손이다.

성종(1469~1494) 때 판관(判官)을 지냈으며, 본가는 연암동 백련암(白蓮岩)에 있었는데, 집 앞에 한 평 가량의 암석이 있었고, 그 바위 아래에는 옥정(玉井)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임진 8월에 한포기의 연(蓮)에서 두 송이의 꽃이 겨우내 피어있다는 소문이 나자 구경꾼이 줄을 이었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백련암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는 여기에다 군자정(君子亭)을 건립하였다.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가 찬술한 기문(記文)이 있다.

【참고문헌】

『울산시사』 2,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김복일(金復一, 1541~1591)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의성. 자는 계순. 호는 남악(南嶽). 아버지는 생원 진(璡)이며, 병마절도사 성일의 아우이며, 이황의 문인.

1564년 사마시를 거쳐, 1570년 식년문과에 병과를 급제하여 학유(學諭)·전적(典籍)을 역임하였다. 형조·호조·공조의 낭관을 지낸 뒤, 전라도어사로 나가 탐관오리들을 숙청하였다. 1587년 울산군수, 이어 창원부사가 되어 폐단이 심한 그 곳을 잘 다스렸다. 경주교수가 되어 도의를 크게 일으켰으며, 성균관의 사예(司藝)·사성 및 풍기군수 등을 지냈다. 성일 등의 형제와 함께 안동 사빈서원(泗濱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학성지』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김순(金洵, 1511~1601)

중종 때 병마절도사 겸 울산지주사. 청백리. 본관은 경주. 영일군 기계면 화대리에서 출생. 휘는 순(洵), 자는 윤명(允明), 호는 우계당(友溪堂). 참의 김을범의 현손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을 역임하였다. 또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겸 울산지주사로 있을 때 많은 군사 시설을 하여 왜적들의 침범을 방위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소금과 고기 등을 매입하여 비축했다가 백성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또 대여하기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명종 때에 이르러 청백리에 책봉되었으며, 이러한 치적들을 기려서 자헌대부 판금의부사로 증작(贈爵)되었다.

병영과 수영에는 그를 기리는 거사비가 세워졌다. 묘는 영일군 기계면 지가리 구천산에 있다.

【참고문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김안국(金安國, 1478~1543)

조선 중기 문신·학자.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

1501년(연산군 7)에 생진과에 합격하고 1503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승문원박사, 부수찬, 부교리, 지평, 장령, 예조참의, 대사간, 공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중종 12년(1517)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각 향교에 『소학(小學)』을 권하고,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 등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1519년(중종 14)에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1532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좌참찬, 대제학 찬성 등을 지냈다. 문집에 『모재집(慕齋集)』이 있다.

울산관련 시로는 "개운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開雲浦望海有感)"·"어풍대(御風臺)"·"좌병영 마루에서(醉題左兵營軒壁)"·"태화루유람선(書泰和樓船)"·"울산학도에게 권함(勸示蔚山學徒)"·"언양학도에게 권함(勸示彦陽學者)" 등이 전해오는데, "어풍대"의 시서(詩序)가 이채롭다.

【참고문헌】

『연산군일기』『중종실록』『모재집』『태화강에 배 띄우고』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조선 중기 유학자·문신. 울산을 다스린 관원으로, 본관은 울산. 전라도 장성 출신.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湛齋). 시호는 문정(文正).

열 살 때 김안국(金安國)에게서 『소학』을 배웠고, 1531년에 성균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 이황(李滉) 등과 교우가 두터웠다. 1540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등용되었으며, 이듬해에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하고,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이 되었다.

1543년에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홍문관부수찬이 되어 세자보도(輔導)의 임을 맡았다. 특히, 기묘사화 때 죽음을 당한 제현(諸賢)의 원한을 개진하여 문신으로서 본분을 수행하였다. 그해에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중종이 죽자 제술관(製述官)으로 서울에 올라왔으나, 일 년도 채 못 되어 인종이 죽고 곧이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에 돌아갔다.

그 뒤 1554년까지 성균관전적·공조정랑·홍문관교리·성균관직강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시문에 능하여 10여 권의 시문집을 남겼고, 성리학 이론은 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문은 천문·지리·의학·산술·율력(律曆)에 정통하였다.

제자로는 정철(鄭澈)·변성온(卞成溫)·기효간(奇孝諫)·조희문(趙希文)·오건(吳健) 등이 있다.

저서로는 『하서집(河西集)』·『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서명사천도(西銘四天圖)』·『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참고문헌】

『중종실록』, 『명종실록』, 『하서집』
『학성지』 인물

김응상(金應祥, ?~1583)

조선중기 때 무관. 본관은 언양. 범서 말릉정에 거주. 자는 서백(瑞伯). 현감 덕윤(德潤)의 아들.

578년(선조 11)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임무를 띠고 명나라에 간 주청사(奏請使) 황림(黃琳)의 종사관이 되어 연경에 다녀왔다. 그 뒤 왕으로부터 비변사에 인재 천거령이 내렸을 때 곽흘(郭屹)에 의해 뽑힌바 있었으며, 뒷날 병마절도사에 올라 함경도지방을 노략질하던 여진족의 침략을 막다가 전사하였다. 좌부승지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선조수정실록』『직산읍지(稷山邑誌)』

『학성지』 인물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선산. 밀양출생. 자는 계온(季昷), 호는 점필재(佔畢齋). 아버지는 사예 숙자(叔滋)이고, 어머니는 밀양박씨로 사재감정(司宰監正) 홍신(弘信)의 딸이다.
세조 5년(1459)에 문과에 급제했다. 1462년 승문원박사로 예문관봉교를 겸하였다. 이듬해 감찰이 된 뒤 경상도 병마평사·이조좌랑·수찬·함양군수 등을 거쳐 1476년 선산부사가 되었다. 1483년 우부승지, 이어서 좌부승지·이조참판·예문관제학·병조참판·홍문관제학·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울산의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의 병마평사로 2년간 근무할 시절 한가위 날 병마절도사와 함께 태화강 중류의 선바위에 놀러 나와 「팔월 보름날 절도사를 모시고 선바위에서 놀다(八月十五日陪節度使遊立巖)」란 제목의 시 세 수(首)를 썼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쇠를 깎은 듯 열길이 넘는 기이한 바위가/ 못 가운데 거꾸로 꽂혔으니 그림도 그것만은 못하리./ 저녁 연기가 퍼져 층진 것이 반쯤 드러나는데/ 날아오른 들오리가 내려와서 물고기를 무네.// 바위 밑 물이 도는 곳이 용추(龍湫)인데/ 아마 시인이 이태 만에 노니는 것을 의아해 하리./ 문득 평지에서 바람과 우레가 일어날까 두렵지만/ 금세 가인(歌人)과 악공(樂工)을 재촉하여 물가로 내려가네.// 원융(元戎)과 담소하며 헤엄치는 피라미를 완상하고/ 흥이 나서 돌아오노라니 이슬이 물가에 흥건하네./ 취한 눈으로 말 머리 위의 단정한 달을 바라보고는 /문득 이미 중추가절(仲秋佳節)이 됐음에 놀라네.>

한편, 고려말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의 학통을 이은 아버지로부터 수학, 후일 사림의 조종이 된 그는 문장·사학(史學)에도 두루 능하였으며, 절의를 중요시하여 조선시대 도학(道學)의 정맥을 이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1486년에는 신종호(申從濩) 등과 함께 『동국여지승람』을 편차(編次)하였다. 무오사화 때 많은 저술들이 소실되었다.

자신의 '조의제문(弔義帝文)' 으로 일어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부관참시 당했다.

정몽주·길재 및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도학사상은 그의 제자인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김일손·유호인(兪好仁)·남효온(南孝溫)·조위(曺偉)·이맹전(李孟專)·이종준(李宗準)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뒤 중종반정으로 신원되었으며, 밀양의 예림서원(藝林書院), 선산의 금오서원(金烏書院), 함양의 백연서원(柏淵書院), 김천의 경렴서원(景濂書院), 개령의 덕림서원(德林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점필재집』·『유두류록(遊頭流錄)』·『청구풍아(靑丘風雅)』·『당후일기(堂後日記)』 등이 있으며, 편저로 『일선지(一善誌)』·『이존록(彝尊錄)』·『동국여지승람』 등이 전해지고 있으나, 많은 저술들이 무오사화 때 소실된 관계로 지금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시호는 문충(文忠)으로, 한때 문간(文簡)으로 바뀌었다가 숙종 때에 다시 환원되었다.

울산의 병마절도사를 지냈는데, 이때 울산의 경승지에 대한 다수의 시를 남겼다. 「태화루(太和樓)」·「우식곡(憂息曲)」·「치술령(鴟述嶺)」·「八月十五日陪節度使遊立巖」·「처용암(處容巖)」·「동백섬(冬栢島)」·「답청가(踏靑歌)」·「눈 온 날 호랑이 사냥(雪後射虎)」 등 다수의 시가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성종실록』『연산군일기』『점필재집(佔畢齋集)』『국조인물고』『해동명신전(海東名臣傳)』『연려실기술』『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

민제(閔霽, 1339~1408)

고려 말 선초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여흥 출신. 자는 중회(仲晦), 호는 어은(漁隱).사위가 태종이다.

1357년(공민왕7) 문과에 급제, 국자직학(國子直學)에 보직되었고,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전리정랑지제교(典理正郎知製敎)·성균사예(成均司藝)·전교부령(典校副令) 등을 역임하였다. 우왕 때는 지춘주사(知春州事)로 나가고, 다시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예의판서(禮儀判書) 등을 역임했다. 창왕 때 개성윤(開城尹)·상의밀직사사(商議密直司事)를 지냈다. 1389년(공양왕1)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역임했으며, 예조판서에 이어 한양부윤(漢陽府尹) 등을 지냈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고, 이어 예문춘추관태학사(藝文春秋館太學士)에 올랐다. 1394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유원지(柳源之)와 함께 명나라에 가서 연정(年正)을 하례(賀禮)하였다. 이듬해 여흥백(驪興伯)에 봉해졌으며, 영예조사(領禮曹事)에 올랐다. 1399년(정종1)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김반(金泮) 등 33인을 선발하였다.

1399년은 민제가 태화루를 방문한 해이며, 이때 무너져가는 태화루의 중건의지를 보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후일 태화루는 새롭게 일신하게 되었다.

1400년 판삼사사(判三司事)에서 문하우정승(門下右政丞)으로 임명되었으며, 곧 좌정승에 올랐다. 이듬해 순충동덕보조찬화공신(純忠同德輔祚贊化功臣)의 호를 받았으며, 여흥백에서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으로 개봉되었다. 1402년(태종 2) 이지직(李之直)·전가식(田可植) 등이 순군옥(巡軍獄)에 관련되자 그 뒤로는 문생들을 만나보지 않았으며, 같은 해 인사 문제로 탄핵을 받았다.

1406년 태종이 세자 지(祗)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할 때 하륜(河崙)·조영무(趙英茂)·이숙번(李叔蕃) 등과 함께 옳지 못함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명나라와 세자간의 혼사 문제로 하륜·조영무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장인이자 태종의 잠저시 사부였던 관계로 왕의 비호를 받아 무사하였다.

1408년 검교찬성사(檢校贊成事) 조호(趙瑚), 전 총제(摠制) 김첨(金瞻)·허응(許應) 등과 붕당을 지어 난을 도모하고 있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그의 성품이 평소 온후하고 청렴해 사치를 즐기지 않았던 관계로 태종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성명(性命)을 온전히 보존하였다.

그 해 병으로 눕게 되자 유배지에 가 있는 무구·무질 형제를 사간들의 여러 차례 반대 상소

에도 불구하고 문병 차 불렀으며, 자리에 누운 지 6일 만에 병사하였다.
그는 이단(異端)과 음사(淫祀)를 싫어해 강력히 배척했고, 불사(佛事)를 줄일 것을 청해 춘추장경(春秋藏經) 외는 모두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타고난 자질은 어질고 검소하였다.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특히 사학(史學)을 잘했고, 시평(詩評)도 잘하였다.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참고문헌】
『여지승람』『고려사』『국조방목』『연려실기술』『검려선생문집』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박복경(朴復卿, ?)

울산군수. 태화루 중수. 자는 세휴(世休).
성종 때 사람으로, 울산부사[1] 시절에 태화루를 중수하였다. 『여지승람』 울산군 누정에서, 서거정(徐居正)의 중수기에 이르기를 "...지난해 양사천(楊泗川)이 말하기를 '울산은 내 고을로서 지금 원(帝) 박후(朴侯)가 고을을 잘 다스려서 정치가 이미 잘 닦아지고 폐단이 이미 없어졌으며, 관부와 누관도 점차로 수선했습니다. 지금은 태화루도 중수해서 크고 넓은데 새로이 칠을 해서 옛날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으니 선생께서 글을 지어주소서, ...박후의 이름은 복경(復卿)이오, 자는 세휴(世休)이니, 무과(武科)에 뽑혀 안팎에 여러 벼슬을 거쳐 당시에 여러 칭찬이 있었다'고 한다."는 중수기가 전해온다.

【참고문헌】 『여지승람』

박원종(朴元宗, 1467~1510)

조선조 무신.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백윤(伯胤). 시호는 무열(武烈). 할아버지는 부지돈녕부사(副知敦寧府事) 거소(去疎)이고, 아버지는 적개좌리공신(敵愾佐理功臣) 중선(仲善)

[1] 성종 당시는 울산군이었으므로 부사가 아닌, 군수라 해야 옳다.

이며, 어머니는 행호군(行護軍) 허곤(許稛)의 딸이다.

박원종은 공신 가문에서 태어나 음보(蔭補)로 호군(護軍)이 되고, 1486년 선전관(宣傳官)에 올랐다. 이 해 무과에 급제하면서 성종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1492년 승정원동부승지로 발탁되자 사헌부에서 나이도 어린데다가 무과 출신에게 동반의 3품직을 제수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서경(署經)을 보류하자, 성종이 다시 공조참의로 발령하였다. 이에 대해 사헌부가 다시 반대하자 병조참지로 임명하였다. 강원도관찰사·동지의금부사를 역임하고 1506년 경기관찰사로 나갔다가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삭직되었다. 마침내 1506년 성희안(成希顔)·유순정(柳順汀) 등과 함께 반정(反正)을 모의해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하였다. 그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으로 우의정이 되고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으로 진봉(進奉)되었다. 좌의정을 거쳐 1507년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정난공신(定難功臣) 1등이 되고, 이듬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09년 영의정에 올랐고 이듬해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졌다. 무신 출신이었지만 문장을 즐겼고 서화를 좋아해 수집에 힘썼다. 중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여지승람』 울산 누정에 '이사정(二思亭)'은 병영에 있는데 절도사 박원종이 이 정자를 짓고 이름을 지어 임금을 생각하는 뜻을 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고문헌】

『여지승람』『성종실록』『연산군일기』『중종실록』『이요정집(二樂亭集)』『해동명신전(海東名臣傳)』『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연려실기술』『해동잡록(海東雜錄)』『대동기문(大東奇聞)』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조선 초기 문신, 학자. 본관은 달성(達成), 자는 자원(子元),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

1438년(세종 20)에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444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집현전박사 부수찬 부교리, 성균관사예 공조참의, 예조참의, 이조참의, 예문관대제학 동지중추부사, 예조참판, 형조참판, 좌참찬, 도총관, 한성부윤, 이조, 병조판서 좌찬성 등 두루 관통하였다. 문집 『사가집(四佳集)』, 『동인시화(東人詩話)』, 『필원잡기(筆苑雜記)』 등이 있다.

『여지승람』 울산군 누정에 "태화루 중신기(重新記)", 울산관련 시 "무제", "울산태화루", "울산객관에서(題客舘)" 등이 있다.

【참고문헌】

『여지승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행추진위원회, 2001

서거광(徐居廣, ?~?)

조선 초기의 문신. 달천부원군(達川府院君) 안주목사(安州牧使) 미성(彌性)의 아들이고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외손이다. 대학자인 사가(四佳) 서거정의 형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세종 때 언양현감으로 부임해서 선정을 베풀었기에 청덕비(淸德碑)를 세웠으며 의금부도사를 지냈다.

파주의 달성서씨문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현재 서거광의 묘자리는 원래 동생 서거정이 본인을 위해 잡아놓은 자리였는데, 형인 서거광이 그 묘자리를 자신에게 양보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서거정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서거광이 죽은 후 장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도통 관이 움직이지 않아 하는수 없이 동생 서거정이 형님에게 묘자리를 드리겠다고 하자 관이 움직였다고 하는 일화가 있으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서거정의 후손은 번창하지 못하고, 형 서거광의 후손들은 현달하여 3대 정승, 3대 대제학을 배출하는 조선의 명문거족이 되었다고 한다.

율곡(栗谷)의 문인으로 병조판서에 오른 서성(徐渻)이 이 집안의 중시조라 할 수 있는데, 서성의 장남 서경우(徐景雨)의 손자 서문중(徐文重)이 영의정까지 올랐다. 개화파로 이름이 높은 서광범(徐光範)과 서재필(徐載弼)은 서경우의 동생 서경수(徐景需)의 후손이다.

【참고문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행추진위원회, 2001
『조선의 문화공간』 달성서씨 편, 이종묵 저

송도(宋滔, ?~?)

울산 효문동, 연암동 일원 출생. 본관은 연안(延安).

평소 학업에 힘써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부모를 섬기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어머니가 소경이 되어 사물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소과(小科)에 합격하여 돌아와 부모님을 뵙자 문득 눈이 뜨이게 되었다고 한다.[2] 한번은 어머니의 병이 깊어져 생선회를 먹고 싶어 했으나 가난하여 사드릴 수가 없었다. 물가에 가서 얼음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니 붕어가 뛰어나와 이를 어머니께 바칠 수 있었고, 또 제사를 맞이했으나 제사음식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워 할 때 마침 산꿩이 집안으로 날아들어 이를 유용하게 제수에 쓰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의 상을 당하자 초막에서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면서도 불가(佛家)에서의 화장하는 예식은 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신하가 중국에 조공을 갔는데, 중국의 조정에서 우리나라의 인물 될 만한 사람을 묻자 이에 대답하기를, "송도와 박효랑(朴孝娘)으로서 바로 하늘이 감복한 효자이다"라고 하였다. 명(明)의 신종(神宗)황제가 패문(牌文)을 내리며 이르기를, "중원은 대국으로 왕상(王祥)같은 효자가 있으며 조선은 비록 소국이나 송도같은 효자가 있으니 이에 홍문(紅門)을 내린다"고 하였다. 이어 명의 황제는 직접 글을 지어 효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지극한 효성은 송씨(宋氏) 문중에 아직도 널리 전해져 오고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정려(旌閭)를 짓고 기념비를 세웠다.

【참고문헌】

『울산지명사』『여지승람』『학성지』

송순(宋純, 1498~1582)

조선 중기 문신. 경상도관찰사. 본관은 신평(新平), 자는 수초(遂初), 호는 면앙정(俛仰亭). 중종 14년(1519)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권신

[2] 『울산부읍지』, 인물조(『읍지』1 경상도, 아세아문화사) : 읍지에는 아버지가 눈이 먼 소경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잡자 고향 담양에 돌아가서 제월봉(霽月峰)아래 석림정사(石林精舍)와 면앙정(勉仰亭)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김안로가 패사(敗死)한 후 홍문관부응교를 시작으로 부제학, 사헌부집의, 경상도관찰사, 대사간, 대사헌,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우참찬 등의 요직을 지냈다. 담양의 귀산서원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숙정(肅定)이며, 문집에 『면앙집(俛仰集)』과 『기촌집(企村集)』이 있다.

울산관련 시 "울산동헌(次蔚山東軒韻)"·"망선대(望仙臺)"·"언양동헌(次彦陽東軒韻)" 등은 경상도관찰사 시절에 쓴 것으로 보인다.

"망선대(望仙臺)"의 시서(詩序)가 이채롭다. "좌병영 남쪽 30리쯤에 대(臺)가 있어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해운대와 으뜸을 다툰다. 하루는 병사 장세호(張世豪) 공, 수사 봉승종(奉承宗) 공과 울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염포를 지나 곧바로 대 아래로 갔다. 이 날은 마침 날씨가 화창하여 대에 올라 구경하기가 좋았다. 좌우 사람들이 모두 대에 아름다운 이름이 없는 것을 흠이라 하여 내가 '망선대'라 이름 짓고 아래와 같이 절구 두 수를 지었다. 장세호 공이 이를 새겨 병영 동헌에 걸고 영세토록 전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태화강에 배 띄우고』, 역주 송수환

안등(安騰, ?~?)

조선 초기 문신. 경상도관찰사. 본관은 죽산(竹山).

지사간원사 참지의정부사를 거쳐 태종 11년(1411)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대사헌, 충청도관찰사, 한성부윤,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여지승람』 울산 제영,

안노생(安魯生, ?~?)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태화루 중건.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춘곡(春谷), 호는 죽계(竹

溪), 이재(伊齋) 혹은 이재(頤齋).

1376년(우왕 2)에 문과에 급제, 1391년 4월 군자소윤(軍資少尹)으로 서북면찰방별감(西北面察訪別監)이 되어 국경에서 성행하던 원나라와의 밀무역을 철저히 단속하여 법을 위반하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강직하고 결백한 성품이 왕에게도 인정받아 이해 9월 세자가 명나라에 갈 때 수행원에 대한 검찰의 임무를 맡기도 했다.

조선이 건국되자 1399년(정종 1)에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로 다시 등용되었으며 1400년에는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겸 지제교(知製敎)로 중용되어 왕을 시종하였다. 1401년 1월에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가 되어 중국의 균름(困廩) 제도를 모방하여 경상도의 주·부·군·현에 곡식저장 창고를 지었다.

1403년(태종 3) 7월 좌사간(左司諫)이 되었으나 사간원에서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건의한 것을 두고 사헌부와 갈등이 재현되어 탄핵을 받아 1404년 1월 진주목사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7월 예조 우참의(右參議)로 조정에 복귀, 태종 6년 예조 참의(參議), 1407년에는 형조 우참의 등 여러 직을 두루 거쳤다.

『여지승람』 울산군 누정에 양촌(陽村) 권근의 '태화루기문' 중에 안노생이 태화루를 중수하는 내용이 전해진다. "...건문(建文) 원년(1399) 기묘년 봄에 지금 국구(國舅)인 여흥백 민제(閔霽) 공이 사신으로 여기 왔다가 그 남쪽 누각이 이미 허물어진 것과 서쪽 역시 썩어 기울어진 것을 보고 사절을 머물고 주저하며 바라보다가 탄식하던 끝에 개연히 새로 지을 뜻을 가졌다. 조정에 돌아와서 잠시도 이를 잊지 못하더니, 3년 후 신사(辛巳)년 봄에 판사 안로생(安魯生) 군이 나가 이 도(道)를 관찰하게 되어 공에게 가서 작별하니 공이 그 일을 말했다. 이에 안군이 대답하기를 '어찌 감히 주야로 이 누각을 새로 세우고자하는 공의 부탁하심을 잊어오리까'하였다. 임소에 가서... 한 달도 못되어 이루어 졌는데, 그 규모와 제도는 옛것보다 더욱 웅장했다...."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신당산에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여지승람』『고려사』『고려사절요』『정종실록』『태종실록』『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삼탄집(三灘集)』『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양희지(楊稀枝, 1439~1504)

조선 초기의 문신. 이예의 손서. 본관은 중화(中和), 자는 가행(可行), 호는 대봉(大峯). 1439년(세종 21)에 군수 양맹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집안이 가난하여 떠돌아다니다가 울산에서 타향살이를 했는데, 양근군수 이종근의 아버지인 충숙공 이예(李藝)가 그의 사람됨을 보고 한눈에 들었다. 문의현령도 지낸바 있었던 이종근이 공을 사위로 삼게 되었으니 충숙공 이예의 손서가 되어 울산에 살게 되었다.

어릴 적 가난할 때 원래 이름은 희지(熙止 또는 熙沚)였다. 1462년(세조 8)에 사마(司馬) 양시에 합격하고, 1474년(성종 5) 갑오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종의 부름으로 편전에서 알현하였을 때 왕께서 희지(熙止)를 희지(稀枝)로 고치게 하고, 정보(楨父)라는 자를 하사하였다. 이해에 검열에 임용되었으며,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치고 7도(道)를 안렴(按廉)하였다. 벼슬은 대사헌(大司憲), 한성부윤, 세자좌부빈객을 마지막으로 1504년에 말릉(秣陵) 마을에서 사망하여 부(府)의 함월산(含月山)에 장사지냈다. 공은 글씨를 잘 썼으며 문집에는 『대봉선생문집』이 있다.

【참고문헌】

『성종실록』『연산군일기』『중종실록』『국조방목』『여지승람』『학성지』

엄흥도(嚴興道, ?~?)

조선 초기의 향리, 지사(志士). 경상북도 영월군 출생. 본관은 영월. 좌복야 덕인(德仁)의 후손이며, 한저(漢著)의 아들로 1457년(세조 3) 영월의 향리로 있던 중 단종이 세조에 의하여 왕위를 뺏긴 후,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의 청령포에 안치되었다가 시해되자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아전 신분임에도 후환을 무릅 쓰고, 관을 마련하여 영월의 북쪽 5리쯤 되는 동을지(冬乙旨)에 몰래 장사지냈다. 기리고는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마음에 달게 여긴다는 말을 남기고, 가족과 함께 남하하여 문경·울산 등지로 숨어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선조 때 주손(胄孫) 한례(漢禮)에게 호역을 면제하고, 노산군의 묘역을 수호하게 하였으며, 현종 때 송시열의 건의로 자손이 등용되게 되었다. 숙종 때 공조참판에 추증되었다가 뒤에 공조판서에 가증되었다. 시호는 충

의(忠毅)이다.

영월 영흥리의 정려각(旌閭閣) 창절서원(彰節書院), 문경 산양면의 의산서원(義山書院), 울주 온산읍 화산리의 원강서원(圓岡書院)에 배향되었는데, 이중 울주군 온산읍의 원강서원은 1994년 인근의 공단확장에 따라 울주군 삼동면 둔기로로 옮겨지였으며, 1998년 10월 19일에 '증 공조참판 엄공 원강서원비'가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호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장릉지(莊陵誌)』

『엄호장실기(嚴戶長實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대동기문(大東奇聞)』

『영남인물지』, 2004

이담룡(李聃龍, ?~?)

언양현감. 본관 담양(潭陽). 밀양 출신.

1500년(연산군 6)에 언양현감으로 부임하여 토성(土城)을 석성으로 고쳤다.

【참고문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행추진위원회, 2001

『울산읍지』 1934 권2 인물(언양)

이문화(李文和, 1358~1414)

여말선초 문신.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백중(伯仲), 호는 오천(烏川). 평장사(平章事) 지저(之氐)의 6대손이며, 아버지는 전공판서(典工判書) 심(深)이다.

1380년(우왕 6) 문과에 장원 급제해 우정언·우헌납·예문응교를 거쳐 경상도안렴사를 지내고, 공양왕 때 우사의를 역임하였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좌간의대부에 등용되고 1395년(태조 4) 검교시중직(檢校侍中職)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1397년 좌승지를 거쳐 이듬해 도승지 겸 상서윤을 지냈다.

1399년(정종1) 생원시를 관장하고 이듬해 첨서의흥삼군부사(簽書義興三軍府事)가 되어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2년(태종 2) 경상도도관찰출척사로 외방에 나가고 이어 참찬의정부사·사평부우사를 거쳐 예문관대제학·대사헌을 지냈다. 1405년 예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전라도도체찰사 임무를 대행하고 이어 명나라 황엄(黃儼)의 접반사가 되었다. 1408년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그 해 처녀진헌사(處女進獻使)로 명나라에 갔다.

1413년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해 참찬의정부사가 되었다.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 장흥의 금계사(金溪祠), 대구의 서계서원(西溪書院), 함안의 도천사(道川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공도(恭度)이다.

『여지승람』 울산 고적의 이첨(李詹)의 기문에 등장한다. 여말 왜구의 난리가 없는 해가 없음으로 백성들 중에 재산이 없는 자는 다 떠나고 남은 자가 없었다. 지주(知州)된 자가 인신(印信)을 가지고 계림성에 와서 살았다. 이때 성균사예(成均司藝) 이문화가 경상도 염문에 나설 때에 이곳에 와서 소모진을 설치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두고 군사들을 농사짓는데 붙이더니 가을이 되자 수확이 배나 되어 흩어졌던 백성들이 편안히 모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이문화의 아버지 이심(李深)도 지울주사(知蔚州使)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고문헌】

『여지승람』『고려사』『고려사절요』『태조실록』『정종실록』『태종실록』『증보문헌비고』『대구읍지』

이예(李藝, 1373~1445)

여말선초 무신. 외교관. 학성이씨의 시조. 울산 출생으로 추정. 본관은 학성(鶴城). 호는 학파(鶴坡). 시호는 충숙(忠肅).

1396년 기관(記官) 박준(朴遵)과 함께 왜적에게 잡혀간 울산군지사(蔚山郡知事) 이은(李

殷) 등을 시종하여 돌아오게 한 공으로 아전의 역을 면제받고 관직에 올랐다.

1400년(정종 2)에는 어렸을 때 왜적에게 잡혀간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조정에 자청하여 회례사(回禮使) 윤명(尹銘)을 따라 일본의 삼도(三島)에 갔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1401년 이키도(壹岐島)에 사신으로 가서 포로 50명을 송환시키는데 기여한 공으로 좌군부사직(左軍副司直)에 임명되었으며, 1410년 까지 해마다 통신사가 되어 삼도(三島)에 왕래하면서 포로 500명을 송환하는데 공을 세웠다.

1416년에는 유구국(琉球國)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포로 44명을 찾아왔고, 1419년(세종 1)에는 중군병마부수사(中軍兵馬副帥使)가 되어 삼군도체찰사 이종무(李從茂)를 도와 대마도의 왜적을 소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후에도 일본을 40여 차례나 왕래하면서 포로송환과 무역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1438년 중추원첨지사에 올랐으며, 1443년 왜적이 변방을 약탈하자 자청하여 대마도체철사가 되어 포로 7명과 도적질한 왜인 11명을 찾아온 공으로 중추원동지사로 승진하였다. 조선 초기에 사명으로 일본에 다녀온 것이 모두 40여 차례나 되었다.

이예는 태조 . 정종 . 태종 . 세종 4대에 걸쳐 화전(和戰) 양면으로 충성을 다한 공으로 상호군(上護軍)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을 가수(加授)하였다.

1737년 사림의 공의(公議)에 의하여 사우(祠宇)를 유허(遺墟)에 창건하여 묘호(廟號)를 상충(尙忠)이라 하고 사호(祠號)를 용연사(龍淵祠)라 하였으며, 1792년 사우를 문수산 남쪽 석계리에 옮겨 석계사(石溪祠)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대원군의 원사훼철 때 혁파되어 사묘(私廟)로 되었다가 1886년에 다시 향사(鄕祠)로 되었다. 그 후 1901년에 시호가 논의되다가 1910년에 시호를 충숙공(忠肅公)이라고 사액하였다.

현재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에는 그의 11대손 이의창(李宜昌)에 의해 건립된 것이라 전해오는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이 있다. 이 집은 이후 고종 때에 이르러 이의창의 증손인 이장찬(李璋燦)에 의해 중수가 이루어졌다.

유고로 『학파실기(鶴坡實記)』가 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태종실록』『세종실록』『학파실기』『학성지』

이은(李殷, ?~?)

울주지군사(知郡事). 왜구가 학성을 공격하고 그는 일본으로 잡혀갔는데, 끝내 절의를 굽히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탄복하였다. 뒷날 나라에 돌아와 벼슬이 경상도관찰사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학성지』

『여지승람』 울산 명환

이종근(李宗謹, ?~?)

조선 초기 무관. 이예의 아들, 이종실의 아우이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벼슬은 문의현령(文義縣令)을 지냈다.

【참고문헌】

『학성지』

이종실(李宗實, ?~?)

본관은 학성(鶴城). 충숙공(忠肅公) 이예(李藝)의 아들로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수군절도사에 이르렀다.

이종실은 아버지 이예의 대를 이어 통신사가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신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순직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이종실의 통신사 임명(세조 5년 8월 23일)과 부산에서 출항하여 풍랑을 맞아 침몰(세조 5년 10월 8일)하는 경위를 선군(船軍) 한을(韓乙)이 돌아와 세조 임금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세조 6년 1월 4일)하고, 그에 따른 임금의 지시 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세조 9년 7월 14일 기록에 일본 국왕이 보낸 국서의 내용이 있는데, 일본 국왕이 쿄토 천룡선사(天龍禪寺)에 수륙대재회(水陸大齋會)를 베풀어 송처검(宋處儉)과 이종실의 명복을 빌도록 했다고 되어 있다.

조정(朝廷)에서 예관(禮官)을 보내어 초혼(招魂)하여 장사를 지냈으며 경상도좌수사로 제

수하였다.

【참고문헌】

『학성지』

『울산남구문화』 7집, 「통신사 이종실의 조난 사고」, 이준락, 2009

이종주(李從周, ?~?)

청안이씨이며, 이양길(李陽吉)의 아들인 그는 지울주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 울주철장관을 지냈다. 1399년(정종 1) 관직에 있을 때 행려자를 구호하기 위해 자신의 봉급에서 출연하여 울산과 경주사이에 있었던 혜리원을 조성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는 내용을 혜리원기(惠利院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그의 가문에서는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보물 제1006호)'를 전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울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중 고신왕지는 왕이 관직을 제수하는 사령왕지로 총 4행으로 초서체로 되어 있으며, '조선왕보'라고 직인되어 있다. 왕지는 임금이 내리는 분부를 말하며, 조선시대 세종 때 이르러 교지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고신은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이며, 이 문서는 조선 전기의 관제 및 인사행정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청안이씨세보』

이제신(李濟臣, 1536~1584)

조선 초 문신. 울산군수.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몽응(夢應), 호는 청강(淸江). 병마사 문성(文誠)의 아들이며, 영의정 상진(尙震)의 손자사위이다.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7세 때에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조식(曺植)이 한 번 보고서 기이하게 여겼다. 17세 때 용문산으로 조욱(趙昱)을 찾아가 학업을 닦고, 1558년

(명종 13) 생원시에 합격, 이어서 1564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권지정자에 보임되었다. 이어서 예문관검열·성균관전적·형조정랑·공조정랑·호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선조가 즉위하여서는 예조정랑으로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사헌부감찰·사간원정언·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오상상(吳祥常)이 신망하여 사은사의 종사관으로 선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71년(선조 4)에 울산군수가 되어서는 백성을 교화롭게 다스려 형제가 쟁송을 해도 효성과 우애로써 공론을 세워 곧 그치게 하였으며, 법도 있게 다스려 문장(文章)과 기절(氣節)이 설곡 정포와 같았다라고 한다. "태화루"라는 시를 남기고 있다.

1578년 진주목사가 되어 선정을 펴서 공이 많았는데, 이때 토호들의 모함으로 병부(兵符)를 잃고 벼슬을 사임, 향리에 은거하였다. 1581년 강계부사로 다시 등용되고, 이어서 함경북도병마절도사가 되었으나, 1583년 여진족 이탕개(尼湯介)가 쳐들어와 경원부가 함락되자, 패전의 책임을 물어 의주 인산진(麟山鎭)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시문에 능하고 글씨는 행서·초서·전서·예서에 모두 뛰어났다. 1584년 경연관 이우직(李友直)의 특청으로 신원되어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청백리에 책록되었다.

저서로 『청강집』·『청강소설』·『진성잡기(鎭城雜記)』 등이 있으며, 시호는 평간(平簡)이다.

【참고문헌】

『학성지』

『태화강에 배 띄우고』 송수환 역주

이지대(李之帶, ?~?)

조선 초기 무신. 호는 죽은(竹隱). 고려 말 문하시중이었던 익재 이제현의 4세손.

무과에 급제하고 경상 수군만호 역임 시 왜구를 격퇴한 공이 혁혁한 것으로 전한다. 울주군 두서면 중리의 논밭 사이에는 천연기념물 제64호로 지정된 '두서면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는 한성부 판윤을 지낸 이지대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와서 연못가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지대의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연못은 논과 밭으로 변하였으나, 나무는 신목(神木)으로 알려져 아들을 낳으려는 부인들이 밑 부분의 썩은 구멍에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묘소는 경주시 명활산의 하배동에 있다.

【참고문헌】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이첨(李詹, 1345~1405)

여말선초 문신. "읍성기(邑城記)" 작성.

본관은 신평(新平). 자는 중숙(中叔), 호는 쌍매당(雙梅堂).

1365년(공민왕 14)에 감시(監試)의 제2인으로 합격했고, 1368년 문과에 급제해 예문검열이 되고, 이듬해 우정언에 이어 1371년 지통사(知通事)로 권농방어사(勸農防禦使)를 겸하였다. 그 뒤 1375년(우왕 1) 우헌납에 올라 권신 이인임(李仁任)·지윤(池奫)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10년간 유배되었다.

1388년 유배에서 풀려나 내부부령(內府副令)·예문응교를 거쳐 우상시(右常侍)가 되었고, 1391년(공양왕 3) 좌대언(左代言)이 되었다. 이어 지신사(知申事)에 올라 감사를 맡았으나, 이 해에 장류(杖流)된 김진양(金震陽) 사건에 연루되어 결성(현재 충청남도 홍성)에 다시 유배되었다.

조선조 건국 후 1398년 이조전서(吏曹典書)에 등용되어 동지중추원학사(同知中樞院學士)에 올랐다. 1402년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 올라 하륜(河崙)과 함께 등극사(登極使)의 부사(副使)로서 명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명에 다녀왔다. 이때 고명(誥命: 명에서 조선의 왕을 인정하는 승인서)과 인장(印章을 고쳐 주도록 주청(奏請)하였다. 1403년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하륜 등과 함께 『삼국사략(三國史略)』을 찬수했고, 소설 『저생전(楮生傳)』을 지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많은 시를 남기고 있으며, 유저로는 『쌍매당협장문집(雙梅堂篋藏文集)』이 있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여지승람』에 부의 읍성기(邑城記)에 당시의 울산의 사정을 잘 그려놓고 있다. 또 울산읍지에 전하는 그의 시 무제(無題)에 번역자가 "처용암"이라 붙였다. 또 『동문선(東文選)』에 그가 울주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 쓴 시 "울주잡제(蔚州雜題)"가 전한다.

【참고문헌】

『여지승람』『학성지』

『태화강에 배 띄우고』, 송수환 역주

임훈(林薰, 1566~1584)

언양현감.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중성(仲成). 호는 자이당(自怡堂), 고사옹(枯査翁), 갈천(葛川). 진사 득번(得蕃)의 아들.

1540년(중종 35)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독서(讀書)하였고, 1553년(명종 8) 관천(館薦)에 의하여 사직서참봉이 되었다가 이듬해에 집경전참봉으로 옮겼다. 그 뒤 제용감참봉으로 옮겼으나 부임하지 않았는데, 1555년 전생서참봉이 되었다가 얼마 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80세가 넘은 노부를 봉양하여 1566년 관찰사의 추천으로 효행의 정려를 받았다. 1566년(명종 21) 언양현감에 발탁되었고, 이 고을에 와서 유학풍(儒學風)을 진작 시키고 좋은 정책을 써서 현민을 편안하게 했다. 이 소문이 조정까지 알려졌다. 1569년(선조 2) 군자감주부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곧 비안현감을 거쳐 1573년 지례현감이 제수되었는데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자, 곧 종묘서영(宗廟署令)에 제수되었지만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얼마 뒤 장악원정을 거쳐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냈고, 1582년 장례원판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안의의 용문서원(龍門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갈천집』이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참고문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장일선(一禪, 1488~1567)

조선조 선승(禪僧). 울산 출신. 호는 휴옹(休翁), 화선자(和禪子), 경성당(慶聖堂), 경성(敬聖). 아버지는 위한(衛韓), 어머니는 박씨(朴氏)이다.

어머니가 맑은 구슬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리하여 어른 같은 티가 났다. 구운 거나 비린내 나는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야채를 즐겨 먹었다. 일찍이 양친을 여의고 삼년상을 치르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보고 담박하고 욕심이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13세가 되자 단석산에 들어가 해산법사(海山法師)에게 의지하면서 3년 동안 힘든 일에 종사하였다. 16세에 머리를 깎았으며, 24세 때 묘향산 문수암(文殊庵)에서 고행(苦行)정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리산에 들어가 지엄(智儼)을 뵈니 단번에 큰 그릇이 될 만함을 알아보고 일갈하였다. "솔솔 부는 바람소리, 휘영청 밝은 달빛, 뭉게뭉게 피는 저 구름, 지줄되며 흐르는 물소리, 이런 것들의 사연을 알고 싶거든 조사의 빗장을 풀고 참구(參究)하라." 는 지엄의 지도를 받아 활구(活句)를 깊이 참구하였다.

그 뒤 금강산 시왕동(十王洞)에서 좌선하다가 오도(悟道)하였는데, 이로부터 항상 경절문(經截門: 문자나 언어를 떠나 수행의 지위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證果를 얻는 교법)의 언구를 사용하였다. 그 뒤 표훈사(表訓寺)의 승당(僧堂)에서 한해를 보내고 상원암(上院庵)에서 2년을 안거하였다.

1536년 중종이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신천(新川)을 막게 하였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도청(都廳)의 대관(大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관은 그의 비범함을 알고 반달 동안 함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대부와 서민들이 소문을 듣고 보시(布施)하여 명성이 퍼지자 사헌부에서 세상을 미혹되게 한다는 이유로 금부(禁府)에 가두고 국문하였다. 그러나 늠름한 태도와 곧고 이치에 합당한 말에 감복되어 방면하였다.

그 뒤 서산(西山)에서 9년 동안 은거하다가 1544년에 묘향산 보현사(普賢寺) 관음전에 머물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이때 의웅(義雄) 등 문인들이 당(堂)을 세우고 경성(敬聖)이라 하였다.

1568년 2월 30일 제자들에게 "모든 인자(仁者)들은 정념(正念)을 가지고 애착을 품지 말며, 또한 속(俗)을 따라서 쓸데없이 일을 떠벌이지 말라." 고 당부하고, 자신의 시체를 새와 짐승에게 먹이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긴 다음 단정히 앉아 입적하였다. 나이 80세, 법랍 65세였다. 제자로는 의웅·의변(義卞)·선등(禪燈)·일정(一精)·성준(性峻) 등이 있다.

【참고문헌】

『청허당집(淸虛堂集)』『동사열전(東師列傳)』

『조선불교통사』, 이능화, 신문관, 1918

『울산문화연구』 창간호, 「경성당 휴옹 행록의 역주」, 김송태, 울산남구문화원, 2008

정세필(鄭世弼, 1494~1566)

조선전기 무신.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겸 울주지주사. 본관은 영일. 자는 백훈, 호는 임헌. 정몽주의 5대손이다.

1534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기용되지 않다가, 1538년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일찍이 이황 . 오건 등과 교유하여 도의에 밝았으며,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겸 지울주사로 있을 때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났다고 한다. 선정을 베풀었기에 후에 청백리에 책록되어 선정비를 세웠다.

【참고문헌】『영일정씨족보(迎日鄭氏族譜)』

천만리(千萬里, 1543~?)

본관은 중국 영양(穎陽). 자는 원지(遠之). 호는 사암(思庵). 명나라에서 귀화하였다. 아버지는 종악(鐘嶽)이며, 어머니는 병부시랑 전탁(錢鐸)의 딸이다.

서촉(西蜀) 종북산(終北山) 천고봉(千古峰) 만인암(萬仞巖) 밑에 살았다 하여 성을 천씨로 하였다 한다. 9세에 외삼촌 전륜(錢倫)에게 의탁되어 공부하였다. 1571년 무과에 급제하여 1575년에 총절사(總節使)가 되어 몽고군을 격퇴하였다. 그 공으로 내직인 내위진무사(內衛鎭撫使)가 되었으나 남의 참소를 입어 양릉(陽陵)에 귀양살이하였다.

귀양에서 풀려나 태청전수위사(太淸殿守衛使)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이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이 때 조병영량사(調兵領糧使)로서 아들 상(祥)과 함께 이여송(李如松)을 따라 조선에 왔다. 평양전투를 비롯하여 곽산·동래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에서 전공을 세웠다.

왜란이 끝나자 1600년(선조 33) 8월 만세덕(萬世德)·이승훈(李承勛)은 귀국하였으나 그는 따라가지 않고 조선에 머물러 살았다. 선조는 그의 전공을 생각하여 그를 화산군(花山君)에 봉하고 전(田) 30결을 급복(給復)하였으며 그의 아들 상도 뒤에 한성윤에 승진시켰다.

저서로 시 44수와 문 2편이 『사암천문집』에 전한다. 고성의 호암사(虎巖祠), 청도의 황강사(皇岡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참고문헌】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사암천문집(思庵千文集)』

홍경손(洪敬孫, 1409~1481)

조선 초기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길보(吉甫). 호는 우국재(友菊齋).

1435년(세종 17)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439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승문원의 정자 저작박사를 역임하고, 교리 감찰 등을 지냈다. 경상도관찰사, 형조정랑, 동지성균관사를 역임하였다. 인물과 학문은 뛰어났으나 고려왕실의 외손이어서 한직과 무직으로 일관하였다. 문집『우국재집』이 있고, 『여지승람』에도 시문이 다수 실려 있다.

"평근당(平近堂)"이라는 시가 『울산읍지』 제영 조에 실려 있다. 평근당은 언양 동헌의 이름이다. 후손들이 그를 추모하여 지은 재실 '모국재(慕菊齋)'가 다개리에 있다.

【참고문헌】

『울산읍지』, 1935

『태화강에 배 띄우고』, 송수환 역주

홍여방(洪汝方, ?~1438)

조선 초기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자원(子圓). 호 연생당(戀生堂).

1401년(태종원년) 문과에 합격하고, 예문관검열, 사헌부집의, 이조참의, 강원도관찰사, 예조참판, 사헌부대사헌을 지냈다. 대사헌 시에 병조의 아전을 잘못 문책하여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한성부부윤, 좌군총제, 경상도관찰사, 예문관대제학, 이조판서를 지냈다. 언양에 관한 그의 시가 전한다.

【참고문헌】

『여지승람』 언양현 제영.

황여헌(黃汝獻, 1486~？)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헌지(獻之). 호는 유촌(柳村). 영의정 희(喜)의 현손이며, 보신(保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종형(從兄)이고, 아버지는 부사 관(灌)이며, 어머니는 집의(執義) 강미수(姜眉壽)의 딸이다. 맹헌(孟獻)의 아우이다.

1509년(중종 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저작·박사를 거쳐, 1511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이조좌랑을 역임하고 1515년 전적이 되었다. 이어 이조참의와 울산군수를 지냈으나, 1533년 사건으로 금산(金山) 옥에서 도망하였다가 다시 체포되어 장류(杖流)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혐의가 있는 전 도사 정공청(鄭公淸)의 죄를 폭로하는 투서를 사헌부에 낸 뒤 양사(兩司)의 주청에 의하여 감형, 석방되었다.

문장과 글씨로 소세양(蘇世讓)·정사룡(鄭士龍)과 함께 당대에 이름이 있었고, 「죽지사(竹枝詞)」라는 작품은 명나라에서도 격찬을 받았다 한다. 저서로 『유촌집』이 있다.

【참고문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임난시기 인물>

견림(堅霖, 1546~ ?)

해주인. 참의 중근의 증손이며 세걸의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출생했다. 식년중시 잡과(의료직)에 급제하여 내의원직장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임란 때 종질 천지와 함께 창의하였다. 경주지역 여러 전투에서 적을 물리치고 동년 8월에는 경주성 복성전에 나아가 역전분투 하였다.

1596년 9월 종질 천지와 함께 대구 팔공산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내의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견천지(堅川至, 1546~1597)

해주인. 자는 유원, 호는 송고. 훈도 응기의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종숙 림과 함께 창의하여 동년 4월 23일 울산 의사들이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창의거병했다는 소문을 듣고 동년 5월 5일 류백춘 의사와 함께 경주 의병 500여 명을 이끌고 함월산성으로 달려가 울산 의병장 박봉수에게 격문을 전달하고 좌병영 탈환계획에 동참하여 왜적을 몰아내고 병영을 회복하는 데 공을 세웠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다. 이듬해(1593) 2월 태화강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며,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정유재란 때(1597)는 그해 9월 팔공산회맹에 참여하였으며, 12월에 울산 도산에 적이 대거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용전분투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일시 관문성으로 싸우다가 이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명나라 장수가 그를 일컬어 동해명장이라 크게 칭송하였으며, 진중의 모두가 훌륭한 간성을 잃었다고 탄식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장으로 제수되었다. 후손들에 의해 『송고실기』(1921)가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고곤(高崑, ?~?)

제주인. 생몰 미상. 부장 세명의 아들로 울산 북구 농소3동(가대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주부에 제수되었으며, 창표당안에 만도 (15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고덕곤(高德崑, ?~?)

제주인. 임란의사 석남의 아들로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가친인 석남을 따라 백형 덕신, 중형 덕령, 종제 언장과 더불어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이듬해(15930 족종인 고언백 장군이 경상좌병사로 부임하자 그의 진영에 집안 5의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형산강, 안강, 영천, 울산 등지의 여러 전역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고 적을 격퇴하는 데 공헌하였다. 1594년 9월 좌병사 고언백이 지휘하는 대구 팔공산 전투에 가친과 함께 나가 분전하던 중 부친이 불행히도 순절하였다. 공은 난중에도 백형 덕신, 중형 덕령과 함께 염습반구하여 장례를 치러 충과 효를 다 했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출신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 28원 중 일인으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고언관(高彦寬, ?~?)

제주인. 출생 및 상계는 미상. 임란 때 족친 고처겸과 더불어 창의하여 공을 세워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으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10원(員) 중 1원(員)이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고처겸(高處謙, 1558~ ?)

제주인. 자는 문겸, 호는 이성헌. 예빈시참봉 극중의 아들로 울산 북구 농소3동(가대리)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동년 4월 23일 동지 박진남, 김응방, 심환, 박응정, 이한남 등과 기박산성에서 결진.편대 하였다. 좌병영탈환전에 좌위장으로 추대되어 동년 5월 10일의 수복작전에 공을 세웠다. 이어 6월 9일의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9월 8일 경주성 복성전에 참여하여 수복하는 데 공을 세웠다.1593년 2월 관문성을 지키던 경주 의병장 황희안으로부터 왜적이 침공한다는 연락을 받고 울산 의병장 김흡, 김범 등과 함께 의병을 이끌고 관문성으로 달려가 경주 의병장 이의잠, 최봉천 등과 합세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다.
1598년 도산성전투에 참전하여 마귀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이때의 공으로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 28원 중 일인으로 모셔졌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권순(權恂, 1536~1606)

안동인. 자는 언침, 호는 쌍천당. 영의정 강정공 철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선조 10년(1577) 의금부도사를 거쳐 군자감주부에 올랐다. 임란 때 국왕이 몽진할 때 도보로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이어서 동생인 도원수 권율의 막하에서 행주산성대첩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이때의 전공으로 양주목사에 제수되었고 이어 평산, 봉산군수로 임명되었으나 신병으로 부임하지 못했다. 정유재란 때는 명장 심유경의 접반사로 서로(西路)를 세 번이나 다녀왔으며 명장 이총병(李摠兵)을 따라 울산의 도산전역(島山戰役)에도 두 번이나 참전하였다. 이와 같은 전공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고, 동왕 33년(1600)에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에 승진되었다. 원종2등공신에 녹훈되고, 동왕 39년(1606)에 졸(卒)하니 조정에서 의정부좌참찬 겸 의금부사, 동지성균관사를 추증하였다. 선무원종2등공신

【참고문헌】

『 행장/ 경주창의록』

김광복(金光福, 1565~ ?)

경주인. 자는 경원, 호는 죽포. 경상좌병사를 지낸 판중추부사 우계당 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골상이 크고 경전과 역사책을 널리 읽었으며 아울러 병학에 정통했다. 선조 때 무과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 훈련원판관에 이르렀다. 임란 때 아버지의 명으로 창의하여 아우 광록과 조카 몽화와 더불어 군무를 감독하였다. 임진년(1592)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계사년(1593)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경주부윤 윤인함이 정병을 내주어 서생포와 태화강 전투에서 여러 번 싸워 대첩을 거두었다. 이러한 공으로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숙종 때 병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고종 때 자헌대부로 추증되었다. 고향인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리 학남사에 제향 되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후손들은 포항 기계와 울산, 양산 등지에 세거하고 있으며, 묘소도 그곳(기계)에 있다. 전래하는 문헌과 후손들은 원종공신2등이라고 하지만, 녹권에는 상주 출신 광복(光輻)이다.

【참고문헌】

『 후손들을 찾아 실제 조사함』

김금복(金今福, 1554~ ?)

김해인. 상계, 몰년 미상. 동면 농소리 거. 호적에 관이 主簿, 후손이 서문내리에 거한다고 되어 있다. 태화강전투, 성황당전투, 마등오전투 등의 기록이 전한다. 녹권239쪽에는 [寺奴金今福]으로 등재되어 있다. 선무원종삼등공신

【참고문헌】

『 선조실록』,『 충의사 심의서류』

김녹수(金錄水, ?~?)

김해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원종공신1등 윤복의 종제이다. 임란 때 종형 윤복을 따라 창의하여 경주성 수복전에서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만도(15원)로 모셔졌다. 장보(章甫)였으나 뒤에 통정대부에 올랐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김대성(金大成, ?~?)

김해인. 생거지, 상계, 생몰년도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공암, 달현전투에 이어 개운포와 태화강전투, 영천성수복전에 출정하여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득례(金得禮, 1562~1597)

김해인. 자는 의칙, 호는 양와. 증조 천익이 울산 하부면 양정으로 입향했으며, 사복시정 상국의 아들로 북구 양정동에서 태어났다. 158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에 이르렀다. 임란 때 향인 박언복, 인립 부자와 더불어 창의하여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으며, 경.울간의 여러 전역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계사년(1593)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여 태화강 사수를 결의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조명연합군이 도산성을 칠 때 경주 관문성 부근 당진에서 아우 득의, 아들 준민과 더불어 적을 맞아 싸우다가 6월 6일 순절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어모장군 훈련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그 후 1862년 가선대부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고 이듬해 다시 병조판서로 가증하였다. 1906년 경주 사림의 공의로 경주 외동읍 활성리의 활성사에 제향되었다. 유집 『양와실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양와공실기』

김막실(金莫實, 1564~ ?)

김해인. 자, 호 부전. 선조 30년 11월의 기록에는[金莫失]로 되어 있으며, 녹권에는 수문장 金莫實로 되어 있다. 충의사의 심의 서류에, "金莫失 本 金海 南面 溫陽里 居. 명종 갑자(1564)생 官 部將 호적 有. 현종 호적에 金莫實 후손 射廳里 居."로 되어 있다. 선무원종3등공신

【참고문헌】

『 선조실록』,『 충의사 심의서류』

김반수(金磻守, 1570~1627)

경주인. 초휘는 磻壽.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에서 출생했다. 1590년 식년무과에 급제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무훈을 세워 선조 32년(1599) 훈련원부정에 제수되고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수문장으로 후일 1616년에 군자감정으로 승자되었다. 언양 작천정 마애비에 음각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범(金範, ?~?)

김녕인. 자는 홍보(洪甫), 호는 석계(石溪). 백촌 김문기의 후손으로 상주에서 태어나 아우 연학(淵鶴)과 더불어 울산으로 이거하였다. 선조 23년(1593) 23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고, 임란 때 아우 연학과 더불어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윤홍명의『화암실기』선조 26년(1593) 2월 17일조에 그의 전공이 기록되어 있다. 선조 29년(1596) 정월 서생포 공략전 때 선봉에서 지휘하다 낙마로 적탄에 맞아 순절하였다. 난후,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복수(金福守, 1549~ ?)

김해인. 생거지와 상계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남면 의병군과 함께 소등과 대천제 아래에서 적을 무찌르고 영천성과 경주성복성전 등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웠다.

난후,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봉수(金鳳壽, ?~?)

울산인. 상계, 생몰 미상.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조의 『선조실록』 기록(태화강전투, 성황당, 마등오전투 등)이 있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김분금(金分金, ? ~1615)

김녕인. 생거지 미상. 첨사 계룡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동년 4월 23일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결진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도산성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2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사준(金士俊, ?~?)

김해인. 호는 백련거사. 생몰 미상. 성균 진사 반와 대위의 증손이요 통정대부 상호군 전의 아들로 북구 연암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차남 상근과 종제 응택, 응량과 더불어 창의하였다. 정유재란 때(1597) 울산 도산성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순절했는데, 뒤에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산수(金山壽, 1541~1597)

김해인. 자는 군경, 호는 덕계. 생거지 미상. 증 병조참판 직성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아들 득복을 선봉으로 삼고 문천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정유재란 때인 1597년 12월 하순 도산성전투에서 분전하다 순절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수령(金守齡, 1568~ ?)

울산인. 생거지와 상계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주부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 28원(員) 중 1원(員)이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김수리(金秀理, ?~?)

김해인. 원종공신2등인 순경의 아우. 임란 때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권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동해안으로 침입하는 적을 공암, 하서, 석읍, 우산 등지의 요로에 복병 . 기습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주부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순경(金順卿, ? ~1593)

김해인. 자는 운로, 호는 송오. 훈련원정 양선의 아들로 명종 때 무과에 급제했다. 임란 때 아들 응남과 같이 개운포로 나가 진을 치고 고처겸, 윤홍명, 김흡 등과 합세하여 화공을 하고 돌을 던져 적을 치는 등 분전하여 많은 적을 베었다.

선조 26년(1593) 8월 이겸수와 같이 부산으로 적을 추격하다가 유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때 아들에게 '살아서 적의 포로가 되는 것보다 죽어서 적을 치는 귀신이 되겠노라"는 말을 남기고 절명하였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부자를 제향하는 충효단이 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언복(金彦福, 1569~ ?)

김해인. 호는 월호. 원종공신1등 김윤복의 제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동년 5월 14일 박인국, 황희안, 심희대, 이태립, 류백춘 등과 합세하여 영천 창암에서 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 동왕 27년(1594) 왜국과의 강화회담 때 사명대사 유정을 보좌하면서 적정 탐지를 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10원 중의 일원(員)이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김언원(金彦元, ?~?)

김녕인. 임란 때 아우 인원과 함께 창의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상계, 생거지, 생몰 미상. 출신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언양 작괘천 마애비에 음각되어 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여경(金麗慶, 1569~1635)

김해인. 자는 선경, 사복시정 응량의 아들로 온양읍 대안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창의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선조 32년(1599) 10월 창표당안에 생절(28원0로 모셔졌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뒤에 예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연(金璉, ? ~1597) →金漣

경주인. 상계, 생년 미상. 경주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하여 분전하다가 정유재란 때(1597) 울산 도산성 전투에서 순절했다.

【참고문헌】

『 창의록』,『 경주읍지』

김연(金演, 1547~1640)

고령인. 자는 형원, 호는 송호. 용양위 부장 두문의 2남으로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재종형인 경상우도 의병대장 송암 김면의 휘하에 들어가

곽준, 문위, 윤경남, 박정번 등과 같이 적을 무찔렀다. 이해 7월 지례, 금산, 개령 등지의 적이 전라도로 진입코자 오척현을 넘을 때 매복, 기습하여 큰 공을 세웠다.

또, 정암진과 무계에서 공을 세워 군자감정으로 제수되었고, 이듬해 송암 김면은 경상우병사로 제수되었으나 그해 3월 금산전투에서 순절하였다.

난후, 처가인 박원우(울산인)의 울주군 청량면 상남으로 이거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정유재란 때는 창녕의 화왕산성 방어전과 울산의 도산성 전투에도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감동부장으로 만도(15원)에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김연학(金淵鶴, ? ~1596)

김녕인. 자는 사원. 원종공신1등 훈련원첨정 벙의 아우로 상주에서 태어나 형제가 같이 울산으로 입향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형 범과 같이 창의하였다.

선조 29년(1596) 1월 서생성 공략전에서 형 범이 순절하자 더욱 분노하자 적진으로 돌격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순절하였다. 둘째 아들 영호가 진중에 뛰어들어 시신을 수습하였다. 관직은 훈련원정이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우정(金宇淨, ? ~1597)

수원인. 자는 사원, 호는 소은. 증 대사성 대기의 아들로 포항시 대송면 대각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우결, 우호 등 종형제들과 더불어 창의하여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이어 동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영천성복성전에도 참전하여 종 형제가 큰 전공을 세웠으며, 이듬해(1593) 2월 21일 순찰사 한효순이 지휘하는 문경 당교전투에도 참전하였다. 선조 29년(1596) 9월 28일 팔공산 2차 회맹에 참여하여 서사토적을 다짐하고 동왕 30년(1597) 12월 울산의 도산 격전지로 달려가 적병 10여 급을 참살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순절하였다.

이와 같이 형제가 순절하여 나라를 지킨 공을 기려 순조 28년(1828)에 도유가 나라에 주청하여 정려가 내려졌다.

【참고문헌】

『 창의록』,『 영일읍지』,『 경주읍지』

김윤복(金允福, 1564~ ?)

김해인. 호는 송호(松湖)이며 경주에서 출생하였다. 임란 때 창의하여 경주성 복성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서생포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열 명 중 한 명으로 선무원종1등공신으로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김응남(金應南, 1570~ ?)

김해인. 자는 천상. 원종공신2등 순경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창의하여 싸우다가 선조 26년(1593) 8월 의병장 이겸수와 힘을 합해 부산 방면으로 추격하던 중, 진중에서 아버지가 유탄을 맞고 순절하자 더욱 격분하여 죽음으로써 보국할 것을 맹세하며 싸웠다. 난후, 통훈대부 군자감정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응량(金應良, 1554~1602)

김해인. 일명 應亮. 울산 입향조 참봉 번의 아들로 온양읍 대안리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들 여경 및 마을 장정들과 더불어 창의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사복시정에 제수되었다. 뒤에 공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응룡(金應龍, ?~?)

김녕인. 언양현 출신. 작천정 마애비 석각. 선무원종공신녹권에 원종공신2등으로 벼슬은 사복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응방(金應方, 1556~ ?)

김해인. 일명 應邦. 자는 충언, 호는 송은. 북구 연암동에서 용양위부사과 한석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 울산성과 병영성이 함락되자 우국지사 심환, 고처겸, 박진남, 이한남, 박봉수, 박응정, 장희춘 등과 편대.결진할 때 우제군에 임명되었다.

동년 5월 5일 경주 의병장 견천지, 류정, 류백춘의 의병 500여 명과 합세하여 병영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1594년 1월 양천교전투에서 울산, 경주, 영천 등 여러 고을 의병장들과 합세하여 왜적 수백 급을 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때 그의 부친 한석 공이 순절했다. 이 해 4월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 훈련원판관이 되었다. 정병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응복(金應福, ?~?)

경주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울산군의 관원으로 참전. 창표당안에 사절(10원)로 모셔졌다. 겸사복으로 원종공신3등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김응진(金應珍, ?~?)

김해인. 참봉 연의 아들로 두동면 구미리 당산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많은 공을 세워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응택(金應澤, ? ~1597)

김해인. 초명은 士澤. 자는 경춘, 호는 송고. 생거지, 생몰 미상.

임란 때 종형 사준과 더불어 창의하여 진남장군이 되어 경주 의병장 황희안, 이응춘, 이눌 등과 군을 나누어 동해의 양남 석읍, 우산 등지의 요해처에 진을 치고 동해로부터 침입해 오는 적을 막는 등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1597) 도산성 싸움에서 용전하다가 순절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난후 부장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김응하(金應河, 1533~1598)

순천인. 자는 천일, 호는 인심재. 헌릉참봉 극검의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태어났다. 일찍 학행으로 훈도를 지냈다. 임란 직전인 1592년 봄에 불국사 범영루에서 동지들과 시회를 갖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으며, 이어서 신녕(新寧) 골불사 동고록에도 참여했다. 임란이 발발하자 아들 홍엽, 홍찬, 홍위와 처질인 이눌(李訥)과 더불어 창의했다. 동년 6월부터 이눌, 김득복, 황희안, 박춘석 등과 함께 석읍과 나아 등지에서 동해안으로 쳐 들어오는 적을 크게 무찔렀다.

1593년 2월 태화강전투에 참전했고, 4월에는 진을 옮겨 양남 공암에서 다시 적을 격파했다. 또한, 동년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1595년 2월에는 불국사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침공해 오는 적을 방어했으며, 1596년 9월 28일 제2차 팔공산회맹에 처질 이눌과 함께 경주 의병 800여 명을 이끌고 참여하여 적을 물리쳤다. 1597년 9월 화왕산전투에 참전했으며, 팔공산전투와 동년 12월 울산 도산성전투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에 제수되었다.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인심재일기』(2권)이 전한다.

【참고문헌】

『 경주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김이관(金以寬, 1562~ ?)

경주인. 자는 여후. 원종공신2등 절충장군 증병조참판 호의 차남으로 경주시 탑동에서 태어나서 흥해군수를 지냈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형 이충과 더불어 창의하여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이듬해(1593) 2월 문경의 당교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며, 동년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동왕 30년(1597)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성으로 달려가 방어사 곽재우가 지휘하는 7월 21일의 화왕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이러한 전공으로 가선대부 중추부사에 올랐다. 임진년(1592) 7~8월에 전천(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의 옛이름)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경주 창의록』,『 경주읍지』,『 동경통지』

김이충(金以忠, 1561~ ?)

경주인. 자는 여직. 원종공신2등인 절충장군 증병조참판 호의 맏아들로 경주시 탑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아우 이관과 더불어 창의하였다. 임금이 의주로 몽진할 때 호종하였다가 아버지가 순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달려오니 모친 또한 자진하였는지라 가슴을 치며 울다가 기절하였으니 충과 효를 다하였다. 임진년(1592) 7~8월에 전천(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의 옛이름)전투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경주 창의록』,『 경주읍지』,『 동경지』,『 월암실기』

김정련(金貞連, ?~?)

김해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주부 경의 아들로 임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울산부호적대장에는 선무원종공신으로 벼슬은 훈련원정이며 후손은 '온양 고산방 공수리에 세거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부호적대장』

김중원(金仲元, 1539~1597)

김해인. 자는 원숙, 호는 우천. 훈련원판관 윤위의 아들로 북구 농소3동(천곡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장정 100여 명과 함께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적을 방어하는데 힘을 다 했다. 1596년 9월 대구 팔공산성에 천사장 이눌 등이 의병 800여 명을 이끌고 포진하고 있을 때 이곳에 당도하였다. 열읍의 제장들과 의병들이 집결하여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적을 죽이고 격퇴하였다. 9월 22일 그는 이 전투에서 애석하게 순절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오위부장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지충(金智忠, ?~?)

김해인. 자는 윤선. 생거지, 생몰 미상. 선조 때 진사에 급제하고 임란이 일어나자 종형인 송고 응택을 따라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1597) 조명연합군이 도산성을 공략할 때 용전분투하다가 순절하였다. 벼슬은 판관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춘룡(金春龍, 1558~ ?)

경주인. 자는 원서, 호는 행파. 군자감부정 응허의 아들로 경주 안강읍 노당리 사당마을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동생 경룡과 더불어 가동과 마을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이어 7월 영천성 탈환전과 9월 8일의 경주성복성전에 참전하여 여러 고을 의사들과 함께 적을 몰아내고 읍성을 회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듬해(1593) 2월 17일 경주 의병장 황희안의 연락을 받고 의병장 최봉천과 함께 울산으로부터 대거 침공해 오는 적을 그 길목인 관문성에서 맞아 싸웠다. 때맞춰 당도한 울산의사 김흡, 고처겸

등과 합세하여 화공작전을 펼쳐 크게 무찔러 대승을 거두었다. 이어 울산의 무룡산과 개운포전투에도 참전하여 분전하였다. 1596년 9월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이듬해(1597) 정유재란 때는 7월 21일 화왕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송라찰방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창의록』,『 동경지』,『 송호실기』

김춘복(金春福, ?~?)

경주인. 자는 영조, 호는 암서. 생몰 미상. 조선 중종 때 충주목사 백준의 맏아들로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났다. 그 후 경주 건천으로 입향 했고,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동년 7월 14일 형산강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운문산으로 진을 옮겨 적을 무찌르다가 두서면 활천리 전천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뒤에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건천에 옥성재가 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태허(金太虛, 1555~1620)

광주인(廣州人). 자는 여실이고 호는 박연정이다. 선조 13년(1580) 무과에 급제하여 1582년 옥포만호를 지냈고, 임진왜란 때 울산군수(1593년 5월)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성주목사(1599), 경상우병사(1601), 경상좌병사(1602)를 지내고, 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호위대장 등을 지냈다. 원종공신1등에 녹훈되었다. 순조 27년(1827) 양무라는 시호가 내리고 밀양시 상동면 모정리에 '박연정'이 있으며 덕양사에 제향되고 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김학(金學, ?~?)

김녕인. 초명은 鶴. 자는 구경. 생거지, 생몰 미상. 원종공신1등 훈련원첨정 범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와 숙부 연학을 따라 창의하였다. 1596년 1월 서생포 전투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더욱 비장한 각오로 역전 끝에 많은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사복에 제수되었다. 뒤에 훈련원주부를 지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한석(金漢碩, 1526~1592)

김해인. 2006년 10월에 추봉된 의사이다. 자는 국량이고 관은 용양위부사과이다. 원종공신 3등인 응방의 부친임. 추봉 대상자 심의 서류는 녹권(82쪽) 울산읍지(1934년 판) 흥려승람(1937년 판) 호적대장 등이며, 임란 때 순절했다고 했다. 그 중 호적대장에, 정덕(正德) 병술 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병술년(1526)은 명나라 세종의 연호인 가정(嘉靖) 5년이다.

【참고문헌】

『 2006년 충의사 봉안 심의서류』

김호(金虎, 1534~1592)

경주인. 자는 덕원, 호는 월암. 내금위 어모장군 숙린의 아들로 경주시 탑동에서 출생했다. 선조 3년(1570) 무과에 급제하여 군자감봉사를 지냈다.

임란 때 두 아들(이충, 이관)과 더불어 창의하였다. 59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자칭 남면대장이라 칭하고 연이어 적진을 격파하니 많은 의군들이 뒤따랐다. 이때 공의 용맹을 들은 부윤 윤인함이 전략요충지인 부산성의 수비책임을 부여하고 크게 격려하였다. 공은 곧 만호 이홍정과 수성 대책을 세워 흐트러진 관군을 취합하고 의병 1,000여 명을 모아 부산성을 중심으로 활약하니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대장으로 명하였다. 동년 7월 영천성 탈환전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당시 열박령과 노곡지구는 언양에서 두동, 두서를 거쳐 진입하는 적의 길목으로 격전지였다. 동년 8월 2일의 노곡전투는 의병대장 김호가 이끄는 의병군과 적장 석천강승(石川康

勝) 부대와의 결전이 벌어졌는데 공은 이 전투에서 대첩을 거두었다.
이어 열박산 남쪽의 전읍전투에서도 공은 혼자서 적병 39명의 목을 베는 전과를 올렸으며, 이 전공으로 부산첨사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계속 침공해 오는 적을 두고 임지로 떠날 수 없다면서 연일 분전하던 중 계연전투에서 순절했다.
이때 부인 정씨는 자진하여 남편의 뒤를 따르고, 두 아들은 더욱 분발하여 적을 무찔렀다.
난후, 절충장군으로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으며, 영조 34년(1758) 감사의 포계로 형조참판에 추증되었다. 훗날 사림의 공의로 남강사를 창건하여 제향하고, 『월암실기』가 전한다. 임진년(1592) 7~8월에 전천(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의 옛이름)전투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경주 창의록』,『 경주읍지』,『 월암실기』

김홍엽(金弘燁 : ? ~1597)
순천인. 자는 내옥. 원종공신2등 인심재 응하의 장남으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동생 홍찬, 홍위와 더불어 창의하여 경주방어전에 참전하였다. 정유재란 때 울산 도산성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참고문헌】
『 창의록』,『 동경지』

김홍찬(金弘燦, ? ~1597)
순천인. 원종공신2등 인심재 응하의 둘째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형 홍엽, 동생 홍위와 더불어 창의하여 경주 방어전과 동대산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 정유재란 때 울산 도산성 전투에서 순절했다.

【참고문헌】
『 창의록』,『 동경지』

김흔(金昕, 1558~1629)

의성인. 자는 숙승, 호는 학산. 의병장 오봉 제민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엽, 아우 안과 함께 아버지(오봉)를 따라 웅치(熊峙; 지금의 진안)싸움에 참전하여 하루에 5전 5승하며 적을 크게 무너트렸다. 이 싸움에서 아우 안은 전사하였다. 그 후, 아버지의 명에 따라 근왕하여 의곡을 싣고 북진하여 왕에게 의곡을 바치고 또 다시 호위하고 평양까지 돌아왔다. 이때 왜적을 만나 배수진법을 써서 왜적의 삼진을 격파하였다.

이후 언양현감에 제수되어 울산, 동래, 김해, 도산 등 각지에서 왜병이 출몰하자 오진장 및 양산, 기장의 수령들은 철군, 후퇴하고 공만이 100여 명의 관군을 인솔하고 고군분투하여 전승하였으며,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가 우물물을 구하기 위해 침입한 왜적을 섬멸하고 포로가 된 많은 백성들을 구출하였다. 명나라 장수 양호, 마귀와 함께 울산에 출몰한 가등청정의 잔적을 격파하였다. 또한, 용사 김응서와 더불어 도산싸움에서 대승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을묘조)』에 언양현감으로 울산 마등오 전투에 직접 참전한 기록이 등재되어 있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뒤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전남 장성군 남문 창의오산사와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서원에 배향되었다.

정유재란 때 공의 배 언양김씨는 적병이 침입하자 두 아들과 종을 데리고 산에 피신하여 숨어 있다가 적병에 발각되어 희롱하자 이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정에서는 정려를 내렸으며,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학동원에 표열사(表烈祠)가 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행장』,『 호성.선무원종공신록권』

김흡(金洽, 1540~1609)

남원인. 자 덕호(德浩), 호는 죽계(竹溪). 성주목사 응당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거지, 몰년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성으로 가서 수성에 힘썼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현령에 제수되었다. 호적대장에는 '선무원종공신 선략장군 훈련원부정으로 후손들은 웅촌에 산다'고 되어 있다. 족보에 '선무공신수문장선략장군행훈련원부정'이라고 되어 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부호적대장』,『 남원김씨 족보』

김흡(金洽, 1550~ ?)

김녕인. 자는 덕호(德浩), 호는 죽계(竹溪). 첨정 적석의 아들로 언양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하여 동년 4월 18일 양난 공암으로 달려가 이눌, 이계수, 이응춘, 김득복 등 의병장들과 합세하여 유포, 우산, 수렴포 등을 거점으로 방어진을 구축하여 침입하는 적을 무찔렀다. 동년 6월 9일에는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다시 진을 동해안으로 옮겨 임란 초기의 대표적인 해안 방어 전투인 석읍, 나아, 달현 전투에서 의병군이 승첩을 거두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동년 9월 태화강전투에서 적을 격파하고 이듬해(1593) 2월 모화전투에서도 적을 물리쳤다. 동년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여하고 1595년 4월 형산강 전투에도 참전하였다. 선조 29년(1596) 3월과 9월 두 차례의 팔공산회맹에도 참가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동년 7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여 여러 고을 의사들과 함께 성을 지키는데 공을 세웠다.
선조 32년(1599) 무과에 급제하여 언양현감에 제수되어 많은 치적을 남기었으며 1605년에는 현령으로 승진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정으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족보에는 위 남원인 김흡과 자.호가 같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김녕김씨 족보』

김흡(金洽, 1562~ ?)

김해인. 자는 성보, 호는 삼암. 탁영 일손의 후손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경주 의병장 이안국, 견천지와 힘을 합쳐 태화, 도산은 물론 경주의 모화싸움에 참전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으로 제수되었다. 뒤에 훈련원정을 지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김흥립(金興立, ?~?)

언양인. 위열공 김취려의 후손이다.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임란 때 창의하여 경상좌병사 고언백의 휘하에 종군하면서 왜적의 막사 70여 동을 불태우는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를 지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나응수(羅應壽, 1560~ ?)

대구인. 남면 온양리 居. 1597년 11월 태화강전투 참전함.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 첨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2006년 충의사 봉안 심의서류』,『 선조실록』

류득춘(柳得春, ?~?)

문화인. 처사 호의 아들이며 원종공신3등 정의 조카이다. 일찍 무과에 급제했으며, 임란 때 중부 정과 종형 백춘의 의진을 따라 태화강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이르렀다. 후사가 없으며 양산 칠현사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류문수(柳文守, 1566~1619)

문화인. 일명 文秀. 언양현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우고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언양 작괘천 마애비에 각석되었다.

후손들은 상북면 거리에 세거한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언양읍지』

류백춘(柳伯春, 1562~1600)

문화인. 자는 영형, 호는 제호. 통덕랑 지의 아들로 울산 반구동에서 태어났다.

선조 21년(1588)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판관에 올랐으나 곧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란 때 숙부 정, 종형 영춘과 함께 창의하여 주로 숙부의 휘하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다. 1592년 4월 장희춘, 이응춘, 윤홍명, 서인충 등과 함께 울산의 백련암, 개운포, 무룡산 등지에서 적을 물리치고, 6월 9일에는 문천회맹에 참가했다. 이어 박인국, 황희안, 김득복 등과 함께 달현, 월성, 금오산 등지에서 적을 방어하였고, 9월에는 선도산, 주사산, 작령 등지에서 적을 무찔렀다.

선조 26년(1593) 2월 숙부의 명으로 종형 영춘과 함께 문경 당교전투에 참전하였고,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선조 27년(1594) 10월 박인국, 황희안, 이태립 등과 함께 영천 창암에서 적을 맞아 싸웠고, 경주 영지에서 적을 격파했다. 선조 29년(1596) 3월 팔공산전투에 참가하고, 동 9월에는 다시 팔공산에서 여러 의사들과 함께 회맹을 맺었다.

정유재란 때는 울산 도산에서 관군과 함께 이를 공격하여 많은 적을 무찔렀다. 경주부윤 윤인함의 천거로 경주판관으로 제수되고 뒤에 오위도총부부총관으로 증직되었다. 난후, 고향으로 돌아와 선조 33년(1600) 39세로 졸하였다. 양산 산막동 칠현사에 제향되고,『사의사실기』(1911)와『칠현사지』(1939)가 발간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칠현사지』

류영춘(柳榮春, ? ~·1594)

문화인. 호는 나암. 생몰 미상. 원종공신3등 송호 정의 아들로 경주시 산내면 심원리에서 출생했다.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으나 임란이 일어나 부친이 창의하자 선봉에서 부친을 호위하며 군량을 운송하는 임무를 다하고 동해안의 공암, 나아, 달현, 무룡산 등지에서 적을 물리쳤다.

동년 6월 문천회맹에 참가한 뒤, 7월에는 윤홍명, 이의잠, 이승금 등과 함께 안강 형산강전

투에서 적을 격파했다. 이듬해 2월 부친의 명으로 종제 백춘과 함께 문경 당교전투에 참전하였고,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선조 27년(1594) 1월 양천교에서 적을 물리쳤고, 가을에 부친의 의병진이 있는 영천 창암으로 군량을 운송하던 중 적을 맞아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헌종 1년(1835) 양산 칠현사에 제향되고, 『사의사실기』(1911)와 『칠현사지』(1939)가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류윤하(柳允河, ?~?)
문화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워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장으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류정(柳汀, 1537~1597)
문화인. 자는 여원, 호는 송호. 형조참판 만풍정 광선의 둘째 아들이다. 한양에서 출생하였고 부친의 유배(1547년) 길을 따라 울산에 정착하였다. 1587년 경주 산내면으로 옮겨 정사를 짓고 유생들과 함께 시국을 걱정하며 교유하였다.
임란 때 아들 영춘, 조카 백춘, 득춘과 더불어 창의하였다. 곧 박인국, 이여랑, 심희대 등과 함께 동천에 진을 치니 부윤 윤인함이 글을 보내 영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의병군을 이끌고 울산으로 내려가 개운포, 연포, 백련암 등지에서 적을 물리치고 공암으로 진을 옮겼다.
동년 6월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9월에는 광제원으로 진을 옮겼다가 울산 개운포 전투에 참전하였다. 경주에서 벌어진 선도산, 주사산, 작령, 금척 등지의 전투에서 적을 무찔렀다. 11월과 12월에는 불국사, 원원사 등지를 오가며 승려 찬홍, 지홍 등의 지원을 받아 군비를 조달하기도 했다.
계사년(1593) 2월 태화강에서 적을 격파하고 이듬해 10월에는 영천 창암에서 격전 중에

군량미를 운반하던 아들 영춘이 순절하는 참변을 당했다.
선조 28(1595)년 2월 영지에서 적을 무찌르고 이듬해 3월에는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선조 30년(1597) 9월 박인국, 김중원과 함께 팔공산으로 진군하여 ㅏ 격전을 치르다가 동월 23일 적탄을 맞고 순절하니 향년 61세였다. 이때 김중원도 함께 순절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선공감부정으로 제수되었다. 1835년 양산 칠현사에 봉향되었다. 『송호유집』(1637), 『사의사실기』(1911), 『칠현사지』(1939)가 간행되었다. 여기서 4의사란, 류정, 류영춘, 류백춘, 류득춘을 지칭한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경주읍지』,『 울산읍지 』

민복룡(閔伏龍, ?~?)
여흥인. 상계, 생몰 미상. 울주군 청량면 화창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경량(朴慶良, ?~?)
흥려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통정대부로 만도(15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박경은(朴慶殷, 1566~1641)
흥려인. 자는 선익. 옥포수군만호 증 형조참의 원우의 차남으로 출생했으며 무과에 급제했다. 임란이 일어나자 전응충의 종질 전영과 함께 창의하여 동래성 방어에 역전하였다. 난

후, 월성만호, 병마우후 도총부경력 등을 지냈다. 뒷날, 아들 이명(병사공)의 영귀로 숭정대부 판돈령부사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증직되었다. 창표당안에 만도(15원)로 모셨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박계숙(朴繼叔, 1569~1646)

흥려인. 자는 비윤, 호는 반오헌. 무안현감 홍권의 아들로 지금의 양산시 웅상 용당리(당시엔 울산 관할)에서 태어났다. 원종공신1등 기장현감 홍춘에게 양자로 출계했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일가의 형제.숙질과 창의하였다.

1592년 9월 아버지(홍춘)가 서면장으로 추대되어 10월 기장 의병장 김일덕.일개 형제와 더불어 기장읍성을 기습, 적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594년 난중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다. 뒤에, 함경도병사 김응서 휘하의 병마우후를 지냈으며, 자헌대부 훈련원정에 올랐다. 인조 16년(1638) 지중추부사에 가자 되었다. 당시의 『부북일기』가 전해온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계종(朴繼宗, ?~?)

흥려인. 생몰 미상. 무안 현감 홍권의 아들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숙부 홍춘, 홍남과 더불어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기남(朴奇男, 1574~ ?)

밀양인. 상계 미상. 안일호장 희벽의 손자이며 부장 응락의 아들이다. 임란 때 많은 공을 세워 훈련원정으로 제수되고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박능정(朴能精, ?~?)

흥려인. 호는 송암. 생거지, 생몰 미상. 동래 수성장으로 순절한 안세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들 붕과 함께 창의하여 하양 의병장 신해, 김거, 황경림, 허대윤, 허응길 등과 북진하는 적을 차단, 저지하여 하양성을 범접치 못하게 하였다. 선조 27년(1694) 4월 별시무과에 급제하고 전공을 인정받아 정략장군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정유재란 때 서생포전투에서 용전분투하다가 순절하였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무공(朴武公, ?~?)

밀양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유사장보로 만도(15원)에 모셨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박문(朴文, 1572~1595)

밀양인. 일명 奈. 자는 천리, 호는 야와. 원종공신3등 훈련원판관 손의 아들로 지금의 남구 여천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창의하여 병영성 탈환전에서

공을 세웠다. 동년 6월 9일 경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7월의 회야강전투, 9월의 개운포 전역에 연이어 참전하여 적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다.

이듬해(1593) 1월 태화강전투와 4월의 대왕암전투에서도 역전하였다. 선조 27년(1594) 1월 언양에서 경주로 침입하는 적을 그 길목인 양천교에서 여러 의사들과 합세하여 물리쳤다. 선조 28년(1595) 2월 백련암에 진을 치고 있다가 태화강 물을 따라 침공하는 적을 맞아 분전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부자가 함께 순절하였다. 그 후, 이러한 전공이 조정에 알려져 찰방에 통정대부를 추증 받았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봉서(朴鳳瑞, ?~?)

밀양인. 증병조참판 덕희의 아들이며 대장공 박봉수의 아우로 울산 반구동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봉수(朴鳳壽, 1554~ ?)

밀양인. 자는 문경. 참판 덕희의 아들로 울산 반구동에서 출생했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 겸 우림위장을 거쳐 가리포첨사와 봉화현감을 지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희안, 전응충, 이경연, 서인충, 고처겸 등과 창의하였다.

동년 4월 23일 기박산성에서 이한남, 이봉춘 등이 이끄는 의병 1,000여 명과 회동하여 결진을 하였으며, 대장으로 추대되어 동년 5월 병영성을 탈환하고, 6월 9일에는 경주의 문천회맹에도 참가하였다.

동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경주성 수복전에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으며, 그 외 임란이 끝날 때까지 여러 전역(戰役)에서 싸워 많은 전공을 세웠다. 임란이 끝난 선조 32년(1599) 12월 27일 조정에서 선유어사 윤휘를 보내 경주객관에서 위로연을 베풀 때 여러 의사들과 함께 울산 의병의 수장으로 초대되었다.

난후,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김해부사, 함경도북병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포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대장공실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선유기사』

박손(朴孫, 1555~1595)

밀양인. 자는 만세, 호는 청죽. 성균 생원 자온의 아들로 울산 여천동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아들 문과 더불어 창의하여 집에 비축해 둔 양곡을 군량미로 쓰고자 동대산 함월산성으로 운반한 다음 이경연, 유정, 견천지, 장희춘, 박봉수 등 의장들과 합진하였다. 동년 5월 7일 밤을 이용, 기습공격으로 실함된 좌병영성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웠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다시 울산으로 와서 7월 11일의 회야강전투에서 적을 무찔렀다. 9월 개운포전투에도 참전하여 분전하였다.

이듬해(1593) 1월 태화강으로 침입해 오는 적을 격파, 대승을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이어 4월에는 대왕암전투에 참전하고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선조 27년(1594) 1월 양천교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고 ,이듬해(1595) 1월 달현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다. 동년 2월 백련암에 진을 치고 있다가 연포로 들어오는 적의 대병을 맞아 분전하다가 부자가 함께 순절하엿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뒤에 가선대부 형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경주읍지』,『 울산읍지』

박수복(朴守福, ?~?)

월성인. 자는 경인. 생몰 미상. 선화의 3남 중 장남으로 언양현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순동(朴順同, 1564~ ?)

흥려인. 생거지, 상계, 몰년 미상. 선조 30년(1597) 11월 초2일 태화강전투 참전 기록이 있다. 호적대장에 관이 주부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충의사 심의서류』,『 선조실록』

박언복(朴彦福, 1550~1592)

밀양인. 자는 이겸, 호는 학산. 봉사 사로의 아들로 전북 장성군 하남방 내아리에서 출생하여 1564년 경남 밀양 신기로 이거했다. 1571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 첨정 등을 역임한 후, 밀양으로 귀향했다가 수년 후에 다시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 마을로 입향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들 인립과 동지 김득례와 더불어 창의하여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영천의 의병장 권응수 진으로 가던 중 울산으로 들어오는 적을 소등대교에서 맞아 아들 인립과 동지 김득례와 함께 분전하였다. 이때 그가 흉탄에 맞아 순절하니 동년 7월 11일이었다. 이에 분개한 아들 인립은 원수를 갚고자 적진에 돌진햇다가 또 순절했으므로 충효를 다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로 제수되엇다. 1840년에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1862년에 다시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가자되었다. 『충효록』(1932)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충효록』

박연경(朴延慶, ?~?)

밀양인. 생몰 미상. 주부 응량(3등)과는 재종간으로 임란 이전에 영천에서 울산으로 이거해 왔다.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첨정에 제수되었다. 언양 작괘천의 마애비에 석각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영록(朴榮錄, ?~?)

흥려인. 생몰 미상. 안일호장 세량의 아들로 울산 중구 유곡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종형 응춘과 더불어 창의하여 공을 세우고 면향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영준(朴盈遵, 1557~ ?)

흥려인. 일명 嗣宗. 참봉 보의 맏아들로 북구 농소(상안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우 사남과 매부 전응충을 따라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통훈대부 어모장군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부호적대장』

박응량(朴應良, 1548~ ?)

밀양인. 자는 빈무. 경북 경산시 자인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일문(一門)의 응량, 응경, 응성, 근, 장, 헌, 이손 등과 함께 창의하여 영천 의병장 권응수와 합세하여 공을 세우고 경주성 수복전에도 참여하였다. 창표당안에 만도(15員)의 일인으로 모셔졌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박응정(朴應禎, 1539~1630)

흥려인. 자는 국서, 호는 병계. 봉열대부 선략장군 여림의 외아들로 북구 농소동(신천리)에

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4월 23일 기박산성에서 울산 의사들과 경주 의사들이 편대, 결진할 때 좌익장을 맡아 5월 7일 밤 병영성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벼슬은 훈련원봉사에 이르렀고 뒤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증직되었다.『병계실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응춘(朴應春, ? ~1635)

흥려인. 가선대부 호조참판 득량의 맏이로 태어났다. 임란 때 종제 영록과 함께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응탁(朴應琢, ?~?)

밀양인.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필의 아들로 경주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하여 경주성 복성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난후, 1599년 12월 경주에서 베풀어진 위로연에서 지제교 박이장이 지은 선유기사에,『 절충장군행부호군 박응탁』이란 기록이 있다. 원종공신1등의 녹훈을 받았다.

【참고문헌】

『 동경지』 ,『 선유기사』

박이손(朴利孫, 1550~ ?)

울산인.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조의 기록이 있다. 선무원종2등공신

【참고문헌】

『 선조실록』

박이장(朴而章, 1540~1622)

수천인. 자는 숙빈, 호는 용담. 합천군 가야에서 승지 양좌의 2남으로 태어났다.

노수신의 문인으로 1573년 생원이 되고 성균관의 추천으로 참봉이 되었다. 1586년 친시(親試)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예문관에 보직되었다.

임란 때 김성일의 계청으로 도사가 되어 활동하였다. 그후, 지평, 지제교, 이조정랑, 대사헌, 이조참판, 부제학 등을 역임했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행호군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만도 15원 중 일인으로,『 直史護軍 朴而章』으로 기록되었다. 문장에 능하여 선유기사를 지었고(1599. 2) 특히 시에 뛰어났다. 성주의 청천서원에 제향 되고 저서『용담집』이 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선유기사』,『 용담집』,『 선무원종공신녹권』

박인국(朴仁國, 1563~1597)

밀양인. 자는 대보, 호는 정엄. 훈련원정 삼원의 아들로 진주시 남사리에서 태어났으며, 일찍이 무과에 급제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황희안, 김석견 등 의장들과 함께 영장으로 임명되어 선도산, 계림 등지에 배치되어 초기 방어전에 참여하였다.

이어 동해안 공암으로 달려가 진을 치고 적의 해상 침투를 방어했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7월의 영천성 탈환전과 8, 9월 두 차례의 경주성복성전에 선봉장으로 참전하여 적을 물리치고 읍성을 회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어 선도산과 부산성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다.

이듬해(1593) 2월 울산 태화강 전투에 이여량, 최봉천, 윤홍명 등과 합세하여 여러 차례 적을 무찌르고 승첩을 거두는데 공을 세웠다. 동년 7월 문경 당교전투에도 참전하여 적의 북상을 저지하는데도 역전하였다.

선조 29년(1596) 3월 제1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이때 함안, 창녕 등지의 전역에도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정유재란 때(1597)에는 제3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여 적을 무찌르고 동년 12월 울산 도산의 적을 막기 위해 내려와 조명연합군에 합진하여 용전분투하다가 안타깝게도 순절하였다.

금군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호군에 추증되었다. 그 후 다시 좌승지에 가증되었다.

『정엄실기』(1967)가 전한다.

【참고문헌】

『 창의록』,『 경주읍지』,『 정엄실기』

박인립(朴仁立, 1564~1592)

밀양인. 자는 사행이고 호는 청수헌이다. 좌참찬 정혜공 수량의 증손이며 원종3등공신 언복의 아들로 밀양 신기에서 태어나 지금의 울산시 북구 연암동 상방마을로 이거해 왔다. 선조 23년(1590) 무과에 급제하고 임란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따라 향인 김득례와 더불어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선조 25년(1592) 7월 병영을 향해 가다가 지금의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대천제 밑에서 적을 만나 싸우다 부친(언복)과 함께 전사했다.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정으로 제수되었다. 훗날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가 철종 14년(1863) 10월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가자되었다. 헌종 6년(1840) 부자가 언양 반곡사에 제향되었으나 뒤에 훼철되었다.

1976년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후리마을에 복원되어 충효사로 개명되었다. 1932년 『충효록』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인복(朴麟福, 1541~ ?)

흥려인. 안일호장 장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향리(鄕吏)로 있으면서, 형 인정, 인지, 인각과 아우 인안 등 5형제가 합심하여 망조당 서인충과 더불어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1592년 7월 29일 경상우감사 김성일의 장계에도 기록되는 등 많은 공을 세워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망조당유사』

박진남(朴震男, 1552~1599)

고령인. 호는 회암. 주부 수영의 아들로 한양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으로 낙향하여 우거하다 무과에 급제하고 울산 송정동 지당마을로 이거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동년 4월 23일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심환, 박응정, 이한남, 김응방 등이 모여 결진하였다. 계사년(1593) 2월 문경의 당교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9월 25일 경북 성주의 성현전투에서 분전하다 적탄을 맞아 큰 상처를 입었다. 이로 인해 1599년 4월 4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을 제수 받았다.『 창표당안』에 사절 10원(員) 중 일원(一員)이다.『회암실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창표당안』,『 회암실기』

박진원(朴震元, 1563~ ?)

밀양인. 자는 백선, 호는 장주.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는 곽재우의 종사관이 되어 화왕산성전투에 참전했다. 선조 30년(1597) 9월 14일조에 공의 공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원(員) 중에 포함되어 있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사간(司諫)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창표당안』

박춘무(朴春茂, 1568~1646)

밀양인. 자는 내문, 호는 나곡. 수문장 맹원의 아들로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형 춘영과 더불어 마을 장정들을 모아 함께 창의하였다. 곧 공암에 진을 친 다음 전열을 정비한 후, 동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을 무찔렀다. 이어서 동년 9월 8일 경주성복성전에는 박춘석, 황희안, 박봉수, 박이손, 김윤복 등과 함께 장좌로 임명되어 용전분투하여 적을 물리치고 읍성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웠다.

동년 10월 10일 석읍의 중산전투와 이듬해(1593) 5월 10일의 유포전투에서도 백형 춘영과 함께 적을 무찔렀다. 동년 10월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1594년 1월17일 모화전투와 8월 24일의 방어진전투에도 참전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다. 선조 29년(1596) 9월 팔공산전투에 참가하여 분전하였고 이듬해(1597) 정유재란 때는 방어사 권응수 진영으로 가 관포에서 적을 대파하는데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에 제수되었다. 1844년 사림의 공의로 북구 효문동 율동 마을에 충효사를 창건하여 백형 춘영과 함께 배향되었다. 『나곡실기』(1910)가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나곡실기』

박춘복(朴春福, ?~?)
밀양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였다.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을묘)에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박춘석(朴春石 : 1578~1643)
밀양인. 일명 춘석(春碩). 자는 경례이다. 고려 문하시중 밀성부원군 언부를 중조로 하고 행산군(휘 세균 ; 충정공)의 후손으로 나주목사 일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15세의 어린 나이로 이웃한 김득복, 황희안, 이승춘, 황희철 등의 의진에 부진하였다. 임진년(1592) 9월 초8일 2차 경주성 수복전에서는 박의장의 막하에서 장좌로 임명되어 많은 무공을 세웠으며, 이로 인해 무의공 박의장의 '동도복성비문'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정유재란 때(1597)는 마등오전투(지금의 울주군 두동면 은편.만화.이진리 일대)에서 왜적 8급을 참수하고 또, 왜서 3통을 노획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선조 30년 11월 28일 을묘조)

창녕 화왕산동고록에 서명하기도 하였으며 무술년(1598)에는 용양위부호군에 승직되었다. 또한, 경자년(1600)에는 절충장군 행부산진수군첨절제사로 승차하였다.

난후,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었으며 그 때 받은 '선무원종공신녹권'이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2001년에 편수된『유사지』가 전한다.

【참고문헌】

『 동경통지』 ,『 선조실록』

박춘영(朴春英, 1566~1640)

밀양인. 자는 내신, 호는 나산. 수문장 겸 사복시정 맹원의 맏아들로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임란 때 아우 춘무와 더불어 동지들과 함께 창의하였다.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막기 위해 공암에 진을 치고 아우 춘무와 함께 해안과 내륙을 드나들면서 적을 무찔렀다. 동년 10월 10일 하서천 상류의 중산전투에서 아우 춘무와 함께 적을 크게 물리쳤다. 이듬해(1593) 5월 10일에는 유포전투에서 적을 물리치는 등 해안선 방어에 많은 공을 세우고, 이어 태화강과 모화지구의 전투에도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난후, 부장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효문동 율동 마을에 충효사를 창건하고 아우 춘무와 함께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홍남(朴弘楠, 1559~1638)

흥려인. 자는 경형, 호는 설망헌. 무안군수 지영의 장자로 태어났다. 원종공신1등 학수당 홍춘의 종제이다. 임란 때 종형 홍춘, 종제 홍신 등과 더불어 창의하여 여러 곳에서 전공을 세웠다. 벼슬은 훈련원봉사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박홍춘(朴弘春, 1537~1601)

울산인. 자는 경인(景仁), 호는 학수당(鶴睡當). 장무공 박윤웅의 후손으로, 이산군수 지변의 2남으로 울산 웅상면 용당리(지금의 양산시 용당리)에서 태어났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1540년생)

명종 19년(1564)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훈련원주부와 감포만호를 거쳐 언양현감을 역임하였다. 임란 때 아들 계숙과 조카 계종, 종제 홍남과 함께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임진년(1592) 9월 순찰사 한준겸과 경상좌병사 박진으로 하여금 동래와 기장의 적을 막게할 때, 공은 서면장(언양지역)을 맡아 많은 전과를 올렸다.『 창표당안』에 생절 28원 중 일원이다.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사패지(남산 12봉과 서천 30리, 오산대밭 10경, 태화 말응정의 전답 수십 결 등)를 받았으며 통훈대부 기장현감으로 제수되었다. 1996년 아들(계숙)과 손자(취문)에 관한 글과 함께『학수당삼세실기』가 간행되었다. 유품인 장검이 후손의 기증으로 울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창표당안』『학수당삼세실기』

박휘(朴輝, 1565~ ?)

흥려인. 안일호장 돈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한 기록이 망조당 서인충 장군의 유사지에 보인다. 즉, "…….(상략)……..성대명, 허사남을 보좌관으로 삼고, 호장 박인복, 기관 박휘는 군수물자 수송의 책임자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참고문헌】

『울산부호적대장』『망조당유사』

배인남(裵仁男, ?~?)

달성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한 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배인지(裵紉芷, 1564~1597)

성주인. 자는 대수, 호는 월헌. 증 예조참판 응경의 맏아들로 성주 남산리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청도군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봉모장으로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확보하여 여러 곳에서 전공을 세워 선무랑 군자감직장으로 특제되었다. 정유재란 때(1597) 도산성 전투에서 용전하다가 순절했다. 난후, 직장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사절(10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백근손(白斤孫, 1561~1597)

수원인. 임란 때 창의하여 수문장으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1597) 때 37세로 순절하였다. 언양 작괘천의 마애비에 음각되었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언양읍지』

서몽룡(徐夢龍, ?~?)

달성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였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벼슬은 수문장이다. 창표당안에 생절 28원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서몽호(徐夢虎, 1539~ ?)

달성인. 자는 병보. 면의 아들로 북구 농소1동(호계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이웃 장정을 모아 창의하였다. 동년 5월 이경연, 장희춘, 이한남, 박봉수, 고처겸, 박진남, 박응정, 심환, 김응방, 견천지, 이봉춘, 전응충, 전영방 등 경주와 울산의 의병장들이 기박산성에 모여 편대, 결진할 때 참여하였으며, 동월 7일 밤 병영성 탈환전에 참전하여 많은 적을 격살하는 등 대첩을 거두는데 공을 세웠다. 동년 6월 9일 구강회맹에 참가하였으며, 경.울간의 여러 전역에서 많은 공을 세워 수문장을 제수 받았다. 그 후,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서인충(徐仁忠, 1554~1610)

달성인. 자는 방보, 호는 망조당. 고려 판도판서 진의 후손이며 달성군 영의 8세손이고 증 공조참의 희의 아들로 울산 동구 남목에서 태어났다.

선조 24년(1591) 무과에 급제. 임란 때 재종형 몽호 등과 함께 창의하여 의병을 모집, 주사장으로 울산가군수 김태허를 도와 많은 전공을 세웠다. 동년 6월 문천회맹과 계사년(1593) 2월의 태화강전투, 동년 4월의 이견대전투, 동년 10월의 구강회맹 등에 참여하고, 1596년 3월 제1차 팔공산회맹, 1597년 7월 창녕의 화왕산회맹에도 참여하였다.

선조 26년(1593) 1월 어모장군 훈련원정으로 제수되었다가 이듬해 절충장군부산진수군첨절제사로 승차하였다.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국왕으로부터 울산 남목의 일부 땅을 식읍지로 하사한다는 교지를 받았다. 정조 8년(1874) 3월 가선대부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도정으로 특증되었다. 1907년『망조당유사』가 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윤지태 도호부사(재임 ; 1742~1744)가 찬한 묘갈명 등이 있다.

【참고문헌】

『왕조실록』『망조당유사』『울산읍지』』

성대명(成大明, ?~?)

창녕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허사남, 김인원, 김계남 등과 함께 울산

남면 신야(新夜 ;지금의 온산읍 덕신리)와 기장 아이포(부산 기장군 장안읍) 등에서 공을 세웠다. 또한, 망조당 서인충과 함께 경주 봉길리와 포항 장기 소봉대에서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망조당유사』『울산의 충의정신』

성윤문(成允文, 1542~1629)

창녕인. 자는 정노, 호는 만휴정. 증 판서 효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남달리 힘이 세고 무예에 능하여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경상우수사로 개녕과 성주의 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우자 원수 권율의 포계로 경상좌병사에 제수되었다.

왕의 선유문에 이르기를 "直으로써 壯을 삼고 義로써 勇을 삼아 흉악한 왜적을 소탕하여 다시 나라를 구하라"는 명을 받고 용전분투하여 공을 세웠다. 성황당과 마등오전투에 참여하였다.

후에 七道의 병사와 통제사를 거쳐 한성판윤에 이르렀으며, 원종공신1등에 녹훈되었다.(순천)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을묘조)에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호남충의록』『호남절의록』

신광윤(辛光胤, 1549~1617)

영산인. 자는 언승, 호는 의용헌. 진사 취의 아들로 언양현 삼동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들 전을 데리고 향인 유광서 등과 의병을 일으켜 언양 취서산 사자평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으로 훈련원판관에 제수되고 이어 다시 통정대부가 되었다. 난후, 부장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언양 작괘천의 마애비에 석각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신전(辛荃, 1578~ ?)

영산인. 자는 형로, 호는 춘곡. 판관 광윤의 큰 아들로 언양현 삼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버지와 향인 유광서 등을 따라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이때 이삼한이 이르기를 '君家義勇驚人心肝'이라 하여 그 부자를 칭송하면서 그들의 전공은 가히 가상할만 하다고 하였다. 경주 문천회맹과 울산 구강회맹에 참여하였으며, 사도진첨사가 되고 바로 뒤에 통정대부 명천도호부사에 올랐다. 지방관으로 재임 시 선정을 베풀어 철비가 세워졌다. 난 후, 첨정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언양 작괘천의 마애비에 아버지와 함께 석각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심관(沈關, ?~?)

풍산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선조실록에 평양판관, 의성현령, 함흥판관 등을 역임한 기록이 있다. 선조 37년(1604)에는 사헌부감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울산의 충의정신』『선조실록』『창표당안』

심청(沈淸, 1554~ ?)

청송인. 자는 천일, 사호는 벽절정. 종부시주부 학령의 아들로 고을 북쪽 도치동(어디인지?)에서 태어났다. 선조 15년(1582) 진사가 되고 동왕 27년(1594) 무과에 급제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진에 부진하여 동해안의 효령, 나아, 유포, 석읍, 공암 등지에서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맞아 공을 세웠다. 특히 동왕 27년(1594) 8월 27일의 나아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워 체찰사의 장계로 훈련원봉사에 특제되고 그해 11월 경주 주사산 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인 1598년 1월 도산성 전투에서 순절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심환(沈渙, ?~?)

청송인. 자는 합여, 호는 일암 또는 천재. 생몰 미상. 장사랑 참봉 원공의 아들로 울산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4월 21일 박응정, 고처겸, 박진남, 이한남, 김응방 등과 함께 각각 장정 20여 명을 이끌고 제월상 이경연에게로 모여드니 그 수가 300여 인에 달했다. 4월 23일 설단제천하며 박봉수를 대장으로 하는 편대를 결진할 때 찬획을 맡아 5월 7일 밤 병영성 탈환전에서 기습공격하여 큰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만도(15원)로 모셔졌다. 뒤에 울산 고을의 교수로 제수되어 향풍의 교화와 계도에 힘썼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안신갑(安信甲, ?~?)

광주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 28원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안신명(安信命, 1575~1636)

광주인, 자는 군실, 호는 매죽헌. 전생서봉사 경의 둘째 아들로 지금의 포항시 남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가동과 동네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이어서 문천전투에서 금오산 기슭으로 침투하는 적을 산세를 이용해 유인한 뒤 크게 격파했다. 또한 형산강 어구의 형제산 전투에서 적을 물리치므로 해로를 차단하는데 공을 세웠다.

언양으로 진을 옮겨 그곳에서 창의한 숙부 수, 종숙 근과 재종형 시명, 이명 등과 합진하였

다. 동래 방면으로 행군하던 중, 밀양에서 적의 대병을 만나 크게 무찔렀다. 특히 소산역에서는 밤을 이용, 적을 협공하여 궤멸시키는 전공을 세웠다.
선조 27년(1594) 무과에 급제하고, 정유재란 때는 방어사 곽재우가 지휘하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창표당안에 만도(15원)로 모셔졌다. 이러한 전공으로 선전관, 훈련원판관에 제수되고 뒤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추증되었으며, 울산 입향조이다.

【참고문헌】
『울산의 충의정신』『창표당안』

오경우(吳慶友, 1530~1597)

고창인. 자는 익선, 호는 충서재. 대호군 사원의 둘째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4월 28일 김응하, 김득복, 이눌 등과 같이 개곡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초기 경주 방어전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선조 29년(1596) 9월 28일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동왕 30년(1597) 9월 19일~23일까지 팔공산전투에 의병장 이눌과 더불어 침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동년 12월 울산 도산전투에 나가 전공을 세웠다. 관직은 군기시 직장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오수량(吳守良, 1550~ ?)

부안인. 생거지, 상계, 몰년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선조 30년(1597) 11월 초 2일 태화강 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실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호적대장에 '후손들은 지금의 온양읍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 관은 수문장이다.

【참고문헌】
『 충의사 심의서류』『 선조실록』

오심(吳愖, 1563~1611)

고창인. 자는 극흠, 호는 송강. 함창현감 경로의 셋째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출생했다. 선조 16년(1583) 무과에 급제했으며, 임란이 일어나자 부친의 상중에 시묘살이를 하던 중, 의연히 분기하여 숙부 경우, 아우 열과 더불어 이응춘, 이눌, 견천지, 박의장, 류정, 김응생 등과 창의하였다. 팔공산회맹에도 참가했으며, 정유재란 때도 용전분투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난후, 어모장군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오열(吳悅, 1567~1619)

고창인. 자는 사흠 또는 은서, 호는 송재. 함창현감 경로의 넷째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출생했다. 임란이 일어나자 숙부 경우, 셋째 형 심과 더불어 이응춘, 이계수, 견천지, 이눌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경주의 동대산지구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이듬해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선조 28년(1595) 10월에는 숙부 경우, 권사민 등과 경주 모량에서 적을 맞아 접전을 펼쳤다. 동왕 29년(1596) 9월 대구의 팔공산으로 나아가 최동보, 권사악, 김광복 등과 더불어 회맹을 맺고 이듬해(1597) 9월에는 역시 팔공산에서 적을 물리쳤다. 이러한 공으로 봉정대부 군자감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오웅걸(吳雄傑, 1561~1597)

고창인. 본명은 雄杰. 자는 범걸, 호는 서암. 원종공신3등인 탁의 맏아들로 울산 농소(불당골)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버지와 아우 웅동 등 삼부자가 동대산 부동골에 포진한 의진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난후,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군자감주부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오탁(吳卓, ? ~1596)

고창인. 초명은 卓伊. 호는 벽재. 심정의 아들로 북구 농소(불당골)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들 웅걸, 웅동과 함께 황희안, 견천지, 이눌 등의 의진에 합세, 의병으로 활동하여 전공을 세우고 선조 29년(1596)에 세상을 떠났다. 난후, 면향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좌영장 예빈시주부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위덕화(魏德和, 1551~1598)

장흥인(長興人). 자는 화지(和之). 진사 곤(鯤)이 아버지이다.

1585년(선조 18)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창의하여 선조 임금이 의주로 몽진할 때 의주까지 호종하였는데, 그 때 중형 덕의(德毅)와 함께 반열(班列)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 "신(臣)이 비록 호가(扈駕)의 노(勞)를 맡고 있으나 뜻은 싸움터에 있으니 원컨대 일기(一騎)로 달려가 싸우게 해 주소서" 하였다. 선조께서 공의 뜻을 가상히 여겨 언양현감을 제수하고 나아가 싸우도록 하였다. 공은 그날로 달려가 용감히 싸워 전공을 세우니 이듬해 봄에 군자감부정으로 제수되었으며, 얼마 안 되어 다시 군자감정(軍資監正) 겸 지언양현사(知彦陽縣事)로 승진(陞進)되었다. 또한, 1596년에는 훈련원정으로 내천(內遷)되었다.

공이 언양현감으로 재임 때인 1594년(선조 27) 10월 초1일에 경상좌병사 고언백(高彦伯)에게 치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장의 두모포(豆毛浦)에 주둔하고 있는 적병 500여 명이 현의 석남촌(石南村)을 갑자기 포위하여 모두 분탕(焚蕩)하고 남녀 5명을 붙잡아 갔다."고 하였다.(『선조실록』 권56)

1598년 병을 얻어 고향집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던 중, 동년 11월 초5일에 별세했다.

난후, 호성원종공 3등과 선무원종공 3등에 녹훈되었다. 훗날 아들 정철(廷喆)이 정사원종공신(1623)과 진무원종공신(1624)이 되자 호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배는 증정부인 죽산안씨

이다. 장흥 죽산사(竹山祠)에 배향하였다.

【참고문헌】

『호성.선무원종공신록권』『선조실록』『언양읍지』『임란호남절의록』『광주.전남충의사록』

유광서(兪光瑞, ?~?)

기계인. 자는 언상.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정로위 여주의 아들이다. 임란 때 언양현 의사 신광윤 등 4~5인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사자평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올렸으며, 이듬해(1593) 10월 구강회맹에도 참가했다. 선조 27년(1595) 무과중시에 급제하고, 후에 훈련원 봉사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윤대붕(尹大鵬, 1548~ ?)

파평인. 참봉 사보의 아들이다. 학문에 힘써 진사가 되었고 뒤에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사광 마을로 이거했다. 임란 때 의사 최준립과 더불어 가슬현(운문령)을 지키면서 전공을 세웠고, 선조 26년(1593) 10월 구강회맹에 참여했다. 통정대부 훈련원봉사를 역임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윤종선(尹從善, ?~?)

파평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의 전공으로 난후, 봉사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윤홍명(尹弘鳴, 1565~ ?)

파평인. 자는 응시, 호는 화암. 팽량의 아들로 울산 북구 연암동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을 역임했다.

임란이 일어나자 동지들과 더불어 창의하여 동년 4월 18일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김대명, 김흡 등 의사들과 함께 의병 300여 명을 거느리고 대룡암으로 가 미리 와 있던 이눌 등과 합진한 뒤, 바람을 이용하여 적선 10여 척을 격침하고 적병을 크게 무찔렀다. 이어 4월 23일 개운포에서 상륙하는 적을 격파하고, 5월 28일에는 월성으로 진을 옮겨 적을 맞아 격전 끝에 적을 물리쳤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6월 20일 선도산 전투와 7월 18일 형산강 전투에 이어 금오산과 문천전투에도 참전하여 적을 무찔렀다. 계사년(1593) 2월 모화전투와 문경의 당교전투에도 참전하여 적을 물리쳐 공을 세웠다.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선조 28년(1596) 2월 무룡산 달현 전투에서 적을 맞아 크게 격파하고, 동왕 29년(1596) 3월과 9월에 있었던 1, 2차 팔공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정유재란 때, 동년 7월 21일 방어사 곽재우가 지휘하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여 수성에 공을 세웠고, 이어 팔공산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이러한 전공으로 난후,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겸 진주판관을 거쳐 노성, 진해, 고성, 곤양 군수를 역임하였다. 유고『화암실기』(1937)가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화암실기』,『 경주읍지』,『 울산읍지』

윤희평(尹希平, ?~?)

파평인. 자는 임중, 호는 후석. 생거지, 생몰 미상. 군수 부연의 손자로 선조 때 무과에 올랐다. 임란 때 창의하여 삼종질 홍명과 함께 합세하여 적을 무찌르는 등 공을 세웠다. 뒤에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겸수(李謙受, 1555~1598)

학성인. 자는 자허, 호는 잠와 또는 죽재. 직장 우춘의 장자로 양산시 주남동(웅상지역, 당시 울산군)에서 태어나 무과에 급제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특히도, 명나라와 왜국 간에 화의를 위한 강화회담이 진행될 때 적정을 탐지하거나 대표인 사명당(유정)을 안내하는 등의 외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적들이 왕조실록에 무려 13회나 기록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으로 기장현감으로 제수 받은 얼마 후, 정주판관으로 제수되어 부임 중 병이 들어 선조 31년(1598) 4월 경주에서 별세했다. 훗날 유림의 공의로 남곡사(1868년, 남강서원)에 제향 되었다. 유품인 장검이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2013년 양산시립박물관에 기증되어 전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선조실록』

이겸익(李謙益, ?~?)

학성인. 자는 자부, 호는 매헌. 생몰 미상. 직장 우춘의 5남으로 겸수의 제이다.

임란 때 백형 겸수를 따라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관직은 군자감참봉을 거쳐 봉사에 이르렀다가 숙종 6년(1680) 가선대부 한성부우윤으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경양(李景洋, 1563~ ?)

학성인. 자는 여숙. 동지중추부사 봉의 차자로 북구 농소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형 경용과 종제 경연과 더불어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선조 27년(1594) 형과 함께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효력부위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경연(李景淵, 1565~1643)

학성인. 자는 여징, 호는 제월당. 북구 강동 주렴리 출생. 임란 때(1592) 우국지사 이한남, 심환, 박봉수, 박응정, 장희춘, 고처겸, 박진남, 김응방 등과 동년 4월 21일 기박산성에서 결진하고 동년 5월 17일 운량호군책을 맡아 좌병영성 수복에 공을 세웠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다. 이듬해(1593) 7월에는 문경의 당교전투를 비롯한 울산 태화강전투와 공암전투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1596년 3월 팔공산회맹과 정유재란 때(1597)인 7월에는 화왕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 1598년 10월 훈련원주부에 제수되고 동년 12월에는 경성진판관을 역임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지고,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1636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승진되었다. 유고『제월당실기』가 전한다.

【참고문헌】

『 창표당안』

이경용(李景溶, 1554~1654)

학성인. 자는 여원. 동지중추부사 봉의 장자로 북구 농소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우 경양, 종제 경연과 더불어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선조 27년91594) 별시무과에 올라 어모장군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101세로 천수를 누렸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계수(李繼秀, 1567~1637)

청안인. 자는 한서, 호는 영풍정. 증공조참의 응진의 아들로 경주 외동읍 입실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숙부 응벽과 함께 창의하여 호를 능마장이라 하니 경주판관 박의장이 의병장으로 삼았다. 동년 6월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이어서 동해안 양남면의 우산, 공암과 울산의 개운포, 서생포 등지에서 적을 무찔렀으며, 동년 8월에는 경주성 수복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계사년(1593)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여하고, 그 후 울산의 태화강, 연

포 등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1596년 1월 외동 모화전투에서 격전 중에 부상을 입었으나 동년 9월 다시 일어나 대구 팔공산회맹에 참가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울산으로 출전하여 도산성전투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듬해 이러한 공적으로 용양위부사직에 제수되었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이르렀다.
인조 12년(1634) 훈련원정에 승진되고 동왕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삼종질 주천(눌의 아들)과 함께 다시 창의하였다. 여러 의사들과 서사보국하기로 결의하고 금천(지금의 과천)에서 진을 쳤다. 이듬해 1월 한강에 이르러 강화소식을 듣고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낙마하여 순절했다.『영풍정실기』(1960)가 전한다.

【참고문헌】
『 동경지』,『 영풍정실기』,『 울산의 충의정신』

이기복(李起福, 1568~1595)

경주인. 자는 초유, 호는 석계. 통정대부 윤의 아들로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백형 극복과 더불어 동네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1592년 경주성 수복전과 7월 영천 창암 전투에 나아가 공을 세우고, 선조 27년(1594) 형제가 함께 무과에 급제했다. 이듬해 6월 설령전투에서 용전분투하다 28세로 순절했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형제의 의적을 모아『모석유고』를 간행하고 '의모당'을 창건하여 제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모석유고』,『 울산의 충의정신』

이길(李吉, 1541~1601)

학성인. 자는 근여, 호는 부령. 지돈령부사 종의 장남으로 울주군 청량면 덕정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종반, 재종, 숙질 등 일가들이 더불어 창의하여 경주.울산 등의 여러 전역에서 공을 세웠다. 통정대부 군자감정으로 제수되고, 뒤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가자되었

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눌(李訥, 1569~1599)

청안인. 자는 약우, 호는 낙의재.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종숙 응춘과 재종인 승금, 삼한 등과 더불어 창의하였다. 천사장이라고 자임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경주의 남천 등지에서 진을 치고 방어하였다. 양남면 나아, 석읍 등지에서 동해안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섬멸했다. 임진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동년 7월에는 영천성 탈환에 참전하여 분전하였다. 계사년 2월 태화강 전투에 참전하고, 동년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1596년 9월 팔공산회맹에 참여하고, 정유년 7월에는 화왕산회맹에도 참여하였다. 난후,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영장으로 제수되었다. 철종 9년(1858) 후손들에 의해 『낙의재유집』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경주읍지』,『 낙의재유집』

이덕매(李德梅, 1564~ ?)

청안인. 자는 여애. 진사 서정의 손자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출생했다. 임란이 일어나자 삼종제 계수, 삼한과 더불어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에 참전하였다. 선조 26년(1593)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동왕 29년(1596) 9월 28일 천사장 이눌을 따라 대구 팔공산전투에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전공으로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으나 끝까지 논공행상을 고사하였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만수(李萬壽, ?~?)

경주인. 생몰 미상. 훈련원첨정 시명의 아들로 경주시 시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형 봉수와 더불어 창의하여 초기 경주의 여러 방어전에서 적을 무찔렀다. 정유재란 때 울산의 서생포와 도산, 경주의 외동 모화 등지의 전투에 형 봉수를 따라 경주 의병장 견천지, 이응벽, 이귀갑 등과 함께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이듬해(1598) 1월 4일 도산성전투에 다시 출전하여 분전하다가 형 봉수와 함께 순절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으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셨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이봉수(李鳳壽, 1542~ ?)

학성인. 자는 순의, 호는 오음. 충숙공 이예의 후손이며 증상호군 언신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선조 16년(1583) 무과 급제, 이듬해 전시 병과에 급제하여 발포진우후가 되었다. 연기현감을 거쳐 충청병사로 있다가 산계로 낙향해 있을 때 임란이 일어났다. 종질 열과 더불어 장정을 모아 지금의 양산시 웅상에 있는 우불산에서 진을 치고 회야강으로 들어오는 왜적을 막았다. 임진년 7월 영천성 수복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동년 8월 경주성 수복전에서 분전하다 전사했다. 난후,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의흥위부호군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봉수(李鳳壽 : ? ~1598)

경주인. 자는 기옹, 호는 죽헌. 훈련원첨정 시명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아우 만수와 함께 창의하였다. 김태허, 전응충, 서인충과 더불어 초기 울산 방어전에서 적의 북진을 저지하고 예봉을 꺾는데 주력하였다. 선조 26년(1593) 1월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경상좌병사 성윤문의 휘하에 들어가서 여러 전장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다. 이러한 전공으로 한성부판관에 제수되었다. 정유재란 때(1597)는 도산성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적을 격살하였

다. 이때 불행히도 아우 만수와 함께 전사하였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주부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읍지』,『 경주 창의록』

이봉춘(李逢春, 1546~ ?)

청안인. 자는 계영. 현감 광보의 셋째 아들로 경주 외동읍 입실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형 응춘, 우춘을 따라 조카 승금과 더불어 창의하였다.

동년 4월 23일 동대산의 기박산성에서 울산의 여러 의사들과 함께 창의하여 우위장으로 좌병영 탈환에 공을 세웠다. 이어 동해안으로 침투해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백형 응춘과 함께 공암에 진을 치고 여러 차례 적을 물리쳤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도 참가했다. 계사년(1593) 10월 구강회맹에 참여하고, 1596년 3월과 9월의 제1.2차 팔공산회맹에도 참여하였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행호군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경주읍지』,『 퇴사재실기』

이삼한(李三韓, 1568~ ?)

청안인. 자는 정이, 호는 눌재. 인백의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태어났다. 자질이 명민하며 학문과 지용이 뛰어나 일찍 무과에 급제했다. 임란 때 종숙 응춘, 우춘, 봉춘과 재종 승금, 눌과 더불어 창의하여 울산 좌병영 탈환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스스로 분의장이라 하고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9월 8일 경주성 복성전에서 적을 물리치고 읍성을 회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 후 적의 재침을 막기 위해 울산 개운포에 진을 치고 여러 차례 방어전에서 분전하였다. 이듬해(1593) 2월 동해안의 이견대전투와 울산의 태화강전투에서 적을 크게 무찌르고, 그해 10월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선조 29년(1596) 9월 제2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는 등 전란이 끝날 때까지 여러 전역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난후, 판관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후손이 없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석숭(李石崇, 1574~1644)

경주인. 일명 碩崇, 石宗. 자는 국형. 고조 때 경주에서 울산으로 입향하였으며, 맹천의 아들로 온양읍 양천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수인(李守仁, 1542~1612)

학성인. 자는 순후, 호는 설봉. 참봉 명보의 아들로 지금의 남구 부곡동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두 아들(신백, 희백)과 대소가의 일가 등이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 첨정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승금(李承金, 1556~1601)

청안인. 자는 사형. 증 병조참판 응춘의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태어나고 일찍이 무과에 급제했다. 임란 때 아버지와 숙부 우춘, 봉춘 등을 따라 동네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공암에 주둔하면서 아버지를 도와 5, 6월 두 차례에 걸친 공암 전투에서 적을 크게 무찔러 공을 세웠고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이어 7월 18일 형산강 전투에 참전하여 이의잠, 권사악, 류영춘 등 의병장과 함께 적을 물리쳤다. 선조 27년(1594) 10월 9일 개운포전투에서 아버지 응춘이 순절하였다.

정유재란 때(1597) 9월 제3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서생포로 내려와 동년 12월 22일 울

산 의병장 박봉수 등과 힘을 합쳐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이러한 전공으로 훈련원정에 올랐으며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순조 32년(1832) 9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추증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선무원종3등공신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이승춘(李承春, ?~?)

경주인. 자는 치화. 원종공신3등인 안국의 장남으로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아버지(안국)와 아우 언춘, 희춘과 더불어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신백(李新白, 1569~1641)

학성인. 자는 여준, 호는 중암. 수문장 수인(3등)의 장자로 지금의 남구 부곡동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아우 희백과 더불어 창의하여 전공을 세워 수문장을 지냈다가 뒤에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안국(李安國, ?~?)

경주인. 자는 능보, 호는 충효재. 진형의 아들로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스스로 대수장군이라 칭하고 세 아들9승춘, 언춘, 희춘)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니 인근의 장정과 승병들이 그의 휘하에 모였다. 동년 5월 14일부터 이듬해까지 망정촌, 죽전포, 형산강, 석읍, 상서, 수렴, 나아 등지에서 이의잠, 류정, 황희안, 류백춘, 김득복, 박인국 등의 여러 의병들과 더불어 대를 나누어 동해안을 통해 침입해 오는 적을 수공 또는 화공으로 무

찔러 적의 예봉을 꺾었으며, 경주성 방어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정유재란 때(1597) 울산 도산성전투에 정병을 이끌고 참전하여 김흡, 견천지 등의 의병장과 더불어 큰 전과를 올리고 적의 사기를 꺾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쌍방간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 이러한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실기 『용사사적』이 전한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안성(李安性, 1576~1597)

경주인. 자는 사일. 징사 습의 아들로 포항시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17세의 어린 나이로 중형 순성, 숙형 복성을 따라 부윤 윤인함의 초모의병에 참여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에서 공을 세웠다. 1594년에 호방(虎榜)에 3형제가 등과하여 승의부위에 제수되어 군사들을 교련하였으며, 이어 벼슬이 창신교위 부위에 올랐다. 정유재란 때는 울산의 저미만천(底彌萬川)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격파하였다. 동년 10월 서생포 만수원(萬壽院)전투에 숙형 복성과 함께 참전하여 분전하다 적탄에 맞아 장렬히 순절하였다. 서생포싸움

【참고문헌】

『 창의록』,『 동경통지』,『 묘갈명』

이언춘(李彦春, 1546~？)

경주인. 자는 언지, 호는 동계. 원종공신3등인 훈련원정 안국의 2남으로 경주시 동천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마을 훈장이었던 공은 마을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이시량을 좌영장으로 삼아 예속케 하고, 아들 상립을 우영장으로 통솔케 하여 의병조직을 지휘하였다. 동년 4월 23일 울산 개운포에서 의병장 윤홍명, 이응춘, 장희춘 등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백운암에서 적을 격퇴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동년 5월 19일 울산 달현전투에서 이시량은 좌대를 지휘하고, 아들 상립은 우대를 장악케 하여 밤중에 일제히 공격을 펴 대첩을 거두었다.

선조 25년(1592) 12월 14일 박인국, 이여량, 류정 등과 원원사에 모여 화살을 만드는 작업

중에 적을 만나 격전 끝에 왜병 70여 명을 격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동왕 27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동년 9월 24일에는 은진현감 이곡, 방어사 권응수 등이 주도하는 영천 창암전투에 나아가 류정과 합세하였다. 또 시현전투에서는 좌우영장 이시량과 아들 상립을 지휘하여 적을 격퇴시켰고, 동년 12월 10일 그곳에 재침한 적을 물리쳤다.
동왕 29년(1596) 3월 3일 대구의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시호는 양무가 내려졌다. 양무사를 세워 제향하며 『동계실기』가 전한다. 개운포전투(1592, 1594). 태화강구 싸움(1593)에도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경주 창의록』,『 경주읍지』,『 동경지』,『 동계실기』

이여량(李汝良, ?~?)
경주인. 경주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울산지역과 동대산지구 전투에 나가 많은 공을 세워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창의록』,『 경주읍지』

이열(李說, 1553~ ?)
학성인. 자는 천뢰, 호는 애일당. 정릉참봉 덕원의 아들로 포항 흥해읍 장생동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종숙 봉수(1등)를 따라 동지인 정삼외, 진봉호, 이대립, 최준민 등과 더불어 마을의 장정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동년 5월 29일 문천에서 판관 박의장이 이끄는 관군과 합세하여 언양에서 침입하는 적을 무찔렀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이어 7월 24일 영천성 탈환전과 8월 21일의 경주성 복성전에도 참전하였다.
선조 27년 5월 안강 홍천전투에 참전하고, 이듬해(1598) 4월 형산강전투에서 적을 물리쳤다. 동왕 29년(1596) 3월과 9월 두 차례의 팔공산회맹에도 참가하였으며, 이듬해(1597)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전적인데 난후, 전공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애일당실기』(1864)가 전한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영백(李永白, 1560~ ?)

학성인. 일명 英白. 자는 자행. 공조참의 수공의 둘째 아들로 울산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형 춘백과 더불어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만력 22년(갑오, 1594)에 봉정대부 군자감정의 교지를 받았다. 난후, 수군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응남(李應男, 1567~ ?)

울산인. 정병 반송의 아들로 울산 농소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장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응벽(李應璧, 1543~ ?)

차성인. 호는 송암. 습독 만발의 아들로 경주시 와룡동에서 태어났다.

선조 24년(1591)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동지들과 창의하여 경주, 언양, 울산, 부산 등 곳곳의 초기 방어전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듬해(1593) 2월에는 태화강전투에서 분전하였고,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회맹록에 청안인과 배치됨)

동왕 29년(1596) 3월 제1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이듬해(1597)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울산의 서생포와 도산성에서 적을 맞아 싸웠다. 이어 11월 북상하는 적을 저지하기위해 관문성이 있는 당진 전투에 선봉장으로 참전하여 용전분투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때의 전공으로 병조참지에 제수되고 인조 7년(1629) 병조판서에 추증

되었다.

【참고문헌】

『 경주 창의록』

이응벽(李應璧, 1563~ ?)

청안인. 자는 여원, 호는 칠송당. 충순위 참봉 의감의 큰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조카 계수와 더불어 창의하여 동해안에 진을 쳤다. 먼저 와 있던 김응하. 김득복, 김응생, 박춘석, 황희안 등의 의사들과 합세하니 의기가 충천하였다. 동년 5월, 6월 두 차례의 이견대와 우산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다. 이듬해(1593)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선조 27년(1594) 5월 적의 대병이 태화강으로 침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조카 계수와 의논하여 기만전술로 적을 유인, 대첩을 거두었다. 동년 7월 무과에 급제하여 장사랑 참봉에 제수되었다. 동왕 29년(1596)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이듬해 정유재란 때는 울산의 도산성 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으로 형조참의에 추증되었다.『칠송당실기』(1967)가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응춘(李應春, 1540~1594)

청안인. 자는 태영, 호는 퇴사재. 홍원 현감 광보의 맏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태어났다. 명종 21년(1566)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부장에 이르렀으나 곧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란 때 두 아우(우춘, 봉춘)와 아들 승금, 종질 삼한, 눌 등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키니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300여 명이나 되었다. 동월 23일 개운포로 상륙하는 적을 이언춘, 윤홍명, 장희춘 등과 합세하여 크게 격파하고 이어 동해안 공암으로 가 적을 무찔렀다.

5월 14일에는 영천 창암 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무찌르고 5월 29일 다시 의병을 이끌고 동해안 공암으로 진을 옮겨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였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9

월 8일에는 경주성을 수복한 뒤, 적의 재침을 막기 위해 개운포를 지키다가 다시 9월 21일 경주의 선도산 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격파했다.
이듬해(1593) 2월 울산 태화강으로 침투하는 적을 이여량, 최봉천, 윤홍명, 박인국 등 의병장과 합세하여 대첩을 거두는데 공을 세우고 곧 불국사로 진을 옮겨 울산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적을 막는데 힘썼다. 동년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고, 다음 해(1594) 10월 9일 개운포에서 적의 대병력을 맞아 용전분투하다 중과부적으로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이러한 전공 등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순조 32년(1832)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퇴사재실기』(1995)가 전한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이의잠(李宜潛, 1576~ ?)

여주인. 자는 병연, 호는 수졸당. 증좌승지 응인의 넷째 아들로 양좌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의윤, 의활, 의온 등 형제들과 더불어 창의하여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했다. 동년 6월 20일 읍성 서편의 선도산전투에 윤홍명, 류정, 이눌, 이시립 등과 함께 참전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동년 7월 18일에는 권사악, 류영춘, 이승금, 류백춘 등과 연합하여 형산강의 적을 격퇴시키는 대첩을 거두었다. 이어 7월 27일 김호와 더불어 영천성 탈환전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계사년(1593) 2월 최봉천, 김춘룡 등과 함께 관문성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격파하였다. 그 후, 1596년 9월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정유재란 때는 창녕의 의병장 곽재우장군의 화왕산 회맹에도 참여하였다.
1612년 진사시에 급제하고 1616년 음사로 참예찰방, 의금부도사, 하양현감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창의록』,『 동경지』,『 수졸당유고』

이인상(李仁常, 1577~1598)

학성인. 일명 仁祥. 자는 춘신, 호는 신암. 선략장군 연중의 아들로 울산시 북구 농소3동(달천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집안에 비축해 둔 식량을 가져다가 재종조 경연을 따라 창의하였다. 동대산과 이견대 등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무찌르고 동년 7월 27일에는 영천성 탈환에 참전해 적을 물리쳤다.

그 후 경.울간을 왕래하면서 여러 전역에서 공을 세우고 이때의 전공으로 좌부장이 되었다.

선조 31년(1598) 9월 도산전투에 선봉장으로 나가 용전분투하다가 순절하였다. 충의위 좌부장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그 후 통덕랑 호조정라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읍지』

이인수(李仁守, 1557~ ?)

학성인. 충숙공 이예의 후손이지만 상계가 미상. 울산 남면 대대여리(옛 대현면)에서 어모장군 세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워 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을 제수하였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종길(李宗吉, ?~?)

학성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세운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이질백(李質白, 1567~1642)

학성인. 자는 자순, 호는 정강. 군자감참봉 수신의 아들로 울주군 청량면 석남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의 군공으로 예빈시부정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춘백(李春白, 1550~ ?)

학성인. 공조참의 수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춘우(李春雨, 1556~ ?)

경주인. 울산군 남면에서 원종공신 희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부자가 더불어 창의하여 향인 박언복, 김득례 등과 함께 험요지에 진을 치고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임진년(1592) 7월 회야강 부근 대천제에서 왜적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난후, 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첨지중추부사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태립(李台立, 1531~ ?)

청안인. 자는 여제, 호는 남계. 진사 충헌의 아들로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에서 출생했다. 임란이 일어나자 재종 대립, 대인, 족제 눌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키니 많은 향인이 따랐다. 황룡곡에서 의병을 정비한 뒤 동년 5월 황희안, 박인국, 류백춘 등과 함께 영천 창암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무찔렀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9월 8일에는 경주성복성전에 참전하여 적을 몰아내고 읍성을 회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듬해(1593) 2월 경주와 울산을 연결하는 요충인 태화강과 개운포 전역에서는 군량장에 올랐고, 집에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가져다가 군량으로 지원하였다.(蓮浦口싸움) 또, 족제

눌과 더불어 배와 병기를 만든 뒤 배에 섶나무를 싣고 바람을 이용한 화공을 펴 대첩을 거두는데 공을 세웠다. 공은 전란이 평정된 뒤 가재를 털어 전란에 소실된 향교의 문묘를 중수하는데도 힘썼다.

【참고문헌】

『 창의록』,『 경주읍지』,『 낙의재실기』

이팽수(李彭壽, 1559~1596)

청안인. 자는 미수, 호는 두촌. 거(琚)의 아들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이웃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여 안강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적을 무찌르니 경상좌병사 박진이 공을 복병장으로 임명하였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이어 경주성수복전에도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동왕 27년(1594) 무과에 급제하고 좌병사 박진을 도와 여러 곳의 전역에서 역전하였다.

동 29년(1596) 연해의 적이 다시 준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생포로 달려가 용전분투하다가 1월 4일 순절하니 공의 나이 38세였다. 끝내 공의 시신을 찾지 못하여 초혼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정조 7년(1783) 병조참판에 추증되고 경주 사림의 공의로 덕산서사를 창건하여 제향한다.『두촌실기』(1933)가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창의록』,『 동경지』,『 경주읍지』,『 두촌실기』

이학(李鶴, ?~?)

경주인. 자는 행집, 호는 겸헌. 참봉 자온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 선조 31년(1598) 12월 22일 관문성 부근에서 적을 만나 분전하다 순절하였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한남(李翰南, 1565~1629)

학성인. 자는 여일, 호는 난은. 증 호조참의 대배의 아들로 울산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하여 동년 4월 23일에 열린 기박산성에서 울산 의사들의 창의거병에 참여하였다. 박봉수를 대장으로 한 이 회동에서 공은 좌병영 탈환계획의 종사관을 맡아 적을 물리치고 병영성을 수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동년 5월 27일 경주 계연전투에서 이경연, 전응충 등 울산 의사들과 함께 적을 무찌르고 이어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선조 27년(1594) 1월 봉사로 별시무과 병과에 급제했다. 경주와 울산지역의 여러 전역에서 쌓은 전공으로 용양위부호군에 제수되고, 훈련원부정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경주읍지』,『 울산읍지』

이희백(李希白, 1574~ ?)

학성인. 자는 여중. 첨정 수인의 차남으로 울산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아버지(수인)를 따라 형 신백과 더불어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난후,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겸사복 선략장군 충무좌부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이희춘(李希春, ? ~1597)

본관 미상. 생거지, 상계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충효공 김광복의 진에서 선봉장으로 활동하였다. 벼슬은 우림위 갑사이다. 울산 도산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울산읍지』

장오석(張吾石, ?~?)

인동인. 생거지, 상계, 생몰년도 미상. 임란 때 상인(常人)으로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우고 도산성전투에서 순절했다. 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절충장군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장원국(張元國, 1552~ ?)

인동인. 일명 莫同. 경주 입향조 훈의 손자로 경주시 충효동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형 원기와 더불어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를 위한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후 부산, 울산 등지의 여러 전역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때의 전공으로 우림위사에 제수되고 우림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장원기(張元紀, 1550~ ?)

인동인. 경주 입향조 훈의 손자로 경주시 총효동에서 출생하였다. 임란 때 동생 막동과 더불어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의 여러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고 부산과 울산 등지의 전투에도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정유재란 때(1597)는 7월 21일의 화왕산성회맹에 참가하고, 12월에는 울산 도산성 전투에서 분전하다가 순절하였다. 난후 참봉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장장춘(張長春, ?~?)

인동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유사장보로 만도(15원)에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장희춘(蔣希春, 1556~1618)

아산인. 자는 인경, 호는 성재(誠齋). 기자전 참봉의 아들로 지금의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당시 울산군)에서 출생했다. 일찍 문과에 급제했다.

임란 때 울산 기박산성에서 박봉수 등 여러 의사들과 더불어 창의하여 좌병영에 주둔한 적을 물리쳤고, 울산 개운포와 경주의 선도산, 영천의 창암 등지로 달려가 여러 의사와 함께 적을 격파하는 등 초기 경주, 울산지역 방어전에 크게 활약하였다.

동년 6월 9일의 문천회맹과 이듬해(1593) 10월 울산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선조 27년(1594) 3월부터 시작한 세 차례의 서생포 강화회담에 우리 측 방어사 소속의 대표로 이겸수, 최복한 등과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나 왜군의 무리한 요구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동왕 29년(1596) 3월 제1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으며, 정유재란(1597)이 일어나자 7월 21일 방어사 곽재우가 지휘하는 화왕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

난후, 1598년에 전공으로 훈련원판관(종5)에 제수되었다. 이듬해(1599) 장례원 사평(정6: 司議정5?)에 올랐으며, 동 40년(1607) 형조정랑(정5)을 지냈다. 이때 일본 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그곳의 자연과 문물을 기술한『해동기』(2권)를 남겼다. 창표당안에 제장으로 만도(15원)에 모셔졌다. 유집『성재실기』(1960)가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성재실기』

전개(全玠, ?~?)

옥산(경산)인. 생몰 미상. 통덕랑 응인의 아들이다. 임란 때 장인 이봉춘(청안인), 종숙 응충과 함께 창의하여 초기 울산 방어전에 임하였다.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뒤에 무과에 급제하고 용양위 부장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전근(田根, ?~?)

담양인. 원종공신2등 전영방의 손자이다. 임란 때 조부 영방과 형 삼을 따라 창의하였다. 뒤에 무과 별시에 급제하였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전몽정(全夢禎, ?~?)

경산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의 전공으로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전복명(田福命, ?~?)

담양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사절(10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전영(全 王榮, ? ~ 1592)

경산인. 통덕랑 응인의 아들로 일찍 무과에 급제했다. 임란이 일어나자 남면장으로 활약하던 종숙 응충의 명을 받고 아우 개, 박경은과 더불어 동래성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으나 군량은 떨어지고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부사 송상현과 같이 순절하였다. 벼슬은 판관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전영방(田永芳, ?~?)

담양인. 호는 송계. 선전관 요산의 아들로 충청도 결성(지금의 홍성군)에서 태어나 울산으로 입향하였다. 임란 때 울산읍성과 좌병영성이 함락되자 4월 23일 울산 의병들이 동대산의 기박산성에서 결진.편대할 때 두 손자(삼과 근)와 더불어 마을 장정들과 함께 마을의 장정들을 모아 참여하여 훈도별장의 직임을 맡아 종군하였다.

문천회맹에도 참여하고 경주 방어전 및 울산지역 여러 전장에서 공을 세워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뒤에 선전관을 지냈고 난후, 향리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향교의 부지를 제공하는 등 향풍의 교화와 발전을 위해 힘썼다.

【참고문헌】

『 경주.울산읍지』,『 경주 창의록 』

전응충(全應忠, 1545~ ?)

옥산(경산)인. 자는 원여, 호는 운계. 문평공 백영의 후손인 대은의 아들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종질 전영, 전개와 더불어 창의하여 동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다. 동년 9월 경상좌병사 박진이 순찰사와 더불어 전 밀양부사 김태허를 가군수로 내세워 부산, 동래, 양산, 기장 방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에 대응토록 할 때 공을 남면장으로 삼아 적을 막도록 하였다.

선조 26년 10월에 울산의 구강(鷗江:현재의 반구동)에서 여러 의병장들과 함께 전투의지를 결의하는 회맹(會盟)을 하였는데, 이를 구강회맹이라 하며,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성회맹에도 참여하였다. 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절충장군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울산향토사연구논총』,「울산의 임진정유왜란사」, 1993

『울산광역시사』 2전통문화편, 2002

『울산의 충의정신』

정광윤(鄭光胤, 1555~1611)

연일인. 자는 계승, 호는 보강. 영천 원곡리에서 성장했다.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워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군자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정대임(鄭大任, 1553~ ?)

오천인. 자는 중경, 호는 창대. 영천시 명산리 대전마을에서 용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향병을 모아 창의하여 초기 방어전에 임했다. 동년 7월 신녕과 의성으로 통하는 길목인 당지산에 이반, 박언국, 정천리 등을 성황당 언덕에 매복시키고 난 다음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많은 적을 주살하는데 대첩을 거두었다.

동년 7월 14일 박연전투에도 정세아, 조성, 권응수, 신해 등과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된 영천성복성전에 경주판관 박의장, 의병장 권응수, 신해, 최문병, 정세아, 홍천뢰, 김윤국, 정잠 등 여러 의병장과 함께 참전하여 중총을 맡아 승첩을 거두는 전공을 세웠다.

이러한 전공으로 비안현감에 제수되고 이어 예천군수에 임명되었으며 영천성복성 후 동고록에도 서명하였다.

동왕 26년(1593) 2월 21일부터 7일간의 문경 당교전투에서는 순찰사 한효순의 지원요청을 받고 좌병사 박진, 의병대장 권응수, 밀양부사 이수일 등과 함께 비안현감으로 관군을 이끌고 참전하여 격전 끝에 적을 격퇴시켰다. 또, 영천 정세아, 신녕 권응수 등의 의병장들과 함께 영천성복성을 도모한 일은 후일 경주성 복성을 성취하는 큰 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울산 태화전투(1593)에서는 척후장으로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이러한 전공으로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훗날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정조 원년(1777)에 향중 공의로 창대서원을 창건하고 제향하였다

【참고문헌】

『 창의록』,『 영양지』,『 인명대사전』,『 백운재실지』

정소질산(鄭小叱山, 1564~ ?)

동래인. 상계 미상. 보인 한필의 아들로 지금의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전공을 세워 난후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조종남(趙宗男, ?~?)

함안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판관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원(員) 중 일인으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지수(池守, ?~?)

충주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공신녹권에는 정병으로 나타나고, 호적대장에는 가선대부로 온북면에 후손이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 선조 30년 11월 초에 태화강전투 참전의 기록이 있다. 원종공신3등

【참고문헌】

『 충의사 심의서류』,『 선조실록』

천만리(千萬里, 1543~ ?)

중국 영양인. 자는 원지, 호는 사암. 선조 4년(1571) 무과에 급제하여 명나라의 무신으로 있다가 임란 때 영량사 겸 총독장으로 두 아들(상, 희)과 함께 명장 이여송을 따라 조선에 출정, 군량 수송에 만전을 기했다. 평양, 곽산 등지에서 대승을 거뒀다.

정유재란 때(1597) 명장 양호, 마귀와 함께 직산, 울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다. 그 후, 명군이 본국으로 회군할 때 그대로 조선에 머물러 귀화하여 조정에서는 자헌대부로 화산군에 봉하고 사패지를 내렸으며, 훗날 순조 4년(1804) 충장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장자 상은 백의종군한 공으로 한성부좌윤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차자 희는 사헌부장령에 제수되었다. 공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대보단을 설치하여 종향하였다.
전국의 여러 서원, 각, 사 등에서 향사하고 있다. 이후, 그는 조선의 영양천씨 중시조가 되었다. 저서로 『사암선생문집』(2권)이 전한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사암선생문집』

최구지(崔仇知, ?~?)
경주인. 상계, 생몰 미상. 충찬위 찬세의 아들로 울주군 청량면 신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우림위에 제수되고 원종공신3등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최봉천(崔奉天, 1564~1597)
경주인. 자는 국보, 호는 운암. 순릉참봉 증 한성우윤 삼택의 아들로 경주 황오동에서 출생하였고, 선조 21년(1588) 무과에 급제했다.
임란 때 조카 계종, 재종질 진립과 더불어 창의하여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7월 27일 영천성 탈환전에 참전했다. 동년 8월과 9월에는 경주성복성전에 나가 선봉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며, 10월에는 이극복과 함께 언양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적을 열박산에서 크게 무찔렀다. 이듬해(1593) 2월 울산으로 달려가 태화강에서 적을 물리쳤고 이어 모화, 아화, 자인 등지에서도 적을 물리쳤다. 이러한 공으로 1594년 훈련원첨정에 제수되고, 이어 훈련원부정, 경상좌도수군우후 등을 지내고 절충장군에 올랐다.
정유재란 때(1597) 다시 출전하여 여러 전역에서 분전하다가 동년 9월 29일 영천 창암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순조 22년(1822)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운

암실기』(1959)가 전한다.

【참고문헌】

『 창의록』,『 동경지』,『 운암실기』

최언복(崔彦福, 1533~ ?)

경주인. 자는 사진, 호는 청표당. 참봉 유정의 아들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하여 경주지역의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사복시내승으로 제수되었다. 인조 때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최준립(崔峻立, ?~?)

영양(영천)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언양현의 의사 윤대붕과 더불어 마을의 장정을 모아 창의하여 가슬현(운문령)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선조 27년(1594)에 무과에 올랐다. 부장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봉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최진립(崔震立, 1568~1636)

경주인. 자는 사건, 호는 잠와. 증병조참판 신보의 3남으로 경주 현곡면 구미리에서 출생했다. 임란 때 재종숙 봉천, 아우 계종과 더불어 마을 장정들과 집안 종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동년 5월 27일 손엽, 권사악, 이눌 등의 의사들과 합세하여 계연에서 적을 무찔렀다. 동년 7월 영천성복성전에서는 권복시, 손엽, 권사민 등과 함께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1594년 무과에 급제하고, 정유재란 때는 결사대 100여 명을 이끌고 서생포에서 야영하던 왜적을 공격하여 큰 공을 세웠다. 훈련원부정으로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그 후, 오위도총부도사, 마량진첨사, 경원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1623년에는 경흥부사를 시작으로

전라수사, 공조참판에 특진되고 경기도수군절도사로 삼도(경기.공청황해) 수군통제사를 겸임했다. 1634년에는 전라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병자호란 때(1636)는 공주영장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향하다 경기 용인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용전분투하다가 장렬히 순절하였다. 1651년에 정무란 시호가 내려지고 청백리로 녹선 되었다.

1686년 경원에 충렬사를 창건제향하고, 1711년에는 경주 내남면 이조리에 숭렬사우의 사액을 내렸다. 훗날 용산서원으로 개호하였다. 아울러 후손들이 그의 충노 기별과 옥동에 대한 제향도 정무공의 제일(祭日)에 함께 하고 있다.

유집『잠와실기』가 간행되었으며, 용산서원 앞에 신도비가 세워졌다. 유품으로 장검, 벼루, 촛대, 각대(角帶), 옥로잠 등이 전한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선무원종공신녹권』,『 경주읍지』,『 언양읍지』

편갈송(片碣頌, ?~?)

절강인(浙江人). 자는 경수(景修), 호는 모헌(慕軒). 명나라 신종(神宗) 때 향공진사(鄕貢進士)인 서영(瑞榮)의 아들로 절강성에서 태어난 무장이며, 남송(南宋) 때 절강백(浙江伯) 편일(片鎰)의 증손이다.

공은 명나라에서 어양총절사(漁陽摠節使)를 지내다가 임진왜란 때 이여송의 유격장으로 어양병(漁陽兵) 2,000여 명을 거느리고 원군(援軍)으로 와서 평양성탈환에 큰 공을 세웠고, 이어 달아나는 적장 소서행장(小西行長)을 추격, 승승장구하며 개성 . 한성을 수복하고 연전(連戰) . 진압하였다.

정유재란 때 마귀제독의 중군도독(中軍都督)으로 원군 나와 모든 전략을 도맡아 세우면서 남하하는 왜적을 추격하다가 남원에서 실패하고 다시 북상하여 직산(稷山), 소사평(素砂坪)다리 가에『欽差兵部尙書摠督諸軍門斥公碣頌勝捷碑』와 마귀장군의『威振蠻貊碑』가 세워졌다.

그 후 경주를 수복하고 울산에 이르러 창의사 김흔(金昕; 언양현감),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을 도와 적장 가등청정(加藤淸正)과 최후의 일전을 겨루어 크게 무찔렀다.

무술(戊戌, 1598)에 전승(戰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생포왜성이 있는 서생리의 절벽 위에「片將軍勝捷洞」이라고 새기고 그 곳을 도독동(都督洞)이라 불렀으며, 철종 조에 전남 나

주에 감명사(感明祠)를 세워 공을 배향하였다.

공은 귀국을 단념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게 되니 절강 편씨(片氏)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임란 후, 공은 귀국을 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도독공을 모함 .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 귀국할 뜻을 버리고 조선에 남았다는 소식을 들은 풍세(豊世), 풍원(豊源), 풍산(豊山) 등 세 아들은 아버지를 모셔가기 위해 선조 34년(1601) 조선에 나왔다.

이때 경주 금오산에 은거 중인 아버지 도독공을 찾아가 귀국할 것을 품했으나 끝내 귀국하지 않겠다 하시어 세 아들 역시 귀국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시봉(侍奉)하기로 하고 조선에 귀화(歸化)하였다.

그 후 아버지가 졸(卒)하니 3년을 여묘(廬墓)에서 지극한 애훼(哀毁)로 시묘(侍墓)하여 세칭 "절효(節孝)선생"이라고도 하였다.

이들 형제들은 인조 때 병자호란에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참고문헌】

『 호남지』,『 대동씨족고』,『 호남삼강록』,『 전남도지』,『 나주군지』,『 절강편씨삼세충효록』,『 光州 . 全南五亂 忠義士錄』

허사남(許士男, 1556~ ?)

김해인. 일명 嗣男. 내금위 윤무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 때 창의하여 의병장 서인충의 휘하에 군관으로 활약하여 곳곳에서 적을 물리쳤다.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홍란생(洪蘭生, ?~?)

남양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선조실록에 관직이 '부호군'으로 나타난다. 선조 30년(15970 11월 초 2일에 태화강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충의사 심의서류』,『 선조실록』

홍억제(洪億濟, ?~?)

남양인. 생거지, 상계, 생몰 미상.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우고 순절하였다. 훈련원판관으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사절(10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황희안(黃希安, 1576~ ?)

평해인. 자는 안숙, 호는 경초당. 교리 정의 현손이며 빈의 아들로 경주 양남면 석촌리에서 태어났다. 임란 때 10대의 어린 나이로 창의하여 동해로 침범하는 적을 방어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임진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했으며, 동년 9월 제2차 경주성수복전에서는 판관 박의장의 막하에서 장좌로 임명되어 많은 적을 주살시키는 등 공을 세웠다.

계사년(1593)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여했다. 정유년(1597) 9월 23일 방어사 권응수가 주도하는 팔공산성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란이 평정된 뒤인 기해년(1599) 12월 27일 국왕이 선유어사 윤휘를 경주객관으로 보내 베푼 선무위로연에 215명의 경주의사들 중 수장으로 초대되기도 했다.

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절충장군 부호군으로 제수되었다.『경초당일기』(1960)가 전한다.

【참고문헌】

『 선유기사』,『 경주읍지』

황희정(黃希貞, 1562~ ?)

창원인. 생거지, 상계, 몰년 미상. 수군 개시(介屎; 개똥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의병에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주부로 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28원)로 모셔졌다.

【참고문헌】

『 울산의 충의정신』,『 창표당안』

희선(希先), 남이(南伊), 천억(千億), 막동(莫同)

모두 분격장 김광복의 진에서 활동하여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면천됨.

【참고문헌】

『 울산읍지』

<조선 후기 인물>

계오(戒悟, 1773~1849)

조선 후기 승려. 자는 붕거(鵬擧). 호는 월하(月荷). 속성은 안동권씨이다.

11세에 어버이의 뜻에 따라 출가하여 팔공산에서 월암(月庵)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뒤 침허(枕虛)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우기(祐祈)의 법을 이었다. 20세에 당(堂)을 열어 학인을 지도하였고, 유학자들과 교유하면서 필체나 시문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자기의 토굴 곁에 따로 방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며, 노모의 눈이 어두워지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시력을 회복시켰다.

울산 석남사(石南寺)에 있을 때는 밤에 참선하고 낮에는 옥류계곡에서 물을 먹물로 삼아 글씨를 연습하여 명필이 되었다. 그 뒤 비문과 편액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천자문』을 초서(草書)로 써서 판각한 것은 유명하다. 60세 이후로는 시문이 수행정진에 방해가 된다 하여 붓을 놓고 염불과 참선에만 전념하다가 77세로 가지산 석남사 연등정사(燃燈精舍)에서 입적하였다. 계오는 대곡댐 편입부지에 있었던 백련정(백련서사)의 주인인 최남복(崔南復)과도 교유했다.

저서는 모두 12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문집인 『가산고(伽山藁)』 4권만이 전한다. 그리고 석남사에 초서체 『천자문』 판각인 「초천자판(草千字板)」이 보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권상일(權相一, 1679~1759)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상주 근암리(近菴里) 출생. 호는 청대(淸臺). 아버지는 증이조판서 심(深)이며, 어머니는 경주 이씨로 부사 달의(達意)의 딸이다.

학문을 일찍 깨우쳐 20세에 옛사람들의 독서하는 법과 수신하는 방법을 모아 『학지록(學知錄)』을 저술하였다. 1710년(숙종 36) 증광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 부정자가 되

었으며, 1715년 저작·전적·직강 등을 역임하고, 1720년 예조좌랑을 지냈다.

1722년(경종 2) 병조좌랑을 지내고, 1727년(영조 3)에는 만경현령이 되어 이듬해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사전에 탐지해 영문에 보고하고, 난을 토벌해 공을 세웠다. 1731년 영암군수와 사헌부장령을 지내고, 1733년 양산군수·군자감정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같은 해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을 교열해 간행하고, 이듬해 상소해 민폐 근절책과 관기숙정 방안을 건의했다. 홍문관의 계청에 의해 경연에 참석해 소신을 진술했다.

1735년(영조 11) 여름에 그의 나이 57세 때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여 3년여 재임한 후 1738년 겨울 임기를 마치고 울산을 떠나 고향인 상주(지금의 문경)로 돌아갔다. 그는 부사로 재직하면서 사재를 털어 구강서원의 동·서재를 지어 서원의 규모를 갖추게 하였으며 울산지역의 유생들과 자주 어울려 강론함으로써 유풍(儒風)을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그가 울산에서 남긴 글 중에는 1736년 5월 임인의 '구강서원 동·서재기'를 비롯하여 치술령, 반구대에서, 입암, 태화강에 배 띄우고, 태화루, 은월봉, 망해대, 개운포 등 수많은 글들이 지금도 후세인들이 즐겨 읊고 노래하며 음미하고 있다.

권상일의 주관으로 『학성지』를 편찬하였는데, 지역 사림인 상사(上舍) 박망구(朴望久)와 사인(士人) 이원담(李元聃)·현담(玄聃)형제에게 일임하여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한 고(古) 기록들을 수집 채록하여 정리하고 가편집한 것을 권부사가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소략한 부분은 보충하는 등 수정을 해서 초고본을 만들게 했다.

1741년 시강원필선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745년 봉상시정, 이듬해 사헌부헌납·사간원사성·사헌부집의·동부승지·형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1748년 우부승지로 물러났다.

뒤에 대사간·판결사(判決事)·홍문관부제학·한성좌윤·지중추부사·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760년(영조 36) 82세를 일기로 별세하니 산양면 과곡리 산 임좌(壬坐)에 안장하였다.

저서로는 『청대집』 18권, 『초학지남(初學指南)』·『관서근사록집해(觀書近思錄集解)』·『소대비고(昭代備考)』·『가범(家範)』·『역대사초상목(歷代史抄常目)』과 『일기(日記)』 30여 권이 있다. 시호는 희정(僖靖)이다. 죽림정사(竹林精舍)·근암서원(近菴書院)에 향사되었다.

【참고문헌】

『국조방목』『영조실록』『청대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울산남구문화』 2집, 「울산최초의 읍지 학성지 초고본의 주역들」, 2004

김경(金憼, 1683~1747)

언양 상북의 명촌(鳴村) 출생. 자는 자의(子義). 호는 관서정(觀逝亭). 1683년 우은(于隱) 김자간(金自幹)의 후손으로 부인인 학성이씨(鶴城李氏)와의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현재의 관서정 일원에 정착하였다.

『학성지』 형승(形勝) 조(條)의 곡연(曲淵) 편을 보면, '곡연(曲淵)은 울산부의 서쪽 30리에 있는데, 푸른 벼랑과 맑은 못으로 경계가 그윽하고 깊다. 관서정(觀逝亭)이 있는데, 선비 김경(金憼)의 거처이고...(후략)'라고 기록되어 있고, 『청대일기(淸臺日記)』에 1737년 3월 26일 관서정의 주인인 김경(金憼)을 만났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김경은 1700년대 중반에 울주군 언양읍 곡연리를 중심으로 활동은 선비였음을 알 수 있다.

관서정을 짓고 주로 곡연과 대곡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비이며, 후학을 가르치고, 울산의 학문을 전승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울산부읍지』(1902) 『청대일기』

김교희(金喬喜, 1771~1834)

천주교인. 교명은 프란치스코.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출생. 고려말 형조판서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의 후손이다.

오한우(吳漢佑)와 함께 언양지역 첫 천주교신자로 정약전(丁若銓) . 정약종(丁若鍾) . 정약용(丁若鏞) 형제와 권일신(權日身) . 황사영(黃嗣永) 등 한국 천주교 창설자들로부터 교리

를 배워 세례를 받고 영남 깊숙이 신앙의 불씨를 붙였다.
아들 상은(商銀), 손자 영제(永濟), 손녀 아가다 등 그 일족이 모두 독실한 교인으로 직동리(直洞里)에서 많은 노비를 거느린 이족(吏族)이었으나 가정을 버리고 상남면 등억리로 피신하여 첫 순교자 오한우의 가족 및 경주이씨 등과 함께 간월신자촌을 형성했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을해교난(1815) 때 영남지역 신자들이 대거 피신을 와서 간월공소(澗月公所)를 이루었고 여러 교인들과 함께 이천리 죽림골의 대재공소를 이루었으나 1934년 관헌에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2002

김규흡(1812~?)

천주교인. 본관은 청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순정공소(蓴亭公所)의 첫 신자로서 한약을 지으면서 생계를 잇다가 경신박해(1860) 때 대구 약령시에 약재를 구하러 갔다가 관헌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죽임을 당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2002

김방한(金邦翰, 1635~1698)

조선 중기 유학자. 본관은 경주. 울산 출생. 자는 공점(公漸). 호는 오정(鰲亭). 증조부는 김취(金鷲), 조부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追贈)된 김윤룡(金潤龍)이고, 부친은 김경유(金慶裕)이다. 외조부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김해 허씨(金海許氏) 허영호(許齡虎)이며, 처부는 강릉(江陵) 김시겸(金是兼)이다.
1678년(숙종 4) 무오(戊午)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 62위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대과 공부를 하지 않고 향리에 은거한 채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는 육경과 제자백가에 두루 통달하였으나 특히 『주역(周易)』에 밝았다. 그는 『주역(周易)』을 보

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7년간 원적산(圓寂山) 적수암(滴水庵)에 들어가 연구하여 『주역집해(周易集解)』를 완성하였는데, 당시에는 간행되지 못하고 1918년 후손 김시준(金時駿)이 간행하였다. 1678년(숙종 4)에는 이정례(李廷禮) 등과 함께 구강서원(鷗江書院)을 세우고 정몽주(鄭夢周)와 이언적(李彦迪)을 배향하였다. 그는 몽암(蒙庵) 이채(李埰)와도 종유하였다.

묘는 평리산(平里山)에 있다. 문집으로 『오정선생문집(鰲亭先生文集)』이 전한다.

【참고문헌】

『오정선생문집(鰲亭先生文集)』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김범우(金範禹, 1751~1787)

천주교인. 중인 김범우는 한국에 천주교가 수용되어 서학서를 연구하던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후 교회를 창설하고 중인들에게 천주교를 전교하는 과정에는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명례동(현 명동성당 자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초대 교회로 제공했으며, 한국 천주교는 이때부터 정기적인 신앙집회를 가지며 신앙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범우 등 중인층을 중심으로 천주교가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을사추조적발사건(1785)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다수의 천주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으나 대부분의 양반들은 풀려나고 중인이었던 김범우만 배교를 강요당했다. 신분차등에 따른 법집행의 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천주교의 수용과 전파가 불러올 수도 있는 조선사회의 균열을 미리 예방하고, 이를 김범우 개인의 책임문제로 한정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결국 끝까지 배교를 거부한 김범우는 밀양 단장면으로 유배를 당했다. 밀양으로 유배를 왔던 김범우는 언양 지역의 이른 천주교 수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밀양과 언양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매우 인접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김범우의 유배와 유배지에서 그가 행한 천주교 전교는 언양의 천주교 수용과 관련하여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유배 후 김범우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가 유배지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도 천주교 전교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이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김상은(金商垠, 1804~?)

천주교인. 본관은 경주. 언양지방 첫 천주교신자 김교희(金喬喜)의 아들.

순교자 김영제와 동정녀 김아가다의 아버지로 정해박해(1827) 이후 박해를 피하여 여러 곳으로 유랑하다가 상남면 등억리 간월골에 정착하여 간월공소와 대재공소 등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헌에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시빈(金始鑌, 1684~17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함창(咸昌). 영천(榮川) 출신. 자는 휴백(休伯). 호는 백남(白南). 아버지는 통덕랑 정휘(鼎輝)이며, 어머니는 이상언(李尙彦)의 딸이다.

1702년(숙종 28)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필선(弼善)을 거쳐 1724년 장령(掌令)이 되어 영조의 탕평책을 두둔하다 오히려 화근이 되어 명천군수로 좌천되었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이 영남지방으로 확대되자 채성윤(蔡成胤)의 천거로 영남의 요충을 방비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뽑혀 울산부사가 되었다. 그곳에 부임하여 폐습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선정을 베풀다가 임지에서 죽었다.

【참고문헌】

『울주군지』 ,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아가다(金아가다, 1836~1860)

김아가다는 김교희의 손녀이자 김영제의 동생이다. 경신박해로 아버지와 오빠 김영제가 체포된 후 많은 고생 끝에 죽림굴(대재공소)에 숨어살게 되었다. 당시 죽림굴에는 간월공소를 순회하며 전교하고 있던 최양업 신부가 박해를 피해 기거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김아가다는 최양업 신부를 돕다가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김아가다에 대한 내용은 최양업 신부의 서한에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김양호(金養浩, 1857~1898)

조선 말기 유학자. 본관은 의성(義城). 고령인(高靈人).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출생. 자는 선오(善吾). 호는 검려(儉黎). 증조부는 김돈(金墩)이고, 조부는 김도련(金道鍊)이며, 부친은 김채준(金埰俊)이다. 외조부는 김사찬(金思瓚)이고, 처부는 안덕노(安德老)이다.

어려서부터 가업에 정진하다가 늦게 학업에 열중하여 용학도설(庸學圖說)에 뛰어나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도(道)에서 방백(方伯)의 주관 아래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나이 늙은 선비와 겨루게 되자, 나이 많은 사람과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물러났다. 그러자 방백이 나이가 어리지만 훌륭한 선비라고 칭찬하면서 『주서백선(朱書百選)』과 『규장전운(奎章全韻)』을 내렸다. 문집으로 정각 옥오정(玉吾亭)이 있으며, 『검려선생문집(儉廬先生文集)』이 있다.

김영제(***, 1827~1876)

김영제는 오한우와 함께 이른 시기에 천주교를 수용했던 김교희의 손자이다. 1860년 경신박해로 한 차례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으나, 병인박해 때 다시 대재 공소(죽림굴)에서 다른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중죄인으로 서울까지 압송되었으나 국가에 경사가 있어

석방된 후 안살티에 정착하면서, 살티 공소를 설립하고 회장을 맡았다. 그러나 1876년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묘는 살티 순교성지에 동생 김아가다의 묘와 나란히 함께 있다.

【참고문헌】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김용한(金龍翰, 1738~1806)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경주. 언양 출신. 호는 염수헌(念睡軒). 부친 김당(金戇)과 모친 풍천 임씨(豊川任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789년(정조 13) 식년시 진사 3등 62위로 합격하였다. 1791년(정조 15) 응제(應製)로 뽑혀 정조가 술·종이·먹·붓 등을 내려주었다.

문집으로 1912년 증손 김순집(金順集)이 편집·간행한 『염수헌문집(念睡軒文集)』이 있다. 문집 안에는 자신의 생을 회고하여 지은 「자경(自警)」, 당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자신의 삶을 노래한 「고시발분우증이개령(古詩發憤又贈李開寧)」, 정조가 경연에서 중국 북위(北魏)의 시관 최호(崔浩)가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글인 「강목강의(綱目講義)」, 1784년(정조 8) 『문신강의(文臣講義)』를 교정하고 정조에게 종이·쌀·먹·붓 등을 하사받은 일을 기록한 「감은록(感恩錄)」, 영남지방 교임(校任) 이의표(李宜杓)와 재물을 마련하여 선비를 양성하고 선비들이 지켜야 할 규약을 기록한 「현중양사조약(縣中養士條約)」, 환곡(還穀)·호역(戶役)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방역전(防役錢)을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향사당게판문(鄕射堂揭板文)」 등이 있다.

【참고문헌】

『숭정3 기유 식년 사마방목(崇禎三己酉式年司馬榜目)』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김호(金灝, 1651~169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여습(汝習). 호는 심락재(尋樂齋). 안개(仁漑)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연(琄)이고, 아버지는 부사 수오(粹五)이며, 어머니는 유경원(柳慶元)의 딸이다.

1663년(현종 4) 충청도 유생으로서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건의하였다. 1678년(숙종 4) 통사(通仕)로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전적·지평·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1687년 장령이 되어서 지평 이정익(李禎翊)·김만중(金萬重) 등을 구하려는 소를 올렸으나 거절당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 이후에도 장령 자리에 있었다. 성격이 강직하여 간관(諫官)의 풍채를 지니고 있었으며, 대각(臺閣)에서 그 직분에 능한 사람을 추천할 때 반드시 제일로 꼽았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울산부사 부임을 만류하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1695년 2월에 부임하였다가 같은 해 3월 울산도호부 내아에서 서거하였다.

【참고문헌】

『숙종실록』『국조방목(國朝榜目)』 『문암집(文巖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덕진(德眞, 1806~1888)

조선 후기의 선승. 호는 허주(虛舟).

어려서 조계산 송광사(松廣寺)에 들어가 삭발하고 홀로 선정(禪定)을 닦으며 도학을 성취하였다. 주지직을 위임하면 부득이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언제나 조용한 곳을 찾아 수도하기를 좋아하였다.

송광사·선암사(仙巖寺)·칠불암(七佛庵)·백양사(白羊寺)·물외암(物外庵)과 내장산 원적암(圓寂庵), 가지산(伽智山) 내원암(內院庵) 등 여러 사찰을 순방하며 수도하였다. 이름이 널리 퍼지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불러 국가를 위하여 철원 보개산(寶蓋山) 지장암(地藏庵)과 고산(高山) 운문사(雲門寺)에서 기원하게 하였다. 그의 도성(道聲)이 알려지니 수많

은 학인들이 그의 문하에 모여들었고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랐다. 칭찬과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 정진하고 제자를 키워 경순(敬淳)과 더불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식으로 불렸다. 나이 83세로 입적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신수(都愼修, 1598~165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영숙(永叔). 호는 지암(止巖). 경상좌상좌우후 도흠조(都欽祖)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한성우윤 도원결(都元結)이고, 아버지는 무공랑(務功郞) 도여유(都汝兪)이며, 어머니는 여흥 이씨로 증판결사 이우겸(李友謙)의 딸이다.
역학(易學)을 서사원(徐思遠)으로부터 배웠으며 성장하여서는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1624년(인조 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7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성균관학·학정·박사 등을 역임하고, 참예도찰방(參禮道察訪)에 옮겼다가 임기가 만료되었다. 전적·형조좌랑·공청도도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어 호조정랑·함흥판관·울산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43년부터 1648년까지 5년 동안 울산부사로 재직하면서 '울산 향약 8조'를 만들었으며 어업을 진작시키고 진휼미 비축으로 주민들을 구제하고 교화와 풍속을 크게 진작시켰다. 그가 만든 울산 향약은 대부분 주민들의 잘못이나 실책에 대한 엄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특이하다.
여러 관직을 거쳐 함흥수령으로 재임할 때 공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선정을 베풀었으며, 만년에는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달성의 용호서원(龍湖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국조방목(國朝榜目)』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문수(朴文秀, 1691~1756)

박윤웅은 고려 창건 2등 벽상(壁上) 공신이 되어 식읍(食邑) 5백호와 흥려백의 훈작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유포(柳포)와 농소(農所)의 땅은 물론 유포지방의 미역바위 12곳을 식읍으로 받았다.

그 후 조선 영조(英祖) 때 암행어사 박문수(朴文秀)가 울산에 와보니 아직도 울산 박씨 문중에서 이곳의 미역을 공물로 받고 있어 이를 나라에 환납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였더니 이 미역바위는 3년을 연달아 크게 흉작이 들어 이를 다시 박씨 문중에 되돌려 주게 되었다.

【참고문헌】

『다같이 돌자 울산 한바퀴』, 울산역사교사모임

박세도(朴世衜, 1651~1727)

영천 괴하동 향제 출생. 자는 행언(行彦). 호는 하계(何溪), 봉산거사(鳳山居士). 조부는 박현(朴晛)이고, 부친은 생원 괴천(槐泉) 박창우(朴昌宇)이고 모친은 주부(主簿) 정양필(鄭良弼)의 딸 오천 정씨(烏川鄭氏)이고 형은 박세현(朴世衒)이다.

14세(1664) 때 아버지를 따라 울산 농소로 이사했는데 어려서부터 총명 명특하여 신동이란 별명까지 붙었다고 한다. 1681년(숙종 7) 사마시에 입격한 후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1683년(숙종 9) 증광시 생원 3등 38위로 합격하였다. 성균관에 들어가서 학문을 닦던 중, 관직에 마음이 없어 중간에 학성(鶴城) 봉황산(鳳凰山) 아래에 봉산정사(鳳山精舍)를 짓고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향리에서 정몽주(鄭夢周)·이언적(李彦迪)을 모시기 위한 구강서원(鷗江書院)을 짓자 숙종에게 사액(賜額)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농소(農所) 신답(新畓)에 봉산정사(鳳山精舍)를 짓고 학문을 닦으며 후진을 양성했다.

1727년(영조 3) 8월 77세로 별세하였고, 후일 구한말(1906.10) 후손들에 의해 세거지인 울산 송정동(松亭洞)에 봉산정(鳳山亭)이 세워졌다.

문집으로 『하계문집(何溪文集)』 2권 1책이 전하는데, 문집 가운데 주목할 작품으로 「봉산정사기(鳳山精舍記)」·「계칠자설(戒七子說)」·「동경회고(東京懷古)」 등이 있다.

【참고문헌】

『울산남구문화』 창간호, 「괴천문집과 하계문집」,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박시규(朴時奎, 1861~1928)

울산군 농소면 송정리 출생. 호는 간운(磵雲). 자는 성장(聖章). 진사 용복(容復)과 여강이씨의 차남이다. 자라서 후사를 보지 못한 중부 헌복(憲復)에게 출계했다. 입향조 괴천공의 7대손으로, 여강인 이민구(李敏久)의 여 석태(錫泰)와 결혼해 상진(尙鎭), 현진(玹鎭), 호진(琥鎭) 세 아들을 두었으나, 장남 상진을 큰집으로 출계시켰다.

그는 1885년(고종 22) 4월 20일에 시행된 식년시(式年試)에 을과(乙科) 4인으로 급제했다. 국조방목에 의하면, 거주지가 경주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울산에 살고 있었다. 그가 경주로 이사한 것은 1887년으로 전한다. 그리고 1907년 9월 18일 내각법제국기록과에서 정리한『 대한제국관헌이력서(大韓帝國官憲履歷書)』에도 '경상남도 울산군 농동면 송정리 칠통 육호' 거주로 되어 있다.

이후 관직 행로를 보면, 1891년 7월 10일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으로 있을 때 명성황후 환후평복경(患後平復慶)으로 가주서폐육(假注書陛六)되었고, 1892년 3월에는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가 다음 달에 면직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으나 다음 해인 1893년 10월 의원면직하였다. 1901년 9월 20일 홍문관시독(弘文館侍讀)에 임명된 후 10월 13일 의원면직했다가, 1907년 8월 24일에 장례원(掌禮院) 장례(掌禮)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9월 9일 어전에서 벌어진 시회에서 임금으로부터 치하의 말씀과 함께 폐정삼품(陛正三品)으로 가자(加資)되었다. 이후 종2품 규장각부제학을 지냈다.

출계시킨 장남 상진이 광복회 사건으로 1918년 2월 1일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8월 11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집행 될 때까지 줄기차게 구명운동을 벌인 일은 당시 신문지상에 여러 차례 보도될 만큼 인구에 회자되었다. 아들이 사망한 후 각기병을 얻어 말년을 고통스럽게 보내다 1928년 별세했다.

특히 그가 아들의 종상 때인 1923년에 남긴 제문「제망자상진문(祭亡子尙鎭文)」은 명문일 뿐만 아니라, 박상진의 사후 장례 과정과 그의 사형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을 알려주는 사

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동아일보』『매일신보』『신한민보』『황성신문』『 國朝榜目』 『 대한제국관보』 『 대한제국관헌이력서』, 「박시규」『 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 券一」·「순종실록 券四」 『 청선고(淸選考)』(하), 「시독관조(侍讀官條)」(朴時奎)

박시룡(朴時龍, 1851~1930)

초휘는 시익(時翼). 자는 심가(深可). 호는 운담(雲潭). 진사 용복(容復)과 여강이씨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창녕인 조유환(曺有煥)의 여 동원(同元)과 결혼했다.

박시룡은 송정동 밀양박씨의 입향조 괴천공의 7대손으로, 1851년(국조방목에는 1862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11년 회갑을 축하하는 노상직(盧相稷)의 편지와 손님을 청하는 아들 상진(尙鎭)의 편지 등을 볼 때 1851년이 맞다.)

그는 1890년(고종 27), 별시(別試)에 을과 3인으로 급제했다. 5년 전 먼저 급제한 동생 시규(時奎)와 함께 형제가 급제하는 흔치않은 기록을 남겼다. 1901년 11월 21일 홍문관시독서판임관육등(弘文館侍讀 敍判任官六等)에 임명되었다. 또 이듬해인 1902년에는 임금께서 어린 말 1필을 하사했다. 1906년 1월 22일 봉상사전사서판임관육등(奉常司典事敍判任官六等)에 임명되었으나 다음달 2월 23일 의원면직하였다. 비교적 나이가 들어 급제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관직에 나가지 않아 관련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다.

1921년 장남 상진이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고, 그 여파로 가산마저 잃자 인고의 삶을 살았다. 1927년 12월에 지은 「밀성대군단비명(密城大君壇碑銘)」 등이 전한다. 또 1928년에 서악서원(西岳書院) 원장에 취임했고, 1930년에는 옥산서원(玉山書院) 원장에 취임했으나 얼마 후 별세했다.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동아일보』『 각사등록』(근대편)『 국조방목(國朝榜目)』 『 대한제국관보』 『 청선고(淸選考)』(하), 「시독관조(侍讀官條)」(朴時龍)

박어둔(朴於屯, 1661~?)

울주군 청량면 목도리(현재 온산읍 방도리) 출생.

1693년(숙종 19) 안용복과 함께 박어둔이 울릉도로 어로활동을 갔다가 일본 어부들로부터 피랍된 사건을 전하는 한일 양국의 사료를 보면 1693년과, 1696년 안용복과 박어둔의 울릉도·독도행은 박어둔을 위시한 울산지역의 어업인들을 인적자원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산의 박어둔과 부산의 안용복은 1693년 40여 명의 어부와 을릉도에 갔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강제연행됐으나 일본 바쿠후(幕府)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문서를 받아내 영토수호에 크게 기여했다.

【참고문헌】

『2009 울산시 기획과제 울릉도 독도 수호 박어둔 재조명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2010

박연택(朴鍊宅, 1858~1919)

울산군 대현면 남화리(현재 울산시 남구 남화동 70번지) 출생. 자는 순백(順伯). 아버지 용규(龍圭)와 어머니 연일정씨 사이에 4남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워 선무원종일등공신의 녹훈을 받은 절충장군 휘 춘석(春石) 공의 9세손이고 수(壽)가선대부 경환(慶煥)의 손자이며, 그는 평소 성품이 소박하고 인자하였는데 1883년(고종 20)에 행상을 목적으로 백미 50석을 선적하여 강원도 울진(현 경상북도 관할)으로 갔는데 때마침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이 많음을 보고 싣고 간 백미 50석 전량을 무상으로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였더니 그 고장(故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고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이 같은 사실을 나라에서 전해 듣고 1887년(고종 24) 정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의 벼슬에 제수되었다. 또한, 부인에게도 같은 날 숙부인(淑夫人)의 교지가 내려졌다.

【참고문헌】

박영곤(朴永坤, 1848~1926)

조선 말기 학자. 본관은 밀양(密陽). 거주지는 경상북도 청도(淸道). 자는 치홍(置弘). 호는 죽암(竹嵓). 부친은 박치원(朴致原)이다.

어려서부터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며, 평생 학문 연구에 힘썼다. 뛰어난 학문으로 인해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 송병순(宋秉珣)과는 두터운 친분이 있어 '죽암'이라는 호를 받았다. 배운 바를 실천하고 수신(修身)에 힘써 인근 유림에까지 명망이 있었다. 세상 출세에 뜻을 두지 않고 평생 도학(道學)에 정진하였다.

문집으로 『죽암유고(竹嵓遺稿)』 4권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박용복(朴容復, 1824~1895)

울산 송정 출생. 자는 여옥(汝玉). 호는 송은(松隱). 아버지는 밀양박씨 송정문중의 입향조 괴천공의 5대손 사유(思裕)이고, 어머니는 여강이씨다. 정헌 이종상(定軒 李鍾祥, 1799~1870)의 문인이다.

47세 때인 1870년(고종 7) 경오식년시(庚午式年試)에 식년진사 3등 88위로 격했는데, 전체 성적은 144인 중 118위였다. 형제로는 헌복(憲復), 인복(寅復·定復), 영복(寧復·宜復), 관복(寬復·喜復)이고, 아들은 문과에 급제한 시룡(時龍)과 시규(時奎) 형제를 두었다. 광복회사건으로 순국한 상진(尙鎭)이 손자다. 1895년에 고종명했다.

【참고문헌】『 崇禎紀元後四庚午式司馬榜目』

박의장(朴毅長, 1555~161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사강(士剛). 할아버지는 증 공조참의 영기(榮

基)이고, 아버지는 현감 세렴(世廉)이며, 어머니는 영양 남씨(英陽南氏)로 시준(時俊)의 딸이다. 김언기(金彦璣)의 문인이며, 경사(經史)에도 밝았다.

1577년(선조 10) 무과에 급제해 주부(主簿)가 되고, 1588년 진해현감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경주판관이 되었다. 이때 소속군사를 이끌고 병마절도사 이각(李珏)과 함께 동래성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이각이 퇴각하자 그의 비겁함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같은 해 7월에 이각이 처형되고 박진(朴晉)이 병마절도사로 파견되자, 장기군수 이수일(李守一)과 함께 박진을 도와 적에게 빼앗긴 경주성의 탈환 작전에서 화차(火車)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93년 4월에는 군사 300여 명을 거느리고 대구 파잠(巴岑)에서 왜적 2,000여 명과 맞서 수십 명의 목을 베고 수백 필의 말을 빼앗는 등 큰 전공을 세웠다. 5월에도 울산군수 김태허(金太虛)와 함께 울산의 적을 쳐서 50여 명을 베는 등 크게 이겼다. 그러한 공으로 당상관으로 특진되면서 경주부윤이 되었다. 7월에는 초산군(剿山郡)의 적을 쳐서 남문에서 전멸시켰다. 8월에는 왜병이 안강(安康)에 주둔한 명나라의 군사를 급습해 200명을 죽이자 병사 고언백(高彦伯)과 함께 적을 추격해 무찔렀다. 1594년 2월양산의 적을 무찔렀고, 3월에는 임랑포(林浪浦)의 적이 언양현에 진입해 노략질하자 이를 급습해 무찔렀다. 이 때 적에게 잡혀 있던 백성 370명을 구해냈으며 우마 32필도 노획하였다. 5월에는 기장(機張)에서, 7월에는 경주에서 많은 왜병을 베었다.

1595년에 그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가 오르고, 1597년 영천과 안강의 적을 무찔렀다. 이 때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명군 5만 명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적군이 성을 비우고 밤에 도망치자 창고에 있던 곡식 400여 석을 거두었다.

1598년 박도산(薄島山)의 적을 쳐서 전승을 올려, 가의대부(嘉義大夫)로 품계가 오르고 말이 하사되었다. 1599년 성주목사 겸 방어사, 1600년 경상좌도병마절도사, 1601년 인동부사(仁同府使)를 두루 지내다가, 1602년 다시 경상좌병사 및 공홍도수사(公洪道水使)를 거쳐 경상수사가 되었다. 다섯 차례의 병사를 지내는 동안 한결같이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영해의 정충사(貞忠祠)와 구봉정사(九峯精舍)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학사집(鶴沙集)』『번암집(樊巖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이명(朴而日名, 1615~1676)

흥려인. 울산군 웅상면 용당리(현재 양산시 용당동) 출생. 자는 용회(用晦). 호는 청계거사(淸溪居士). 숭정대부 판돈녕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의 증직을 받은 아버지 경은(慶殷)과 정부인 남원 김씨 사이에 출생했다.

박이명은 산악의 정기와 곰과 범 같은 자질을 타고나서 어릴 때부터 여러 아이들과 희롱(戱弄)함을 좋아하지 않아서 행동거지(行動擧止)가 노성(老成)한 사람도 따르지 못하였다. 하루는 큰물이 불어서 밤에 대천(大川)을 건너는데 신령(神靈)이 보호하여 순류(順流)를 건너듯이 건너니 사람들이 '다른 날 크게 쓰일 그릇이다.'고 탄복하였다.

인조 22년(갑신, 1644)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과 비변랑(備邊郞)을 거쳐 거창.보성군수와 장단.강계.회령부사를 지냈다. 또, 길주목사를 지냈으며, 전라.충청의 수사로 전라.충청.경상의 병사를 겸임하였다. 그 후, 훈련도정을 거쳐 어영중군(御營中軍)과 금군별장(禁軍別將)을 역임하고 효종(孝宗) 조에 8장사로 뽑혀 여러 번 중진(重鎭)을 맡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진(陞進)되는 등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경기도 과천의 청계산 아래에서 청계거사(淸溪居士)라 자호를 붙이고 살다가 1676년(숙종 2) 11월 4일에 졸했다. 부음(訃音)을 듣고 임금이 크게 슬퍼하여 예조좌랑 오도일(吳道一)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100여 차례나 박이명의 관련 기사가 올라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부북일기』

『학수당삼세실기』, 흥려박씨말응정추원재, 1996

『한국사연구』 제96집, 한국사연구회, 1997

박종민(朴宗民, 1763~?)

본관은 반남. 전라도 나주 출신. 자는 천로(天老).

박종민은 36세 되던 1798년(정조 22)에 향시에 응시하여 차석으로 합격하였다. 1814년(순

조 14) 울산부사로 부임하여 1816년까지 어진 정치를 베풀어 고을에 평안을 가져왔다. 1815년 7월 29일 고을 창고에 있던 곡식 700석과 구황조 1천포를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이어 350냥을 내어 양사재(養士齋)를 창설하여 선비들에게 학문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백성들 생활이 편안해지고 유학의 교화가 행해져 선정불망비를 세웠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울산시사』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박창우(朴昌宇, 1636~1702)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밀성(密城). 영천 괴하동 향제(鄕第) 출생. 호는 괴천(槐泉). 국담(菊潭) 현담(晛)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서산 유씨(瑞山柳氏)로 정기(禎麒)의 딸이다.

유년 시절에 큰아버지 돈(暾) 밑에서 공부하다가 뒤에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여 경학(經學)과 사서(史書), 역학(易學)에 밝았다. 29세 때 울산으로 왔고, 31세 때 몽암(蒙庵) 이채(李埰), 이휴정(二休亭) 이동영(李東英) 등과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여 내사(內舍)에 임명되었다. 그는 성균관 유생 시절에 『주자대전(朱子大全)』의 간행에 많이 공헌하였으며, 1684년(숙종 10) 유생의 수반(首班)으로서 호남유생들의 상소문사건으로 인하여 유배되었다가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곧 풀려났다. 그뒤 김방한(金邦翰)·유극배(柳克培) 등과 함께 『주역집해(周易集解)』 3권을 찬술하여 경연(經筵)에 진상하자 왕이 극찬하여 내각(內閣)에서 감정(勘訂 : 헤아려 정정함)하여 간행하도록 명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학자들은 『주역』에 대하여 발군의 실력을 갖춘 그를 고려 때 역동(易東)으로 불린 우탁(禹倬)에 비하여 '역남선생(易南先生)'이라고 일컬었다. 후에 동궁 폐위 사건이 일어나자 성균관 유생 92인과 혈서로 세자를 구하려는 상소를 하였다.

아울러 국정과 시폐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賢才)를 중용(重用)하고 농업과 학문을 장려하며 국방의 수비를 철저히 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사회를 정화하는 제도적인 방법

으로 19조항으로 된 향음주례의식(鄕飮酒禮儀式)을 제안하였으며, 저서로는 『괴천문집』 2권 1책과 『주역집해』 3권이 있다.

1702년(숙종 28) 10월 67세로 별세하였고, 후일 후손들에 의해 울산 화동봉 화산(華山)에 괴천정(槐泉亭)이 세워졌다.

【참고문헌】

『울산남구문화』 창간호, 「괴천문집과 하계문집」,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취문(朴就文, 1617~1690)

용당리(龍塘里, 현 양산시 웅상출장소 용당리) 본제(本第)에서 출생. 자(字)는 여장(汝章). 호(號)는 만회당(晩悔堂). 울산박씨의 1대조인 고려말 숙종 때 사봉(賜封)한 흥려백(興麗伯) 장무공(莊武公) 박윤웅(朴允雄)의 후예이다. 자헌대부지중추부사인 아버지 반오헌(伴鰲軒) 박계숙(朴繼叔)과 정부인(貞夫人) 경주김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28세 때인 1644년(인조 22) 무과에 급제한 그는 궁술(弓術)이 조부인 박홍춘(朴弘春)과 아버지 박계숙의 대를 이은 무신(武臣)의 가문 출신답게 백발백중의 명궁사(名弓士)였던 것으로 전한다. 이처럼 궁술이 뛰어났기에 무과에 급제하자마자 곧장 병사(兵使)를 수행하는 군관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

그 후 만회당 박취문은 경상좌도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의 우후(虞侯)를 거쳐 훈련원첨정 . 부정, 초질금군장(初秩禁軍將) 등의 무신생활을 마치고 인동 . 갑산 . 김해 . 부령 등 여섯 고을의 수령과 진주 . 경주 등 다섯 고을의 영장(領將)을 역임하다가 노령(老齡)으로 퇴임하였다.

그리고 전서(篆書)를 잘 썼으며 『만회실기(晩悔實記)』가 전한다. 한편, 박취문은 『부북일기(赴北日記)』를 작성하고 엮었는데, 이것은 2006년 1월 26일에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이 일기는 박계숙의 아들 박취문이 정리한 부자간의 부북일기를 합책(合冊)한 것으로, 앞의 책은 박계숙이 정유재란 후인 1605년(선조 38) 10월 15일에서

1607년 1월 1일까지, 뒤의 책은 박취문이 1636년(인조 14)에 일어난 병자호란 후인 1644년 12월 9일에서 1646년 4월 4일까지 부방(赴防)한 일기이다.

【참고문헌】

『학수당삼세실기(鶴睡堂三世實記)』『현종실록』

배대유(裵大維, 156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자장(子張). 호는 모정(慕亭). 아버지는 부정(副正) 영(瑛)이다.

1590년(선조 23) 사마시에 합격,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곽재우(郭再祐)를 도와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수비하였다. 1608년 사과(司果)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611년 울산도호부판관에 부임하였다. 1612년(광해군 4)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세자시강원의 겸필선(兼弼善)·보덕(輔德), 동부승지·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계축옥사 때 죄인을 추국하는 일에 공을 세웠고, 특히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1623년 인조반정으로 삭직되었다. 그는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으며, 특히 초서·예서에 뛰어났다. 글씨로는 「기자정석각」이 있다.

저서로는 『모정집』이 있다.

【참고문헌】

『광해군일기』『인조실록』『국조방목』『조선금석총람』『망우선생문집』『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석린(徐錫麟, 1710~1765)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이천(利川). 경북 청도 출생. 호는 수오(睡聱). 관찰사 서인원(徐

仁元)의 후손으로, 부친은 증호조참의(贈戶曹參議) 서홍점(徐弘漸)이고, 모친은 박몽천(朴夢天)의 딸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다.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동생 서덕린(徐德麟)이 있다.

청도에서 출생했으나 1731년(영조 7년) 언양 길천리로 이사하였다. 1747년(영조 23) 식년시 진사 3등 19위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서 3년 동안 공부하였다. 이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경전(經典)을 두루 탐독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시(詩)에도 뛰어났다. 1755년(영조 31)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며, 제자들이 많아서 '관서부자(關西夫子)'라고 일컬어졌다. 1757년(영조 33년) 언양현감 김천상(金天相)의 위촉으로 언양읍지(彦陽邑誌)인 『헌양지』를 편수하였다. 1785년(정조 9) 상산사(商山祠)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수오선생문집(睡聱先生文集)』 7권 3책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성처인(成處仁, 1758~1801)

언양의 향반이었던 창녕 성씨 가문의 진파(璡派)는 천주교와 관련해 몰락하게 된다. 성씨 가문의 천주교인으로는 성진탁(1781~1832) · 성철규 · 성처인 등 3인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성처인(1758~1801?)은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돼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참고문헌】

『언양성당이백년사 – 언양천주교회사』, 언양천주교회, 1991

손기양(孫起陽, 1559~161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聱漢)·송간(松磵). 할아

버지는 군자감정(軍資監正) 손응(孫凝)이고, 아버지는 생원 손겸제(孫兼濟)이다. 어머니는 신취(辛鷲)의 딸이다.

약관의 나이로 백가(百家)의 책을 탐독, 학식이 매우 깊었다. 1585년(선조 18)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158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592년 성현찰방(省峴察訪)이 되어 왜란을 당하자 중대를 모아 역마(驛馬)를 적절히 배치하면서 전쟁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어 1597년 왜가 재침하자 관찰사가 왕의 호종을 위해 떠나버려 얼마 동안 외로이 텅 빈 산성을 지켰는데, 이 때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1600년 성균관전적으로 중학교수(中學敎授)를 겸했고, 이듬해 경주제독이 되어 무너져 가는 옛 문물을 복구하는 데 힘썼다.

이때 그는 「성묘중건상량문(聖廟重建上樑文)」을 찬했는데, 이 내용이 『동경지(東京誌)』에 실려 있다. 이어 1602년에 울주판관을 지냈으며, 이 해 『얼안당기(蘗岸堂記)』를 찬하기도 하였다. 이 해 체찰사 이덕형(李德馨)의 천거로 영천군수가 되었고, 1610년 창원부사를 지냈다.

1612년(광해군 4)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 뒤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벼슬을 거쳐, 상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여생을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황(李滉)의 학통을 이은 정구(鄭逑)와 도의(道義)의 계(契)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성리학자이다. 정경세(鄭經世)·조호익(曺好益)·이윤(李潤)·이전(李塡)이준(李埈) 등 영남 명유들과도 교유가 있었다. 만년에는 역학(易學)에 전심하여 침식을 잊을 정도였으며, 평일에 독서할 때는 『논어』만 읽는 성벽이 있었다.

저서로는 『배민록(排悶錄)』 2권과 『철조록(輟釣錄)』 1권 등이 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국조방목』『성호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원열(沈遠悅, 1792~186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조회(祖懷), 호는 학음(鶴陰). 조부는 정조 때 노론 시파의 대표적 인물이자 사헌부장령과 제주목사를 역임한 통훈대부 심낙수(沈樂洙)이

다. 심노암(沈魯巖)과 풍양조씨(豊穰趙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조부 이래로 노론 시파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1801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벽파가 정국을 장악하자 조부 심낙수는 삭탈관직되었고 참봉(參奉)으로 있던 백부 심노숭(沈魯崇)도 경남 기장(機張)으로 유배되는 등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원열은 1799년(정조 23) 8세에 모친상을 당하였고, 이후 이사질(李思質)의 딸인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다. 1808년(순조 8) 17세에 김헌순(金憲淳)의 딸 안동김씨(安東金氏)와 결혼하였고, 19세에는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20세에 부친상을, 그 이듬해에 조모와 아내 김씨의 상을 연이어 당하였는데 이후로 그는 백부인 심노숭을 부친처럼 의지하였다.

그는 1835년(헌종 1) 44세에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에 임명되었고, 1838년에 경조부주부(京兆府主簿)를 거쳐 청양현감에 부임하였으나, 1839년 48세에 강원도 금성현(金城縣)으로 유배를 갔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850년에 광흥창수(廣興倉守)로 부임하였다. 1852년에 고양군수, 다음해에 공주판관을 역임하였다. 1855년에 울산부사(蔚山府使)로 임명되었고, 1857년 정월에 진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그해 8월에 울산으로 유배를 갔다. 1866년(고종 3) 75세의 나이로 죽었다.

울산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울산좌곤성첩기(蔚山左梱城堞記)』에서는 임진왜란 때 왜병과 싸우다 죽은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부산첨사 정발(鄭撥), 다대포첨사 정운(鄭雲) 등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다. 『처용무서(處容舞序)』는 저자가 학성 현감으로 있을 때 이 지역에 전해오는 처용무에 관한 고사를 기록한 것인데, 『삼국유사』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밖에 『유보광사기(遊普光寺記)』는 양주의 남쪽에 있던 보광사를 유람하며 그 사적에 관해 기록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시류 4책, 문류 10책 등 총 15권 14책으로 이루어진 초고본 형태의 『학음산고(鶴陰散稿)』를 저술하였는데, 여러 문체로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을 입전한 인물전이나 민담·전설을 수용한 야담류 그리고 21명의 조선시대 인물의 특이한 행적을 다룬 「용창총설(榕牕叢說)」 등 소설적 경사가 짙은 작품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의 편찬은 『청구야담(靑邱野談)』을 비롯한 3대 야담집 등과 더불어 19세기 초의 문단 경향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품문의 특징을 가진 신변잡기적 성향의 작품들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18세기에 융성한 소품문이 19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심자란(沈紫鸞, 1727~1744)

울산부사 심대연(沈大淵)과 부기(府妓) 초경(楚京) 사이에서 1727년(영조 3년) 12월30일 출생, 1744년 6월 14일 18세의 나이로 수절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전이었지만 어머니는 관기였다. 딸이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했던 당시 법에 의해 자란 역시 공노비 신분의 세습적인 기녀가 되었다. 당시 울산부사 권상일은 미모와 총기가 출중한 자란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판단, 자란이 10세 때 관청의 악기(樂妓)로 복역하게 했다. 자란의 총명함과 기예는 명성이 드높았다고 알려졌는데 병영의 지방관이었던 윤면(尹勉)이 자란을 사랑해 자란이 15세 때 첩으로 삼았다. 이후 윤면이 경기도 이천으로 전근을 가게 되자 자란을 기적(妓籍)에서 빼고 함께 상경한다. 윤면이 병으로 세상을 뜨자 울산 신임부사 정광운(鄭廣運)이 부임해 자란의 명성을 듣고 돌아오도록 명령한다. 자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신임부사는 자란의 부모를 감옥에 가두었고 부모를 구하기 위해 자란은 울산으로 돌아온다. 자란이 1744년 5월5일 울산 신임부사에게 인사하자 자란의 부모는 석방된다.

이후 자란은 신임부사의 계속되는 수청을 거절하다 '나 죽게 되면 천리 밖에 있는 윤공 묘에 부장하고 나의 수식의물(首飾衣物)을 팔아 나의 장비(葬費)로 쓰고 남은 의패(衣佩)는 윤공가(尹公家)에 보내주오'란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란과 '자란전'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춘향전' 등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춘향전'의 수많은 근원설화 중 하나로서 '자란전'을 인정하고 있다.

이수봉 명예교수는 "춘향전의 근원설화는 많지만 '자란전'처럼 실제 사실인 것이 없고 이미 학계에서 정설처럼 된 만화본(晩華本)(1754)보다 자란 실화(1743년)가 약 10년이나 앞서 있었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근원설화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란전'이 수록된 『상체헌집』이 나온 것은 1924년께지만 그 동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울산출신 열녀 자란, 춘향전 실제 모델, 」2007.8.31.

「자란전 소고」, 이수봉

안서우(安瑞羽, 1664~173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봉거(鳳擧). 호는 양기옹(兩棄翁), 양기재(兩棄齋).

1694년(숙종 20) 문과에 급제하였고, 성묘종사사건(聖廟從祀事件)에 연루되어 불우한 생활을 하였다. 1725년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한 그는 1726년 경상도 암행어사 윤심형의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무주에 살면서 산수승경을 즐기며 은거생활을 하였다.

작품으로 연시조인 「유원십이곡(楡院十二曲)」 13수를 비롯한 19수의 시조를 남겼다. 시조작품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수분안행(守分安行)[3]·은거(隱居)·청산옥수(靑山玉水)·백운청산(白雲靑山)·경전채초(耕田採樵)[4]·청풍명월·물외한정(物外閑情)[5]·백운백구(白雲白鷗)·강호구로(江湖鷗鷺)[6]·도연명(陶淵明)·효(孝)·물외한거(物外閒居)·근신(謹愼)·옥봉운(玉峰雲)·적성하(赤城霞)[7]·산촌은거·산수연하(山水烟霞)·벽봉창파(碧峰蒼波)[8]·연하풍월(烟霞風月) [9]등으로 나뉜다.

작품 대부분이 산촌에 은거하면서 자연을 즐기며 자족한 작품이라는 것이 특징이며, 도연명의 귀거래적(歸去來的)인 사상이 각 시조작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의 문집으로 『양기재유고』와 『양기재산고』가 있다.

【참고문헌】

---

[3] 자신의 분수를 지켜 편안하게 지냄

[4] 밭을 갈고 산에 올라 땔나무를 마련함

[5] 속세를 떠나 한가로운 정을 느끼며 삶

[6] 강호에 한가로이 나는 갈매기와 백로

[7] 적성에 낀 안개

[8] 푸른 봉우리와 푸른 물결

[9] 고요한 산수의 경치와 자연의 아름다움

『시조(時調)의 문헌적연구(文獻的硏究)』,심재완, 세종문화사, 197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여벌(吳汝橃, 1579~1635)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고창(高敞). 자는 경허(景虛). 호는 경암(敬菴), 남악(南岳). 아버지는 부윤 운(澐)이며, 어머니는 김해 허씨(金海許氏)로 생원 사렴(士廉)의 딸이다. 큰아버지 진(溍)에게 입양되었다.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문학이 성취되었다.
1601년(선조 34)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03년 문과에 급제, 종부시직장(宗簿寺直長)·승문원정자를 비롯하여 정언·좌랑을 거쳐 수찬·교리에 이르렀고, 외직으로는 울산판관·영천군수·대구도호부사·청송부사·창원부사·연일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1607~1610년 사이 울산판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창원 등지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고을 백성들로부터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그는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역괘도(易卦圖)』·『천지만물도(天地萬物圖)』·『음양오행도(陰陽五行圖)』를 저술하였고, 특히 역사에 조예가 깊어서 『중국역대총론(中國歷代總論)』과 『동국역대기사(東國歷代紀事)』를 남겼다. 저서로는 『경암집』 6권 3책이 있다.

【참고문헌】

『경암집(敬菴集)』『국조방목』『인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한우 베드로(1760~1801)

오한우는 육촌 매제인 김교희와 함께 천주교를 받아들여 1790년경에 입교하였다고 전해진다. 오한우는 서울을 왕래하며 같은 오씨 문중의 오몽상과 권일신, 정약용과 교분을 두텁게 하고 『천주실의』와 교리 서적 몇 권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신앙공부를 하여 천주교에 입교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충청도와 경상도 경계지점에서

백지사(白紙死)[10]로 죽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의 손자 오치문과 증손자 오상선도 천주교를 받아들여 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언양성당이백년사 – 언양천주교회사』, 언양천주교회, 1991

유간(柳澗, 1554~162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노천(老泉). 호는 후재(後材). 유여(柳璵)의 증손으로, 조부는 유광훈(柳光勳)이고, 부친은 유경원(柳敬元)이며, 모친은 권흠(權欽)의 딸이다.

문음으로 입사해 4품직인 첨정(僉正)직을 수행하다가, 1598년(선조 32)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2년 후 형조정랑으로 옮겼다가, 다시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홍문관의 부수찬·부교리를 지냈다. 홍문관에 재직할 때 경연에서는 주로 『주역』을 강하였다. 이후 의정부사인, 세자시강원필선, 홍문관교리·부응교를 거쳐 경상도어사로 파견되었다.

홍문관응교로 승진하였다가, 1605년(선조 38) 동부승지로 임명되어 활동 중 양계(兩界)의 관기를 데려다 거느렸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이듬해 우승지로 옮겼고, 대사간에 올랐다. 선조가 죽자, 수어의(首御醫) 허준(許浚)의 잘못된 약의 처방기를 문제삼은 탄핵 문제로 혐의를 받고 사직소를 올렸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사은사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호조참의·예조참의·형조 참의, 부제학을 거쳐, 다시 대사간직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조참의·병조참판·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616년(광해군 8) 선조 때 죽은 광해군의 생모 공빈김씨를 공성왕후로 추숭(追崇)하는 면복(冕服)[11]을 청하는 주청부사(奏請副使)로 갔다 온 공으로, 외거노비 3구와 토지 20결이 하사되었다.

그 뒤 우참찬으로 승진해 우의정 한효순(韓孝純) 등이 발의한 인목대비 폐비론에 가담하였다. 서궁을 폐출하자는 의견이 있을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헌으로 그 일을 담당하였

[10] 문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물을 뿌려 질식 시키는 형

[11] 곧 왕비로의 정식 승인

다.

그러나 1619(광해군 11) 인목대비의 폄손(貶損)에 관한 절목을 감정할 때, 우연히 눈물을 흘렸다가 그 일로 탄핵되어 울산부사로 밀려났다. 이듬해 진향사(進香使)로 중국에 파견되었는데, 당시 요양이 함락되어 명나라로 들어가는 육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 수로를 개척·이용하였다. 중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 도중 배의 침몰로 진위사(陳慰使) 박이서(朴彝敍), 서장관(書狀官) 정응두(鄭應斗) 등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다. 아들 유여항(柳汝恒)과 유여각(柳汝恪)이 이 일로 가자(加資)[12]되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광해군일기』『국조방목』『연려실기술』『대동야승』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유효원(柳孝源, 1751~1813)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사백(斯伯). 아버지는 삼도수군통제사 진항(鎭恒)이다.

1774년(영조 50) 무과에 급제한 뒤 1776년(정조 즉위년) 무과중시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고, 1780년 평산부사를 거쳐 1782년 8월 죄인 신형하(申亨夏)를 정배할 때 이를 법대로 다스리지 않았다 하여 도배(徒配)되었다.

1785년 다시 기용되어 경상좌도수군절도사에 승진하였고, 1792년 평안도병마절도사를 거쳐 이듬해 우포도대장이 되었다. 그 뒤 금군별장(禁軍別將)·좌포도대장에 제수되었으나 1797년 민가의 실화로 인하여 파직되었다가 다시 우포도대장으로 복직되었고, 이어 1804년(순조 4)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1807년 다시 좌포도대장이 되었으나 수하 병졸들의 군기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가, 1811년 다시 기용되어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자 박기풍(朴基豊)을 대신하여 양서순무사중군(兩西巡撫使中軍)으로 군기를 쇄신한 뒤 정주성을 폭파시켜 난을 평정하였다.

---

[12] 정3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려줌

1812년 다시 우포도대장이 되었고, 이 해 6월 난의 평정에 따른 상벌을 논의하는 중 항복한 반군 1,917명을 모두 처형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과상반(功過相半)이라는 것으로 대간에서 삭직을 요청하였다. 다음해 좌포도대장을 지내고 죽었다. 1830년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참고문헌】

『정조실록』『순조실록』『서정일기(西征日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지태(尹志泰, 1700~1751)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칠원(漆原). 자는 대첨(大瞻). 대사간(大司諫) 윤석보(尹碩輔)의 후손으로, 아버지 윤은적(尹殷績)과 어머니 함양박씨와의 사이에서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723년(경종 3)의 사마시(司馬試)에 생원(生員)이 되었으며 1735년(영조 1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38년 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다. 1746년 사간으로서 무과의 문란을 논하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무신으로 힘을 과시하던 구선행(具善行)과 의금부 당상관들을 탄핵하였다.

1742년부터 1744년까지 울산부사를 지냈으며, 울산에 여러 치적을 남겼는데, 특히 태화강의 수리사업과 농경 관개시설 조성에 힘을 쏟았다. 현재 중구 태화동 동강병원 축대에 영세불망비가 남아있다. 남양부사 재직 시절 전염병이 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자 파직을 당하였다. 뒤에 다시 시강원필선으로 복직하여 세자교육에 힘썼다.

1751년 2월 8일 향년 52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정조실록』『국조방목』

『울산남구문화』 6집, 「울산도호부사 윤지태」, 2008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윤홍국(尹弘國, 1576~16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장경(張卿). 계훈(繼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시우(時雨)이고, 아버지는 수운판관 상(商)이며, 어머니는 현감 이원우(李元友)의 딸이다.

정철(鄭澈)·김장생(金長生)에게서 수학하였다. 생원으로 1601년(선조 34)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04년 병조좌랑·춘추관기사관이 되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왕조실록 재간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울산판관에 이어 북평사직강(北評事直講)·용양위(龍驤衛) 부호군이 되었다. 1615년(광해군 7)에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이듬해에 죽었다.
그가 하료(下僚)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정철이 탄핵을 받았을 때 이에 연좌되었으며, 간신 이이첨(李爾瞻)이 그를 꺼렸기 때문이다. 일찍이 성혼(成渾)을 만났을 때 그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옛것을 사모하고 의를 중하게 여겼으며, 세속에 초연하고 안빈낙도를 몸소 실천하였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국조방목』 『송자대전』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광희(李光熹, 1688~1746)

조선 후기 유학자. 자는 사회(士晦). 호는 태화당(太和堂). 증조부는 봉직랑(奉直郞) 이천기(李天機)이며, 조부는 이정영(李廷英)으로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증직하였다. 후사가 없어서 아우의 아들 이시찬(李時纘)을 양아들로 삼으니, 곧 그의 아버지이다. 모친은 황정(黃綎)의 딸로, 부덕(婦德)이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풍채가 컸고 천성은 순박하고 후덕하였다. 어머니 품에서 벗어날 무렵에는 어른스러운 생각이 있어 아이들과 놀 때에도 일찍이 싸운 적이 없었으며 취사선택의 바름을 잃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친하고 친하지 않음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기풍이 있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후일에 우리 집안을 보호할 이는 바로 이 아

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큰 아버지에게 글을 배울 때에 풀리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연구하였다.

계림사화 때 함경도 명천에서 유배생활을 하기도하였다. 저서로 『태화당유고(太和堂逸稿)』와 『태화당북정기(太和堂北征記)』가 있다.

【참고문헌】

『태화당문집』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이근오(李覲吾, 1760~183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울산(蔚山). 울산 출신. 초명은 중오(中吾). 자는 성응(聖應), 호는 죽오(竹塢). 아버지는 의창(宜昌)이며, 어머니는 고성이씨(固城李氏)로 기(頎)의 딸이다.

남용만(南龍萬)의 문하에서 수학, 이정규(李鼎揆)와 교유를 맺고 학문을 연마하였다. 1789년(정조 13)에 진사가 되었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울산 출신으로는 드물게 과거시험 대과에 합격한 것이다. 1791년에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그뒤 봉상시참봉(奉常寺參奉), 성균관·교서관 박사, 성균관전적을 역임하였다.

1802년(순조 2) 후릉영(厚陵令)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병조좌랑을 거쳐 1819년에 사헌부 지평에 이르렀다. 그 뒤 관직에서 물러나 양사재(養士齋)를 짓고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경학과 사학에 전념하였다. 저서로는 『죽오유집』 5권이 있다.

【참고문헌】

『국조방목』 『죽오유집(竹塢遺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동영(李東英, 1635~1667)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鶴城). 울산 치남(治南) 월진촌(月津村)에서 출생. 자는 화백(華伯). 호는 이휴정(二休亭). 증조부는 이대배(李大培)이고, 조부는 이한남(李翰南)이며, 부친은 이천기(李天機)이다.

타고난 바탕과 성품이 훌륭하고 재예(才藝)가 남들보다 뛰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유훈(遺訓)을 받들었다. 글자를 익히는 데 정밀하여 부족함을 느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며, 경사(經史)와 필법(筆法)에도 통달하였다. 1666년(현종 7)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에 생원(生員) 3등 37위로 합격하였으나 불행하게 일찍 죽었다.

문집으로 『이휴정문집(二休亭文集)』 이 있다. 그가 건립한 이휴정(二休亭)은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이휴정문집』『사마방목』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이순민(李舜民, 1569~162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호여(皞如). 호는 이봉(伊峰). 효령대군 보(孝寧大君補)의 9대손으로, 할아버지는 판관 사건(思騫)이며, 아버지는 충좌위(忠佐衛) 분순부위(奮順副尉) 응시(應時)이다.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성력(星曆)에 통달하였고 수리(數理)에 밝았다. 1594년(선조 27) 정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여 부수찬(副修撰)·주서(注書)·기사관(記事官)·예조정랑·홍문관 교리(校理)·시강원 독서(讀書)·수원판관·영주군수·내섬시정(內贍寺正) 등 주요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621년(광해군 13) 1월 울산부사에 부임하여 근무 중 이 해 5월 과로로 임지에서 순직하여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이봉집(伊峰集)』 을 남겼다.

【참고문헌】

『선조실록』『광해군일기』『국조방목』『국조인물지』『연려실기술』『울산읍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양오(李養吾, 1737~1811)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문장가. 본관은 학성. 울산 출생. 자는 용호(用浩). 호는 반계(磻溪). 증조는 이문좌(李文佐)이고, 조부는 이시발(李時發)이다. 부친 이의채(李宜埰)와 모친 정탁(鄭鐸)의 딸 영일정씨(迎日鄭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장한응(張漢應)의 딸 옥산 장씨(玉山張氏)이다.

7세에 19사(史)를 읽기 시작하였는데 반쯤 읽었을 때부터 스스로 해석하며 읽을 정도로 영민하였으며, 의문점은 친척들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반복해 읽고 연구한 다음에야 그만두었다. 장성해서도 가르침을 받기 위해 대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강론을 듣고 질의하며 깨우쳤다.

1786년(정조 10) 모친상을 당한 이후 과거시험에 대한 뜻을 접고 경서를 깊이 연구하고 경사(經史)를 탐독하였다. 또 장자(莊子)·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 등의 진한고문(秦漢古文)과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문장을 문장전범으로 삼고 실력을 닦았다. 향년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묘는 경상남도 양산군(梁山郡) 원적산(圓寂山)에 있다. 저서로 『반계집(磻溪集)』이 있다.

【참고문헌】

『반계집』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이원담(李元聃, 1683~1762)

자는 경노(景老). 호는 송옹(松翁), 묵일와(默逸窩).

어릴 때부터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영민하여 12~13세 때 이미 옛 성현의 어구를 외워 때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이웃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으며 부친의 명으로 시문을 익혀 과동(科同)에 들어가 막힘없이 글을 지었으나 여러 번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침내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성(心性)공부에만 열중하였다. 나라의 기근이 심하자 진휼미를 남보다 먼저 내기도 하였다.

구강서원 원장으로 재임중인 1735년(영조 11) 여름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한 청대 권상일이 부임인사차 사묘(祠廟)를 배알하러 왔을 때 서원의 동·서재를 창건하자는 청을 올려 그 해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해인 1736년에 완공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대 권부사가 상사(上舍) 박망구와 백씨(伯氏)인 국옹(菊翁)과 함께 『학성지』 초고본의 편찬을 위촉할 때 그의 나이 53세 때였다.

형과 더불어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다. 안빈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학문을 돈독히 하였다. 향도(鄕道)들의 추천을 여러 번 받았다.

만년에는 지금의 북구 화봉동 못골안 도적골에 무릉서당(武陵書堂)을 지어 후학들에게 강론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1762년(영조 38) 10월 4일 80세로 세상을 하직하니 동화산(同華山) 손좌(巽坐)에 장사지내고 매년 음력 10월 14일에 묘제를 드리고 있다.

부인 경주김씨와의 사이에 다섯 아들을 두었으며 그의 현손인 휘 승혁(升赫)은 1880년(고종 17) 성균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지금의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선바위 동쪽 백룡담 벼랑 위에 1796년~1801년까지 5년간 부사로 재직한 이정인(李廷仁)이 '입암정(立岩亭)'이란 정자를 세웠으나 허물어져 1940년대 이원담을 추모하기 위하여 '용암정(龍巖亭)'으로 이름을 바꿔 그의 후손들이 다시 축조하였다.

【참고문헌】

『울산광역시사』 2권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남구문화』 2집, 「울산최초의 읍지 학성지 초고본의 주역들」, 2004

이원희(李元熙, 1805~1872)

조선 말기의 무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선장(善長). 선전관 익권(益權)의 아들이다.

여러 무관직을 두루 역임한 뒤 1858년(철종 9) 경상좌도병마절도사가 되어 병영성을 개축하였다. 이듬해 우포도대장이 되었으나 돈의문(敦義門)에서 발생한 괘서사건의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책임으로 파직 당하였다. 뒤에 재기용되어 1864년 황해병사를 거쳐 1866년 행호군이 되었다가 병인양요로 인하여 프랑스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총융청(總戎廳) 중군으로 임명되어 강화에 파견되었다. 그 해 10월 강화도 양화진(楊花津)에 진을 친 뒤 프랑

스군대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소모사(召募使)가 되어 경기일원의 장정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 뒤 11월 다시 우포도대장이 되었고, 1869년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이듬해 어영대장·훈련대장·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7월 공조판서에 임명되고, 1871년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를지냈다. 시호는 정희(靖僖)이다.

【참고문헌】

『철종실록』『고종실록』『일성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윤겸(李潤謙, 1748~1810)

조선 후기 무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자익(子益). 북병사(北兵使)·포도대장(捕盜大將)을 지낸 이방엽(李邦曄)과 상산김씨(商山金氏)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1775년 무과에 급제한 이후 1783년에 홍충도병마절도사가 되었고, 1792년 충청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승승장구하여 1794년(정조 18) 6월 울산에 있는 경상좌병영의 좌병사로 부임하여 1796년 5월 27일까지 2년을 울산의 좌병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다음 임지로 떠났다. 1798년에는 함경북도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

1799년에 함경도관찰사 구익(具瀷)과 함께 서북진(西北鎭)을 장군파고보(將軍坡古堡)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또 새로운 진지 주위에 봉수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1802년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고, 이후에도 좌포도대장·우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1810년(순조 10)에 평안도병마절도사에 재직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지낸 이완식(李完植)을 두었다.

【참고문헌】

『울산남구문화』 8집, 「삼도수군통제사 이윤겸에 대한 고찰」, 2010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이의립(李義立, 1572 ~1642)

지금의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서 출생. 호는 구충당.

이의립은 1660년 중앙의 훈련도감에 무쇠 1000근, 철환 73만개, 솥 440좌 등을 바쳐 동지중추부사라는 벼슬을 수여받았다. 또한 달천광산인 철산을 사패지로 받아 대대로 광산을 경영하였다. 이의립은 그의 할아버지 이호의 묘소가 달래쇠곳에 있으므로 이곳을 예전부터 알았을 것이다. 조선 전기에 보이던 철장 운영과 관련된 기록은 요역 동원이 힘들어진 16세기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1657년(효종 8) 이의립이 울산 달천철장을 발견했다는 것에서부터 다시 등장한다. 효종 때 북벌정책이 추진되면서 군사력 강화를 위해 각종 무기를 제작하는 철을 전국적으로 구하면서 달천철장은 화려하게 부상하였다. 철광석은 60% 이상이 철성분이 들어있지만 토철은 30% 정도다. 토철은 양이 많고 파내기 쉽기 때문에 구충당은 토철을 파내어 철을 생산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서 생산한 철로 솥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게 되었다. 구충당이 개발한 달천광산의 토철을 이용해 광산 주변에서 쇠를 녹이는 일을 했는데 이를 '쇠부리'라고 했다. 쇠부리 장소는 지금까지 120여 군데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구충당 선생이 개발한 달천광산의 토철을 녹여 철을 생산했으니 나라에 끼친 공은 물론이지만 백성들 살림살이도 풍요로워지게 되었다. 구충당은 또 화약을 만드는 재료인 유황광산도 발견해 공을 세웠다.

【참고문헌】

『인조실록』 『국조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인중(李仁中, 1825~1896)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학성(鶴城). 울산 출신. 자는 성원(性元). 호는 기산(企山), 간우(艮宇). 아버지는 승헌(升憲)이고, 어머니는 연일 정씨(延日鄭氏)로 태휴(台休)의 딸이다. 이종상(李種祥)의 문인이다.

일찍이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자, 그만두고 성리학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중문(中門)

밖에 방 한 칸을 따로 지어 그 안에서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는데, 『성리대전(性理大全)』과 『도산언행록(陶山言行錄)』을 즐겨 읽었다.

뒤에 수많은 문도들이 몰려들어 '간우선생(艮宇先生)'이라 일컬었다. 1855년(철종 6)에는 융릉(隆陵)의 전례(典禮) 문제로 「의리소(義理疏)」를 지어 윤가묵(尹家默)과 함께 상경하기도 하였다. 저서로 『간우유고(艮宇遺稿)』 4권이 있다.

【참고문헌】

『간우유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정효(李廷孝, 1832~1917)

조선 말기 유학자. 본관은 경주(慶州). 울산 출신. 자는 순거(舜擧). 호는 후송(後松). 조부는 이우하(李友夏)이고, 부친 이익선(李翼璇)과 모친 김양규(金亮奎)의 딸 김해 김씨(金海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838년 숙부 이익만(李翼萬)에게 배웠는데, 총명하여 한 번 배운 것은 잊지 않았다. 12·13세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였고, 한시를 잘 지어 명성이 있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으로 나라의 정세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세상사와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 후 부친이 거처했던 집을 '거경재(居敬齋)'라고 편액하고 그곳에서 사서(四書)와 주자서(朱子書)를 탐독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특히 주희(朱熹)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써서 걸어 두고 언행을 삼갔고, 또 한원진(韓元震)·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 대학자들이 지은 여러 격훈(格訓)을 곁에 두고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나이를 걱정한 주위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무후(武侯)의 「출사표(出師表)」와 『사기(史記)』의 「장중승전(張中丞傳)」을 외우며 자신의 뜻을 의탁하였다. 1905년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이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며 뇌문(誄文)을 지어 애도하였다. 향년 8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저서로 『후송집(後松集)』이 있다.

【참고문헌】

『후송집』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이현담(李玄聃, 1682~1782)

울산시 북구 송정동에서 출생. 자는 상노(常老). 호는 국옹(菊翁). 충숙공 예(藝)의 9대손이며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인 아버지 이식(爾栻)과 어머니 숙부인 월성이씨 사이에 5남 1녀 중 장자로 출생하였다.

1731년(영조 7)에는 구강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735년에 부임한 권상일이 서원을 찾아 알묘(謁廟)한 뒤 서원 중수에 관심과 뜻을 두니 성조도감(成造都監)을 맡고 동생 원담은 원장을 맡아 서원제도를 확충하고 동·서재를 건립, 대문삼간(大門三間)과 신문(神門)을 중수하였다. 또한 그는 시조인 충숙공의 위패를 모시는 용연사(龍淵祠)의 창건시 위판(位版)을 썼다. 용연사는 나중에 이건(移建)하여 석계서원(石溪書院)이라 하였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품성이 온순하고 믿음직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있게 하였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자 밤낮으로 똥을 맛보며 병의 정세를 살피다가 장차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아버지의 입에 대어 소생하게 하였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부인 월성최씨와의 사이에 3남 4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1782년 7월 향년 71세를 일기로 죽으니 지금의 북구 강동동 대안리 갈밭메기 간좌원(艮坐原)에 안장하였으며 매년 음력 10월 27일에 후손들이 모여서 세일향(歲一享)하고 있다.

【참고문헌】

『울산광역시사』 2권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남구문화』 2집, 「울산최초의 읍지 학성지 초고본의 주역들」, 2004

임성고(任聖皐, ?~?)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중안(仲岸), 호는 우연옹(偶然翁). 아버지는 통제사 율(嶪)이다.

1795년 무과에 급제, 1808년 흥덕현감을 지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박천군수로 재임중 박천을 점령당하여 인부(印符)를 가지고 안주로 가려다가 노모가 적에게 잡히자 돌아와 포박당하였다.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세록지신(世祿之臣)[13]으로 절개를 지켰으며 백성들의 요구로 죽음은 면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철원부사를 거쳐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울산에 부임했다가 1828년(순조28년)에 이곳을 떠났다. 1835년에는 삼도우군통제사 겸 수군절도사, 1837년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를 역임하고 내직으로 옮겨 좌변포도대장·금위대장·한성부판윤·어영대장·훈련대장 등을 거쳐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처음에 무의(武毅)였으나 충정(忠貞)으로 개시(改諡)되었다.

【참고문헌】

『순조실록』『헌종실록』『청선고(淸選考)』『조선명신록(朝鮮名臣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붕익(張鵬翼, 1646~1735)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운거(雲擧). 할아버지는 교리 차주(次周)이다.

1699년(숙종 25)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으로 있을 때 소론 김일경(金一鏡) 일파에게 몰려 파직되는 등 일찍부터 노소당쟁(老少黨爭)의 와중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시 기용되어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거쳤다(1716 숙종 42년).

1723년 신임사화 때 김재로(金在魯)·신사철(申思喆) 등과 함께 노론 김창집(金昌集)의 당으로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에 유배, 2년 뒤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 나왔다.

그 뒤 군기시제조(軍器寺提調)·어영대장·훈련대장·형조참판·우포도대장 등을 역임한 뒤, 1727년 훈련대장 재직시 무신으로서 파당(派黨)에 관여했다 하여 일시 파직되었다.

이듬해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한성부좌윤으로서 진어대장(鎭禦大將)에 임명되어 북한산성을 지키며 반란주모자의 한 사람인 평안병사 이사성(李思晟)의 체포에 공을 세웠다.

---

[13] 여러 대를 거쳐 국가의 녹을 받는 신하

이어 총융사가 되어 종사관(從事官) 이덕재(李德載)와 함께 수원에 출진, 난군의 일당 이배(李培)를 잡아 포송해 반란군 토벌에 큰 공을 세웠다. 1729년 부사직으로서 과거제의 폐단과 모순을 지적, 상소하였다.

특히 무과 급제자가 수천에 달하나 전혀 임용될 자리가 없다는 것과 시규(試規)[14]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 해 한성부판윤에 발탁되고 다시 훈련대장을 거쳐 1734년 형조판서에 올랐다. 이 때 별군직(別軍職) 윤필은(尹弼殷)이 써올린 「전선개조책(戰船改造策)」에 의거, 전선과 거북선의 「개조도(改造圖)」를 새로 작성해 해전의 전술과 해상의 방어대책 강구에 진력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참고문헌】

『경종실록』『경종수정실록』『영조실록』『국조인물고』『전고대방(典故大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석룡(張錫龍, 1823~1907)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진백(震伯), 호는 유헌(遊軒), 운전(雲田). 아버지는 학추(學樞)이며, 어머니는 선산김씨(善山金氏)로 구운(龜雲)의 딸이다.

1846년(헌종 12) 정시문과에 급제, 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을 지내고 이듬해 사헌부지평과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으며, 1848년 증광문과회시(增廣文科會試)의 시관(試官)을 거쳐 춘추관기사관이 되었다.

해남현감으로 나갔다가 1849년 사헌부장령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854년 홍문관부수찬·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등의 직을 역임하고, 1857년 홍문관교리 등을 거쳐 현풍현감에 제수되었다.

1864년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당시의 시폐(時弊)를 지적하였다. 이해에 대사간·예조참의·공조참의·경주부윤이 되었으나 곧 귀향하였다. 1875년(고종 12) 울산부사가 되어 울산민란

[14] 시험 시행상의 규칙

을 수습하였다. 1877년에는 좌승지가 되어 서울로 떠났다. 77세에 다시 공조판서·이조참의, 80세인 1892년에 궁내부특진관을 지냈다. 저서로 『유헌집』 11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

『철종실록』 『유헌집(遊軒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후장(全厚章, 1705~1772)

남목 목장 관리. 본관은 옥산. 자는 군장(君章).

1746년에 호랑이 다섯 마리를 잡은 공이 있어 '절충(折衝)'에 가자(加資)되었다. 또한 1747년에 또 호랑이를 잡은 공이 있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되었다. 1772년 10월 초 8일에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1월6일 울산 동면 남옥(南玉)에서 서쪽으로 거리가 3리쯤 되는 서쪽 능선에 묘를 잡았다.

남목 불당골에는 그의 행적을 기리는 착호비가 남아있다.

【참고문헌】

『승정원 일기』

「착호비문」

정기룡(鄭起龍, 1562~1622)

조선 중기의 무신. 곤양 정씨(昆陽鄭氏)의 시조. 초명은 무수(茂壽).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운(景雲). 호는 매헌(梅軒). 증 호조참판 철석(哲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호조판서 의걸(義傑)이고, 아버지는 증 좌찬성 호(浩)이다.

1580년(선조 13)고성에서 향시에 합격하고, 1586년 무과에 급제한 뒤 왕명에 따라 기룡으로 이름을 고쳤다. 1590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신립(申砬)의 휘하에 들어가고 다음해 훈

련원봉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별장으로 승진해 경상우도방어사 조경(趙儆)의 휘하에서 종군하면서 방어의 계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거창싸움에서 왜군 500여명을 격파하고, 김산(金山)싸움에서 포로가 된 조경을 구출했고, 곤양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았다. 이어 유병별장(游兵別將)이 지내고, 상주목사 김해(金澥)의 요청으로 상주판관이 되어 왜군과 대치, 격전 끝에 물리치고 상주성을 탈환하였다. 1593년 전공으로 회령부사에 승진하고, 이듬해 상주목사가 되어 통정대부에 올랐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토왜대장(討倭大將)으로서 고령에서 왜군을 대파하고, 적장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이어 성주·합천·초계·의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고 절충장군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승진해 경주·울산을 수복하였다. 1598년 명나라 군대의 총병(摠兵)직을 대행해 경상도 방면에 있던 왜군의 잔적을 소탕해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오르고, 이듬해 다시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601년 임진왜란이 끝난 뒤 다시 경상도방어사로 나가 다시 침입해올지 모르는 왜군에 대처했고, 다음 해 김해부사·밀양부사·중도방어사(中道防禦使)를 역임하였다. 그 뒤 용양위부호군 겸 오위도총부총관·경상좌도병마절도사 겸 울산부사를 지냈다.

1610년 상호군에 승진하고, 그 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서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의 직을 맡다가 1622년 통영 진중에서 죽었다. 상주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참고문헌】

『선조실록』『선조수정실록』『광해군일기』『해동명장전』『난중잡록』『송자대전(宋子大全)』『학사집(鶴沙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재선(趙載選, 1713~1774)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풍양(豊壤,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산리). 한양에서 출생. 자는 택지(擇之). 휘는 재선(載選). 증 이조판서인 아버지 휘 철명(哲命)과 증 정부인 연안이씨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숙부인 증 이조참의 휘 택명(宅命)에게 출계하였다.

26세 때인 1738년(영조 1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처음 벼슬길에 올랐다. 1752년 효순현빈(孝純賢嬪)을 세자의 묘소에 부장(祔葬)할 때 집사(執事)의 자격으로 예식에 참여하여 말과 활을 하사받았다. 1764년 7월 28일부터 1769년 6월까지는 울산도호부사를 5년 동안 역임하였는데, 이때 고을의 경영에 많은 치적을 남겼다. 특히, 부역에 대하여 사리에 맞게 나누어 부여하였고, 향교의 경영에 효율적으로 지원하였다. 그후 그는 충주목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1774년(영조 50)에 62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충주 남창 후록(后麓)에 두 부인과 합부하였다. 훗날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울산부사 퇴임 후 고을사람들이 곳곳에 선정비를 세웠는데, 북구 강동동 달골마을 입구 도로변, 중구 학성동 학성공원 북쪽 산록,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반계마을 뒷산(운흥사지 입구)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문헌】
『사마방목』『영조실록』
『울산남구문화』 7집, 「울산도호부사 조재선에 대한 고찰」, 200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최양업(崔良業, 1821~1861)

천주교 신부. 본관은 경주(慶州). 충청남도 홍주(洪州) 다락골(현재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출생. 아버지는 경환(京煥)이고, 어머니는 이성례(李聖禮)이다.
초창기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처럼 그의 아버지도 박해를 피하여 자주 이사를 다니다가 경기도 과천 수리산에 정착하여 산간생활을 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독실한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다.
1836년 초 조선 입국에 성공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모방(Maubant,R.) 신부에 의하여 김대건(金大建)·최방제(崔方濟)와 함께 조선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37년 6월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마카오 도착 1년 만에 최방제가 풍토병으로 사망하고 두 사람은 1842년까지 신부수업을 받다가 갑자기 귀국길에 올랐다. 중국과 조선에 이권을 찾고 있던 프랑스는 세실(Cecille)제독으로 하여금 조선원정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세실은 조선인 신학생을 통역으로 동행시켜 줄 것을 신학교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징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자 세실은 이 계획을 포기하였고, 최양업과 김대건은 각기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1839년의 기해박해가 있었던 직후라 천주교도들에 대한 검문검색이 심하였다. 특히 사군난(私窘難)이라 불리던 사사로운 박해가 심하였던 시기라 조선입국이 여의치 못하였다. 최양업은 수차례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뒤 1849년 4월 상해의 강남교구장 마레스카(Maresca) 주교에 의하여 사제품을 받고, 김대건에 이어 두번째 조선인 신부가 되어 그 해 12월 조선입국에 성공하였다. 유일한 조선인 신부였던 그는 천주교가 다소 묵인되던 철종연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전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최양업은 언양지역 공소를 옮겨 다니며 성사를 집행하고 포교를 행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그의 서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박해 때문에 신자들의 고백성사가 밀려 있었고, 산간의 여러 공소에서는 신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신부 수는 절대부족하였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나치게 전교에 힘쓰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설상가상으로 식중독이 겹쳐 1861년 6월에 사망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배론신학교에서 베르뇌(Berneux,S.F.) 주교에 의하여 거행되었다.

초기의 두 조선인 신부인 김대건과 그는 '피의 증거자(순교)'와 '땀의 증거자(순직)'로 지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2년에 걸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전교활동은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활동과 업적은 그 동안 김대건의 순교에 가려 크게 조명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우선 그는 한국천주교회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치가 있는 19통의 라틴어 편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자기 부모의 순교사적을 비롯하여 순교에 관한 증언과 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 다블뤼(Daveluy,M.N.A.) 보좌주교는 이 자료들을 자신의 비망록에 수록하였고, 교회사가 달레(Dallet,C.C.)는 『한국천주교회사』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그는 1864년 목판본으로 『성교요리문답』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천주성교공과』 기도서를 번역, 간행하였으며, 「사향가」·「사심판가」·「공심판가」 등의 천주가사(天主歌辭)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의 라틴어 편지에는 당시 조선사회에 대한 그의 입장과 아울러 천주교의 전파가 효율적으로 이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양반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악의 근원으로 교회에서는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로 볼 때는 인재등용을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선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파견되기 전에 조선의 실정과 풍습을 익힐 것을 주장하였고, 조선에서의 자유로운 선교를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획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프랑스정부가 조선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펴도록 촉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천주교회사』 중·하,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분도출판사, 1980

『천주가사의 연구』, 김진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최양업신부와 교회촌』, 김옥희, 학문사, 1983

『한국교회사연구총서』 3, 「최양업신부서한집」, 임충신·최석우 역주, 1984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최제우(崔濟愚, 1824~1864)

동학의 초대 교주이자 동학의 창시자.

울산은 최제우의 부인 박씨의 고향으로 13세에 결혼하였다. 동학 창시를 위해 고민하고 있던 청년기에 울산 유곡동으로 이주하여 여기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5세에 어머니를 잃고, 1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세에는 스승인 최림까지 죽었으며, 큰 불이 나서 집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였다. 그후 21세 되던 해(1844년)에 처가가 있는 울산 유곡동으로 생활 터전을 옮겼다. 이곳은 그의 16년간의 생활 거점이 된다. 그는 행상 길을 나서서 바늘 행상을 해가며 이곳저곳을 유랑했다. 이러한 유랑을 통해서 그는 당시 사회의 모순을 목격할 수 있었다. 1854년 그는 유랑을 청산하고 다시 유곡동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그는 여시바윗골에 따로 초가집을 지어 처가에서 독립하였다. 이곳에서 수행에 정진하였다. 이때 그는 '동래 부근에서 서학을 하는 경주 최씨 성을 가진 사람과 담론도 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동래에 거점을 두고 경사도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던 최양업과 교류로 여겨진다.

두사람은 지향하는 종교는 다르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경주 최씨이고, 종교에 심취한 것으로 보아 교류의 가능성이 높다. 이 만남을 통하여 최제우는 서학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1855년 3월 어느날 그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온 선사로부터 신인(神人)에게서 얻었다는 기서(奇書)를 받게 된다. 이를 『을묘천서(乙卯天書)』라고 한다. 이 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하늘에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동안 그는 세상을 구할 도를 밖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접했다. 그러나 을묘천서 사건 이후에 그는 한울님에게 기도를 하여 도를 얻고자 하는 수련의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을묘천서는 최제우의 득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양산군 내원암으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수도를 시작한다. 수도 생활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여야 했다. 그래서 그는 1857년 고향의 논 6두락을 팔아, 이돈으로 울산에 철점(鐵店)을 낸 뒤 부인에게 맡겨 생계를 꾸리게 하였다.

그러나 철점의 경영이 어려워 빚만 지게 되었고, 매일 빚 족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욱이 앞서 논을 방매할 때 2중으로 판 것이 드러나 사기죄로 경주 관아에 고발까지 되었다. 1859년 10월 그는 마침내 가족을 이끌고 울산을 떠나 경주 용당점으로 돌아갔다. 이곳에서 정진을 계속하던 그는 마침내 1860년 4월 5일에 득도(得道)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동경대전(東經大全)』『용담유사(龍潭遺詞)』

『천도교창건사』, 이돈화,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동학사』, 오지영, 영창서관, 1940

『동학의 사상과 운동』, 최동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이현희 편, 청아출판사, 1984

『도원기서(道源記書)』, 윤석산 역주, 문덕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상빈(洪尙賓, 1672~1740)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남양. 자는 광국(光國). 증조는 홍여량(洪汝亮)이고, 조부는 홍유수(洪有壽)이다. 부친 홍경렴(洪景濂)과 모친 조사문(趙嗣文)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으로 홍상용(洪尙容)이 있다. 처부는 이태(李郃)이다.

1705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717년 다시 문과 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21년(경종 원년) 울산부사로 부임한 그는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영당을 철거하였다가, 영조

즉위 후 노론이 집권하자 탄핵되었다. 이후 다시 중용되어 승지로 발탁되었으나 사간원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등용되어 형조참판·동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정족산 운흥사지 입구 바위에 새겨진 '운흥동천(雲興洞天)'이라는 글씨를 남겼다.

【참고문헌】

『숙종실록』『경종실록』『영조실록』『국조방목』『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홍세태(洪世泰, 1653~1725)

조선 후기의 시인.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도장(道長). 호는 창랑(滄浪), 유하(柳下). 아버지는 무관이었던 익하(翊夏)이며 어머니는 강릉유씨(江陵劉氏)이다.

홍세태는 5세에 책을 읽을 줄 알고 7, 8세에는 글을 지을 만큼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으나 신분이 중인층이라 제약이 많았다. 시로 이름이 나서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이규명(李奎明) 등의 사대부들과 절친하게 지냈다. 임준원(林俊元)·최승태(崔承太)·유찬홍(庾纘弘)·김충렬(金忠烈)·김부현(金富賢)·최대립(崔大立) 등의 중인들과 시회를 함께 하며 교류하였다.

홍세태는 1675년 을묘식년시에 잡과인 역과(譯科)에 응시하여 한학관(漢學官)으로 뽑혀 이문학관(吏文學官)에 제수되었다. 1682년 통신사 윤지완(尹趾完)을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1698년에 역과 합격 때에 제수된 이문학관에 실제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 사신이 우리 나라의 시를 보고자 하였을 때에 좌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숙종에게 그의 시를 추천하여 임금에게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해에 제술관에 임명되었다.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였다가 1702년에 복직하였다. 홍세태는 1705년에 둔전장(屯田長), 1710년 통례원인의(通禮院引義), 1713년 서부주부 겸 찬수랑(西部主簿兼纂修郎)이 되었다. 1715년 제술관이 되었고 1716년에 의영고주부(義盈庫主簿)가 되었다. 그러나 곧 파직되었다.

뒤에 그가 재능과 맞지 않게 궁핍하게 사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이광좌(李光佐)의 도움으로 1719년에 울산감목관(蔚山監牧官)이 되었다. 1722년(경종 2)에는 제술관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남양감목관이 되었다. 문장의 재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제술관을 특히 많이 역

임하였다.

홍세태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8남 2녀의 자녀가 모두 앞서 죽어 불행한 생애를 보냈다. 이러한 궁핍과 불행은 그의 시풍에도 영향을 끼쳐 암울한 분위기의 시를 많이 남기고 있다. 중인 신분으로서의 좌절과 사회부조리에 대한 갈등이 시 속에 우수와 감분(感憤)을 담게 하였다. 한시에 대한 재능을 널리 인정을 받았다. 비절(悲切)하고 그윽한 서정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 특히 능하였다. 위항문학(委巷文學)의 발달에도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중인층의 문학을 옹호하는 천기론(天機論)을 전개하였다. 위항인의 시를 모아 『해동유주(海東遺珠)』라는 위항시선집을 간행하였다. 죽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시문집을 엮어 자서(自序)를 써서 부인에게 맡겼다. 죽은 지 6년 만인 1731년에 사위 조창회(趙昌會)와 그의 문인에 의하여 『유하집(柳下集)』14권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유하집』『농암집(農巖集)』『명곡집(明谷集)』『이향견문록(異鄕見聞錄)』『희조일사(熙朝軼事)』『일사유사(逸士遺事)』

『조선평민문학사』, 구자균, 문조사, 19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현대 인물>

1. 정치인.관공리

김동조(金東祚, 1918~2004)

현대 외교가. 본관은 언양. 출신지는 부산. 호는 해오(海吾).

1943년에 일본의 규수[九州]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시절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여 일본 후생성(厚生省)과 내무성(內務省)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과 한국 사이를 빈번히 오가며 일본에 징용된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일본인들에게 밀고했다. 나중에 일본인들은 그를 승진시켜 한국인들에게 식량과 다른 지급품들을 배급하는 전시 책임자로 삼았다.

1951년에는 외무부 정무국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외무부차관과 초대 주일대사 및 주미대사 등을 지냈다. 1965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수석대표로 한·일수교를 주도하였다. 상훈으로 1등 수교훈장·청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저서로는 『회상 30년 한일회담』·『한일의 화해』 등을 남겼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문제가 되어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참고문헌】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2011

김석한(金錫漢, 1890~?)

정치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출생.

경성측량신숙(京城測量新塾) 제3회 졸업하고, 언양군농업축산양과강습(彦陽郡農業畜産兩科講習) 수료했다. 울산 언양지역의 유력자 중 한 명이다. 1928부터 1935년까지 상북면장을

지냈다. 1934년 12월 언양면에서 농산물 새끼 가마니 판매, 산업용 기계 기구 구매, 창고 작업장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언양산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장이 되었다. 해방 이후, 제헌 선거에서 울산 을구 후보로 등록을 했으나 도중에 사퇴하였다. 상북면장 역임 및 언양산업조합을 설립 하였다.

【참고문헌】

『직원록』, 조선총독부, 1928~1935

『조선은행회사조합요강』, 1935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Candidates Who Have Died or Resigned」 1948.05.04.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김성진(金聲振)

정치가..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하고 1932년 일본 대판(大阪)나니와중학(浪速中學) 속성과를 수료했다. 울산지역의 유력자 중의 한 명이다. 1922년 울산소작인상조회 이사를 지내고, 1923년에 설립된 울산성지보존회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경상남도 도평의원으로 있었으며, 울산국유지소작조합 회장을 지냈다. 1929년 조선박람회 경상남도협찬회 간부로도 활동하였다. 도평의회에서 각 군 농업보습학교 설치 장려, 항만 수축, 수산학교 설립 등을 주장하고, 청년회관 수리 및 이전, 유치원 설치, 노동야학 상설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기성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1935년, 1939년 울산읍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황성신문』, 「경상남도 울산군 사립개진학교(私立開進學校)를 본군(本郡)에 설립 바 처재연변(處在沿邊) 와」, 1905.07.29

『동아일보』, 「재외동포위문회원방명 55」, 1923.07.20

『동아일보』, 「부울철도기성진정대표입경」, 1923.10.18

『조선일보』, 「울산시민대운동 성황」, 1923.11.06

『동아일보』, 「농업학교설치에 질보다 양을 주장」, 1927.03.03

『동아일보』, 「임명된 도의원」, 1927.04.04
『동아일보』, 「국유지소작조총회」, 1927.11.19
『동아일보』, 「신년간친을 기회 각 지서 중요토의」, 1928.01.06
『동아일보』, 「창립비 문제로 조합걸어 고소」, 1931.08.01
『동아일보』, 「울산수조지주회 등급재사정 요구」, 1932.04.03
『동아일보』, 「당선된 읍회의원」, 1935.06.02
『동아일보』, 「읍회의원」, 1939.05.24
『일제강점기 울산성지보존회와 학성공원』, 고현우, 2012
『역사와 경계』81, 「근현대 울산지역 장시변동과 지역질서의 재편」, 허영란, 2012

김성탁(金成鐸, 1922~2007)

정치가.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출생. 호는 풍곡(豊谷).

일본 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신흥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풍곡탄광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광산을 운영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다. 울산 을구지역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제4대 국회의원에 출마·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출마 배경은 당시 제3대 국회의원이었던 정해영이 풍곡탄광주식회사를 차지하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해영과 경쟁하였지만, 당시 자유당경남도당 위원장이었던 이용범의 선거지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자유당 중앙위원 겸 정책위원을 맡았다. 4.19가 일어난 후에 부정선거로 공민권제한을 받았다. 이후 민주공화당에 편입하여 제6~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공민권제한 자동케이스 해당자 명단」, 1961.01.31
『동아일보』, 「[부고]김성탁 전국회의원」, 2007.04.30
『전국주요기업체명감』, 대한상공회의소조사부, 1956
『전국기업체총람』, 대한상공회의소조사부, 1958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양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김호연·박제균·양상현, 2007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헌, 2013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김수선(金壽善, 1911~1972)

정치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출생.

진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교육연구회 총무, 문화당 상무취체역을 지냈다. 이후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제헌선거에 출마하여 출신지인 언양을 기반으로 울산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에는 무소속 교섭단체인 신정회에 합류했다. 초기에는 민족자결, 도의국가, 균등사회, 국방강화를 언급하고, 화폐개혁 및 대통령책임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국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이후, 대통령책임제로 인한 민폐가 크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을 내각책임제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수정 법안을 내놓으며,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울산의 선거구획정이 변화한 이후, 울산 갑구지역에서 또다시 무소속으로 제3대 국회의원에 출마·당선되었다. 무소속구락부로 활동하면서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을 비판하였고, 호헌동지회의 선전간사로 활동하였다. 당선된 지 1년 후인 1955년 자유당에 입당하였다. 이로 인해 세간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자유당 입당 이후에도 내각책임제개헌을 계속 주장하였는데, 결국 1957년 자유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제4대·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였지만 낙선하였다. 1963년 민정당에 입당하였고,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김수선·남궁현씨 민정당에 참여」, 1963.01.14

『경향신문』, 「민정당대변인 정국안정위해 다행」, 1963.02.25

『경향신문』, 「김수선 전의원별세」, 1972.07.25

『대한민국인사록』, 내외홍보사, 1949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양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헌, 2013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김철정(金澈貞,1877~?)

정치가. 본관은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출생. 본명은 김철휴(金澈休)였으나 김철구(金澈龜)로 개명했다가 1909년 8월 다시 김철정으로 바꿨다.

1892년 3월 관립일어학교에 입학했다가 1893년 11월 중퇴하고 1896년 8월 다시 입학했다. 1896년 1월 우체사 기수에 임용되어 이해 5월까지 근무했다. 1898년 11월 일본 구마모토현(能本縣) 공립 한어학교(韓語學校) 교사로 초빙되어 1년간 근무했다. 1900년 4월부터 1905년 2월까지 철도원 기사를 지냈으며, 이해 11월부터 1901년 4월까지 주차일본국공사의 수원(隨員)을 겸했다. 1905년 7월부터 한 달간 법부 법률기초위원을 지냈다. 1906년 5월 탁지부 수도국 기사, 12월부터는 농상공부 참서관을 지냈다. 1907년 6월 탁지부 건축소 기사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8월 중추원 부찬의에 올랐다. 1909년 2월 경상남도관찰도 사무관, 3월부터 내부 사무관을 지내다가 19010년 5월 경상남도관찰도 언양군수에 임명되었다. 합병 후, 1910년 10월 경상남도 언양군수에 유임되었다. 1912년 8월 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4년 3월부터 경상남도 울산군수를 지내다가 1918년 6월 퇴직했다. 울산군수 재임 중 울산군지주회 회장을 지냈고, 1915년 7월부터 1917년 7월까지 경상남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맡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협력했다.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28년 11월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관방총무국, 1910.10.20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관방총무국, 1915.12.09
『직원록』, 조선총독부, 1910~1918
『조선신사보감』, 조선출판협회, 1912

『일제침략하 36년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0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김택천(金澤天, 1895~1987)

정치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출생. 김홍조(金弘祚)의 아들로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20년에는 일제시기 진주 일신고등보통학교 평의원, 울산성지보존회 평의원, 울산소작인회 시찰원, 동아일보 울산지국장 등 여러 활동을 했으며, 울산성우회(蔚山城友會)와 병영오일회(兵營五一會)와 같은 사상단체들의 군연맹간부로도 활동했다. 공직에도 종사하여 1937년 하상면장을 지냈다. 해방 이후에는 울산경찰서의 2대 서장을 지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에서는 주로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귀속재산 처리나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법률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1956년 3월 최영근, 오위영 등과 함께 민주당 울산군당을 창설하고 위원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민주당 울산군 을구당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울산 을구당 위원장이 된 이후에 계속 공천을 독점하였다. 4·19 이후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구파의 공천을 받았지만, 제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는 더 이상 당선되지 못했다.

【참고문헌】

『시대일보』, 「울산사상단체, 경찰이 가택수색」, 1925.12.13
『대한민국건국십년지』, 건국기념사업회, 1956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약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일제강점기 울산성지보존회와 학성공원』, 고현우, 201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헌, 2013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김해두(金解斗, 1920~1974)

울산 제1호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생.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출생.

울산초등학교 졸업, 울산공립농업학교(현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법대 졸업하였다. 울산 제1호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생으로 1952년 고등고시 행정과 3회에 합격하고 이후, 행정관리로 진출하였다. 1957년부터 1960년까지 경상남도 양상·창녕군수를 지내고,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인천시장을 지냈다. 1969년부터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지사를 차례로 지냈으며, 1974년 7월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장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중에 과로로 쓰러져 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한편, 울산공립농업학교 1회 졸업하였고, 제1대·제7대 울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참고문헌】

『지방행정』 23권 252호, 「최인기/ 고 김해두 실장 서거에 붙여-장관님 내일 꼭 출근 하겠습니다」, 최인기, 1974

김홍조(金弘祚, 1868~1922)

본관은 김녕.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출생. 호는 추전(秋田). 자는 경옥(景玉).

울산 출신의 거부. 울산지역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일제시기 지어진 학성공원의 부지의 상당부분도 김홍조의 토지였다. 건축물 자재판매로도 많은 부를 축적했다. 개항 이후에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 출신과 교류하였고,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시영(李始榮)의 신흥무관학교를 후원하였고 박상진의 대한광복단에도 군자금을 내며 비밀단원이 되어 활약하였고 백산상회에도 관계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냈고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리벵도 이바지하여 의정원 의원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개항기에 인재양성을 위해 울산 출신 학생들을 일본 등지에 유학을 보냈다.

1909년 이규현(李圭炫)이 설립한 사립개운학교(현 남목초등학교)의 초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1912년 구포은행의 설립에도 참가하였으며, 1918년 주일은행을 설립하는데 참가하였다. 이후 구포은행을 경남은행으로 재개편하고, 주일은행을 흡수하는 일에 기여하였다. 1909년 10월 15일 김영진(金榮鎭), 김기태(金琪郃)와 함께 경남일보 발간을 주도 하였고, 초대 사장이 되었다. 시정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평의원에 촉탁되었다.
또한 김홍조는 1915년에 울산군 강동면 어물리의 임야 2백 정보(町步)에 상수리 묘목을 연차적으로 심어 조림하고 울산군 농산물품평회에서 금패상을 받았다.
학성공원 내에 2008년에 세운 김홍조 공덕비가 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관방총무국, 1910.10.20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관방총무국, 1914.09.19)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관방총무국, 1918.04.17
『동아일보』, 「경남은행총회」, 1921.07.30
『동아일보』, 「김홍조씨 서거」, 1922.09.16
『동아일보』, 「고 김홍조씨의 공덕비제막식」, 1929.04.15
『매일경제』, 「재계산맥 근세100년 산업과인물(444)) 구포은행(7)」, 1982.11.22.
『통정대부행비서감원비서승(通政大夫行秘書監院秘書丞) : 추전 김홍조의 약사(略史)』, 김홍조
『대한제국시기신문연구』, 「진주의 경남일보-유일의 지방지-」, 최기영, 1991
『울산향토사연구논총』, 이유수, 1996
『지역과 역사』 제9호,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차철욱, 2001

손영목(孫永穆, 1888~1950)

정치가. 경남 밀양시 밀양읍 교동리 출생. 아버지는 경산군수로 지낸 손지현(孫之鉉)이다.
한문학 수학하였고 사립진성학교(私立進成學校) 고등과를 졸업하였다.
1909년 5월 내부 지방국 주사로 관계에 들어갔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경상남도 내무부 서기로 근무했으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 5월 지방관제가 개

정되면서 경상남도 제1부 서기로 근무했으며, 같은해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7년 12월 군수로 승진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수로 부임했다. 1912년 3월 경상남도 동래군수로, 1922년 3월 울산군수로 발령받았다. 울산군수 재직시 울산성지보존회 회장을 지냈다. 이외에 경산남도 울산군농회 회장을 지냈으며, 1926년 10월 경상남도농회 통상의원, 11월 경상남도농회 평의원 등을 지냈다. 1926년 11월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1928년 10월 중추원 통역관 겸 서기관에 임명되었고,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무관을 겸임했다. 1929년 11월 참여관으로 승진해 강원도 참여관으로 부임했다. 1931년 9월 경상남도 참여관 겸 산업부 산업부장(사무관)으로 옮겼다. 1932년 10월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경상남도협찬부 회장을, 11월 경상남도 농촌지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1935년 4월 도지사로 승진해 강원도지사로 부임했다. 같은 달 재단법인 관동명덕회 이사에 선출되었다. 같은 해 10월 시정 25주년기념표창을 받았다. 1937년 4월 전라북도지사로 옮겼다. 전라북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1937년 7월 군용 비행기 헌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군용 비행기 전북호 헌납기성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추대되어 헌납활동을 벌였다. 1937년 12월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 임시위원에 임명되었다.

1938년 1월 23일자 『경성일보』를 통해 지원병제와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1939년 1월 1일자 『매일신보』 신년 인사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일제의 침략정책에 협력할 것을 주장했다. 1939년 4월 전시 총동원체제하에서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참여(參與)로 활동하고, 1939년 11월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 참여를, 12월 전라북도유도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1940년 4월 훈2등 서보장을 받았다.

1940년 9월 전라북도지사를 그만두었다. 퇴직 직후, 1940년 9월 조선인의 만주 이주사업을 위해 경성에 설립된 선만척식(鮮滿拓殖)주식회사의 이사, 선만척식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만주 신징(新京)에 설립된 만선척식(滿鮮拓殖)주식회사의 이사를 맡아 1941년 6월까지 근무했다. 1940년 정4위에 승서되었다. 같은 해 10월 전시체제하 최대의 민간인 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에 선임되어 활동했다. 그해 12월에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농림부 이사에 선임되었다. 1941년 5월에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에 선임되었으며, 6월 선만척식주식회사와 만선척식주식회사를 통합하여 설립한 만주척식공사(滿洲拓殖公社)의 이사에 선임되어 1945년 5월까지 근무했다.

1941년 8월 '황국정신의 앙양과 시국인식의 철저'를 목적으로 조직된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경기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9월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조직인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

인으로 참여하고 10월 감사에 임명되었다. 1942년 1월 친일 경제친목단체인 조선실업구락부의 이사에 선임되었고, 만주·북지(北支)·몽강(蒙疆)·남방(南方) 등지에서 조선인 척식사업 조성과 만주 개척민사업 촉진 및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조선이주협회의 이사를 맡았다.

1943년 4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후생부장 사무취급에 임명되었으며, 5월에는 조선방송협회 이사를 맡았다. 같은 해 9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상무이사, 사무국 이사, 지도위원회 위원, 총무부 기획위원회 위원 등에 선임되어 활동했다. 1943년 11월 국민총력조선연맹 내에서 군사사상 보급, 징병후원사업 기획과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징병후원사업부장에 임명되어 1944년 12월까지 활동했다. 1944년 4월 성전(聖戰) 완수를 위한 농업생산력 확충 등을 목표로 조직한 농업보국농본회(農業報國農本會)의 고문으로 위촉되었다.1945년 1월 대화동맹준비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2월에는 상무이사에 선출되었다. 1945년 6월 관직에 강원도지사에 복귀했다. 같은 해 7월 전시동원단체인 조선국민의용대의 강원도 사령에 선출되었다.

해방 후 1945년 10월 미군정에 의해 강원도지사에서 해임되었다. 1949년 2월 서울에서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처리결과는 알 수 없다. 1950년 5월 7일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인사흥신록』, 귀전충위(貴田忠衛), 1922

『(조선총독부시정이십오주년)기념표창자명감』, 삼천청인(森川淸人), 1935

『조선공로자명감』, 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1936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일제강점기 울산성지보존회와 학성공원』, 고현우, 2012

송태관(宋台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출생. 송석하(宋錫夏)의 아버지.

1907년 고종의 시경부경(侍從副卿). 추전 김홍조와 인척관계로 김홍조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하였다. 대한제국시기 이토 히로부미의 통역관으로 활동하였다. 1910년 구포은행의 설

립에 참가하여 취재역에 선출되었다. 1921년에는 경남은행의 취재역, 두취가 되었으며, 조선인산업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석하는 등 1920년대에 부산 구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부산 상업학교의 시가지 이전 문제, 보통학교를 증설 문제에도 참여하였다. 부산 지역이외에서도 서울호텔 창립에 참여해 취재역을 맡았으며, 태안에서는 간척사업을 하면서 농경지를 넓히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대한자강회월보』 제7호, 「관보적요(官報摘要)」, 1907.01.25

『동아일보』, 「서울호텔 창립총회」, 1920.04.26

『동아일보』, 「부산유지열성 교육기관확장」, 1921.03.10

『동아일보』, 「경남은행총회」, 1921.07.30

『동아일보』, 「조선인산업대회총회경과」, 1921.08.1

『동아일보』, 「경남은행간부결정」, 1921.08.12

『경상일보』, 「울산 넘어 부산·태안·파주 등 '전국구 부호'송태관씨」, 2012.06.11

『통정대부행비서감원비서승(通政大夫行秘書監院秘書丞) : 추전 김홍조의 약사』

『지역과 역사』 제9호,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차철욱, 2001

안덕기(安德基, 1915~?)

사업가이자 정치가. 경상남도 의령군 출생.

통도사 보광중학교를 졸업했고 일본대전 2년 중퇴했다. 울산군 삼남면 과수조합장, 경상남도 농민회장 조선축산주식회사 사장을 지냈다. 1954년 11월 30일에는 동양제관주식회사를 설립·경영하였다. 1954년 울산 갑구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김수선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다. 다음해인 1955년 산청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자유당 공천 과정에서 안준기에게 밀려나게 되었다. 1958년 또다시 울산 갑구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자유당 중앙위원·자유당 울산 갑구당 위원장을 지냈다. 1959년 3월 자유당 경남도당 연차대회에서 자유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김종신의 사퇴로 위원장 서

리를 맡기도 하였다. 4·19 이후 정치정화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가 1963년 2월 1일 공민권제한의 해금명단 공표로 다시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 같은 해 민우당의 발기선언에 참여하였고, 공화당으로도 옮겨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이미 팔명 출마설」, 1955.11.18

『경향신문』, 「안준기씨로? 산청자유당 후보자」, 1955.11.24

『동아일보』, 「공민권제한 심사케이스 해당자명단」, 1961.02.21

『동아일보』, 「구정치인 275명 추가구제」, 1963.02.01

『경향신문』, 「민우당 발기선언」, 1963.06.12

『동아일보』, 「공화당 지역구후보 공천 신청자 명단」, 1967.02.15.

『대한연감』, 대한연감사, 1955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양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헌, 2013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안준기(安峻錡, 1916~1995)

정치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출생. 호는 인석(仁石).

일본 중앙대학 법학부 졸업했다. 자유당 경남도당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57년 자유당 경남도당 연차대회에서 또다시 재선출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 때, 울산 을구에서 출마하였지만 낙선하였다. 처음 의원직에 오르게 된 것은 1955년 11월 산청 보결선거 때이다. 산청군 제3대 국회의원 이병홍(李炳洪)의 사망으로 시행된 보결선거에서 자유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자유당 공천을 받고 부산진 갑구에서 출마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당은 분규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같은 자유당 소속인 김지태(金智泰)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는 모

두 떨어지고 민주당의 이종남(李鍾南)이 당선되었다. 4·19 이후 공민권제한을 받았다. 변호사 활동으로 세간에 알려지기도 하였다. 1956년 일제시기 관동군 헌병 오장으로 활동하고 자유당 시절 이승만의 총애를 받았던 김창룡을 울산 동구 화정동 출신의 송용고(宋龍高)가 암살하였는데, 이때 송용고의 변호를 맡았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울산천재'송용고, 이승만대통령 총애받던 '김창룡'암살」, 1955.11.24

『동아일보』, 「선거최전선 탐방 경상남도 편」, 1958.04.09

『경향신문』, 「오·이총선거 개표상황 」, 1958.05.03

『동아일보』, 「공권제한 자동케이스 해당자」, 1961.02.26

『경상일보』, 「안준기씨로? 산청자유당 후보자」, 2013.08.11

『대한민국인물연감』, 청운출판사, 1967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양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울산울주향토사』, 울주문화원, 1978

『온양읍지』,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북구문화』 제2집, 「정치가, 해석 정해영선생 그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북구문화원, 2005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헌, 2013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안효식(安孝式, 1904~?)

의사. 정치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

경성의전(京城醫專)을 졸업했다. 울산에서 의원을 개업하여 울산병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울산지역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1933년 울산 언양지역에 의원이 없자 언양읍 유지 박현진(朴炫鎭) 비롯해 당국에 진정을 한 결과 언양공의를 겸하게 되었다. 1932년 11월 20일

울산사회단체회의에서 울산지역 청년유지가 창립한 울산체육협회 부회장에 역임하였다. 다음해인 1933년 울산체육회장을 역임하였다.

1935년 경상남도 도의원 김상희(金尙熙)의 사망으로 치러진 보결선거에 출마하여 절대 다수로 당선되었다. 도의원이 된 이후에는 도항제한의 불합리를 주장하였다. 또 조선인의 의무교육의 필요를 주장하였다. 특히 울산공립농업학교의 학급증설을 위해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학급증설기성회를 조직해 기금을 기탁하였고, 경상남도 내무부장을 방문하여 학급증설에 따른 필요경비의 보조를 말하였다. 경상남도 내무부장 이외에도 정무총감이 울산을 시찰할 때, 울산공립농업학교문제를 진정하였고, 이때 울산비행장 철거문제도 진정하였다. 그러나 울산공립농업학교 신축공사는 원활하지 만은 않았다. 그 준공속도가 느렸고, 또한 토지의 매수가격을 지불하지 못한 것과 일부 지주의 승낙이 확실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38년 3월에 예정된 낙성식이 불투명하였는데, 이때 경상남도 학무당국에 공탁한 공탁금을 반환받고 지주들에게 급속 승낙을 받아 학교창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이후 울산야학인 울산학술강습소에 은잔 기증, 1년제인 울산공립농업학교의 3년제 승격을 건의하였다. 이때, 초등학교의 2부제를 의결하면서 황국민으로써 기능을 다하기 위한 주장을 하였고, 제2국민의 교육을 위해 간이학교를 소학교의 분교로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청년운동 활동을 하였으며, 신간회 울산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학술강연성황」, 1926.09.04

『동아일보』, 「밀양지청복구」, 1933.05.11

『동아일보』, 「회갑연폐지 극빈자동정 청주본정 민영필씨 특지」, 1933.11.02

『동아일보』, 「울산체육협회 입일창립대회」, 1932.11.25

『동아일보』, 「전조선체육단체순례(5)」, 1934.01.14

『동아일보』, 「동아일보창간 십오주년기념」, 1935.06.29

『동아일보』, 「사회적활동가 도규계 안효식씨」, 1937.07.25

『동아일보』, 「안효식씨 당선」, 1935.12.30

『동아일보』, 「소식」, 1936.01.24

『동아일보』, 「정무총감래울시 농교문제진정」, 1936.04.30

『동아일보』, 「학급증설비로 이천원희사」, 1936.08.19

『동아일보』, 「언양농업교신설에 토지삼만평기부」, 1938.01.23

『동아일보』, 「울산농교기지매수에 지주불응으로 난관」, 1938.01.26
『동아일보』, 「경남도회에서 채결된 입삼건의 안내」, 1938.03.02
『동아일보』, 「지방 문화은인(3)」, 1939.01.21
『동아일보』, 「세민층의 식량문제 이부제결함통론」, 1938.03.02
『민족정기의 심판』, 화신출판사, 1949

오위영(吳緯泳, 1902~1978)

정치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출생.

부산상업학교와 일본 신고고등학교(神戶高等學校)를 졸업했다. 해방 전에는 지역 금융조합 이사로 활동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신탁회사를 인수 신탁은행으로 전환한 후 은행장으로 취임하였다. 정계에 관심이 많았고, 진출하기 위해 1947년부터 이승만을 보필하던 8·8구락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울산 갑구에서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무소속구락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원내자유당 창당에 관여하였고,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면서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했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이승만의 미움을 사게 되어 방해공작 끝에 결국 출마를 포기하였다. 1955년부터는 민주당 창당에 합류하였고, 민주당 중앙위원과 경남도당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56년에는 김택천(金澤天), 최영근(崔泳謹) 등과 함께 민주당 울산군당을 결성하고 고문단을 역임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활동지를 옮겨 부산에서 출마하였다. 민주당소속으로 출마하여 부산 동구 을구에서 당선되었으며,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참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오·이총선거 개표상황 」, 1958.05.03
『직원록』, 조선총독부, 1928~1935
『대한민국인사록』, 내외홍보사, 1949
『대한민국건국십년지』, 건국기념사업회, 1956
『대한민국인물연감』, 청운출판사, 1967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양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인물은행사』, 「오위영 편」, 김병제, 내외홍보사, 198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헌, 2013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윤동수(尹東壽, 1916~?)

정치가. 울주군 삼남면 출신.

일본동양대 전문부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기획관리실장과 마산시장을 역임하였고 1970년 경상남도 울산군 시장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다음해인 1971년에 열린 제7회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되도록 대대적인 개표조작을 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5월에 시장에서 해임되고 구속되었다. 그 다음 달인 6월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개표조작사건 윤동수 울산시장 구속」, 1971.05.06
『경향신문』, 「선거법 위반 기소된 윤 전울산시장 보석」, 1971.06.09
『대한연감』, 대한연감사, 1955
『대한민국인물연감』, 청운출판사, 1967
『울산울주향토사』, 울주문화원, 1978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이규정(李圭正, 1899~1977)

사업가이자 정치가. 부산광역시 좌천 출생. 호는 백운(白雲).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1914년 울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1926년에는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울산 성남동을 중심으로 미곡, 비료, 정미, 창고, 운송 등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미소 운영과 관해 1931년에는 매일 약1000석 규모를 정미하여 일본으로 보내는데 이르렀다.

그밖에 (주)울산본부전기(蔚山本府電氣)의 감사, (주)울산합동해륙운수의 사장, 울산수리조

합의 평의원을 맡았다. 사회사업과 농촌계몽운동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1927년 울산농보(蔚山農報)를 발간하였다. 1928년 신간회 울산지부 창립에 기여하고 간사로 활동하였다. 1931년에는 울산번영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33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울산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다. 울산농업학교 설립에 힘썼으며, 울산비행장 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도의원 안효식과 함께 정무총감에게 진정을 하였다. 이외에 정자항을 축항하였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신간회 지부 창립 이끌고 울산농고 설립 주도한 선각자」, 2013.08.18

『동아일보』, 「울산우마차조 임은인상 해결」, 1926.01.19

『동아일보』, 「파란중첩한 울산전기회사」, 1926.07.25

『동아일보』, 「순회탐방(육십육) 울산지방대관(1)」, 1958.05.03

『동아일보』, 「울산지회설립」, 1928.03.25

『동아일보』, 「울산수리조합」, 1929.04.16

『동아일보』, 「울산번영총회」, 1931.07.28

『동아일보』, 「울산미수출」, 1931.12.14

『동아일보』, 「갑종농업교 기성회조직」, 1933.06.11

『동아일보』, 「울산정자면민 축항을 진정」, 1933.06.28

『동아일보』, 「대구비행장 신설로 울산비행장폐지」, 1935.08.25

『동아일보』, 「정무총감래울시 농교문제진정」, 1936.04.30.

『조선은행회사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25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33

이재인(李在寅, ?~?)

본관은 고성. 용헌(容軒) 이원(李原)의 후손이다. 1902년부터 1906년까지 언양 현감을 지냈다.

【참고문헌】

『울산광역시사』 2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이후락(李厚洛, 1924~2009)

정치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호는 우석(又石).

1942년 울산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듬해 일본 규슈의 다치아라이비행학교[大刀洗飛行學校]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았으며, 광복 후 귀국하였다.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이듬해 3월 소위로 임관하였고, 현역으로 복무 중 국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했다. 국학대학교가 후일 고려대학교에 편입되면서 그는 고려대 동문이 되었다. 1951년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 1954년 육군본부 병참감, 1957년 주미대사관 무관, 1959년 국방부 기관장 등을 지낸 뒤 1961년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5·16군사정변 직후 민간인 신분으로 쿠데타 세력에 가담하여 박정희 정권의 책사(策士) 역할을 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거쳐 1963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비서실장이 되었고, 1969년 10월 주일대사, 1970년 12월에는 제6대 중앙정보부 부장으로 취임했다. 1972년 5월 밀사로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주석 김일성과 비밀회담을 하여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1973년 박정희의 후계 문제를 거론한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그해 12월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1979년 3월 경상남도 울산·울주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0·26사건 이후 신군부 세력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규제받았다. 1985년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렸지만 은둔 생활을 하였으며, 2009년 10월 31일 사망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금성충무무공훈장, 청조근정훈장, 1등수교훈장, 2등보국훈장과 미국 동성(銅星)훈장 등을 받았다.

【참고문헌】

『울산울주향토사』, 울주문화원, 1978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정해영(鄭海永, 1915~2005)

정치가. 울산 출생. 호는 해석(海石).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21회)하였다. 1943년 이후 부산대양산업 사장, 1949년 이후에는 대통연탄 사장을 지냈고, 19공탄을 개발해 '석탄왕'으로 유명하였다. 1954년 이후 제3대 민의원(무소속, 울산을)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1955년에는 서울 성북동에 동천학사를 지어 울산, 부산 출신 중에 경제적 사정으로 서울 유학생활이 어려운 인재들을 불러 기숙케 하였고, 많은 인재들이 동천학사를 거쳐갔다. 그의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동천학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송덕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2012년 11월 울산 중구 정지말공원에 송덕비 건립 제막식을 거행되기도 하였다. 그는 제3대 민의원을 시작으로 제5~10대에 이르기까지 울산과 부산에서 7선 의원을 거치게 되었는데, 1960년에는 제5대 민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63년 이후에는 민정당 대통령선거 사무장, 제6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가 1965년 사퇴하였다. 1966년 이후에는 신한당 정책위원으로 재임하였으며, 1967년에 제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69년 이후 신민당 원내총무, 신민당 정무위원으로 재직하였고,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8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으며, 신민당 부총재로 재직하였다.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82년에는 중국문화대학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이후 원불교 중앙교의회 의장, 통일원 고문, 포은사상 연구원 이사장, 영일 정씨 포은 공파 종약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0년에는 미국공산주의 희생자 추도재단(The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올해의 '트루먼~레이건 자유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사후 자손들에 의해 정해영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울산매일』, 「울산 인재 기른 정해영 송덕비 제막」, 2012.11.14

『경상일보』, 「고 해석 정해영 선생 송덕비 제막」, 2012.11.14.

『해석 정해영 회고록』, 정해영, 오름, 2001

최봉식(崔奉植, 1892~?)

정치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
울산농업고등학교 졸업, 군사영어학교 졸업, 국학대학교 법학과 졸업하였다. 최봉식은 10여 년간 한문 수학을 하며 한방의학을 연구했다. 1922년에 온양면장을 역임했고, 1927년에는 울산군학교평의회 의원직을, 1929년에는 서생면장을 역임했다. 1938년 5월 남창산업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진정위원 활동을 했고, 같은 해 6월에 울산군 농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해방이후인 1948년 온양면장 1949년 5월 10일 경남 울산 갑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남창산업조합 설치인가진정」, 1938.05.23.
『동아일보』, 「울산농회의원선거」, 1938.06.05.
『역대국회의원총람』

최시명(崔時鳴, ?~?)

본관은 전주. 호는 효림(曉林).
1898년 무술년(戊戌年)에 언양군수로 와서 직전 군수 정긍조가 작천정을 건립하지 못한거에 대해 개탄하고, 작괘천 바위에 작천정 건립 의지로 글을 새겼으며, 그 일을 계기로 1900년에 작천정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1902년 음력 7월에 준공되었다. 작천정의 건립으로 언양지역의 시사(詩社, 시인들의 모임)는 더욱 활발해 졌다.
한편, 최시명은 반고서원 유허비를 건립하는 등 지역의 유풍(儒風)을 진작하는 일에 많은 일을 하였다.

【참고문헌】
『언양읍지』, 언양읍지편찬위원회, 2001

최영근(崔泳謹, 1922~2004)

정치가.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출생. 호는 우송

두동초등학교와 울산대 법대 졸업했다. 약관 27세에 정계에 입문했다. 1956년 민주당 울산군당 부위원장을 거쳐 1958년 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초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역임했다. 1960년 제5대 민의원, 제6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후 보건사회부 정무차관, 제일생명보험회사사장, 프로복싱 연맹회장, 한국기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정쟁법 등에 묶여 연금생활을 했고, 해금과 동시에 평민당부총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13대 국회에 등원했다. 이외에 신민당 최고위원, 민추협 부의장, 평민당 수석부총재, 평민당 당무지도위의장, 평민당 총선 선거대책 본부장, 국민회의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두동면지』,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온양읍지』,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헌, 2013

대한민국헌정회자료실

2. 경제계

고기업(高基業, 1901~1972)

기업인. 호는 난정(蘭庭).

고기업은 1964년 1월 6일, 지역 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정부로부터 울산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상의회관 건립을 위해 중구 성남동 자신의 땅을 당시 시가의 반으로 상의에 제공했다. 3대에 걸쳐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울산상의가 종합 경제단체로 지역 경제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데 초석을 다졌다.

【참고문헌】

『울산상의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고원준(高源駿, 1943~2013)

기업인. 국회의원. 할아버지가 고기업이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한국 J · C부회장, 민정당 과학기술 분과 위원장, 대한 씨름협회 회장, (주)한주 대표이사 사장,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장,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대한 상공회의소 부회장·회장, 2002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울산협의회 회장, 울산 인터넷데이터센터 이사장을 역임했다.

제12대~14대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기업의 전자 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울산신항만 조기 건설 추진, 국립대학 설립,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참고문헌】

『울산상의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고태진(高台鎭, 1921~2012)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출생. 아버지는 고기업이다.
한국상업은행 상무이사, 제일은행 전무이사, 조흥은행장, 전국마을금고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체육회이사 및 KOC 위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아세아축구연맹회장, 한국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및 체육진흥재단이사 , AFC 부회장을 지냈다.
1969년 재경울산향우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을 맡아 후학 지원 등 남다른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여받았다.

【참고문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원, 197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기수(金基守, ?~?)

울산상공회의소 7대~8대 회장을 역임(1982~1987)하면서 남구 신정동에 현재의 울산상의 회관을 건립하고, (사)울산개발을 설립했다. 효문 중소기업단지 조성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추진했다. 울산항 방파제 축조공사, 국도 및 산업도로 확포장, 울산비행장 재취항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기업경영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태화관광호텔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김만중(金萬重, 1918~1996)

기업인. 호는 서우(瑞宇).
1960년 4월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삼도물산을 창립하여 국내 최초로 의류 수출의 길을 열었다. 당시 천우사와 국내 봉제품 보세가공수출에 주력하여 1963년에는 80만 달러, 1965년

에는 270만 달러, 1973년에는 3,500만 달러로 고도성장을 했으며 1974년 9월 지퍼공장을 건립했다. 1979년 11월에는 의류 단일 품목으로 최초로 수출 1억불을 수상했다. 수출면에서 기여도를 인정 받아 수출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5차례나 받았으며 68년 동탑산업훈장, 76년에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1977년 14회 수출의 날에는 수출업체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79년부터 삼도종합개발 및 삼도종합건설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80년에는 삼도물산 창립20주년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이후 경쟁력 약화와 해외집적투자 실패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해 조흥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포함해 6백 50억원, 신한은행 1백 50억원, 상업은행 5억원, 제2금융권 1백억원 등 9백45억원의 금융부채를 안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삼도물산 김만중 회장」, 1996.07.06
『매일경제』, 「필승사장학(16) 삼도그룹 사장 김만중」, 1979.01.22
『매일경제』, 「삼도물산 이사회 회장에 김만중씨 사장엔 김상헌씨」, 1980.04.17
『매일경제』, 「삼도물산 법정관리」, 1995.12.13

박진연(朴震演, ?~?)

울산상공회의소 4~5대 회장을 역임(1973~1978)하면서 회관 증축, 사무국 기능 강화, 상의 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울주군과 양산군을 상의 관할구역에 편입시켰다. 울산항내 외항선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항 선원 안내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상담실을 설치 운영했다.
신화백화점 대표와 울산광역시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이종만(李鍾萬, 1885~1977)

기업인. 울산광역시 출생.

1912년 일본이 토지조사령을 공포한 직후 농림주식회사를 세웠고, 1937년 6월 당시 평안북도 초산군, 자성군, 태천군, 강계군, 함경남도 정평군, 영흥군, 단천군, 회령군, 무산군, 갑산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울산군 소재 광산 등 전체 면적 760,000,000평에 달하는 750광구를 소유할 정도로 "광산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1937년 6월 6일 대동광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같은 날에 대동광산중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37년 6월 17일 재단법인 대동농촌사, 대동출판사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대동농촌사 이사장 재직 시절 전체 수확물의 7할을 농민이, 나머지 3할을 재단이 소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30년 뒤에 농민이 수확물 전체를 갖는 대신 재단이 소유권만을 갖는 제도였다. 1937년 7월 19일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에 북지황군위문품대의 일원으로 1,000원을 기부했고 1937년 10월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1,200,000원에 인수했다.

1938년 1월 잡지 『농업조선』을 창간했으며 1938년 6월 사립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설립, 경영했다. 1939년 4월 조선산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939년 6월 28일 일본군 위문대 대금으로 1,000원을 헌납했다. 1939년 11월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을 역임했으며 1940년 7월 잡지 『삼천리』에 「지원병(志願兵)과 혈(血), 한(汗), 사랑(愛)의 인(人)」을 기고했다. 1941년 9월 임전대책협의회 채권가두유격대 명치정대에 참여했고 같은 달에 조선임전보국단 경성 지역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41년 10월 조선임전보국단 이사를 역임했으며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경제 부문, 친일단체 부문에 수록되었다.

1946년 5월 1일 『독립신보(獨立新報)』를 창간했으며 1946년 8월 23일 조선산업건설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월북 이후인 195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업부 고문을 역임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및 상무위원을 역임했다. 조국통일상을 수상했으며 김일성은 그를 '애국적 기업가'로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자본가로는 유일하게 애국열사릉에 매장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3, 민족문제연구소, 2009

위키백과

정주영(鄭周永, 1915~2001)

기업인. 본관은 하동(河東).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 출생. 호는 아산(峨山). 정세영·정인영·정상영(동생), 정몽구·정몽헌·정몽준(자녀)

1915년 출생 후 조부의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등을 공부하고, 이후 1924년 송전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30년 졸업 후 몇 차례 가출을 감행했고, 1934년에 쌀가게인 복흥상회에 취업했다. 1938년에는 쌀가게를 물려받아 경일상회를 개업했으나 1939년 총독부의 전시체제하에서 쌀 배급제 실시와 함께 경일상회를 폐쇄했다. 1940년 3월 합자회사로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공장을 신설했으나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이 추진되면서 서비스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1946년 적산 일부를 불하받아 그 자리에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세우고, 1947년에는 같은 자리에 현대토건사를 설립했다. 1950년에는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합병해 서울 중구에 '현대건설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8군 공사를 주로 담당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고령교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1957년에는 한강인도교 복구공사에 참여했다. 1964년 단양시멘트공장을 설립하고 1964년에는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해외건설 분야에 진출했다. 1967년 12월 29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포드와 기술 제휴 후 '코티나'라는 승용차를 생산했다. 1969년에는 현대건설 회장에 취임했고,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장으로 당선되어 일선 대학의 교수 및 교육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사회학교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공사를 마무리했고, 1971년 2월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1972년에는 '현대조선소' 기공식과 동시에 유조선 건조를 시작하고, 잇달아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976년 최초의 국산자동차인 포니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아세아상선주식회사'(현대상선주식회사의 전신)를 설립했다. 1977년 2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으로 피선되고, 울산공업대학교(울산대학교의 전신) 재단이사장에 취임했으며, 7월에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해 농어촌에 현대식 병원을 짓는 일과 장학사업, 연구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81년에는 88서울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유치 활동을 전개했고, 결국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올림픽 개최지를 서울로 확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84년에는 서산 천수만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조선을 가라앉혀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주영공법'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987년 현대드룹의 명예회장으로 취임하고, 1989년부터는 한·소 경제협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북방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92년 정치에 뛰어 들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제14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되었다. 이후 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지만 김영삼, 김대중에 이어 삼순위로 선거를 마감했다. 선거 이후에는 사전선거운동, 조세 문제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고, 건강이 악화되어 현대그룹 전반에 걸쳐 위기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 소떼 1001마리를 몰고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관광을 추진하는 등 대북사업을 통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2001년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 삶을 마감했다. 정주영의 생애 및 활동에 관해서는 자서전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와 『이땅에 태어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저서로는 정주영의 연설들을 모아서 엮은 『한국경제이야기』, 『새로운 시작에의 열망』,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 등이 있다.

1975년 경희대학교 공학 명예박사, 1976년 충남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1982년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1985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1986년 이화여자대학교 문학 명예박사, 1990년 서강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1995년 고려대학교 철학 명예박사, 1995년 존스홉킨스대학교 인문학 명예박사, 2000년 한국체육대학교 이학 명예박사을 받았다.

1981년 국민훈장 동백장, 1982년 자이레 국가훈장, 1987년 제1회 한국경영대상, 198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1998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훈장, 1998년 커맨더 위드 스타 (노르웨이 왕실 최고 공로훈장), 2001년 제5회 만해상 평화상, 2008년 제4회 DMZ 평화상 대상을 수여 받았고, 2006년 11월 미국의 타임지가 아시아의 영웅으로 정주영을 선정하였다.

【참고문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삼기획, 1991

『현대50년사』, 현대그룹, 1997

『이땅에 태어나서』, 솔, 1998

차용규(車溶珪, 1898~?)

기업인.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호는 백암(白岩).
개진학교(開進學校)를 졸업했다. 울산읍장과 울산읍의회의장, 울산상공회장을 역임했다. 1936년에 일본 상인에 대항하기 위해 울산 상인들이 모여 울산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청년운동과 사회운동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 울산초등학교 강당 건립시 1천원을 기부하였고, 울산청년회관 보수와 불우이웃돕기, 울산농업학교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원, 1978

최익성(崔翼成, 1914~?)
기업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출생.
대원직물공업사 대표이사, 한국직물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우리나라 직물산업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1983년에는 한국 금탑 산업 훈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3. 교육계

김교홍(金敎洪, 1906~1987)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출생. 자는 경직(景直). 호는 석정(石亭). 중추원의관 찬희(燦熙)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언양읍 남부리에 거주하였다. 선비의 품행이 있어 언양향교의 직원(直員) 및 언양유도회회장(彦陽儒道會會長), 양정학원(養正學院) 학우회장, 경주 숭혜전(崇惠殿)과 죽현릉(竹現陵) 참봉, 성균관 부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언양향교 중수시에 물심양면으로 공적이 매우 컸다. 묘갈명은 동초(東樵) 이진영(李鎭泳)이 썼다.

【참고문헌】

『울산울주지』, 1971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원집(金元集)

교육자.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출생. 호는 동산(東山).

김원집은 일제치하였던 1915년을 전후하여 개화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문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재를 희사하여 구량리 460번지에 보신학원(普新學院)을 설립하고 구량 . 차리 . 천전 . 반곡 . 다개 . 평리 . 서하 . 인보 . 전읍 등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신학문을 가르쳐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개교 10년 되던 해에 공민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보신학원은 폐교되고 말았다. 지역의 선각자로서 지역발전에 만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두서면의 2대 . 5대 면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동산유고문집(東山遺稿文集)』이 있다.

【참고문헌】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김정근(金丁根, 1924~1996)

교육자.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출생. 보명(譜名)은 정근(正根). 자는 인서(仁瑞). 호는 학몽(鶴夢). 도호부사 민(旼)의 13세손이다.

1941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약관의 나이에 사도(師道)로 나아가 울산군내 여러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1953년 상북학원에 부임한 후 상북중학교 교감 및 교장, 1988년 상북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학원의 중흥과 학풍의 진작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1961년 만학으로 동아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했고, 경상남도교육감 표창(1976) . 문교부장관 표창(1984) . 국민훈장 동백장(1989) 등을 수여 받았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지환(金知煥, 1917~1992)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자는 순백(淳伯). 호는 만성(晩醒). 독성당 선립(善立)의 종손이다.

1952년 향사(鄕士) 이갑종 . 이종천 . 정인수 . 박성묵 . 정성찬 . 이종설 . 강종식 등과 더불어 상북학원을 설립하였고 초대 상북면의회의원, 제14대 상북면장, 제16대 언양면장, 울산군 교육구교육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향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경주 숭혜전(崇惠展) 참봉을 역임하면서 향풍의 교화에 힘썼다. 또 삼일운동유공비(1975, 상북중학교), 양정학원유허비(1985, 거리) 및 선무원종공신추모비(1986, 작천정) 등의 건립에 큰 업적을 남겼고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향리에 많은 기문(記文)과 유묵(遺墨)이 전한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박관수(朴寬洙, 1897~1980)

교육자. 울산광역시 출생. 호는 금계(琴溪)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도쿄(東京) 제국대학 철학과를 수료했다. 1924년 대구고등보통학교 학감, 1926년 경상북도사범학교 교유 등을 거쳐 1938년 11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시학관에 임명되었다. 1940년 경기공립고등여학교 교장을 맡았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녹기연맹 회원으로 활동했다. 1943년 국민총력 경성부연맹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병 지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1944년 4월 춘천공립중학교 교장을 맡았다. 해방 후 강원도 학무국장, 울산초급중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1952년 경북대학교 교수, 1962년 한양대학교 교수 등 교육자로 활동했다. 교직에서 물러나 1965년 단군정신선양회 회장, 신라오릉보존회(新羅五陵保存會) 총재, 1966년 한국아세아반공연맹 이사장, 서울특별시자문위위원, 1967년 한국아세아반공연맹 고문, 1970년 공산권문제연구소 이사장, 1971년 현정회(顯正會)이사, 1972년 대한노인회 회장 등을 맡았다. 『인간혁명론』, 『북한의 농민』, 『북한의 가정과 부녀자』, 『현대한국반공투쟁사』 등 안보 관련 저서들이 다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대한민국인사록』

『대한민국인물연감』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박용진(朴墉鎭, 1902~1988)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출생. 유학자, 한학자, 호는 창릉(蒼菱), 도산서원 원장 역임.

조선조 대사헌 박해의 17대손인 박용진은 숭덕전 참봉 박시준의 아들이며, 창고 박규진과 묵은 박시준에게 한학을 배웠고, 노주 김영의 문하에서 신구학문을 두루 배웠다. 대구고보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공부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한학을 배우다가 노주 김영의의 문하에서 천문, 지리, 수학, 물리, 내경, 의례 등 신구학문을 연수하였다.

학문과 덕행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아 58세에 의성 덕양서원장, 73세에 안동 도산서원장, 76세 하양 금호서원장, 79세에 달성 도동서원장, 안동 병산서원장, 80세에 안동 임천서원장, 81세에 안동 서산서원장을 역임하였다. 향내에서는 울산 향교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영남유림의 영수가 되었다.

저서로는 울산 울주지 편찬위원장으로 『울산 울주지』를 현대식으로 편찬하였고, 울산 향

교 중수기, 언양향교 중수기, 반구서원 중건기등을 썼으며, 『울산 울주지』의 서문, 숭덕전 예빈관 상량문 등 기문과 상량문 다수를 지었다, 또 『창고문집』, 『묵은문집』을 편찬하였으며, 자신의 문집인 『창릉집』을 남겼다.
경주, 영천, 안동, 성주등 영남 유림에서 영수(領首)로 추대 하였으며, 영남에서 이름이 높아 영남인물지에 등재되었다. 사후에 영남유림 300인이 발의하여 선생으로 추대되어, 창릉박선생이라 호칭하게 되었다.
묘는 북구 가대동 산기슭에 있다.

【참고문헌】
『영남인물지』, 2004

설두하(薛枓厦, 1899~1980)

교육자.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호는 무집(無執).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초중등학교 교사 및 교장직으로 32년간 교육계에서 활동했다. 민주공화당 울산지구당 사무국장 및 위원장을 역임했고 제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대표적인 저서로 『논어풀이』가 있다.

【참고문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원, 1978

이종산(李鍾山, 1896~1949)

방어진중학교설립자.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264-1에서 출생.
이종산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울산 동구에 방어진중학교의 전신인 사립 '방어진수산중학교'를 건립하여 가난한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열였다. 그는 일산동의 박준이(朴俊伊)의 딸 영식(永植)과 결혼, 일산동 425번지에서 살았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에 일산해안에 있던 일본인 후리어장을 인수하여 경영에 대한 수완을 보이면서 상당한 재력가로 성장하면서 동면 면협의원과 방어진읍의원을 역임했다.

이종산은 1945년 조국이 광복된 후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배움에 굶주린 후진들을 위해 '나라를 부강의 반석위에 올려 세우는 원동력은 오로지 청소년을 교육시키는데 있다'는 신념과 방어진에서 해양입국을 위한 전진기지와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유 토지 3만 4천 여 평과 거액을 아낌없이 희사해 학교법인 해양학회를 만든 뒤 1947년 방어진수산초급중학교를 개교하였다. 이로써 동구 지역의 많은 학생을 교육하게 함으로써 지역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방어진수산초급중학교는 1959년 5월 14일에 방어진중학교로 공립화 되었다.

당시 동구지역에는 방어·화진·남목초등학교가 있었다. 졸업생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진 중학교에서 동문 선·후배 관계로 인연을 맺음으로써 지역의 유대도 함께 이어졌다. 그동안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선생은 1949년 5월 9일 서거하였다. 선생의 묘는 처음 현대 영빈관이 있는 둘안산에 안치하였다가 1952년경에 방어진중학교가 있던 등대산 학교부지 안에 이장(移葬)하여 안치되었다. 이 학교 제1회 졸업생들은 1979년에 '재단법인 해양학회 이사장 이종산 송덕비'를 묘소 옆에다 세웠다.

【참고문헌】

『울산동구지명과 문화이야기』, 장세동,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두출(崔斗出, 1911~?)

울산 출생. 대구사범대학교를 졸업했다. 농소학교 교두(敎頭), 울산제일초등학교 교두를 역임하였고, 강남·대현·울산·양사초등학교 등에서 교장을 역임했다. 또한 울주군교육장과 울주군체육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그의 이러한 업적으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참고문헌】

『울산울주향토사』, 울주문화원, 1978

4. 학술

강정택(姜錠澤, 1907~납북)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출생.

울산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성남동 구멍가게에서 점원일을 하다가, 외삼촌인 이종하의 도움으로 대구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다. 동경제일고등학교로 진학한 강정택은 시부사와 케이조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1928년에는 동경제대에서 농정학을 공부했다. 방학 때는 울산으로 와서 야학을 열고 지역사회 계몽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졸업 후 농정학 교실의 연구 조교로 임용되었다가 전임 연구원으로 승진하여 식민지 조선의 농촌에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 1934년에는 달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1934년 이간원과 결혼했다. 1943년 동아농업연구소의 촉탁으로 '조선의 농경작업 관행 및 노동공정의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귀국하였다. 1945년 12월, 미군정청에 의해 경성대학의 법문학부 경제학과 농업정책 담당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대학과 전문대학의 1대1 통합에 반대하며 반년만에 사직하고 조선 사회과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는데,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농업문제연구위원회를 맡아 북한식의 토지개혁을 주장하였다. 이후 제2대 농림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농지개혁안을 입법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자 사임한 후 농사시험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국경제연구소를 세워 농업정책을 연구하였다.

1950년 7월 2일에 납북되어 현재까지 소식이 묘연한 상태이다.

【참고문헌】

『문화일보』, 「6.25때 납북된 강정택 전 농림부 차관을 아십니까」, 2008.10.14

『농수축산신문』, 「강정택, 농지개혁의 주역, 자유 대한을 살리다(2) 농정학자의 길을 선택한 울산 천재의 인생행로」, 2010.03.04

『경상일보』, 「[울산유사] 손꼽히던 울산천재 강정택」, 2012.07.30

김상우(金相宇, 1888~1962)

고령인(高靈人).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출생. 일휘 상천(相天). 자는 경일(景一). 호는 응재(凝齋). 시호(詩號)는 단산(丹山). 아버지 행호(行浩)와 어머니 학성이씨의

4남 1녀 중 4남으로 출생했다.

7세에 숙부 검려(儉廬) 양호(養浩)로부터 학문에 입문하여 27세에 사서삼경을 논파(論破)했다. 퇴계학파 및 남명학파와 교류하였던 바, 성리학, 주자학을 두루 섭렵하고 평소 후학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한의학을 펼쳐 한방으로 주민들을 보살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전국 백일장에 참가하여 장원을 하였던 일화도 전해 온다. 훗날,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그때의 백일장에서 입상하였던 작품을 100선(選) 하여 100권의 책을 만든 바 있었는데, 여기에 글이 실려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 반질되어 소장되고 있다. 특히 윤리 도덕을 숭상하여 부모 효도, 형제 우애의 정신을 배양하였다. 후손들이 삼원정이란 회관을 지어 고령김씨 일가의 화합 및 윤리도덕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웅촌면 검단리에 단산정사(丹山精舍)가 있었는데 소실(燒失)되어 없어지고, 현재 후손들에 의해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유집으로 『응재유고(凝齋遺稿)』 5권이 전하고, 『고양세헌(高陽世獻)』 을 편집하였다. 또한, 경주, 울산지역에 상량문, 기문, 묘갈명, 행장 등이 많이 남아 있다.

김호동(金皞東, 1905~1980년대 중반)

본관은 안동(新安東).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출생. 자는 이우(以友). 호는 은초(隱樵).

궁내부시어(宮內府侍御) 금초(錦樵) 김낙진(金洛鎭)의 장손이며 산초(山樵) 형한(瀅漢)의 아들이다. 문행(文行)이 있고 시재(詩才)가 뛰어나 헌산시사(巘山詩社)가 주관한 시회(詩會)에서 장원한 작괘천시(酌掛川詩)가 언양 작천정에 전한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송석하(宋錫夏, 1904~1948)

민속학자.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517번지 출생. 호는 석남(石南).

1920년에 부산 제2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에 일본 동경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32

년 손진태(孫晉泰)·정인섭(鄭寅燮) 등과 함께 조선민속학회를 창립하고, 종로의 계동 72번지의 자택에 사무실을 두고 사재를 기울여 민속학의 동인연구지 『조선민속』을 발행하였다. 1934년 이병도(李丙燾)·김두헌(金斗憲)·손진태·이병기(李秉岐)·조윤제(趙潤濟) 등과 함께 진단학회 창설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 학회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945년에는 조선산악회를 창설하여 현대 등산의 선도자가 되었다. 광복 후에는 한미문화협력에 참여하는 한편, 미군정청의 문정관으로 와 있던 인류학자 크네즈(Knez, E.I.)의 도움을 얻고 자신이 수집한 많은 민속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립민족박물관을 1946년에 개관하였다. 또한 서울대학에 인류학과를 설치하고 강의를 담당하였으며(1946, 47년), 국립민족박물관의 영문 명칭을 '인류학박물관(Museum of Anthropology)'으로 썼고, 1946년에 발족했던 조선인류학회의 사무실을 민족박물관 내에 마련하는 등 민속학을 더 넓게 인류학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였으나, 병약해서 뜻을 다 펴지 못하고 일찍 별세하였다. 조선민속학회장 · 진단학회장 · 조선산악회장 · 한미문화협회장 · 서울대학교 강사 · 민족박물관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그는 『조선말큰사전』 편찬시 전문어로 분류된 1,286개의 민속어를 주해하였다. 그는 많은 민속품을 수집하였는데, 특히 가면을 많이 수집하였으며, 만년에는 서지의 수집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가 소장하였던 『삼국유사』 권1은 최남선(崔南善)이 1943년에 펴낸 『삼국유사』의 대본이었고, 친사본(親寫本)으로 추정되는 『매월당시고(梅月堂詩藁)』 등 귀한 책이 많았다. 그의 사망 후 장서들은 간송미술관에 수합되었다. 그는 전형필(全鎣弼)과 더불어 많은 돈을 뜻 있게 쓴 동시에 특히 민속학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학문에 몰두하였던 선비이기보다는 민속문화의 보존과 보급, 학술단체에의 기여 등 문화운동에 더욱 노력과 자질을 발휘한 사람이다. 조선일보사와 협력하여 전국의 농악놀이를 중앙에서 경연시켰고, 봉산탈춤을 7월 백중에 놀게 하는 한편, 방송국을 동원시켜 이를 전국에 실황을 중계하게 한다. 스웨덴의 동물학자 베르그만(Bergman)이 백두산으로 동물생태연구차 가는 것을 사리원으로 안내하여 우리의 생활을 필름에 담아 유럽에 소개시키도록 하였다. 그 필름은 1970년 임석재(林晳宰)의 주선으로 복사되어 봉산탈춤의 원모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학문적 경향은 여동생인 여혜(如惠)와 그의 남편인 민속학자 양재연(梁在淵)이 정리해낸 그의 유고집인 『한국민속고』에도 나타난다. 여기에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에 실렸던 11편의 글과, 『조광』 등의 잡지에 실렸던 22편의 글이 모여 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그가 29세부터 39세 사이의 11년간에 걸쳐 쓴 글들로서, 민속전반 특히 탈춤 등의 연희에 관련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유고집 『한국민속고』 외에

그가 남긴 민속사진들을 담은 도록(圖錄)이 1975년 한국민속박물관에서 출판되었다. 1996년 정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고』, 송석하, 1960

『민속사진특별전도록 석남민속유고(石南民俗遺稿)』, 한국민속박물관, 1975

『한국학보』 86집~90집, 「굴절(屈折)과 파행(跛行)의 한국인류학백년」, 김경수, 일지사, 1997~1998

『석남 송석하 주해 민속어모음』,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20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원권(沈遠權, 1850~1933)

울산광역시 출생. 조선말~일제시기 울산 지역에 살았던 인물로 농촌생활일기인『 심원권일기』를 남겼다. 심원권에 대한 기록은 그의 일기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가 벼슬을 한 사람도 아니며, 또 대단한 문벌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록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심원권은 과거 공부를 하는 유생이라는 면에서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거공부는 잠깐이었고 주된 생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평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평생 서울에 가 본 적이 없으며 주로 자신의 집 주변 반경 4㎞ 이내 지역인 柳串, 古士, 新基, 明洞, 仙岩, 也音, 九井, 楡谷, 豆旺, 羅浮谷 등으로 다니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경제활동을 하였다.

1870년부터 1933년 12월 10일까지 쓰여진『 심원권일기』를 통해 하층의 양반 혹은 지방 유생이 어떻게 농부화 되어 갔는가, 농사짓는 방법, 물가 동향, 지방 유생의 가족관계와 의식세계 등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심원권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

이진영(李鎭泳, 1919~1993)

한문학자. 본관은 청안(淸安). 언양읍 대곡리 반구마을에서 출생. 자는 덕윤(德潤). 호는 동초(東樵). 선무원종공신 퇴사재(退思齋) 이응춘(李應春)의 후손으로 구린(龜隣) 이용필(李容馝)의 손자이다.

허채(許埰) 선생의 문하에서 한문학을 수학한 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팔만대장경』 국역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20세기 후반 한국 한문학의 거봉으로 안동 출신의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 박사와 쌍벽을 이루어 '남동초북연민(南東樵北淵民)'이라 병칭되었다.

주요 국역서에 『성호사설』, 『해행총재(海行摠載)』, 『동국이상국집』 등이 있고, 『중종실록』, 『퇴계집』을 교열했으며, 문집에 『급고실유고(汲古室遺稿)』가 있다.

【참고문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정인섭(鄭寅燮, 1905~1983)

문학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 호는 눈솔.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귀국, 이후 1946년까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한글학회 회원(1930)·극예술연구회 동인(1931)·한국민속학회 회원(1932)·한국음성학회 발기인(1935)·제4회 국제언어학자대회 한국대표(1936) 등 다양한 활동을 보였다. 광복 후 1946년 중앙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영국 런던대학 교수(1950~1953),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교수 및 경도대학원 강사(1953)로 있으면서 1953년 런던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54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의 창설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1956년 서울대학교 대우교수 및 펜클럽한국본부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다음해 중앙대학교 대학원장(1957~1968)을 지냈으며, 중앙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전국사설학원엽합회 위원장(1958~1964),한글기계화연구소 부소장 (1962~1972), 1963년 한국셰익스피어협회 이사로 있으면서 영역한국시선 『A Pageant of Korean Poetry』를 출간하여 펜클럽한국본부가 주는 제4회 번역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64년 미국 4대 대학 교환교수와 1966년 국제연극협

회한국본부 위원장을 지냈다. 1969년 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다음해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펜대회가 설치한 국제펜클럽 아시아문학번역국 초대회장으로 피선, 한국 문학의 올바른 소개에 진력하였다. 그의 문학 활동은 1922년 '색동회'의 발기인(馬海松·尹克榮·方定煥·曹佐鎬 등)이 되어 동인지 『어린이』에 동시·동극·동화 등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1926년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재학 중 동경 유학생인 김진섭(金晋燮)·김온(金鎾)·이하윤(異河潤)·손우성(孫宇聲) 등과 해외문학연구회를 조직하였다.이듬해 1월에 창간된 동인지 『해외문학』에 화장산인(花藏山人)이라는 필명으로 「포오론」을 발표하고, 같은 해 조선의 전래동화·전설 등을 수록한 『온돌야화 溫突夜話』(日本書院)를 일문으로 간행하였다. 다양한 문학 활동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세계 문단의 현상을 분석, 비평한 「세계문단주조론」, 한국 문학의 1930년에서 1960년까지를 기록한 「한국문단논고」(1959) 등의 평론과, 에이레 방문기인 수필 「애란기행 愛蘭記行」, 이집트의 역사를 더듬은 「애급의 예수」, 1931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시 「산들바람」·「홍초 紅草」·「기사(騎士)의 독백」, 희곡 아동극 「오뚜기」와 「쳉기통」·「금강산」(5막)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대한현대시영역대조집(大韓現代詩英譯對照集)』(文化堂, 1948), 한국의 신화·전설·동화·우화·고전을 소개한 『Folk Tales from Korea』(1952)·『세계문학산고(世界文學散考)』(1960)·아동문학 『색동 저고리』(1962)·창작시집 『산 넘고 물 건너』(1968)·수필집 『버릴 수 없는 꽃다발』(1968)·『일요탐방기』(1968)·『비소리 바람소리』(1968) 등이 있다. 그리고 평론집 『Plays from Korea』(1968)·『An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1970)와 『국어음성학연구』(1973)·『종합변증법적 세계문학론』(1973) 등이 있다. 국수주의적 민족문학과 계급주의문학을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적 문학을 지향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참고문헌】

『주간서울』, 「정인섭론」, 김태오, 1950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이재철, 1978
『현대시학』, 「정인섭론」, 박철석, 1981

최현배(崔鉉培, 1894~1970)

한글학자.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출생. 호는 외솔.

사립일신학교를 졸업, 1910년 한성고등학교(漢城高等學校)졸업, 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 문과 졸업, 1922년 일본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문학부 철학과 졸업, 일본 경도제국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26년 4월 연희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1938년 9월 흥업구락부사건으로 파면당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1941년 5월 연희전문학교에 도서관 직원으로 복직하였으나, 그해 10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사임, 1945년 광복까지 4년 간의 옥고를 치렀다. 1945년 9월부터 1948년 9월까지, 1951년 1월부터 1954년 1월까지 문교부(지금의 교육부) 편수국장에 두 차례 재직하였다. 1954년 연희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문과대학 학장과 부총장을 역임하고 1961년 정년퇴임으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1964년 3월부터 2년간 부산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일이 있다.1954년 학술원 회원에 뽑혔고 이어 임명회원·부회장을 맡았다. 1955년 연희대학교에서 국어학 연구와 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밖에 1949년 한글학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20년간 계속하여 한글학회를 이끌었으며, 1949년 한글전용촉진회 위원장, 1957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사·부회장·대표이사 등으로 국어운동의 중심적인 인물로 활동하였다.이러한 여러 방면에 걸친 활동과 공로로 1955년 제1회학술원공로상, 1967년 5·16민족상 학예부문 본상을 수상하였고, 1970년 3월 사망하자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국어학의 연구, 국어정책의 수립, 그리고 교육학의 연구와 국어운동의 추진에 전념하여 그와 관련한 20책에 이르는 저서와 100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어학의 연구는 1910년 봄, 일요일마다 보성중학교에서 열리는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周時經)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싹튼 것이라 한다. 이 분야의 업적은 『우리말본』과 『한글갈』로 집약된다. 『우리말본』은 1929년『우리말본 첫째매 소리갈』, 이어 1937년 온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주시경 이래의 문법연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20세기 전반기의 문법연구를 집대성한 저술이다. 전반적인 체계는 중학교 교재로 편찬된 『중등 조선말본』(1934)에 이미 나타나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였는데 인용된 자료의 해박함, 설명의 논리정연함, 체계의 정연함에 있어서 당시로는 이것을 능가할 문법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글갈』(1941)은 한글 연구

의 체계화를 추구한 업적인데, 역사편과 이론편으로 되어 있다. 역사편은 한글제정의 동기와 경위, 한글문헌에 대한 해설, 한글 연구의 역사를 다루고, 이론편은 한글창제 이후 없어진 글자를 주로 다루어서 그 음가를 추정한 것이다. 국어정책의 수립과 국어운동에 대한 집념과 활동도 대단하여 항상 최선봉에서 그 운동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이론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글자의 혁명』(1947)·『한글의 투쟁』(1958)·『한글 가로글씨 독본』(1968)·『고희기념 논문집』(1968)·『한글만 쓰기의 주장』(1970) 등 단행본으로 한글전용과 풀어쓰기의 이론을 발표하여, 그 운동의 이론적인 지침서가 되었다. 이 밖에 국어정화를 주장하면서 일본어의 찌꺼기를 몰아내는 등 우리말도로찾기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의 이론적인 근거는 『우리말 존중의 근본뜻』(1953)에 나타나 있다. 국어 정책에 대한 그의 주장은 전후 6년에 걸친 문교부 편수국장 재직중에 교과서에서 실행되었다. 이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각종 교과서에서 한글만으로 가로쓰는 체재를 확립한 일은 그의 업적이다. 교육학적인 연구는 대학의 졸업논문으로 비롯되는데, 민족주의적인 국민 계몽사상을 고취한 『조선민족 갱생(更生)의 도(道)』(1930)가 공개된 최초의 업적이다. 이 책에는 일생을 일관한 애국·애족의 사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먼저 우리 민족의 성격상의 결함과 질병을 진단하여 그 역사적인 원인을 구명하고서, 민족이 되살아날 원리를 말하고 이어 그 원리를 실천하고 노력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그의 정신은 광복 이후에 확대, 발전되어 『나라 사랑의 길』(1958)과 『나라 건지는 교육』(1963)으로 간행되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부강한 자유국가와 훌륭한 자주민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국어운동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점도 없지 않으나, 국어문법 체계를 확립한 국어학자로서, 국어와 한글운동의 이론가이며 실천가로서, 민족의 중흥과 민주국가 건설을 외친 교육자로서 남긴 업적과 공로는 크다. 민족의 수난기에 살면서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간 그 의지는 민족사의 한 귀감이 된다. 그의 학문과 유지는 한글학회를 중심한 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을 기리는 모임인 외솔회가 1970년에 창립되어 기관지 『나라사랑』을 발간하며, 해마다 국학연구와 국어운동에 뛰어난 사람에게 외솔상을 시상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참고문헌】

『외솔 선생의 전기』

『외솔 최현배박사 고희기념논문집』, 외솔최현배박사고희기념논문집간행회, 1968

『한글』 146,「외솔 최현배박사 해적이」, 1970

『동방학지』 12,「주시경선생의 학문」, 허웅, 1971

『나라사랑』 1,「외솔의 3대 저작 고찰」, 홍이섭·허웅·김석득, 1971

『나라사랑』14,「외솔 선생의 학문」, 유창균, 1974

『나라사랑』14,「외솔 선생의 국어정책」, 유창균, 1974

『나라사랑』 14,「외솔 선생과 한글학회」, 1974

5. 문화예술체육

고복수(高福壽, 1912~1972)

가수.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출생.

울산 일신보통학교 수료, 울산 내선보통학교 졸업, 부산 제2고등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울산군 출신으로 어린시절부터 축음기를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보냈다. 20대 초반에 콜럼비아레코드가 주최한 콩쿠르 부산대회에 입상하여 경성부에서 열린 본선에 진출해 3위를 차지하여 가수로 데뷔하였다. 1934년 손목인(孫牧人) 작곡의 「타향」(후일 「타향살이」로 개칭)과 「사막의 한」을 불러 인기가수가 되었다. 1939년까지 오케레코드사의 전속가수로 활약하면서 "아 으악새 슬피우는 가을인가요"라는 가사의 「짝사랑」·「휘파람」·「이원애곡(梨園哀曲)」·「풍년송(豊年頌)」 등을 불러 인기가 절정에 달하였다. 1940년부터 빅타레코드의 반도악극좌로 이동한 후 「알뜰한 당신」의 인기 가수 황금심과 만나 1941년에 결혼하였다. 1942년 이후 「풍년송」을 부부가 열창하였고,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도 활동하였다. 광복 후 전옥(全玉)이 주관하던 백조악극단(白鳥樂劇團)의 주요단원으로 활약하였다. 인기 가수였지만 인생에 굴곡이 많았기에 불운의 가수로도 기억된다. 한국 전쟁 때는 조선인민군에게 체포되었다가 탈출하였다. 1957년 8월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가수생활 25년을 결산하는 은퇴공연을 가졌고, 1959년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자리) 5층에 동화예술학원(東和藝術學院)을 개설,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학원을 경영하면서 이미자(李美子)·안정애(安貞愛) 등의 인기가수를 배출하였다. 하지만 은퇴 공연 이후 시작하는 사업마다 실패하여 생활이 어려웠다. 1959년 극영화 「타향살이」를 제작했지만 흥행에 실패하여, 서적외판원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다 고혈압으로 향년 62세에 세상을 떠났다. 황금심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가운데 맏아들이 트로트 가수 고영준, 둘째 아들이 트로트 가수 고영민, 셋째 아들이 작곡가 고병준이며, 둘째 며느리는 대학가요제 출신의 가수 손현희이다.

한편, 고복수의 가요인생을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울산 고복수 가요제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울산 동헌 앞에는 고복수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참고문헌】

『한국가요반세기』, 세광출판사편집부, 세광출판사, 1975

『가요60년사』, 황문평, 전곡사, 1983

『한국 가요사』1, 박찬호, 미지북스, 2009
위키백과 사전

김규현(金揆鉉, ?~?)

사진작가. 울산광역시 출생.

1967년 입회(데뷔)하여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부 4~6대 지부장, 1980~1981년 1월까지 한국예총 울산지부 지부장을 지냈다. 그리고 1979년 4월에 울산 명다방에서 개인사진전, 1988년 10월에 울산 제일다방에서 개인사진전을 개최한바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사진촬영대회와 합동사진전에 참여하여 두각을 드러내었고, 1984년 6월 1일 제18회 전국사진촬영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4월 10일에 한국사진작가 협회 이사장상 공로상 수상, 1980년 6월 1일 울산시민의 장(문화예술장) 수상, 1984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상 예총발전 공로상 수상, 1990년 10월 20일 경남 예술인상 수상, 1980년 6월 1일 울산시민의 장 문화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김석보(金錫保, 1928~1998)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출생. 호는 금곡(琴谷).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희대 법학과에 편입 수학하였다. 부산 동양나염공업사 설립대표, 서울 삼조산업(주) 및 강릉 성풍탄광(주) 상무이사 등 회사 중역을 역임했다. 1963년 한국연예인협회 창작분과 작사회에 입회하여 작품활동을 시작, 67년 대표작 「방랑삼천리」를 작사하여 널리 애창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이 된 후 87년 한국연예인협회 울산지부 고문으로 추대되기까지 각종 문화활동과 함께 30여편의 노랫말을 작사했다. 1966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향토사연구에 몰두, 1976년 울산울주향토사 집필위원, 1979년 7월 울산향토문화연구회를 창립하고 『울산유사(蔚山遺事)』를 발간, 1981년 최이락과 회지 『향토』를 창간하고 문화유적을 답사 발굴하여 이를 홍보 교육하면서 그 보존에 힘썼다. 1983년 이유수와 울주군 향토지 『내 고장의 정기』를 집필하고, 1984년 경상남도사 편찬위원,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고장의 전통 역사 지리 민속 등을 발굴 정리하여 대내외에 알리는데 앞장섰다. 1982년 제7회 울산시민의장과 1983년 제22회 경상남도문화상(지역문화개발부문)을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금곡 김석보선생 추모비문」

김준영(金俊永, 1937~1995)

1990년 3월 15일 계간 『아동문학평론』 봄호에 동화 「나비 날개를 달아준 노인」으로 제24회 신인문학상 당선 데뷔하였고, 1991년 6월 20일 동화집 『희망국민학교의 합창』을 발간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김지웅(金知雄, 1940~20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출생.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하였고, 1992년 2월에 동의대 대학원에서 「형법상의 점유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 취득하였다. 경남교육청 교육사, 장학사, 장학관 근무, 함양군 교육장, 울산교육장,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등을 역임하였다.

1984년 9월에 첫시집 『허수아비』 발간을 시작으로 1987년 9월에 두 번째 시집인 『토기(土器)의 환상(幻想)』을 발간하였다. 이후 1990년 3월에 『시와 비평』 봄호에 시 「지

리산」,「가을편지」로 신인상 당선되었다.

【참고문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김태근(金兌根, 1920~2010)

본관은 경주 김씨.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출생. 호는 범곡(梵谷).

일본으로 망명했던 부친이 귀국하면서 울산으로 이사왔다. 울산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범어사중학교 다니며 스승인 범산(梵山) 김법린(金法麟) 선생의 영향을 받아 애국과 문학에 뜻을 세웠다. 광복 후에 '울산건국청년단'을 창단하여 청년운동, 계몽운동과 문화운동을 겸하였고, 1946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울산군지부 청년부장, 그 이듬해에는 조선민족청년단 울산군단장을 맡아 '울산3·1회관'을 지음으로써 울산문화와 울산청년운동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였다. 문맹률이 높은 그 시대에는 연극으로 애국과 현대 문화를 계몽함이 가장 효율적임을 알게 되어 '울산극우회'를 조직하여 '혁명가의 후예'를 창작하고 연출·출연까지 하면서 공연하였고 그 후로 평생 동안 울산 연극을 이끌고 지도하였다. 또한 '울산문우회'를 조직하여 최초의 향토 종합동인지인 『태화강』을 2집까지 발간하여 울산에 문학의 뿌리를 내렸다. 6·25가 터진 전쟁의 와중에서도 문화인들을 모아 '백양문화사'를 설립하고는 1956년에 동인지 『백양』을 창간하였으며 울산 최초의 시화전과 시낭독회 및 명곡감상회를 여러 번 열어 울산의 문화운동의 기틀을 잡았다. 1968년에는 한국문협 울산지회를 결성하여 『울산문학』을 창간하였고, 1980년부터는 한국예총 울산지부의 고문을, 1981년부터는 한국문협 울산지부의 고문을 맡아서 지도하였고, 1982년에는 울산수필동인회를 최초로 창립하여 회장을 맡으면서 『개운수필』(현 울산수필)을 창간하였다.

이러한 평생의 공적으로 1994년에는 경남연극상을, 1996년에는 경남도문화상을, 1998년에는 건국공로장을, 2002년에는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을, 2006년에는 옥관 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2007년에는 연예예술인으로 추대되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태화강』, 『함월산』, 『암벽』, 『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가 있다.

범서읍 지지리 공부암 입구에 '태화강 시비'가 세워졌다.

【참고문헌】

『울산 문화예술 인물 재조명 -범곡 김태근 선생의 문학과 연극 그리고 인생-』, (사)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2012

박상지(朴常志, 1923~1988)

소설가. 본관은 고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서 출생. 본명은 재희(在喜). 상지는 그의 필명(筆名). 박성열(초대·2대 울산교육구 교육감)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동래보고(현 동래고) 졸업(1943), 일본대학 전문부 문과를 중퇴했다. 울산제일중학교 등 13년간 중고교 교원생활을 했으며,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 교육잡지 『교육자료』의 편집담당(6년), 출판사 신태양사 편집국장, 학창시절부터 문학을 지망, 창작에 힘써왔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6·25사변 이후로, 당시 고향 울산에서 '백양(白楊)동인'으로 활동했고, 그후 『문예』에 단편 「가족」으로 김동리의 추천을 받고, 『문화세계』에 단편 「무제화」가 현상공모로 당선되어 데뷔했다. 이후 단편 「황지」, 「용연기」, 「어린시절」 등을 발표했다.

그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거주하다가 만년에는 향리인 범서읍 척과에 낙향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이즈음 문협울산지부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많은 후필들을 지도했다. 유일한 창작집으로 만년에 『창궁』을 발간하고 88년 12월 22일 지병으로 부산 백병원에서 향년 66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향리인 범서읍 척과 선영하에 안장되었다.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의 『울산문학』 제14집에 「소설가 고 박상지의 삶과 문학」을 특집형식으로 실었다.

그는 또 문학 외에도 중년에 명리학의 대가 도암 박재완(陶庵 朴在玩) 선생을 사사(師事), 운명학, 역학 등에 심취하여 운명철학서 『명(名)』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역리학회 정회원이다.

【참고문헌】

『세계문예대사전』(상), 문덕수외 편전, 성문각, 1975

『울산문학』 14집, 처용출판사, 1989

『한국문예사전』, 어문각, 1991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박영인(朴永仁, 1911~?)

무용가.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출생. 에하라 마사미(본명), 쿠니 마사미(예명).

박영인은 울산 출신으로 부산중학교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마쓰에(松廣) 고등학교와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세계적인 무용가가 되었다. 그는 『무용창작과 무용연출』(창작사, 1998)의 자기 소개서에서 대학에 진학해서 낮에는 대학 교실, 밤에는 극장이나 대중 공연장 무대에서 이중생활을 했다고 적었다. 베를린 올림픽이 열릴 무렵에는 교토 통신 베를린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다. 세계적인 무용가인 박영인은 동강병원 이사장을 지냈던 박영철의 형이다. 그는 일본에 사는 동안 일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쿠니 마사미(邦正美)'라는 일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 유럽 현대무용 선구자였던 루돌프 본 라반(1879~1958)과 마리 비그만(1886~1973)의 수제자로 활동하면서 전 후 무용교육의 기틀을 닦았다. 이후 그가 열심히 연구한 것은 무음악 무용이었다. 그의 주장은 무용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사상까지도 육체운동을 통하여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무용은 발레도 무용식도 아닌 독일식 신흥무용이었다. 그는 1937년 독일의 베를린국립극장과 체육관 홀에서 발표회를 가졌고, 1937년에 독일국립무용학교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 헝가리 등지에서 24회 공연을 가졌으며 베를린의 독일 국립오페라극장 함부르크 · 쉴레에서 발레리나로 출연하였다. 1938년에 박영인은 독일 국립무용단 강사로 취임했고 독일에 있는 동안 『무용예술의 연구』라는 저서를 남겼다. 우리나라 현대무용사 권위자인 정병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영인은 우리나라 근현대에 소위 모던댄스 쪽에서 남자 무용수로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마리 비그만은 쿠니 마사미(박영인)를 세계적인 창작무용수, 안무가, 교육가로 소개하면서 '그가 리듬과 움직임의 생기 넘치는 미'를 추구한다고 평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학문적인 경험을 학생들을 위해 미적 흥분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드문 교육가'라고 소개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

레스의 무용인 루이자 그린버그는 거장 쿠니 마사미는 움직임의 예술과 교육무용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켰다며, '세계의 무용교육가들은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대학에 처음으로 무용학을 만든 마쓰모토 치오에(오차노미즈 대학교수)씨는 박영인에 대해 "나는 그를 존경한다. 쿠니 마사미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인' 박영인을 만든데는 그의 이른 유학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1995년부터 미국과 일본을 오가던 쿠니 마사미는 1961년 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신무용 극장(New Dance Theater) 책임자로 초빙돼 미국을 갔다. 뉴욕 뉴스쿨대학 무용과 주임을 맡다가 1964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립 플러톤대학 무용과 교수로 일했다. 플러톤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퇴임한 뒤에도 교육무용 일본연구소장(일본), 쿠니 댄스 파운데이션(미국) 이사장 겸 예술지도자로 일본, 미국, 독일을 오가며 무용교육자, 이론가, 안무가로 활동했다. 그의 예술적 세계관 형성에는 코스모폴리터니즘과 더불어 일본의 식민지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이에 따른 자의식 과잉이 작용한 것 같다.

【참고문헌】

『경상일보』「울산 성장의 시대-국도 7호선시대 울산멋쟁이 박지중」, 2013.12.22

『우리 무용사 100년』, 현암사, 2001

「박영인의 예술과 인생」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ntmal?Redirect=Log&logNo=20024107195)

까페 한국춤동호인회 클럽(http://cafe.daum.net/hanamam114)

박영출(朴榮出, 1919~2007)

초대 울산문화원장.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출생. 호는 진석(眞石).

1960년 12월 울산읍 의회에 진출하여 연이어 3회 당선하였으며 읍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1969년에 울산문화원이 준공되면서 도서관 개관도 함께 시작되었으며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과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협조를 얻어 1만 6천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게 되어 이를 통해 울산의 역사와 전통사상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재』, 『울산문화재총람』, 『내고장 전통』, 『울산의 전설과 민요』, 『처용논총』, 『울산지명사』 등을 발간하였다. 1967년 울산공업축제부터 진두지휘하여 쇠

부리놀이를 발굴 시연하게 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마두희와 물당기기놀이, 재넘자놀이, 농악놀이 등을 개발하여 울산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자래매김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박영출은 제6대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만한 운영자금 회전과 일반 상공업자들의 금융 이용 및 대기업의 어음할인 등의 편익을 위해 단자회사를 설립하고 종합대학 설립을 건의 추진하였다.

【참고문헌】

『울산남구문화』 5집, 「추모특집 고 박영출 전 울산문화원장」, 2007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박종우(朴鍾禹, 1952~1976)

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출생. 호는 고무신(古無新). 아버지 박제하와 어머니 경주 최씨 사이의 5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상북면 지내리가 고향인 박종우 시인은 '고무신 시인'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필명을 고무신(古無新)이라고 했는데 이는 '옛것이 없으면 새것이 없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비범함이 깔린 중의적 표현이었다. 고향에서 소학교를 다니다 1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2년여 동안 낮에는 막일을 하고 밤에는 니혼대학 문과에서 수학했다. 태평양 전쟁으로 귀국한 그는 일본군으로 중국 분지, 화북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다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방직후 양산 통도사에서 한글 교육을 하던 최현배 선생을 만나 수학하며 한글공부를 했다. 이후 교원양성소를 거쳐 부산과 안동, 경주 등지에서 국어교사 생활을 했다. 그의 문학 활동은 경주 문화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1946년부터 본격화 됐다. 당시 그는 '흰구름 동인'을 결성해 동인지 『흰구름』을 발간했다. 1954년 경주고교 교장이던 청마 유치환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인 홍영기, 김영식, 김윤식 등과 시 동인지 『청맥』을 발간하기도 했다. 동아대학 강사와 『자유공론』 편집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종우 시인은 1957년 『사상계』에서 시 「나」로 신인상으로 받았다. 주요 작품에 「소」, 「창」, 「벽」, 「양」 등이 있고, 시집으로 등단 이전에 박명규와 합동으로 낸 『조국의 노래』(1950), 실제적인 개인 시집인 『습지』(1961), 『양지』(1967), 『한 알의 씨앗을 위하여』(1971),

『다시 가을에』(1975) 등이 있다. 사후 10년에 『고무신 박종우 시선』(1986)이 발간되었다. 그의 시세계는 초기는 어둠과 비극적 존재에의 자기 인식으로부터 빛의 지향과 함께 고독하고 외로운 삶에 대한 극복의지를 드러낸다. 그것은 '습지'의 삶을 벗어나 '양지'로의 지향이다. 작품 「휴일」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말하고 있다. 박종우의 시들은 대부분 서정성보다는 인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시의 경향을 띤다. 이 같은 현상은 항상 가까이 하고 흠모했던 청마 유치환과 공초 오상순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울산문학』 20집, 「고무신 박종우의 인간과 문학」, 울산문인협회, 1993
『울주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서덕출(徐德出, 1906~1940)

동요작가. 본관은 달성. 당시 경상남도 울산읍 교동(큰아버지댁)에서 출생. 본명은 정출(正出). 호적에는 덕줄(悳茁)로 기록. 아명(兒名)은 덕출. 예명은 신월(晨月).

서덕출이 여섯 살이 되던 1912년 부친이 큰댁에서 분가하여 학산동으로 이사하였는데, 이 학산동 집의 마루에서 베개를 가지고 놀다 미끄러져 그만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낫기 위해 정성을 쏟았지만 등이 굽은 채 영영 불구의 몸이 되어 남은 생애의 전부를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방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1912년 부친은 서덕출이 몸을 다친 뒤, 복산동 512번지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했는데, 「봄편지」, 「여름」 등 그의 대다수 작품은 넓은 정원과 오동나무며 버드나무가 우거진 연당이 있던 바로 이 집에서 창작되었다. 어머니는 정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불구의 아들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쳤고, 아버지는 멀리 부산, 서울 등지에까지 문예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책을 주문해 주었다. 그의 나이 15세 되던 무렵부터는 독서의 수준을 넘어 직접 동요 창작을 시도하였는데, 마침내 19세가 되던 1925년 늦은 봄, 아동잡지 『어린이』 5월호에 「봄편지」가 독자란에 입선되어 문단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 작품은 1927년에 윤극영이 곡을 붙여 동요화 하였는데, 이런 인연으로 서울의 윤석중, 언양 출신의 신고송과 정인섭, 대구의 윤복진 등이 서덕출을 만나러 울산에 와 복산동 그의 자택에서 공동 창작 「슬

픈 밤」을 짓기도 하였다. 같은 해, 서덕출의 아버지가 항일운동으로 체포되어 수감 . 석방된 이후 한동안 일본인 순사의 가택수택을 당하기도 하였다. 1934년에는 전필남과 결혼한 이후 생업을 갖기 위해 약제사 공부를 하여 본댁에 가까운 북정동 32번지로 분가한 집에서 신약방 애생당(愛生堂)을 열었다. 1938년 척추의 신경통이 극심해져 자리에 누운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부분 병상에 누워 지냈다. 1940년 음력 1월 10일 새벽에 북정동 32번지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34세로 타계하였다.

서덕출은 사망 전까지 「봄편지」, 「눈꽃송이」, 「슬픈밤」, 「꼬부랑 두던」, 「눈오는 날의 생각」, 「맹서」, 「봉선화」, 「칠석밤」 등 총 69편의 창작시를 남겼다. 1952년에 나온 유고 동요집 『봄편지』(자유민보사)가 있다. 지금까지 서덕출 문학을 연구해온 이재철, 신현득, 김종경, 안성길, 김지은 등의 연구가에 의해 밝혀진 자료는 동요 71편과 시 9편, 동화 1편, 생활문 15편 등 모두 96편이다. 1968년 10월 3일 신문학 60년을 기념하여 새싹회가 울산 학성공원에 노래비가 세워졌고, 울산중구문화원에서는 그의 정신을 기려 '서덕출 봄편지 노래비 백일장'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참고문헌】

『오영수·서덕출 문학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연구』, 울산학연구센터, 2008

손진상(孫晋庠)

울산광역시 출생.

근대적 의미의 울산연극은 1940년대부터 시작된다. 해방이 되자 손진상은 김태근, 박태일 등과 함께. 극우회를 만들어 신극운동을 전개했다. 1947년 울산건국청년단원들이 결성한 '울산극우회'의 활동이 그 효시이다. 울산극우회가 창단작품으로 첫무대 에 올린 것은 「혁명가의 후예」(김태근 작, 연출)이다. 창작극(4막극)으로는 울산 최초의 작품으로 한 선비집안을 통해 조선조 말기에서 한일합방, 일제치하, 조국 해방에 이르기까지 민족 수난사를 짚어본 것이다. 손진상은 김태근, 유일선, 김정순 등과 함께 이 시기에 활동했다. 그 후 1950

년 6·25 전까지 울산연극은 학생극이 명맥을 이어간다. 1964년 5월 BBS에 관여하던 김규현, 손탁 등이 불우청소년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극 공연을 기획했다. 「하늘에 별은 없어도」(김태근 작,연출)라는 작품이다. 불우 청소년들의 생활을 실감나게 다룬 작품으로 손진상, 이일성, 박재돈, 조무길, 김종언, 김인순과 BBS 학생 등 20여 명이 출연했다. 장생포와 방어진을 돌며 공연을 했는데, 대성공이었다. 그로 인해 부산연극계와 교류를 트는 계기가 됐다.

【참고문헌】
『울산광역시사』 5편, 「울산의 예술」,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신고송(申孤松, 1907~?)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언양보통학교와 경북공립사범학교(대구사범) 2년제 특과를 졸업했다. 울산 출신의 사회주의 문화운동가인 신고송은 어린이 잡지 '어린이'에 동시와 희곡을 발표하면서 문화계에 등장했다. 언양초등학교 졸업 후 금융조합 급사로 일하면서 동요 '진달래'와 아동극 '꾀바른 토끼'를 발표, 주목받았다. 당시 신고송은 울산의 서덕출, 대구의 윤복진 등과 함께 '등대사'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 1927년 8월에는 서울에서 온 윤석중, 윤복진 등과 서덕출의 집에 모여 정담을 나눴는데, 이 일화를 통해 그는 지역 문화사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기게 된다. 경북공립사범학교(대구사범) 2년제 특과를 졸업 후, 대구덕산보통학교·경북 청도 유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카프(KAPF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 가담하는 등 사상불온으로 면직되었다. 이후 '가두극장' 동인을 거쳐 1931년 일본 동경에 건너가 좌경연극단체인 동지사(同志社)와 일본프롤레타리아연맹 산하 '조선협의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1932년 봄 서울로 돌아와 프로연극단체인 '신건설(新建設)'을 이상춘(李相春)·송영(宋影)·권환(權煥)·강호(姜湖) 등과 함께 조직하였으나, 일본에서 있었던 조선협의회 기관지 『우리동무』에 관련된 사건으로 이찬(李燦)·강호·김태진(金兌鎭)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1935년 9월 출옥 후에는 생계를 위해 광복될 때까지 이철의 'OK그랜드쇼'단과

그 후신인 '조선악극단'에서 친일퇴폐극단의 조연자로서 종사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에는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1945.9.17) 중앙집행위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1945.9.30) 연극부문 중앙집행위원이 되었으나 1945년 12월 6일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합되자, 1946년 봄 북조선문학예술동맹 결성에 참여하기 위해 박세영(朴世永)·송영·이동규(李東珪) 등과 월북하였다. 월북 후에는 중진 대접을 받아 북조선연극동맹 부위원장, 북조선노동당선전부 강영과장,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이 되었다. 이어서 평양국립극장 총장,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조선작가동맹중앙위 상무위원, 국립연극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1956년 6월에는 예술대표단 단장으로 소련을 방문한 것을 시발로 1960년대에는 민족예술극장 총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A.A)단결위원회 부위원장,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월맹인민투쟁지지 부위원장 등 대외 활동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은 동요·동극·평론·희곡 등 다양하게 걸쳐 있으며, 광복 전에는 아동문학가로 광복 후에는 주로 연극인으로 활동하였으나 처음부터 사회주의 계급의식을 부식시키기 위한 행동적, 선동적인 요소로 일관된 전형적 프로문학이었다. 대표작으로 동극에 「꾀바른 토끼」(어린이, 1927)·「해가 지는 까닭」(주간소학생, 1946)이, 동시에 「언니 시집가던 날」(어린이, 1930)·「잠자는 거지」(신소년, 1930)·「고추장」(음악과 시, 1930)·「우리들」(신소년, 1932)·「골목대장」(아이생활, 1933)·「잠자는 방아」(별나라, 1934)·「우리집 감나무」(주간 소학생, 1946)·「아버지」(새동무, 1946) 등이 있다. 대표적인 평론에는 「동심에서부터~동요시인에게 주는 몇말」(조선일보, 1929)·「동심의 계급성~조직화와 제휴함」(중외일보, 1930)·「아동문학 부흥론~아동문학의 르네상스를 위하여」(중앙일보, 1931;조선중앙일보, 1936)·「동심의 형상~윤석중 '초생달'」(독립신보, 1946)·「조선연극의 진로」(문화통신, 1945)·「연극운동과 그 조직」·(인민, 1945)·「브르조아 사상과 철저한 투쟁을 위하여」(조선문학, 1959)·「희곡창작의 언어」(청년문화, 1965) 등이 있다. 대표적인 희곡에는 「서울갔던 아버지」(우리문학, 1946)·「3·1전후」(평양 신생좌, 1947)·「최후의 날」(평양시립극장, 1948)·「장막 '불길'」(평양국립극장, 1950)·「선구자」(국립극장, 1953)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연극으로 상영되었다. 단행본으로는 희곡집 『선구자』(평양조선작가동맹, 1958)와 평론집 『연극이란 무엇인가』(평양국립출판사,

1956)가 있다.

【참고문헌】

『죽은 동지에게 보내는 조사』, 신고송, 예술운동, 1945

『희곡집 선구자』, 신고송, 조선작가동맹, 1958

엄대섭(嚴大燮, 1921~2009)

도서관 운동가. 울산 울주군 웅촌면 출생. 호는 간송(澗松)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엄대섭은 8세 때 생활고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엄대섭은 청소년기부터 가족을 부양하였다.

일본에서는 책에서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로 헌 옷 장사를 하는 등 사업도 하고 고베시의 야간상업학교(北神商業學校)를 졸업하였다. 해방 후 고향으로 귀국한 뒤 1951년에는 울산읍에 3천권으로 '울산사립 무료도서관'을 열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후에는 군내 전 농어민을 대상으로 50여개의 순회문고를 마련하여 봉사하기도 했다. 엄대섭은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을 개인 자격으로 전개했고, 마을문고(꼬마 도서관) 운동가였다. 1983년에는 대한도서관연구회를 창립하여 공공도서관 개혁운동을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국내 최초의 자동차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책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도서관협회 초대 사무국장, 대한도서관연구회장을 역임했다. 1974년 외솔상(실천부문), 1981년 8월에는 마을문고운동으로 독서운동에 의한 의식개혁 등 농어촌 개발의 한 모형을 제시한 공으로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을 수상했고, 2004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2009년 2월 6일 미국에서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참고문헌】

『새마을문고운영실무』, 새마을문고중앙회, 1998

『이런 사람 있었네 –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이용남, 한국도서관 협회, 2013

오영수(吳永壽, 1909~1979)

소설가. 본관은 해주.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13번지 출생. 호는 월주(月洲), 난계(蘭溪). 9세까지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언양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면사무소 서기, 우체국 사무원, 실내장식사, 간판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야만 하였다.

그 후 1932년 일본 오사카(大阪) 나니와중학(浪速中學)속성과를 수료한 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동시(童詩)를 발표였으며,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39년 동경 국민예술원(國民藝術院)을 졸업하였다. 그 해 7세 연하인 김정선과 결혼하게 되었으며, 1943년 귀국하여 교사인 그의 아내가 동래 일광보통학교로 전근됨에 따라 어촌인 동래 기장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이후 오영수의 대표적 작품인 「갯마을」의 배경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1943년 김범부를 통해 그의 아우인 소설가 김동리를 만나면서 문학에 뜻을 두게 된다.

광복 후 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49년 단편소설 「남이와 엿장수」(「고무신」으로 개제)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입선하여 이 작품을 『신천지』에 발표하고, 이듬해 단편 「머루」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종군기자로 참전하였으며, 이때의 체험들을 「동부전선」, 「종군기」, 「전우」, 「한탄강」, 「두 피난민」 등의 작품에서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그 뒤 부산중학교에 전임하였다가 1955년 조연현, 임상도, 김구룡, 박재삼 등과 함께 문예지 『현대문학』의 창간에 관여하여 초대 편집장을 맡았다. 같은 해에 제1회 한국문학가협회상을, 1959년에는 아세아자유문학상을, 1977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오영수는 1976년 『황혼』을 출간한 후 고향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1977년 3월에 결국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로 낙향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창작에 전념하여 1978년 『잃어버린 도원』을 펴내었다. 1979년 각 지방의 특질을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차원에서 고찰한 「특질고」가 필화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로 인해 오영수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간염이 악화되어 이 해 5

월 15일 오전 7시 30분 웅촌면 곡천리 침죽제에서 영면하였다. 그의 묘지는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화장산 기슭에 있다. 사후 1992년 10월에 오영수 문학비가 울산문화원(현 남구문화원)에 세워졌으며, 1995년에는 오영수 문학상을 제정하여 현재까지도 시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11월에는 모교인 언양초등학교에 문학비가 세워졌고 1998년 5월 30일 한국문인협회에서 세운 오영수 문학 표지석이 옥동 가족문화센터 앞 화단에 놓여있으며, 「갯마을」의 배경인 기장군 일광면에 '오영수의 갯마을의 현장'이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2014년 1월 21일에는 언양읍 헌양길 280-12번지에 오영수 문학관이 개관되었다.

1955년 한국문학가협회상을, 1977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였다.

오영수는 1954년 첫 창작집 『머루』의 출간 이래 『갯마을』(1956).『명암』(1958).『메아리』(1960).『수련』(1965).『황혼』(1976).『잃어버린 도원(桃園)』(1978)까지 7권의 창작집을 남겨 놓았으며, 1968년에는 전권 5권의 『오영수전집』(1968)을, 1974년에는『오영수대표작선집』전 7권을 출간하였다.

【참고문헌】

『오영수·서덕출 문학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연구』, 울산학연구센터, 2008

이호경(李護卿, 1894~199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초명(初名)은 봉선(鳳仙). 호는 구소(九簫)

어린나이에 기생으로 들어가 "작천 장기"를 쓴 오병선 수하로 글을 배워 열일곱부터 시 창작을 했는데 그의 글 솜씨는 황진이 못잖다고 했다.

석정(石汀) 최두출(崔斗出)이 국역한 한시집(漢詩集)『봉선화(鳳仙花)』(1980)가 있다. 이 시는 작천정 벽에 걸려 있으며, 그 앞 냇가에 그의 시암(詩巖)이 있다.

이구소가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은 그의 나이 21살 때, 울산의 거부 김홍조의 소실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가 김홍조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마 작천장 때문일 것이다. 조선조 말 김홍조는 울산에 올 때면 작천장에서 자주 연회를 가졌다. 김홍조는 특히 금릉위 박영효와 함께 작천장을 찾는 일이 잦았는데 이 때 언양에 있었던 이구소를 김홍조가

자주 불러 나중에는 소실로 들어가게 된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홍조의 이구소 사랑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김옹은 죽을 때 외아들 택천을 이구소가 돌봐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리고 당시 생각하기 힘든, 논 100마지기를 상속하기도 했다.
또한 작천장의 소유를 이구소 집안으로 이전해주기도 했으며, 3.1운동이 일어난 후 독립자금을 갖고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때 이 독립자금을 김홍조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이구소였다고 한다.
이구소가 울산에서 남겨 놓은 큰 업적이 있다. 그것은 작천장의 기증이다. 기록을 보면 작천장은 당초 김홍조의 소유였으나 나중에 이구소 집안의 소유로 나타난다. 이것은 위의 설명과 같이 김홍조가 이구소와 결혼을 하고 난 뒤,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구소가 나중에 작천장의 소유를 주민들에게 기증을 한 것이다.

【참고문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울주문화』 2집, 「이구소의 생애와 작품」, 장성운, 울주문화원, 2002
「구소 이호경의 한시 연구」, 김정화, 울산대석사학위논문, 2013

이기원(李錡源, 1937~1987)

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출생.
두북국민학교 졸업, 경주 공업고등학교 졸업,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이기원은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농사를 지은 부농이었다. 그는 재학시절 울산 상북면 출산 박종우를 만나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받았다. 경주 서라벌 예술제에 화랑 원화 선발대회에 화랑으로 뽑힐 정도로 그는 미남형 문학청년이었다. 1955년 경주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부산 국제신보사 문화조사부 기자로 입사한 후 1961년 최순자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신문사 입사 2년 후인 1962년 병을 얻어 사직하고 고향 봉계리로 돌아왔다. 1963년 『현대문학』 11월호에 「아침」(1회)이, 1964년에 『현대문학』 8월호에 「산에 고해하다」(2회)가, 1965년에 『현대문학』 7월호에 「역사(役事)」 (3회 추천 완료)로 김현승 시인에 의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 11월호(통권 143호)에 「멸망의 강」을 발표했다. 부친 타계 후에는 1970년 젊은 나이에 얻은 근육무력증이라는 희귀한 병에다 당뇨가 겹치고, 정신불안정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런 상황에서도 『현대문학』 9월에(통권 189호)에 「건축」을 발표했다. 1975년 어문각 발행 『신한국문학전집』에 한국 대표시인으로 「겨울 철쭉」외 2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1987년 『울산문학』 12집에 특집으로 그의 추천 작품과 「화원」과 「접상」 등의 시가 수록 되었다. 이어 1988년 『한국시대사전』에 「모독」, 「메밀꽃」, 「백일홍」, 「병상초」 등 총 10편이 수록되었다. 가족의 도움으로 시작활동을 하던 이기원 시인은 병마와 싸우다 1987년 7월 17일 운명했다. 그의 사후 1990년 유고시집 『겨울철쭉』이 발간되었다. 이기원의 시가 가지는 특징은 언어의 자각을 바탕으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성찰했다는데 있다. 그러면서 향토와 생활에서 느끼는 서정과 인간애를 아울러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겨울철쭉』, 이기원, 도서출판 글밭, 1990

『울주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이유수(李有壽, 1926~2007)

향토 사학자. 울산 복산동 575번지 출생. 호는 현곡(見谷).

울산초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학문을 깨우쳤고 울산시군에서 37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 공직 외에 청년운동도 하였는데, 해방 후 건국청년단에 들어가 당시 어지러웠던 울산의 치안 유지에 힘썼고 우익 운동을 펴면서 나중에 족청계 울산지부 선전부장까지 지냈다.

울산문화원 부원장과 울산향토사연구회장을 역임하면서 향토사연구와 이와 관련된 책자를 집필하는데 주력하였다. 1986년에 『울산지명사』를 출간하여 울산 지역의 방대한 고유 지명 2400여 개의 소지명들을 일일이 해독하여 후학들에게 향토사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

울산 지역의 임란사와 관련된 사료는 대부분 발굴하여 『울산문화』·『향토사보』 등 울산 지역에서 간행되는 여러 종류의 도서에 기고·발표하셨고 또 1996년에는 이것을 집대성하여 『울산향토사연구논총』에 실었다. 이 외에도 『울산 향토사 연구 총람』, 『울산문화재 총람』, 『내 고장의 전통』, 『울산 향토사 연구 총람』 등 울산의 대표적인 향토서를 저술하였다.

울산의 향토사 연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그를 기념하기 위해 2009년 복산초등학교 교정에 동상을 건립하였다.

【참고문헌】
『울산 남구문화』 5집, 「현곡 이유수 선생의 울산 향토사 연구에 대한 고찰」, 2007
『울산 남구문화』 6집, 2007

이일우(*, ?~?)**

울산광역시 출생

한국연예협 경남 울산분실 제1대(1967년)~3대(1972년) 분실장, 3대·7대 연예협회 울산지부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울산분실 회원들은 악대창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1969년 1월 중순경부터 예비군악대 창단준비작업에 착수하였고, 이때 이일우 분실장은 홍승순 울산시장, 김정원 울산경찰서장, 울산특정경비사 박정인 장군 등을 찾아다니며 지원 요청을 하여 그 결과 울산특정경비사는 군악대 의장용 헬멧, 예비군복, 군화를, 울산시는 트럼본 외 악기 16종 구입해 주고 군악대용 하복과 악세사리도 마련해 주었다. 이에 1969년 3월 1일 발대식 진행하였고, 이때 이일우는 울산 특정지구 향토예비군악대장을 맡았다.

이를 시작으로 제2회~9회에 이르기까지 울산공업축제 연예분과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88년 6월에는 연예인 수석회 회장을 맡아 많은 공을 세웠으며, 이후 연예협회 울산지부 고문을 맡아 후배 연예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참고문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이척(, ?~?)**

울산광역시 출생.

초대~3대(1986~1992년) 무용협회 울산지부장을 지냈다.

울산지방의 무용은 19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용의 전승과 현대무용의 개발에 뜻을 둔 무용가 이척을 중심으로 무용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중소도시로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그는 이 지방 무용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후진육성은 물론 무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물심을 바쳐왔다. '이척무용연구소'(1967년 1월 개소)가 당시 이 지방 무용활동의 산실이요 사랑방격이라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중인들로부터 평가되고 있다.

1978년 11월 4일 한국무용협회 주최 무용대공연 경남지부 회원으로 참가, 1980년 3월 3일 전국무용인 합동공연회 참가, 1982년 10월 16일 경남무용인 합동공연회 참가, 1987년 11월 13일 연극협회 . 무용협회 . 연예협회 공동주관 뮤지컬 '동남단에선 제일이로고' 공연의 안무 구성하였다. 그리고 1991년 12월 29일 한국무용협회 주최 전국무용제전 '한량무' 참가(국립중앙극장 대극장), 1992년 9월 23일~10월 1일 제1회 전국무용제 경남대표로 참가, 1992년 12월 7일 한국무용협회 주최 지방 무용인 초청 공연 '살풀이' 등을 참가하면서 그 실력을 뚜렷이 드러내었다.

한편, 1992년 10월 1일 월간 『무용세계』 10월호 표지에 울산무용계를 개척해온 이 지방 무용의 대부 이척을 대서특필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1991년 6월 1일에는 울산시민의 장(문화예술장)을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정동우(鄭東宇, 1925~1979)

사진작가. 울산광역시 출생. 호는 일암(一岩). 본관은 영일.

1950년부터 울산군청 등 경남일대의 여러 곳에 공직생활을 두루 거치면서 예술분야 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진창작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60년 초에는 부산지방 사진작가들과 교분을 통해 활동해오다가 1966년 울산지역에서 사진업에 관계하고 있던 유진갑,

임수문, 홍순칠 등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부 설립을 위한 첫모임을 가졌으나 여의치 못하고, 그후 1967년 1월 문영철, 고 이동주 등과 지부창립총회를 가져 동년 3월 25일 지부인준을 받았다. 이후 초대(67~68)와 3대(71~72) 사협울산지부장과 한국사진작가협회(중앙회) 이사를 역임하면서(7대, 72~73) 사진예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 제5대 한국예총 울산지부장 재임시(78~79)인 1979년 11월 12일 55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경주 서라벌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수향여서와 1남 5녀가 있으며, 1986년 10월 12일 사협울산지부는 선생을 추모하여 현지에 묘비를 세웠다.

【참고문헌】

『울산문화』 창간호, 울산문화원, 1983

『울산사진연감』 1집, 사협울산지부, 1985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조순교(趙淳奎, 1908~ 1944)

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출생. 호는 근포(槿圃).

조순규는 1920년대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한 울산 최초의 시조시인이다. 1923년에 월반하여 울산초등학교를 15세 때 졸업하고, 같은 해 부산 동래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다. 동래고등보통학교에 함께 공부했던 시인 청마 유치환은 조순규의 한 해 선배이고, 소설가 요산 김정한과 시인 김대봉과 동기이다. 1928년 조선일보 일반문예에 「봉래유기」 연시조 7편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일경의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받던 중 그해, 편지 내용을 문제 삼아 치안유지법 명목으로 동래경찰서에서 1년에 걸친 옥살이를 했다. 1931년 전국을 돌며 채록한 민요 400여 편을 묶어 『무궁화』 (육필민요집)자가본을 엮었다. 그 후 웅촌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문맹 농민을 가르치다가 일제 통치 막바지인 1945년 1월에 웅촌 면장직을 맡았다. 광복 후에는 첫 민선 웅촌 면장을 하였다. 1949년 모교인 동래중학교로 직장을 옮기면서 그만 두었다가, 울주 웅촌 10대 면장(1945~1946)으로 2년간 재직했다. 43살 때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재직하면서 문예반을 맡아 학예지 『프로가토

리오』 2호를 편집 지도했다. 1951년 8월에 좌파활동을 한 제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울산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후 부산경찰서로 옮겨가 무죄로 석방되었다. 1951년 11월에 복직하여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 문예지 『시조연구』 창간호에 「하늘」을 발표했다. 1955년에 정식 교사로 발령이 났고 1959년 경남여고로 옮긴 후 시조시인 김상옥, 시인 조순과 같이 근무했다. 청마 유치환이 교장으로 오면서 문학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작품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1962년 동아일본에 시조 「바다」를 발표했고, 1973년 부산실업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2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만년에 불행하게도 세 아들을 먼저 보냈고, 생전에 한권의 작품집도 발간하지 못한 채 1944년 근포는 생을 마감했다. 『무궁화』(육필민요집), 『계륵집』(육필시조집) 『잡초록』(육필산문집) 등이 있다.

【참고문헌】

『근대서지』 제4호, 「무궁화 시인 조순규의 삶과 시조」, 박태일, 2011
『울주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조홍제(趙弘濟, 1926~2001)

울산광역시 출생.

울산중앙중학교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에서 활동하면서 울산수필동인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지부장(1978~1980) 맡는등 지역 문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

1966년 3월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고, 1967년 4월에 울산 명다방에서 회원합동송년시화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968년 6월에 시 『항아리꽃』 외 1편 작품발표회 개최하였고, 1969년 『울산문학』 창간지 편집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970년 4월에는 『울산문학』 제2집에 시 수록하는 동시에 '처용촌' 동인회 결성하여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나섰다. 1978~81년까지 문협 울산지부장을 역임하였고, 1992년 1월 10일에 첫시집 『내일은 비가 와도』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8월에 교육생활을 마감하는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문집으로 첫수필집 『아△ㅏㄴ、ㄹ 엇디ㅎ、릿고』 발간하였다.

이러한 교육과 문학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차일환(車一煥, 1937~1987)

미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출생. 본관은 연안.

울산고등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울산중·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였다. 목우회 공모전에 입선(제13회, 1976년 4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국전(國展) 제28회·29회(1979·1980년, 국립현대미술관) 입선, 제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경남도전 특선 2회, 입선 7회, 개인전 4회(1회 1981년 12월, 2회 1984년 11월, 3회 1985년 1월 이탈리아 밀라노, 4회 1987년 5월), 1985년 유럽 8개국 미술계 시찰 및 스케치여행(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서라벌예대 중앙대 동문전(1980년 5월, 진주 동명화랑), 부산 및 대구지역 서라벌예술대 동문전(1981년 11월, 부산 로타리화랑), 일본초류(超流)미술협회전 초대출품(1986년 7월, 일본동경부미술관) 등을 했다.

이외에도 국제민간외교협회(P.T.P) 특별기획전, 영남연립예전, 재울 국전작가초대전, 국내미술협회전, 한국미술협회 울산지부전에 수회 출품하였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며 미협 울산지부장(1978~1980)과 한국예총울산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였다.(1978~1984,1987)

1987년 7월 27일 울산고등학교 재직시 중구 학산동 5-24번지 자택에서 향년 51세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우금자 여사와 슬하에 4녀가 있다. 1987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공간미술관에서 예총울산지부(미협) 및 울산고교 주관으로 유작전을 가졌다.

1991년 7월 27일 그의 4주기를 맞아 미술협회 울산지부에서 향리인 온양면 고산리에 안장된 그의 묘소에 화비(畵碑)를 세웠다.

【참고문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천재동(千在東, 1915~2007)

작사가, 향토사 연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322 출생. 호는 증곡(曾谷)

남목보통학교 졸업한 후 청년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 일본 동경 가와바다화학교 소묘과를 수료하고 조선 총복두 주최하고 극단 현대극장 주관하는 국민극연구소를 수료하였고 가와바다화학교 특설 인체과를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바로 교직생활을 시작해 25년간 교육현장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였고 다른 학교들까지 순례하면서 민속 및 길놀이를 지도하였다. 교직생활을 그만둔 후에는 전통 민속 예술문화 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전통민속 문화 발굴·연구·조사·채록·재연·정립하면서 연극은 물론 한국에서 최초로 창작탈·민요풍속화·토우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저서로는 전래동요화집『달노래 별노래 새노래』, 희곡집 『쇠똥골 장승』, 『범내골 옛이야기』, 『우리농부』 등이 있다. 1971년 부산, 경남 향토문화상 수상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기능을 보유하였고 1985년 부산시문화상 수상, 2002년 제1회 부산예술상 미술부문을 수상했다.

【참고문헌】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2007

최성곤(崔聖坤, 1922~1951)

축구선수.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출생.

'그라운드 표범', '아시아의 준족'이라고 불리던 최성곤 선수는 울산 북정동에서 태어나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보성고보(후에 보성중학으로 개칭)에 진학하여 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당시 보성고보는 축구명문 학교로 최성곤이 재학 시기에 우승기록이 특히 많았다고 한다. 1940년에는 제22회 전 일본 중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 1931년 3월에 제32회 보성고보를 졸업한 후,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1945년 해방 후 최성곤은 조선전업 소속 축구 선수로 활약했고, 상해, 홍콩, 사이공, 마카오 등 해외원정 경기에 참가했으며, 울산에선 그를 위한 응원가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였다. "장백산의 성난 범도 겁나지 않고,/ 동해바다 뛰는 용도 무섭지 않다./ 대동반도의 역장사/ 우리 울산 축구 선수, 너 몰랐더냐".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은 정부수립 전에 태극기를 달고 최초로 참가한 올림픽이었다. 이때 한국축구는 올림픽 축구 8강 진출을 이루는 신기원을 수립했다. 당시 축구 대표 팀의 평균연령은 30세를 넘었고, 대표 팀 선발에 따른 불평불만으로 서울을 출발할 때까지 합동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체육회는 감독 없이 가라고 지시해, 16명의 선수만 런던으로 출발했고, 런던에서 감독은 이영민이 맡았다. 1948년 8월 2일 멕시코와의 첫 경기에서 한국은 경기 시작 13분 만에 최성곤이 첫 골을 넣었다. 최성곤은 올림픽 축구팀 첫 골의 주인공이 되었고 5대 3으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8강에 진출한 한국은 8월 5일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빗속의 혈투를 벌였지만, 부상 선수가 많아 0대 12라는 치욕을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그 후 최성곤은 부산 광복동에서 운동구점을 경영하면서, 부산상고 축구팀 코치를 맡았다. 1950년 1월 대한축구협회 경남지부 이사로 재직했으며, 전쟁 통인 1951년 12월 31일 고향집에 들른 최성곤은 아버지의 전답을 팔고 그 돈을 현금뭉치를 들고 방어진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 중 실종됐다. 강도를 만났다는 설과 공비에 의해 살해됐다는 설이 있다. 29세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런던올림픽이 끝난 두 천석꾼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문전옥답 몇 마지기와 개인 소유의 저수지를 메워 공설운동을 만들어 지역에 기부했다. 그 후 울산의 축구영웅을 기리는 추모대회가 3~4년 동안 그 운동장에서 열리기도 했다.
현재 중구 복산동 송골에 영모비가 위치해 있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울산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공설운동장 조성' 앞장」, 2011.7.20.

『울산매일』, 「최성곤」, 2012.7.29.

울산박물관 전시자료 '축구선수 최성곤'

최희(崔熙, 1920~2009)

미술가. 일본에서 출생. 본명 최충희.

서울대와 일본에서 미술을 정식으로 공부하였다. 1957년 울산제일중학교에 미술교사로 부

임하면서 울산으로 왔다. 울산제일중학교에서 1년간(1957.3.~0958.3.) 학생을 지도하면서 울산고와 울산농고 쪽에도 시간강사로 나갔다. 최희는 교사생활 외에 '최희화숙(崔熙畵塾)'을 열러 학생들을 지도했다. 국민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최희화숙에서 그림을 배울 수가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미술학원이었지만 최희는 전혀 수강료를 받지 않았다. 최희는 아동화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산의 김종식, 조목하 등과 함께 '한국아동화연구회'를 만들어 울산에 아동화 보급에 나섰다. 당시 그들은 일본인 아사리아츠시가 발표한 '그림분석을 통한 아동심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아동화연구회'도 그 충격의 결과로 해서 탄생이 된 것이다.

'최희화숙'의 학생들이 전시회를 연 것은 1959년 6월 30일이다. 마분지 그림에 액자도 하지않은 채 화실 안 벽에 걸어놓은 그림이었지만 학생전시회로는 최초의 것이다. 1960년 중구 옥교동 회상다방에서 제1회 최희개인전(4월 25일~5월 7일)이 열렸다. 천재동의 전시회 이후 울산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시회였다. 최희는 이 전시회에서 25점의 유화작품을 선보였는데 한 점도 남김없이 판매가 되었다.

【참고문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황병곤(黃秉坤, ?~?)

정구선수. 울산광역시 출생.

황병곤은 심상소학교의 좋은 정구코트에서는 일본인이 사용하여 연습하지 못하고, 매축지 코트에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하여 전 일본 연식정구대회에서 우승을 한 국가대표선수이다. 패전이 얼마 남지 않은 1944년 10월 어느 날 일본의 패전과 조선독립을 희망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화장실에서 천황사진이 실린 신문지로 뒤를 닦은 일로 방어진 경찰주재소로 연행되어 옥살이를 하였다. 1915년생 '연령징용'이 시행되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

는데, 천황을 모독한 황병곤은 감옥살이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중앙일보』, 「보성우승, 조선 중등 정구」, 1936.06.23

천재동의 예술세계(12.일본이 패전을 앞두고, http://blog.daum.net/ch1000/1393380)

6. 언론계

김기오(金琪午, 1900~195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출생. 호는 우석(愚石)

1900년 11월 8일 언양에서 태어나 김기오는 일제강점기 엄혹했던 시절 독립운동가로, 언론인으로, 청년운동가로, 민족주의자로 그리고 출판인으로 이 나라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김기오는 1946년 문화당(文化堂) 사장, 1948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장, 1954년 대한인쇄기술학원 원장, 1954년 11월 30일 현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장, 대한인쇄고등기술학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언론인으로 그의 활동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1926년 울산기자단 창립이다. 김기오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당시 울산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울산청년연맹과 울산군청년연맹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이들 두 단체는 1920년대 말 신간회가 만들어지면서 뭉치게 되는 그동안 김기오와 박병호, 강철 등 울산기자단 간부들이 이들 두 단체를 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기자단이 구성될 무렵 김기오는 언양을 중심으로 청년활동과 순회강연을 하면서 주민 계몽운동에 나섰다. 그는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때 우리나라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스카우트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어 1926년에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양산으로 옮기게 된다. 양산에서 양산인쇄소를 설립 한 후 일제에 저항하는 인쇄물을 그는 양산에서 양산인쇄소를 설립 한 후 일제에 저항하는 인쇄물을 찍게 되는데, 이 때문에 다시 왜경의 탄압을 받아 야밤에 서울로 몸을 피하게 된다. 그는 서울에 머물면서 왜경의 눈을 피하다가 결국 1년 뒤 왜경에 체포되어 동대문 경찰서로 붙잡혀 가 혹독한 고문을 당해 이때부터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출옥 후 출판업을 다시 시작해 해방 후에는 수익이 없다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교과서 출판에 앞장선다. 출판업이 어려워지자 신탁은행에 있었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 언양 출신의 오위영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된다. 이후 대한교과서주식회사를 창립해 본격적인 교과서 출판에 나서는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하였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1968년 국내 최초로 가로짜기체 활자(대교체)를 개발하여 교과용도서 등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고, 그 동안 꾸준히 시설증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전산조판체재·고속다색도 인쇄시설·전자동제본체재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인쇄출판문화의 선도적 구실을 해왔다. 광복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로 실업계 전문교과서와 중·고등학교의 『국어』 등을 발행, 공급하여 왔다. 이 회사에서 최초로 발행된 교과서는 『뽕나무 가꾸기』·『누에치기』 등의 중등교과서 6종, 『우리나라의 발

달』·『초등 그림책』 등 초등교과서 11종이다. 이후 6·25전쟁 중에는 회사를 부산으로 이전, 거기서 전시교재 4종 12책을 생산, 납본하는 등 전시 중에도 교육 사업에 기여하였다. 1959년 6월에는 도서출판 어문각을 자매회사로 설립하고 1964년 6월에 『신영한 대사전』을 1975년 9월 『신한국문학전집』 전51권을 완간하는 등 사업을 재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문학사의 금자탑을 세운 『현대문학』은 1955년 1월1일 발행했는데 김기오가 편집자 겸 발행인으로 되어 있고 조연현씨가 주간, 오영수씨가 편집을 맡았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국도 7호선 시대」 2013.3.25,

『경상일보』, 「인물로 읽는 울산유사~언양출신 독립운동가·언론인·출판인으로 큰 발자취 남겨」, 2013.12.22

『대한민국건국십년지』

『대한연감』 4288년 판

『한국인쇄대감』, 한국인쇄대감편찬위원회, 1969

『대한출판문화협회이십오년사』, 대한출판문화협회, 1972

『대한교과서사 1948~199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김문성(金文星, ?~?)

언론인. 울산광역시 출생.

김문성은 1925년 5월 동아일보 울산지국의 총무기자였다가 같은 해 8월 조선일보의 지국장이 되었다. 울산성우회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고, 1927년 울산수리조합반대성명을 작성할 때 상무위원으로 참여했다. 1928년 울산유아단 기성위원회에서 서무위원을 맡기도 했다. 1929년 울산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노동문제와 천도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사보」, 1925.05.01

『동아일보』, 「울산성우회총회」, 1925.05.25.
『동아일보』, 「울산수조반대성명」, 1927.12.16.
『동아일보』, 「울산유치원 기성위원회」, 1928.11.03.
『동아일보』, 「노동문제연설회」, 1929.11.24
『조선일보』, 「사보」, 1925.08.09.

신근수(辛根秀, ?~?)

언론인. 울산광역시 출생.

일제하 언양청년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작천정 경내 청사대를 축조하여 언양을 중심으로 청년 항일정신을 양양시켰다. 해방 후에는 국제신문 언양주재 기자 및 지국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안성수(安星洙, 191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출생. 아호는 동암(東巖).

동아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1947년 군정청 인사처 보임과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무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53년 경상남도산업국장을 거쳐, 부산문화방송주식회사사장, 여수문화방송대표이사회장,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사장, 부산축구협회회장, 경남야구협회회장, 경남농구협회회장, 향토문화사업협회이사장, 국제로타리클럽 376지구 초대총제 등을 역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업적을 남겼다.

【참고문헌】

『대한민국건국십년지』
『대한연감 4288년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임용길(任龍吉, 1898~1979)

평안북도 영변 출생.

1918년 3월 평양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했다. 같은 달 31일에 부산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임용되었다. 훈도로 재직 중이던 1920년 9월 18일에 "친일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민족부활단결사대'명의의 경고문을 부산경찰서를 비롯한 부산지역 관공리 유력자에게 발송했다. 이 일로 1921년 2월에 검거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금고 3년형을 언도받았다. 대구감옥과 마산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23년 4월 가출옥했다. 이후 청년운동에 투신하여 1924년 5월 부산청년회 사회부 간사를 맡았다. 1925년 2월 부산청년회의 '보천교박멸사건' 주모자로 체포되었다. 소요죄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다가 1926년 7월에 가출옥했다. 1927년 12월 부산청년동맹창립을 주도했고, 1929년에는 집행위원을 맡았다. 1929년 2월 신간회 부산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어 1930년 12월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사회운동에 열심히던 1920년대에 형제들과 함께 양복부 자동차부 등을 거느린 학옥양행을 경영했다. 신간회 해소 이후 1931년 5월부터 1934년 3월까지 『동아일보』 울산지국장을 지냈다. 이후 일본 나고야로 건너가 『동아일보』 와 『조선신문』 나고야지국에 관계했다. 1935년 1월부터 1943년 10월 폐간할 때까지 나고야에서 『동아신문』 을 발간하고 사장을 지냈다. 임용길은 "협화는 우리들의 염원이고, 시국하 내선일체는 내선협화에 의해 성취된다고 생각"했다. 1942년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에 아이치현 제 1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43년 7월 '황군' 위문현지보고서인 『대륙의 적성』 을 동아신문사에서 출간했다. 해방 후, 귀국해 1948년 12월 『동아시보』 를 창간하고 동아시보사 사장을 지냈다. 1952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속간된 『동아신문』 의 운영에 관여했다. 1979년 7월 10일 사망했다. 1920년의 「민족부활단결사대 경고문」 발송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대통령 표창이 1990년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독립신문』 1921.2.25.
『동아신문』 1939.12.23.,1940.2.17,1941.1.19,10.2,10.5
『동아일보』 1926.7.16, 7.19, 1929.2.15, 1930.1.10, 12.18, 1931.5.21., 1934.3.29
『매일신보』 1942.4.5
『시대일보』 1924.5.14
『중외일보』 1929.10.29
『조선일보』 1923.5.6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조선총독부관보』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
『대한민국인사록』, 1949.12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3권, 1987
『독립유공자공훈록제7권 : 국내독립운동』, 1990
『戰前期の在日朝鮮人と參政權』 1995
『戰』 時下在日朝鮮人新聞資料 東亞新聞』 제3권(1997)
『지역과 역사』, 「신간회 부산지회와 지역사회운동」, 강재순, 1996

정택락(鄭宅洛, 1923~?)

온산 출신. 호는 원당(圓堂).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금융조합 상무, 울주군 농업협동조합 상무, 대한통운주식회사 부사장, 경상남도 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울산축구협회장, 울산노인학교 운영위원회 이사장, 울산불교신도회장, 울산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을 역임하였다.

이후락의 개인 비서로 일했고, 울산의 문단을 이끌었던 이상숙 선생의 명다방(문화공간)의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참고문헌】

『파이낸셜뉴스』, 「[부음] 정택락(전 울산문화방송 사장)씨 별세 외」, 2003.03.20
『경상일보』, 「10·26사태 이후 70년대말 도평요에 머물며 직접 도자기 구워」,

2013.11.24

『경상일보』, 2014,01,12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원, 1978

7. 사회운동, 지역유지

강우운(姜友雲, 1879~1966)

종교인(불교도). 본관은 진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출생. 본명은 재민(在玟). 당호는 우운당(友雲堂). 아호는 향산(香山). 임란의사 통덕랑(通德郞) 백은(白恩) 강이인(姜里仁)의 후손 만황(萬璜)의 차남이다.

일찍 양친을 여의고 가세가 기울자 1895년 석남사에 입산위승(入山爲僧)하고 은해사, 표충사 등지에서 10여 년간 수도후 1911년 석남사 주지로 취임하고 이듬해 심인(心印)스님과 함께 석남사를 중수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석남사 주지를 거치고 1921년 통도사 감사(監事)로 취임 겸직한 후 1928년 3월 환속(還俗)하였다. 같은 해 4월 상남면과 하북면이 상북면으로 통합될 때 산전리에 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석남사 사찰림을 벌목하여 몸소 설계 감독하였다.

1931년 5월 면협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1936년 9월 향산회관을 신축하여 몸소 거쳐하면서 야간학교를 설립, 교사 2명을 두고 문맹자(文盲者) 40여명을 개명시켰다. 일제의 불교탄압으로 면내 각 사찰의 유지가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지자 심적암 . 연등암 . 내원암 . 백운암 . 동인암 등 5개 암자를 석남사로 통합하고 부대시설 일부를 증축하여 쇠락한 사세(寺勢)를 회생시켰다. 묘갈명(2001)은 족질(族姪) 영만(永萬)이 지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진편찬위원회, 2002

강인수(姜麟秀, 1936~1999)

수의사. 사회운동가. 본관은 진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출생.

경북대학교 정치학과(1965)와 수의학과(1968)를 졸업하고 수의사로 삼남면 교동리에서 경남가축병원을 경영했다. 1970년 김정봉 . 정원태 . 배상섭 . 이성근 . 최희정 등과 언양재건중학교(야간)를 설립하여 가난한 청소년들을 교육하였고 1980년 상북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1985년 한국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 부회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울산지부 중앙위원을 역임하는 등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1987년 언양신용협동조합장, 1990년

경남수의사회 회장, 1991년『 신앙전래이백년사(언양천주교회사)』 편찬에 참여했다. 1995년 언양권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8년 6월 제 4대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저서에『 (오늘의 농촌) 왜 못사는가?』(1987)가 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곽해진(郭海鎭, 1888~193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출생.

3·1운동을 사전에 주도한 사람으로, 언양의 유지이자 선각자였으며, 천도교 울산교구 3대교구장, 제2대삼남면장(1933.12~1934.10) 등을 역임하였다.

김효동과 중남사립보통학교(현 중남초등학교)설립하였고, 1926년 작천정환매입 등 작천정 일원 벚꽃길를 개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호적부의 등본정리에 공이 많고, 조선일보 언양지국장도 맡아 보았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부산일보』, 1939.6.3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울주삼남지』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김교경(金敎慶, 18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출생

천도교 울산교구장, 서당훈장, 만세운동 전개 지시, 양정학원 건립. 김교경은 천도교에서 발간한 국민회보 기사 중 일부를 필사해서 언양으로 보냈다. <국민회보>의 내용을 보면, 고종의 독살 사건과 그 원인에 대해 서술하면서 국내의 이천만 동포가 모두 독립을 위해 궐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양정학원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였다. 1919년 천도교 울산교구(상북면 거리에 설치) 제2대 교구장이던 김교경은 최해선, 이규장, 이규로, 이규천 등의 교도에게 독립선언문과 조선독립신문(천도교계 비밀신문)을 서울에서 구해 보냈는데 이들은 즉각 이무종, 이규인, 김향수 등 유림들과 비밀제휴 하였다.

1913년 5월에 중앙총부로부터 언양군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천도교회월보』 제19호 66쪽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

『병영초등학교 일백년사』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김좌성(金佐性, ?~?)

울산광역시 출생.

일제 강점기 울산을 대표하는 부자였다. 매관매직이 한창이었던 조선 조 말 경성에서 울산으로 오는 부사를 따라 속관으로 왔다. 오덕상과 함께 일제 강점기 울산을 대표했던 부자 김좌성은 일제 강점기 울산농고를 건립할 때 거금을 희사했던 인물이다. 도평의원(道評議員)을 지내기도 했다. 울산금융조합장, 조선소작인상조회 울산지회부회장, 울산성지보존회 부회장, 울산민우회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매일신보』『경상일보』『조선일보』

『울산유사』, 김석보, 1978

김찬희(金燦熙, ?~?)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상북면 등억리 출생. 자는 현익(賢益). 호는 청간(淸澗).

중추원의관과 언양향교 직원(直員)을 지냈다. 자신이 소유한 부를 활용해서 향내 극빈자의 호세(戶稅)를 여러 차례 대납하였고, 춘추로 휼빈소를 설치하고 가난한 향민을 도와주는 등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 지역민들의 신망도 높아서 1930년 6월 향인들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고향 마을 입구에 시은송덕비(施恩頌德碑)가 있다.

【참고문헌】

『울산학 연구』, 「농지개혁 전 울주군 상북면의 토지소유와 소유권 변동」

『울산·울주향토지』, 울산·울주향토사 편찬위원회, 1978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천해(金天海, 1898~?)

일본지역 조선인노동운동의 대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출생.

1921년 동경(東京)에 가서 니혼대학(日本大學) 전문부 사회과에 입학 후 중퇴하였다. 1922년 여름 동경조선노동동맹회 결성에 참가하여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1월 동경에서 창립된 사상단체 일월회(一月會) 회원이 되었다. 같은 해 7월요코하마시에서 카나가와현(神奈川縣)조선합동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상무집행위원이 되었고, 1927년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6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 1928년 5월 중앙집행위원장 겸 쟁의부장이 되었다. 같은 달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일본총국 나부야체이카에 배속되었다. 감옥에서도 옥내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3·1운동기념투쟁, 메이데이투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감방신문』을 발행하였다. 특히, 일국일당주의에 따라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이 일본공산당 내로 해소할 때 옥내에서 주도했다. 1935년 12월 재일조선인노동자들의 계몽과 일본 인민전선을 실현하기 위해 동경에서 발간된 『조선신문』의 창립을 원조하였고, 지국 설립에 노력하였다. 1937년일본인민전선 탄압과 관련하여 검거, 투옥되어 징

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2년 9월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경예방구금소(東京豫防拘禁所)에 구금되었고, 이때 일본공산당 옥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10월 출옥하자 비전향 일본공산주의자 6인과 함께 일본공산당 확대강화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이 되었고, 12월일본공산당 중앙위원, 조선인부장으로 선출되었다. 1949년 9월일본공산당에서 추방되어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산으로 갔다. 이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교육부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앙선거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연감1947~1948』

『신천지』 1~6,「일본공산당의 조선사람 지도자 김천해」, 이청원, 1947

『북한인물록』, 국회도서관, 1979

『재일조선인사연구(在日朝鮮人史研究)』 18,「金天海について」, 樋口雄一, 1988.10.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강만길·성대경, 창작과비평사, 1996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 Ⅱ,「1920년대 재일조선인운동과 김천해」, 김인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나남출판, 199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김활천(金活天, 1898~?)

지역유지, 읍의원, 청년운동가, 조선신문기자.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출생.

서울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 중고교) 졸업

울산에 신간회가 조직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준비위원으로 활동해 1928년 3월 창립대회때 간사로 선임되었다. 울산에 산재해 있던 청년단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노력했다. 울산노조를 만들어 조합장으로 활동 하였다. 울산농고의 갑종농업학교 승격에도 참여했다. 갑종농업학교 승격 기성회 간사가 되었다. 1934년 읍의원이 되었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 울산유사』, 김석보, 1978

김효동(金孝東,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출생.

중남면장(1920년대 초~1925.8.2.), 금융조합장, 중남사립보통학교 설립에 참여하였다. 언양향교 재정적립에 공헌, 중남수리조합을 일본인 高橋와 함께 창설하였으며, 그의 문집인 화강유고집이 있다.

【참고문헌】

『울주삼남지』

『울산안내』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박광수(朴光秀, ?~1914)

천주교인. 상민(常民)으로 힘이 매우 좋아 일명 '박장군'이라 불렀다. 병인박해(1868) 때 천주교인 승지(承旨) 남종삼(南鍾三)이 순교한 후 귀양온 일가족 중 그의 장녀 남데레사와 혼인하여 간월공소에 살면서 언양지역의 신앙공동체가 있던 탑곡(두서면 내와리), 상선필(두서면 인보리) 등지의 신자들을 보호하였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박병호(朴秉鎬, 1888~1937)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일제시기 울산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울산사학회 창립. 당시 동아일보 울산지국 기자로

농촌순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유지들과 함께 직접 농가를 돌면서 어려운 농민들의 실상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이무렵 일제의 침략 흉계를 폭로·고발하는 『혈가사』라는 탐정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책이 왜경에 의해 압수되기도 했다. 『사고(社告)』 동아일보 울산지국 개국하여 지국장, 민우회 총무. 울산청년회회장으로 민중을 계몽시키기위해 1921년 8월과 1922년 11월에 울산 각면을 돌아다니며 강연, 조선일보 울산지국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 말 울산의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인으로도 활동했다.
울산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울산군청에서 서기로 일했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 최초로 대서소를 차렸고 울산청년회관을 건립에 참여했다.

【참고문헌】

『경상일보』『동아일보』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울산사학 』11집,「일제하 울산지방의 중등교육」, 지호원, 2004

박영철(朴永哲, 1926~2007)

동강의료재단 설립자. 호는 동강(東岡)
박영철은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22번지에서 태어나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경복고등학교의 전신인 공립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70년에 울산 옥교동 160번지에 울산연합병원을 개원하였는데 이는 당시 전문진료과목을 배치한 울산 최초의 준종합병원이었다. 1976년에는 울산고려병원으로 개명하였고 전국 10번째로 보건사회부에 등록되었다. 1981년 6월 13일 세칭 반탕골 입구(현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을 설립하여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동강병원은 공업도시와는 달리 극도로 낙후된 울산지역의 제반 의료 여건을 해결하고, 진료·교육·연구 중심의 병원으로 의료인재 양성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울산광역시 제12대 의사회장·대한병원협회 경남지부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1987년에는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동강 박영철의 살아온 이야기 – 철아 철아 우리 철아』, 동강병원, 2011

배기철(裵基澈, 1913~월북)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출생.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하고 보광중학교 교사, 두서면우체국장, 양산보광중학교 교사, 농림부 농림과장, 농정국장을 지냈고 조봉암 농림부 장관 아래서 농지개혁의 실무자로 농촌개혁에 앞장서는 등 선각자의 길을 걸었다. 천선군 배부자로 알려진 배인찬의 장남으로 대지주의 지위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빈곤한 소작농의 편에 섬, 1949년 6월 제헌국회의 동의를 얻어 분배농지상환제도를 시행, 고향에 있는 자가의 농지를 법에따라 분배토록 함으로써 봉건사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소유관계를 세웠다.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울산유사』, 김석보, 1978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서진문(徐鎭文, 1901~1928)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 경남 울산 동면 일산리 209번지 출생.

병영공립보통학교 입학했다가 동면공립보통학교로 전입하여 졸업하였다. 외사촌 성세빈이 설립한 일산사립보성학교에서 교편 잡았다.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동경대지진 때 일본의 만행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며,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심사위원과 집행위원 그리고 1928년에 재일조선노동총동맹 제4회 대회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노동자들을 총괄하는 지휘부라 할 수 있는 신중앙위원으로 선임 및 노동운동과 여성교육에 앞장섰다. 항일운동가로서 1928년 일본 천황의 암살을 위해 활동하던 중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아 일생을 마감하였는데 일본조선노동조합장으로

장사지냈다. '제 2의 윤봉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1920~37년대 울산 동면 지역의 사회운동』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2007

『일제~1960년대 울산의 교육』, 김호연·이지은, 울산학연구센터,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성세룡(成世龍, 1903~1958)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출생.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복고)졸업하고 보성학교교사, 동아일보 기자, 동면지역신간회운동주요간부, 동면지역 읍면협의원, 사회운동가로 활약하였다. 울산 신간회 소속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고장의 사학의 유지와 후진의 교육에 가장 혁혁한 공적을 남김. 신간회 울산지회 창립을 주도, 문자보급과 농촌계몽, 금부, 금연운동을 하였고 1926년부터 울산지역 보통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일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면직되고 이후 울산청년동맹 조사부장, 동아일보 기자 등을 역임하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펼쳤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경상일보』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2007

『일제~1960년대 울산의 교육』, 김호연·이지은, 울산학연구센터,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야기 동구 100년』, 울산광역시 동구, 2011

성세빈(成世斌, 1893~1938)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출생.

동아일보 동면 분국장, 울산청년 동맹 집행위원, 사회단체 정우회 울산지역 간부를 역임하였다. 울산 사립보성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이 되었다.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고, 사랑방교실을 개설하여 문맹퇴치와 농촌계몽운동에 전념하였다. 1926년에는 울산군내 사상단체인 자오회(子午會) 집행위원이 되었다. 이후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개인재산을 털어서 항일교육을 실시하는 사립보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울산 동아일보기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울산동면청년회 회장을 역임하고 울산 신간회 소속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고장의 사학의 유지와 후진의 교육에 가장 혁혁한 공적을 남겼다.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정우회와 신간회에 몸담아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전국규모의 항일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울산지회를 중심으로 문자보급운동, 미신타파, 농촌계몽운동, 금주·금연운동을 추진했다. 1931년 신간회가 일본의 압력으로 해체된 후 그는 주로 경제 분야 활동을 하면서 방어진 소비조합 전무이사, 방어진양조회사 감사와 전무이사를 지냈고 어장과 정유소 등을 운영했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경상일보 』
『울산유사』, 김석보, 1978
『1920~30년대 울산 동면 지역의 사회운동』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일제~1960년대 울산의 교육』, 김호연·이지은, 울산학연구센터, 2007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야기 동구 100년』, 울산광역시 동구, 2011

성진탁(成震鐸, 1781~1839)

천주교인. 본관은 창녕(昌寧).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정절공(貞節公) 고려 직제학 성사제(成思齊)의 증손 군수 자부의 11세손이다. 계인(啓仁)의 아들로 백부 수인(守仁)에게 입양되었다. 순교자 처인(處仁)의 7촌 조카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해교난(1839) 때 관헌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성철규(成喆奎,)

천주교인. 본관은 창녕.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철리 출생.

순교자 성진탁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함께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헌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성충갑(成忠甲, 1895~1957)

지사. 본관은 창녕,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출생. 보명은 낙중(洛中). 자는 달중(達中). 호는 운헌(芸軒). 관영(瓘永)의 장자이다.

집안의 재산이 넉넉하여 향내거부로 일컬어졌는데, 여러 향사(鄕士)들과 함께 1922년 3.1 만세운동 이후 폐쇄당한 거리의 천도교 울산교구실을 증축하여 양정학원을 개교하여 이 지방 청소년들에게 민족교육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손후익(孫厚翼, 1888~1953)

본관은 월성(月城). 경상북도 경주시 금호리(琴湖里) 출생. 호는 문암(文巖). 아버지는 진수(晉洙). 어머니는 여강이씨(驪江李氏) 종상(鍾祥)의 딸이다.

5세에 할아버지 최수(最秀)에게 처음으로 수학하였다. 이병호(李炳鎬)에게 『효경(孝經)』을 배웠으며 이만규(李晩煃)에게 『시경』을 배웠다. 1914년에 다시 장석영(張錫英)의 문인이 되어 운도재(雲陶齋)에서 수업하였다. 이 밖에 이중업(李中業)·곽종석(郭鍾錫) 등 우국지사를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 1917년 둘째 아버지 진형(晉衡)이 독립운동을 한 죄로 체포되어 공주(公州)에 수감되자 그 뒷바라지를 했지만 다시 울릉도로 이송되었다. 1919년 이중업·곽종석·장석영 등이 김창숙(金昌淑)을 유림 대표로 선발해 프랑스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시키는 한편 둘째 아버자 손진형(孫晉衡)을 국민 대표로 선정해 중국 상해로 보냈는데, 이 때 벽진(碧珍)까지 따라가서 전송하다가 왜경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끝내 실토하지 않았다. 1920년 유교진흥회(儒敎振興會)로부터 모종의 제의를 받자, 일제에 협조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즉각 거절했다. 1922년 가을에 김창숙이 상해로부터 국내에 잠입,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구할 때 그를 도와 자금을 수집했으며, 1926년엔 그의 아버지 진수(晉洙)와 함께 대구경찰서에 체포되어 3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본래 문재(文才)가 뛰어날 뿐 아니라 장석영에게는 주로 경학(經學)과 예학(禮學)을, 곽종석에게는 문장 작법의 요령을 배워 문장의 대가가 되었다. 이진상·장지연 등의 문집 간행에 참여했다.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어 심(心)이란, 이기(理氣)를 겸하고 성정(性情)을 통칭하는 것(李滉), 성정의 총칭(李震相), 이기를 합한 것(郭鍾錫), 심은 이는 아니지만 그것을 주재하는 것은 이다(張錫英) 등의 주리철학을 심학의 정통으로 수용했다. 『문암문집(文巖文集)』 22권에 전한다. 심산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영남 지역 군자금 모금에 앞장섰다.

【참고문헌】

『문암문집』

『범서읍지』,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신학업(申學業, 19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이명 주극(周極).

1917년 7월 대판로 가서 송도철공소 직공이 되었다. 1917년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하고 1918년 일본 내지로 도항하여 경응대학(慶應大學) 상과 야학부에 입학하였으나 독립 선전 때문에 퇴학당했다. 1919년 10월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원과 왕복하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1922년 동경정칙영어대학(東京正則英語學校)에 입학했다가 1923년 7월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 후 1925년까지 경성 원남동 214 김철수댁에서 점원을 하고 있었다.

언양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공산주의 성향이 강하였다.

【참고문헌】

『왜정시대인물사료』

양봉근(楊奉根, 1867~?)

부산광역시 기장군(당시 울산군) 출생.

1919년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 3.1운동이 일어나자 구포에 내려와 구포시장 의거를 촉발시켰다. 울산으로 근거지를 옮겨 성남동에서 울산의원을 경영하면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신간회 울산지회 제1회 정기대회 회장 역임하였다. 한편, 해영학원 이사직을 맡아 보았으며 1930년에 서울로 갔다.

【참고문헌】

『시대일보』,「의원출장소 신설」, 1924.10.07.

『조선일보』, 「신간 울산지회 1회 정기대회」, 1928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울산사학 』11집, 「일제하 울산지방의 중등교육」, 지호원, 2004

오원근(吳洹根, ?~?)

사회운동가, 교사, 약사.

언양초등학교, 동래고보를 거쳐 1944경성약학전문학교(서울약대 전신)를 졸업했다, 울산농고 화학 교사로 지내다, 1950년 전후에 울산약국을 개업하였으며 정식 약사자격증을 가진 최초의 약사였다. 지역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울산시 약사회 1대~3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유철순(兪哲淳, 189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출생.

1919년 기미만세 운동에 참여하였고, 1926년 작괘천 일대 임야 및 작천정 유원지를 언양 오모씨로부터 환치하는데 공을 남겼다. 1944 작천정 정각 중수에 헌신하였고, 삼남면 농민조합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낙동강하류동포가 홍수로 집과 재물을 모두 상실하자 구제금품을 기부(1933)하는 등 여러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3.07.25

『울주삼남지』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관술(李觀述, 1902~1950)

울산광역시 출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관술은 이순금(李順今)의 배다른 오빠이다. 일본의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를 졸업하고, 1929년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하였다. 이 학교에 재직하면서 1931년에는 학생자치 및 교내경찰출입반대 등을 내건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지도하였다. 다음해인 1932년 이순근(李舜根)·김도엽(金度燁) 및 누이동생인 이순금(李順今) 등과 일본학생을 포함하여 조일반제공동투쟁동맹(朝日反帝共同鬪爭同盟)을 조직하였다. 그 후 일제의 만주출병을 반대하다 붙잡혀, 4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다가 1934년 4월 병으로 보석되었다. 그 해 8월 다시 각 학교를 중심으로 반제동맹을 결성하려다가 다시 붙잡혀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1935년 5월이재유(李載裕)와 함께 서울 창동에 은거하면서 반제동맹재건을 도모하며 『적기(赤旗)』 라는 잡지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함께 활동하던 이재유가 검거되자 강원도·경상도 등지를 전전하다가 1937년 상경하여 영등포에서 노동자조직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39년 김삼룡(金三龍)을 충주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순금·장순명(張順明)·권오직(權五稷)·이현상(李鉉相) 등과 함께 경성콤그룹을 조직하고 기관지 출판부의 책임을 맡았다.광복 이후 박헌영(朴憲永)의 재건파 공산당에 합류하여 활동하다가 1945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설립된 되었다. 또한, 조선공산당 총무부장 겸 재정부장으로 활동하면서 1946년 2월 좌익단체의 총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 상임위원을 역임하였다.1946년 5월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주범으로 일시 피신하였으나, 7월 검거되어 무기형을 언도받아 복역 중 1948년 8월 북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었으나 6·25전쟁 당시 처형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연감』(1947~1948)

『한국공산주의운동사』5 , 김준엽·김창순, 1976

『울산유사』 ,김석보, 1978

『남로당연구』, 김남식, 1984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규경(李圭庚, 1902~1933)

독립의사. 천도교인.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선무원종공신 첨지중추부사 이섬(李暹)의 후예. 조영의 아들이며 독립의사 규인의 아우이다.

1919년 기미 3.1만세운동 언양의거에 참여한 수형자(受刑者) 중 최연소자(18세)로 이무종 . 이규인 . 이성영 . 최해선 . 강경찬 등과 거사를 결의하고 추진하던 중 왜경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4월 10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정사 3.1운동』, 이춘걸, 1998
『언양읍지』, 언양읍지편찬위원회, 2001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삼동면지』, 삼동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지역의 3.1운동」, 장미정, 1999
『부대사학』 제28, 29합집,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김승, 2005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정계향, 2011

이규명(李圭明, ?~?)

부산광역시 기장군(당시 울산군) 출생.

이규명은 국민회의 회원의 한사람으로 울산 우익의 전체를 대표하였다. 국민회의는 일제강점기부터 울산의 유지 혹은 사회운동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일부는 친일이라고 지목받던 사람도 포함되었다. 한편 그는 신간회 설립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신간회울산회발기」, 1927.11.26.
『조선일보』, 1927.11.23
『동아일보』, 1927.11.26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김호연·박제균·양상현, 2007

이규인(李圭寅, 1890~1927)

독립의사. 천도교인.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자는 순여(舜汝). 호는 목와(牧窩). 선무원종공신 첨지중추부사 이섬의 후손이고 전 상남면장 조영의 아들이며 독립의사 규경의 형이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이규장(李圭章, 1892~1940)

3·1운동 주동자. 울산광역시 상북면 거리 출생.

이규장은 천도교인으로 언양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조선일보 언양지국 경영에 관여하였고, 시대청년회(1924), 사시회(1925), 울산사학회 간사(1925), 상하북 노동야학회연합회 의장(1925), 상북사립진명학원 설립자(1919)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다.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배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가서 체류 중이던 상북 교구장 김교경은 언양으로 서신을 보내어 거사 준비를 서두르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언양 천도교들이 소집되어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결의 결과 이규장을 곧 서울로 급파하고 김교경을 만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오게 하였다. 이규장은 국내외 정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세한 지시와 함께 거사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은밀히 지참하고 언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교구의 중진회의가 열려 거사 총 참획에는 이규장, 이무종 두사람을 선임하고, 조직책에 이규장, 태극기 제작과 선언문 등사책에 이무종으로 각각 분담을 하였다. 거사일을 4월 2일 언양 장날 장꾼들이 많이 모이는 11시로 결정했다. 거사의 총 지휘단은 이규장, 이규인, 최해선으로 구성되었다. 거사가 있은 후에도 이 고장 청년들은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동지들의 결속을 굳게하고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4사회'를 조직하고,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선일보 지국을 운영하였다.

이규장은 재봉기를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후 상북면에서 천도교 회관을 이용하여 양정학원(養正學院)을 설립하고 교사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참고문헌】
『언양읍지』, 언양읍지편찬위원회, 2001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삼동면지』, 삼동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 충의정신 편찬위원회, 2005
『울산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부대사학』 제28, 29합집,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김승, 2005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정계향, 2011

이규천(李圭千, 1876~1962)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자는 국원(國元). 호는 야경(野耕). 선무원종공신 첨지중추부사 이섬(李暹)의 후예이다.

이규천은 천도교인으로 3·1운동 언양독립만세사건의 지도자였다. 1919년 기미 3.1만세운동 언양의거 때 주동인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활약하였으나 요행히 피신하여 형고(刑苦)를 면하였다. 1922년 폐쇄된 천도교 울산교구실(상남면 거리)에 향사(鄕士) 이규로 . 김찬희 . 성충갑 . 김석한 . 김형한 . 김교경 등과 양정학원을 개교하여 이 지방 청년들에게 민족교육을 통하여 구국정신을 고취시켰다. 또한 1924년 언양 작천정이 당시 언양의 유력자인 오병선이 울산의 김홍조에게 불법 매각하여 김씨 개인 소유로 별장화하여 주위에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물의를 빚게 되자 최지형 . 곽해진 . 유철순 등과 더불어 그 소유자를 설득, 1926년에 환매일하여 공용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연원록(淵源錄)』
『울산유사』, 김석보, 1979
『언양읍지』, 언양읍지편찬위원회, 2001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삼동면지』, 삼동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지역의 3.1운동」, 장미정, 1999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정계향, 2011

이미동(李美東, 19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출생.
울산농민조합과 울산적색독서회 일원이었고 해방 후 울산 좌익의 수장 역할을 하였고 인민위원회 일원이었다.
울산적색농조사건으로 관계자 7명이 부산검사국에 송치되어 취조당하다가 1935년 9월 27일에 취조를 마치고 이미동, 박상선 등 5명은 기소예심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1.06.15
『동아일보』, 「울산적농사건 오명만 예심에」, 1935.09.29
『동아일보』, 「울산적색독서회 예심종결 공판에」, 1936.060.28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김호연·박제균·양상현,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재락(李在洛, 1886~19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1919년 광무황제의 인산(因山)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에 상경하였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한 후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와서 울산의 독립운동을 조직화하여 1919년 4월 8일 남창리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는데 주동적 활동을 하였다.
1925년 8월 김창숙(金昌淑)이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입국하여 내몽고지방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할 자금으로 20만원 모금을 목표로 활동할 때 이에 찬동하여 1차로 2백원을 1926년 1월경에 제공하고 2차로 8백원, 합계 1천원을 자진하여 군자금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20만원 군자금 모금계획이 목표에 미달하자 1926년 3월 17일 경상남도 범어사에서 손후익(孫厚翼)·정수기(鄭守基) 등과 함께 밀의를 거듭하여 제2차 계획으로서 소액응모한 부호들에게 거액 응모를 요구키로 결정하고 활동하다가 1926년 3월에 일경에 발각되어 피체되었다.

민립대학 설립 발기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미군정에서 이재락을 군정고문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1927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82년에는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최고삼년언도」, 1927.03.31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수형인명부』

『고등경찰요사』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1965

『한국독립운동사』 3권, 국사편찬위원회, 1965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

『온산읍지』, 온산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김호연·박제균·양상현,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이재호(李在琥, ?~?)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지역의 유지인 이재호는 사립 일신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교경영에 혼신을 다 하였다. 사립일신학교는 병영의 유지였던 이재호가 설립했다. 이재호는 한말에는 군부 주사를

지냈고, 1906년에는 병영에 일신학교를 설립한 뒤 초대 교장으로 재임했다.

【참고문헌】

『황성신문』, 「경상남도울산군사립개진학교를본군에 설립한 바 처재연변(處在沿邊)해와」, 1907.07.09

『병영초등학교 일백년사』, 2011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의 사회변동과 지역정체성」, 김유신, 2012

이종천(李鐘天, 1890~1928)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울산청년회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통도사에서 『취산보림』을 발간했고 한성에서 불교청년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한때 부산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진주에서 포교사로도 활동하였다. 1920년대 초반 울산에서 청년운동가로 활동하였고, 당시의 활동상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 울산의 경찰이 연지(蓮池)를 개인에게 대부하여 면민의 원성을 샀는데 이종천이 총독부에 적극적으로 진정하였다고 한다. 한편, 그는 상북 면의원 의장(1952)을 지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진정도 방해하는 경찰」, 1922.07.12

『동아일보』, 「울산청년회정기회」, 1922.05.07

『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이종하(李鍾夏, ?~1978)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울산병영청년회 간사(1925), 울산수리조합총대회 보충원(1933), 하상면 번영회 평의원(1940)으로 활동하였다. 강정택의 외삼촌으로 강정택이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선조 때 충북옥천에서 이주해왔고, 농사를 지으면서 해마다 농토를 사들였는데,

1962년 울산시 승격 이후 땅값이 많이 올라 건평 7백74평의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필요한 돈 1억 3천 1백만원을 내놓았고, 1977년 9월에 준공된 이 체육관을 종하체육관이라고 이름지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병영청년총회 새로 회관을 건축할 터」, 1925.05.04

『동아일보』, 「울산수총대회」, 1933.05.21

『동아일보』, 「신팔도기 울산」, 1979.06.19

정태상(鄭泰相, 1904~198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출생.

본관은 동래. 자는 응우(應宇). 호는 매원(梅源). 생월 윤필(允弼)의 후손. 간송(澗松) 재욱(在勗)의 손자이다. 승습정학(承襲庭學)으로 문행과 유행을 겸비하여 광복 후 언양향교의 전교를 역임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조임준(曹任俊, ?~?)

울산광역시 출생.

조임준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는데, 기성회 위원장(1928), 울산 민우회 부회장(1928년 2월), 울산 민우회 평의원(1928년 4월), 울산 민우회 회장(1929), 울산 유치원 기성위원회 위원장(1928), 삼산자동차주식회사 이사(1921~1929), 울산청년회관 찬성원(1922), 울산 민우회 부회장(1928), 울산 면협의원(1927, 1931) 역임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울산청년회 소식」, 1922.02.13

『동아일보』, 「울산민우회총회」, 1928.02.25
『동아일보』, 1928.12.08
『조선은행회사요록』

차덕출(車德出,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출생.
신화리 후평마을에서 면양을 시범사육하여 농촌계몽운동을 선도하였다.
제8대 두서면장(1943.2.18~1945.8.15)과 울산청년연맹 위원(1925), 울산청년회 집행위원(1925)으로 활동하였다. 해영학원에서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중시하는 교육을 하였으며, 해영학원에 대한 유지의 지원을 바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울산청년총회」, 1925.05.31.
『시대일보』, 1925.05.28
『울주삼남지』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사학』 11집, 울산대학교, 2004
『역사와 경계』 81, 「근현대 울산지역 장시 변동과 지역질서의 재편」, 허영란, 2011

8. 독립운동

강기형(姜祺馨, 1876～19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언양 장날의 만세시위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천도교 계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상남면의 천도교 유지인 이무종(李武鐘)·이규인(李圭寅)·이성영(李成榮) 등은 비밀리에 만세시위를 계획하였고, 4월 2일 언양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였는데, 이때 강기형은 만세 시위계획에 참가했다.

4월 2일에 언양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거행할 때 강기형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이어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탄압하는 일경에 대하여 투석으로 맞섰다. 그러던 중 일본군 수비대의 총격에 의해 시위군중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강기형은 현장에서 피체되었다.

이 일로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동년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강문필(姜文必, 1872~19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출생.

1919년 4월 4~5일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강문필은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공훈전자사료관

고기룡(高基龍, 1878~ 194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출생.

1919년 4월 8일 경남 울산군 온양면 남창리 장날 만세시위를 선두에서 지휘하며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4일과 5일에 걸쳐 울산 병영에서 만세시위가 크게 일어나자, 여기에 고무받은 고기룡 등 청년들은 빠른 시일내에 만세시위를 거행할 것을 결의하고, 4월 8일 남창리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고기룡은 만세시위의 계획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였다. 고기룡은 동지들과 함께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하는 한편, 거사 당일인 4월 8일에는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이른 아침 남창리 장터에 도착하여 거사를 진행해 갔다. 거사 시각인 오후 4시가 되자 그는 동지들과 함께 장터 복판에서 준비한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며,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함으로써 만세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그리하여 장터에 모여 있던 수백명의 군중이 호응하면서 남창리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만세시위에 당황한 일경은 총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한편 주도, 인물들을 피체하였다. 그러나 일경의 포위망을 피한 고기룡·이용락 등은 커다란 광목지에 '대한독립만세'라 쓴 깃발을 앞세우고 다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고기룡은 만세시위대의 선두에서 활동하다가 현장에서 일경에 피체되어, 이해 6월 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온산읍지』, 온산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권석운(權奭運, 1900~1943)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출생.

1919년 4월 4~5일 양일간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병영리는 조선시대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이 있던 곳으로 이곳의 청년들은 애국적 상무정신이 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병영리에는 비밀결사 병영청년회가 결성되어 항일의식을 고취하였으며, 권석운은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병영리의 만세운동은 서울 유학생 한명조(韓命祚)·이영호(李永浩) 등이 3·1운동의 소식을 전해 오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때 그는 병영청년회 간부 이현우(李鉉禹)·이문조(李文祚)·이종욱(李鐘旭)·박영하(朴永夏) 등은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4월 4일로 거사일을 정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3일에는 독립선언서 2백여 매를 작성하였고, 태극기 5백여 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종이와 명주에 '구대한국독립만세(舊大韓國獨立萬歲)'·'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심동체의 혈맹(血盟)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의 아래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을 깨물어 '결사보국(決死報國)'의 네 글자를 혈서로 서명하였다. 거사일인 4월 4일 오전 9시경에 권석운은 청년회원들과 함께 병영일신학교(兵營日新學校) 교정으로 집결하여 학생들을 동원한 뒤 오전 11시 40분경에 축구공을 높게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준비해 간 태극기와 깃발을 앞세우며 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면내 각 동리를 진군하다가 일경의 탄압에 의해 주동 인물 몇몇이 피체되면서 일단 해산하였다. 이 때 일경의 검거망을 피한 청년회 간부들은 4월 4일 저녁에 모여 다음날에 만세시위를 재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4월 5일 오후 3시를 기해 권석운 등은 일신학교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시작하면서 1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를 에워싸고 전날에 검거한 주동인물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때 울산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시위대 중 문성초(文星超) 등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다수가 총상을 입었다. 이로써 만세시위는

해산되었고, 권석운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경수(金卿洙, 1892~ 196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부면 명촌리 출생.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낙수(金洛綏, 1880~19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출생. 이명은 낙수(洛洙).
1919년 4월 2일의 언양(彦陽)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천도교도(天道敎徒)인 이무종(李武鍾)·이규인(李圭寅)·이성영(李成榮)·강경찬(姜康贊)·최해선(崔海璇)·이규경(李圭庚) 등에 의하여 계획되었는데, 이들은 언양 장

날인 4월 2일을 거사 일로 정하고 비밀리에 동지규합에 나섰다.
그러나 3월 31일,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일제의 예비검속으로 천도교도 최해규(崔海圭) 형제와 곽해진(郭海鎭)·유철순(兪哲淳) 등이 체포되었으나, 나머지 주동자들은 4월 1일 이규인의 집에서 밤이 새도록 태극기 42매를 제작하면서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4월 1일 인근 양산읍(梁山邑)에서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이 계획을 전해 들은 그는 4월 2일 언양읍 남부리(南部里) 장터에 모인 1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이 주동인물 몇명을 언양주재소로 강제 연행하자, 그는 격노한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달려가 공포를 쏘며 시위대열을 해산시키려는 일본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잔인한 발포로 말미암아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대열은 일단 해산하였다. 그후 일제는 대대적인 검거작업을 펼쳤는데, 결국 그도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6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이해 6월 2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8년에 대통령표창을,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 상북면지』 ,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김덕남(金德男, 1919~1945)

일제강점기 우국지사. 본적은 울산. 다른 이름은 김성천(金成川.
1940년 일본 경도시(京都市) 하경구(下京區)의 철공소에서 근무 중, 일본인의 민족차별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4년 11일 일본으로 건너가 철공소 직공으로 노동일에

종사하던 김덕남은 일본인의 민족 차별을 체험하면서 점차 항일민족의식을 키워 나갔다. 그리하여 1940년 6월 같은 처지에 있던 동료 김두만(金斗萬), 제약회사 직공인 유귀복(柳貴福) 등과 서로 뜻을 함께 하고, 백두산을 근거지로 삼아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약화된 틈을 노려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9월 11일 그들은 재차 회합을 가져, 먼저 김두만을 국내로 보내어 독립운동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서두르기로 하고, 귀국후의 연락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거사는 사전에 일경에 발각되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1942년 9월 26일 대판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45년 3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김선일(金善日, 1880~191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출생.

정용기(鄭鏞基) 의진에 가담하여 경남 울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처의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분투하였다.

이같은 시기에 김선일은 평소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중 정용기 의진에 가담하였다. 을사륵약 이듬해인 1906년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북상할 것

을 결심한 정용기 의병장은 경북 영천으로 내려가 통유문과 격려문을 각계 각층에 보내어 함께 의병에 참가하기를 권고하고 총 궐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정용기는 각 지역별로 인원을 배치하여 의거 진행 계획에 따른 연락활동을 맡게 하였다.

김선일은 이같은 정용기 의진에 참여하여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하였다. 특히 그는 정용기 의진에서 종군하면서 살인, 방화 등 적극적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10년 1월 18일 대구공소원에서 교수형을 받고 상고하였다. 그러나 3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김송근(金松根, 1901~1957)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출생.

1919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개된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4월 4일 오전 9시경, 청년회 회원들로 주축을 이룬 독립만세 시위군중은 병영보통학교에 모여 태극기를 꺼내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인근의 서리·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등을 행진하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행사로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다음날인 4월 5일 오후 3시경, 군중들은 다시 병영보통학교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인근지역을 행진하면서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때 시위군중은 1천여 명에 이르렀고, 사태의 절박함을 느낀 일본 관헌은 급히 울산으로부터 13명의 군경을 증원 받아 시위군중과 공방전을 벌였다.

4월 6일에는 병영청년회 간부들과 김송근·윤학이(尹學伊)·백봉근(白鳳根) 등의 합동으로 전날보다 더 큰 기세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행진하였다. 이때 김송근도 일본 군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2일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순곤(金順坤, 1912~1966)

울산광역시 북구 출생. 이명은 장경문(張敬文),임노수(林路樹),양엽(楊葉),장문화(張文華). 고향에서 울산공립실업보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중동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중퇴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1년 후반기부터 김원봉(金元鳳)의 의열단에서는 독자적인 항일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연합방안을 타진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장개석(蔣介石)의 원조로 중국 남경에 위치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교외의 탕산(湯山)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한 김원봉은 사관생도들을 모집하기 위해 의열단원들을 중국 각지로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 북경 신가구(新街口) 고묘내(高廟內)에 거주하는 중간 연락책 김규환(金奎煥)을 경유하여 중국 남경으로 가서 1935년 4월 남경 교외 상방진 황룡산 소재 천령사(天寧寺)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3기생으로 입교하였다.

입교 후 한국혁명ㆍ전술학ㆍ폭탄제조술ㆍ기관총학ㆍ사격 등을 습득한 그는 1935년 7월 결성된 민족혁명당 당원으로 입당하는 한편, 남경으로 이동하여 김원봉으로부터 항일투쟁의 활동방법과 수단 등을 교육받은 후 중국 상해로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1936년 8월 14일 군관학교 동기생 김병화(金炳華)ㆍ김학무(金學武)ㆍ김파(金波) 등과 함께 중국 상해의 일본총영사관을 폭파하기로 계획하고 불란서 조계 환룡로(環龍路) 태흥방(泰興坊)에서 폭탄 2개를 완성하고 3개째를 제조하다가 갑작스런 폭발로 중상을 입고 불란서 공부국(工部局)에 피체되어 같은 달 21일 상해의 일본총영사관 경찰부로 인계되었다.

1937년 1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폭발물취체규칙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41년 2월 4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김운봉(金雲峰, 1893~1950)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29일 울산군 상남면 길천리에 거주하던 천도교인 이무종(李武鍾)은 이규인(李圭寅)·최윤봉(崔允奉)에게 4월 2일 언양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자고 제의하여 찬동을 얻었다. 그리고 4월 1일 밤 이규인의 집에서 최윤봉과 함께 태극기 42개를 만들었다. 거사 당일인 4월 2일 읍내 이무종 등은 남부리 시장에 태극기를 갖고 가 행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운봉은 남부리 시장에서 시위에 동참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활동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운봉은 부산지청 검사분국에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원룡(金元龍, 19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출생.
1919년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8개월간 옥고치렀다. 이후 중남사립보통학교 초대교원, 중남면장(1932), 초대삼남면장(1925.8~1933.12),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한때 기자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1923.08.08
『조선일보』, 1923.12.18
『조선일보』, 1925.06.17.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32~1934)
『울주삼남지』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응룡(金應龍, 1902~1919)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당시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그는 이곳의 비밀 청년회에 가입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1919년 3월 서울에서 귀향한 한명조(韓命祚)와 이영호(李永浩)로부터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4월 4일을 기하여 고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자기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희사하였다. 이달 3일 서리(西里)의 박영하(朴永夏)와 권작지(權作支)의 집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이튿날의 거사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그는 문성초(文星超) 등의 청년회 회원들이 주축이 된 시위군중은 병영국민학교에 모여 태극기를 꺼내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인근의 서리·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등을 행진하며 시위운동을 벌였으나,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행사로 여러 사람이 검거되고 해산하였다. 이에 그는 이문조(李文祚)·이종필(李鍾弼) 등의 동지와 함께 김세진(金世鎭)의 집으로 피신하여, 이튿날 다시 거사하기로 계획하고 다른 동지들에게 연락하였다.

4월 5일 오후 3시경, 다시 병영국민학교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인근지역을 행진하다가 일제의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때 시위군중이 1천여 명에 이르러서 사태의 급박함을 느낀 일본 관헌은 급히 울산으로부터 13명의 군경을 증원 받아 시위군중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결국 이문조 등 9명이 일본 군경에 의해 체포되

자, 그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에 투석하였다. 이에 일본 군경은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선두에 있던 그는 다른 3명의 동지와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김의현(金義鉉,1898~1921)

울산광역시 출생.
서울 오성학교 출신으로 3·1운동 후 고향인 울산에서 광복단(光復團)을 조직하여 활동 중 일경에게 발각되어 만주로 피신하였다.
만주에서는 집안현에서 대한독립단 본부 유격대원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활동한 대한독립단은 1919년 4월 15일 한말 의병장 출신인 박장호(朴長浩)·조맹선(趙孟善) 등이 중심이 되어 유하현 삼원보 서구 대화사(大花斜)에서 결성되었다. 의병장들은 1910년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점된 후 서간도지역에서 보약사(保約社)·향약계(鄕約契)·농무계(農務契)·포수단(砲手團) 등 단체를 조직하고, 독립역량을 기르던 중 3·1운동이 발발하자 이를 계기로 기존단체를 통합하여 무장투쟁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한독립단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창립선언문과 함께 전문 22조의 규칙을 통과시키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정하였다. 도총재 박장호, 부총재 백삼규(白三圭), 자의부장(諮議部長) 박치익(朴治翼), 사한장(司翰長) 김기한(金起漢), 참모장 윤덕배(尹德培), 부참모장 박양섭(朴陽燮), 총참모 조병준(趙秉準), 참모 송상규(宋尙奎)·강규묵(康圭默)·조응걸(趙膺杰)·이정근(李廷根), 총단장 조맹선, 부단장 최영호(崔永浩)·김원섭(金元燮), 총무부장 김평식(金平植), 부총무부장 강유상(康有常), 총무원 김일(金鎰)·한관모(韓寬模), 재무부장 전덕원(全德元), 재무 이병기(李炳基), 회계 홍주(洪疇), 사법부장 이웅해(李雄海), 교통부장 양기하(梁基瑕) 등이다.

김의현이 활동한 대한독립단에서는 이 시기 만주지역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무장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무기 및 군수품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적이었다. 이를 위해 군자금의 모집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대한독립단에서는 유하현 삼원보에 위치한 본부 및 국내, 서간도의 각 지단에 재무부를 설치하고 군자금의 모집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만주와 국내에서의 일본인 및 친일파 숙청 그리고 일제의 기관파괴 등도 전개하는 한편 국내에 대한독립단의 지단을 조직하고자 노력하였다.
1920년 9월 김의현은 대한독립단의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중국 경찰에게 체포되어 수개월간 복역한 후 이기춘(李基春)·김서순(金西淳)·김원호(金元浩)·김이태(金利泰) 등 22명과 함께 일경에게 인도되어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2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장룡(金章龍, 1926~?)

울산광역시 출생.

김장룡은 1944년 3월 부산 제2공립상업학교를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로부터 일본 해군 제51항공창에서 항공기 제작, 수리를 위해 중견 간부공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응시하였다. 그는 1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경남 진해시에서 하숙하며 항공창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즉 항공창 내 한국인 공원들에게 일제 패망을 역설하고 정신무장을 독려하는 한편 태업(怠業)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1944년 7월 김장룡은 일본군에게 붙잡혀 진해경비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장룡은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던 중 1945년 8·15광복과 함께 출옥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2007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장수(金長壽, 1887~1952)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출생.

그는 1919년 4월 4, 5 양일간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병영리는 조선시대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慶常左道兵馬節度使營)이 있던 곳으로 이곳의 청년들은 애국적 상무정신이 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김장수는 일찍부터 항일의식을 길러 오면서 비밀결사 병영청년회를 통하여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 유학생 한명조(韓命祚)·이영호(李永浩) 등이 3·1운동의 소식을 전해 오자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워 나갔다. 이 때 그는 병영청년회 간부 이현우(李鉉禹)·이문조(李文祚)·이종욱(李鐘旭)·박영하(朴永夏) 등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4월 4일로 거사일을 정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3일에는 독립선언서 2백여 매를 작성하였고, 태극기 5백여 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종이와 명주에 '구대한국독립만세(舊大韓國獨立萬歲)'·'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심동체의 혈맹(血盟)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의 아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결사보국(決死報國)'의 네 글자를 혈서로 서명하였다. 거사일인 4월 4일 오전 9시경에 그는 청년회원들과 함께 병영일신학교 교정으로 집결하여 학생들을 동원한 뒤 오전 11시 40분경에 축구공을 높게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준비해 간 태극기와 깃발을 앞세우며 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면내 각 동리를 진군하다가 일경의 탄압에 의해 주동 인물 몇몇이 피체되면서 일단 해산하였다. 일경의 검거망을 피한 김장수를 비롯한 청년회 간부들은 4월 4일 저녁에 모여 다음날에 만세시위를 재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4월 5일 오후 3시를 기해 김장수 등은 일신학교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시작하면서 1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를 에워싸고 전날에 검거한 주동인물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때 울산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

함으로써 시위대 중 문성초(文星超) 등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다수가 총상을 입었다. 이로써 만세시위는 해산되었고, 김장수는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재수(金在洙, 1900~1949)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출생.
그는 1919년 4월 4, 5 양일간 경북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병영리는 조선시대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이 있던 곳으로 이곳의 청년들은 애국적 상무정신이 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병영리에는 비밀결사 병영청년회가 결성되어 항일의식을 고취하였으며, 김재수는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병영리의 만세운동은 서울 유학생 한명조(韓命祚)·이영호(李永浩) 등이 3·1운동의 소식을 전해오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때 병영청년회 간부 이현우(李鉉禹)·이문조(李文祚)·이종욱(李鍾旭)·박영하(朴永夏) 등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4월 4일로 거사일을 정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3일에는 독립선언서 2백여 매를 작성하였고, 태극기 5백여 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종이와 명주에 '구대한국독립만세(舊大韓國獨立萬歲)'·'독립만세' 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심동체의 혈맹(血盟)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의 아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결사보국(決死報國)'의 네글자를 혈서로 서명하였다.
거사일인 4월 4일 오전 9시경에 김재수는 청년회원들과 함께 병영일신학교 교정으로 집결하여 학생들을 동원한 뒤 오전 11시 40분경에 축구공을 높게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준비해 간 태극기와 깃발을 앞세우며 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면내 각 동리를 진군하다가 일경의 탄압에 의해 주동 인물 몇몇이 피체되면서 일단 해산하였다.
일경의 검거망을 피한 청년회 간부들은 4월 4일 저녁에 모여 다음날에 만세시위를 재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4월 5일 오후 3시를 기해 김재수 등은 일신학교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시작하면서 1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를 에워싸고 전날에 검거한 주동인물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때 울산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시위대 중 문성초(文星超) 등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다수가 총상을 입었다. 이로써 만세시위는 해산되었고, 김재수는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재호(金在浩, 1900～1969)

1900년 8월 20일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서 소년시절에 불가에 입문하였다. 경남 동래군(東萊郡) 북면(北面) 범어사(梵魚寺) 승려로서 1919년 3월 18일 동사 승려 김영규(金永奎)가 조선독립을 달성할 목적으로 주도, 전개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밤 범어사 부속 지방학림(地方學林) 생도 및 동 부속 명정학교(明正學校) 생도들과 공동으로 동래면(東萊面) 서문(西門) 부근으로부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래시장을 통과하여 남문에 이르기까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튿날인 19일에도 시위를 계속할 목적으로 오후 6시경 최응권(崔應勸) 등 수십명의 양교 생도들과 함께 동면 시장으로 집합,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 피체되었다.

그 해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후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326번지로 거주를 옮겨 살면서 인성암(引聖庵), 내원암(內院庵) 등 인근 여러 사찰에서 주지스님으로 불자들에게 민족성신을 고취시키면서 한 평생을 마친 독립투사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서생면지』,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김정욱(金正?, 1883~1947)

언양 만세운동에 참가한 김정욱은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정원(金正元, 1880~196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린 출생.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언양 장날의 만세시위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천도교 계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상남면의 천도교 유지인 이무종(李武鐘)·이규인(李圭寅)·이성영(李成榮) 등은 비밀리에 만세시위를 계획하였고, 4월 2일 언양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였는데, 이 때 김정원은 만세시위계획에 참가했다. 이들은 거사를 앞두고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준비를 진행시키던 중 거사 이틀전 주동 인물 가운데 최해규와 곽해진 등 4명이 일제의 검거망에 걸려 예비검속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비밀을 유지한 채 거사 당일인 4월 2일에 언양장터에서 만세시위를 거행할 수 있었다. 김정원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이어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탄압하는 일경에 대하여 투석으로 맞섰다. 그러던 중 일본군 수비대의 총격에 의해 시위군중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김정원은 현장에서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국가보훈처

김치일(金致一, 1867~19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출생.

1908년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기준의진(金基俊義陣)에 소속되어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하였다.

김기준은 언양군 상북면 남부리 출신으로 의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활동하고 있었다. 1908년 6월 30일 김기준을 비롯한 의병 13명은 울산군 농소면 오정동에서 임달이(林達伊)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고 있던 중, 울산경찰분서에서 파견된 4명의 변장순사대의 기습 공격을 받고 김기준과 김치일이 체포되었다. 심문 결과 김기준의 지휘 아래 있던 의병들은 울산군 관내에서 11건의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속된 의병은 김춘길(金春吉)·염덕로(廉德魯)·허익견(許益見)·박춘영(朴春永)·홍치언(洪致彦)·김치일(金致一)·박선일(朴善一)·송돌기(宋乭基)·박선익(朴善益)·이모(李某) 등이었다.

김치일은 1911년 7월 29일 대구공소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동년 9월 12일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김한준(金漢俊, 1884~19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출생.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언양 장날의 만세시위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천도교 계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상남면의 천도교 유지인 이무종(李武鐘)·이규인(李圭寅)·이성영(李成榮) 등은 비밀리에 만세시위를 계획하였고, 4월 2일 언양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였는데, 이 때 김한준은 만세시위계획에 참가했다. 이들은 거사를 앞두고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준비를 진행시키던 중 거사 이틀전 주동 인물 가운데 최해규와 곽해진 등 4명이 일제의 검거망에 걸려 예비검속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비밀을 유지한 채 거사 당일인 4월 2일에 언양장터에서 만세시위를 거행할 수 있었다. 김한준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이어 1천여 명에 달하는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탄압하는 일경에 대하여 투석으로 맞섰다. 그러던 중 일본군 수비대의 총격에 의해 시위군중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김한준은 현장에서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국가보훈처

문성초(文星超, 1887~1919)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당시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그는 이곳의 비

밀 청년회에 가입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1919년 3월 서울에서 귀향한 한명조(韓命祚)와 이영호(李永浩)로부터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4월 4일을 기하여 고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자기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희사하였다. 이달 3일 서리(西里)의 박영하(朴永夏)와 권작지(權作支)의 집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이튿날의 거사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청년회 회원들로 주축을 이룬 독립만세 시위군중은 병영국민학교에 모여 태극기를 꺼내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인근의 서리·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천리(山田里) 등을 행진하며 시위운동을 벌였으나,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행사로 여러사람이 검거된 후 해산하였다. 이에 그는 이문조(李文祚)·이종필(李鍾弼) 등의 동지와 함께 김세진(金世鎭)의 집으로 피신하여, 이튿날 다시 거사하기로 계획하고 다른 동지들에게 연락하였다.

4월 5일 오후 3시경, 다시 병영국민학교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인근지역을 행진하다가 일제의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때 독립만세시위군중이 1천여명에 이르러서, 사태의 절박함을 느낀 일본 관헌은 급히 울산으로부터 13명의 군경을 증원받아 시위군중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결국 이문조 등 9명이 일본 군경에 의해 체포되자, 그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에 투석하였다.이에 일본 군경은 시위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 선두에 있던 그는 다른 3명의 동지와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포장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박규환(朴圭桓, 1897~194)

울산강역시 중구 서동 출생.

1919년 4월 4일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상면에서는 4월 4일 오전 9시 경 일신보통학교와 경찰관주재소 앞 등지에서 약 200명의 군중을 이끌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규환은 1919년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박규환은 1919년 10월 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박근철(朴根澈, 1920～?)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출생.
1938년 4월 일본 장기(長崎)현립농업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면서,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이탈하여야 하겠다는 결심 하에 동지 심재인(沈載仁)과 독립운동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1941년 삼중(三重)고등농림학교에 진학해서도 동지들과 자주독립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동년 12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고향 후배 등에게 징병 또는 학도병을 기피하고 때를 기다리자고 권유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1942년 2월 예천(醴泉)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는 장기간에 걸친 취조와 고문 끝에 1943년 5월 7일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3월 사면되어 가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인정하여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6권, 국가보훈처, 1988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박상진(朴尙鎭, 1900~192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출생.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거주. 호는 고헌(固軒). 자는 기백(璣伯). 승지 시규(時奎)의 아들로, 큰아버지인 교리 시룡(時龍)에게 입양되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신민회 후원. 1920년 3월 滿洲로 건너가 항일단체에 가입, 參議府 제2중대원으로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감행.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9세 되던 1902년부터는 의병장 출신으로 서울 평리원판사로 있던 허위(許蔿)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4년양정의숙(養正義塾) 전문부에서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해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하여 평양법원에 발령되었으나 사퇴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2년 대구에 상덕태상회(商德泰商會)를 설립해 독립운동의 연락 본부로 삼았다. 1915년 1월 안일암(安逸庵 : 현재 대구의 安逸寺)에서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그 해 7월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의 인사와 합작해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하였다. 대한광복회는 충청도·경기도·황해도·평안도와 만주 각지에 조직을 가지는 1910년대 국내 최대의 독립군단체로 성장하였다. 그는 곳곳에 곡물상을 설립해 연락 거점으로 삼아, 일제 타도를 추진하는 행동 강령으로 비밀·폭동·암살·명령을 시달하였다. 박상진 등의 대한광복회는 이념에 있어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화주의를, 방략에 있어서는 무장혁명노선을 표방하였다. 박상진은 1916년 만주에서 무기와 화약류를 들여오다가 잡혀 6월간의 징역형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 신민회를 후원하였다. 1920년 3월 만주로 건너가 항일단체에 가입하고 참의부 제2중대원으로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감행하였다. 한편, 친일부호 처단을 여러 차례 계획하였다. 그러던 중 1917년 11월채기중(蔡基中)·유창순(庾昌淳)·임봉주(林鳳柱)·강순필(姜順必)에게 칠곡부호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하게 하였다. 그리고 1918년 1월김한종(金漢鍾)·장두환(張斗煥)·김경태(金敬泰)·임봉주(林鳳柱)에게 충청남도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하게 하였다. 이 때 대한광복회 조직이 드러나 많은 사람이 투옥되었으며, 사형선고를 받았다.

【참고문헌】

『용의조선인명부』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박의사상진순국사(朴義士尙鎭殉國史)』, 박상진의사추모회, 1980
『한국사연구』 42, 「대한광복회연구」, 조동걸, 1983
『박상진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남인물지』, 2004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제민(朴齊珉, 1919~19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대구사범학교 재학중인 1941년 2월에 항일결사 연구회(硏究會)에 가입하여 농업부를 책임 맡아 활동하였다.

연구회는 1941년 1월에 임굉(林宏)·이태길(李泰吉)·장세파(張世播) 등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이 민족의식 앙양과 독립을 위한 실력배양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이들은 당시 국제정세를 살펴 일제가 곧 패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다가올 독립에 대비하여 각기 전문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동회는 비밀엄수, 매월 10일 연구발표와 하급생지도 및 동지포섭 등의 방침을 정하고 1941년 2월부터 동년 3월까지 6회의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졸업기를 당하여 회원들이 졸업을 하게 되자 이들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였다. 즉 졸업후 각기 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면 우수한 아동들에게 수재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지의 활동상황 및 성과를 매월 1회 사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보고된 상황은 취합하여 다시 전회원에게 배부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우송방법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공문을 가장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는 1941년 3월, 동교 졸업후 경북 경주 소재 하서공립국민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앙양시키며 연구회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1941년 7월, 대구사범학교 윤독회의 간행물인 『반딧불』이 일경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대구사범학교 비밀결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도 일경에 피체되었으며 그후 미결수로 2년여 동안 혹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10월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대통령표창을, 1977년에 건국포장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 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정세현, 일지사, 1975
『경상일보』
『울주삼남지』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6권, 국가보훈처, 1988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박형관(1927~20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출생.
그는 1944년 11월 중순경 고향에서 박춘근(朴春根)·박순복(朴淳福)과 더불어 비밀결사 독립운동청년회를 조직하고 기관지(機關誌)를 제작·열람하면서 항일활동을 모색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45년 1월 그의 집이 가택수색을 당한 결과 비밀서류가 발각되어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1945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5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8·15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방재구(方在矩, 1900~?)

독립운동가. 울산광역시 출생.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당시 경성보통학교 2학년으로 이날 오전 9시경 만세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대문역 광장으로 나갔다. 사전 약속에 따라 시위군중이 모였는데, 대부분 학생들이었다.

그는 유점선(劉點善)·김승만(金昇萬)·한흥이(韓興履) 등 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대에 참가하여 독립기와 적포(赤布)를 흔들면서 시가행진에 돌입하였다. 시위행렬이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일본 군경은 이를 저지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은 그들의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일제는 군경을 더욱 증강시켜 총칼을 휘두르며 시위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다수의 시위 참가자를 무차별 체포하였다.

그는 이날 경성일보사 앞까지 진출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심문을 받을 때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심문에 대해 "한일합방 후 조선은 일본 정부의 정치하에 있었으나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조선이 단독으로 정치를 집행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여 일제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결수로 옥고를 치르다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미결구류 90일 통산)을 받았다. 출옥 후 귀향하였으나 옥고의 여독 등으로 출옥 5년 만인 26세를 일기로 요절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배봉수(裵鳳秀, 1928~?)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출생.

부산 동래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 1일 부산진 소재 신정호(辛正浩)의 집

에서 1943년 봄 이래 독서회 활동을 통하여 뜻을 같이해온 차병곤(車炳坤)·박정오(朴楨五) 등 다른 12명의 동지와 함께 비밀결사 순국단(殉國團)을 조직하고 선전책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독립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만주로 집단 망명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 직전인 1944년 8월 일경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단원 모두가 피체되고 말았다.
그는 1945년 8월 석방되기까지 미결수로서 부산형무소에서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백봉근(白鳳根, 1897~1936)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출생.
1919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개된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4월 4일 오전 9시경, 청년회 회원들로 주축을 이룬 독립만세 시위군중은 병영보통학교에 모여 태극기를 꺼내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인근의 서리·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등을 행진하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행사로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다음날인 4월 5일 오후 3시경, 군중들은 다시 병영보통학교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인근지역을 행진하면서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때 시위군중은 1천여 명에 이르렀고, 사태의 절박함을 느낀 일본 관헌은 급히 울산으로부터 13명의 군경을 증원 받아 시위군중과 공방전을 벌였다.
4월 6일에는 병영청년회 간부들과 김송근·윤학이(尹學伊) 등의 합동으로 전날보다 더 큰 기세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행진하였다. 이때 백봉근도 일본 군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2일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서무출(徐武出, 189~1953)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1919년 4월 4일과 5일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울산군 하상면에서는 1919년 4월 4일 병영리 일신학교에 200여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태극기를 앞세우고 결찰관 주재소 앞 등지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또 4월 5일에도 일신학교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게양하고 하상리 경찰관주재소로 향해가며 만세운동을 계속하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서무출은 1919년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8월 25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서태식(徐泰植, 1889~19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에서 장날을 이용, 이무종(李武鍾) 등이 계획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신동목(辛東睦)·김정원(金正元)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각자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장터로 가서 한국이 독립되었다고 크게 외치며 많은 사람들을 선도, 이들과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장터를 누비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민, 애국동지원우회, 1956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원, 1978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국가보훈처

손병주(孫炳株, 1921～1943)

울산광역시 출생.

1939년 6월 일본 동경의 연수학관(硏數學館) 학생으로 재학중 장기(長崎)의 간조농학교 선배인 이상만(李相晩)·박근철(朴根澈)·심재인(沈載仁) 등과 함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3인조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독립운동 지침과 지하조직 강령을 작성하고 조직원을 33명으로 정하였다.

1940년 4월 신입생 입학 자축회가 개최되자 참석한 그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선 학생은 조선인의 문화향상과 동포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 (중략) 또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모멸은 그 원인이 조선문화가 열등한 데 있다. 그러나 만약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문화도 이와 같지 저열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차별적 모욕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함이 가장 중요하다. 조선의 독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조선인이 모름지기 조선인 정신을 견지하여 앙양함과 동시에 조선 독립을 목표로 서서히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신입생들의 찬동을 얻어 그 목적과 실행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정책과 한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 창씨개명을 통한 민족혼 말살정책 등 일제정책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 함양과 유사시에 대비한 무술 연마와 지하운동 전개, 일본의 전쟁 수행에 불리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인심 교란과 전의를 상실시킬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이후 한국으로 송환된 그는 경북 예천·영주·안동경찰서와 대구형무소에서 2년여 동안 수감되어 잔인한 고문을 받다가 1943년 5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옥한 뒤 4개월 만인 동년 8월 21일 오전 7시

고향인 울산읍 생후동에서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손수복(孫秀福, 1877~1961)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

1919년 4월초 경남 울산군 언양면 읍내 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3월 1일 이후 조선독립을 요구하는 함성과 저항이 높아가고 있던 3월 하순경 울산군 상남면에서는 천도교 계통의 유지들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협의하였다. 즉 상남면 길천리에 사는 이무종(李武鐘)·이규인(李圭寅) 등 6인은 비밀리에 동지들을 규합하는 한편 거사일을 4월 2일 언양 장날로 정하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오던 이들은 4월 1일 밤 이규인 소유의 빈 집에 모여 거사를 의논하면서 밤을 새워 많은 태극기를 만들었다. 장날인 다음날 이른 아침 이들은 태극기를 품고 언양 읍내 시장으로 잠입하였다. 수많은 장꾼들 사이에서 주동 인물 6인은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준 후 읍내 시장 복판인 남부리 도로상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장꾼 1,000여 명은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만세를 외치니 시장은 삽시간에 감격과 흥분으로 휩싸였다. 긴급 출동한 일본경찰은 시위군중을 저지하며 주동 인물 몇 명을 언양주재소로 연행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위 군중은 만세를 외치며 주재소로 몰려갔다. 군중이 돌을 던지며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자, 다급해진 일제 군경은 공포를 발사하였다. 더욱 격분한 군중은 투석전을 전개하며 저들의 총기를 탈취하고자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일제의 군경은 무자비한 총탄세례를 퍼부었다. 시위군중 중 1명이 즉사하고 남녀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시위군중이 흩어지자 군경은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 약 48명의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손수복은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

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매일신보』, 1919. 4. 6

『범죄인명부』, (경찰청)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손진인(孫晋仁, 1869～1935)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출생.

김창숙(金昌淑)의 사장(査丈)인 그는 1926년 김창숙이 독립군기지 건설과 군사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운동을 전개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북경등지에서 활동하던 김창숙은 1926년 1월 중국으로부터 밀입국하여 군자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김창숙 등은 내몽고 지방의 미간지와 황무지 20만 정보를 매입하여 이상촌(李想忖)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즉 만주 지역의 한인들을 집결시켜 개간사업을 일으키고, 그 수익금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는 둔병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10년 동안의 실력양성을 통하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그런데 이 때 김창숙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자 그는 아들 손후익(孫厚翼)과 함께 김창숙을 보호하면서 정성껏 간호하는 한편 경주 지방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한 군자금 모집의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1927년 2월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울산보훈지청의 2003년 12월 우리고장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울산보훈지청

송병홍(宋柄虹, 19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출생.

일찍이 고향에서 공립보통학교 및 울산농업실수학교(蔚山農業實修學校)를 졸업한 뒤 1938년 4월 일본 동경(東京)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는 신문배달부로 일하는 한편 연수학관(硏數學館) 영사기술학교(映寫技術學校)를 졸업하였다.

이후 영사기사로 활동하면서 손병계(孫柄桂) 등과 함께, 중일전쟁에서 장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면 일본도 결국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패전하게 될 것이므로 이 기회를 틈타 일제히 봉기하여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동지들과 협의하다가 1942년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그 뒤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신광재(辛光在. 1885~1921)

울산광역시 출생.

서울에서 경신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에서 의용군에 소속되어 의용대장으로 활동하였다. 신광재는 채찬·이병철(李炳哲)·장창헌(張昌憲)·백설령(白雪岭) 등과 함께 평안도 대안 지역인 관전(寬甸)·집안·통화·임강(臨江)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21년 5월 중순에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있는 홍범도(洪範圖)에게 부대를 파견하였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신광재는 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21년 8월 병으로 서

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신학업(申學業, 1901~197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이명은 신주극(申周極), 신주식(申周植).
신학업은 1917년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일본으로 가 1919년 3월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 상과 야학부에 재학하던 중, 3.1운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였다. 같은 해 10월 중국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경남 울산군 언양면에서 농민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신학업은 소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928년 9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1931년 7월경에는 양산군 상서면에서 최해봉(崔海鳳) 등과 함께 권대형(權大衡)을 만나 적색농민조합 경남동부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신학업은 이와 같이 활동하다 다시 체포되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3년 5월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안장원(安長遠, 1923~19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출생.

본관은 광주. 온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동래고보(동래중)에 진학하였다. 5학년이 되는 해에 노다이사건(부산항일학생운동)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1941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해방이후 동아대학교 경제과를 졸업하였으며, 장귀애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으며, 향년 57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 온산읍 덕동 금애산에 안장되었다.

【참고문헌】

『부산시사』, 1989

『부산학생 항일의거의 재조명』, 계림출판사, 1992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온산읍지』, 온산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양석룡(楊錫龍, 1892~194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출생.

1919년 4월 울산군 하상면 서리의 일신학교내에서 김현우(金鉉禹)·이종욱(李鍾旭)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독립선언서 및 태극기를 준비하였으며 거사일인 4월 4일 군중들에게 미리 준비한 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 고무하고 손수 '대한국독립만세'라 쓴 기를 게양하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절규하고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게 무수히 구타를 당한 끝에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었다.

그 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엄준(嚴俊, 1885~1919)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울산군 하상면(下廂面) 병영리(兵營里)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그는 이곳의 비밀 청년회에 가입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1919년 3월 서울에서 귀향한 한명조(韓命祚)와 이영호(李永浩)로부터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4월 4일을 기하여 고향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자기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희사하였다. 이달 3일 서리(西里)의 박영하(朴永夏)와 권작지(權作支)의 집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이튿날의 거사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문성초(文星超)등 청년회 회원들로 주축을 이룬 독립만세 시위군중은 병영국민학교에 모여 태극기를 꺼내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인근의 서리·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등을 행진하며 시위운동을 벌였으나,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행사로 여러 사람이 검거된 후 해산하였다. 이에 그는 이문조(李文祚)·이종필(李鍾弼) 등의 동지와 함께 김세진(金世鎭)의 집으로 피신하여 이튿날 다시 거사하기로 계획하고 다른 동지들에게 연락하였다. 4월 5일 오후 3시경, 다시 병영국민학교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인근지역을 행진하다가 일제의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때 독립만세 시위군중이 1천여명에 이르러서 사태의 절박함을 느낀 일본 관헌은 급히 울산으로부터 13명의 군경을 증원 받아 시위군중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결국 이문조 등 9명이 일본 군경에 의해 체포되자 그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에 투석하였다. 이에 일본 군경은 시위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선두에 있던 그는 다른 3명의 동지와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민, 애국동지원우회, 1956

『독립운동사』 3권 , 국가보훈처

오유환(吳侑煥, 1917~1947)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출생.

오유환은 일본에 건너가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반대하는 항일운동에 참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1941년 6월 일본 동경의 정지두공원에서 민족의식이 투철한 김규엽(金圭燁)을 만나 그와 함께 농촌계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규엽은 오유환에게 "현재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호성(呼聲)에 지나지 않고 내선인 평등의 대우는 도저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인 지원병을 식민지의 토민병(土民兵)으로 사역시키려 하는 것이다. 또 조선인이 창씨개명을 하나 본적지를 내지(內地)로 옮길 수는 없다. 이민족의 융합이 곤란하다는 것은 역사상 명백하다. 고로 우리는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해 민족적으로 단결하여 조선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지몽매한 농민대중을 계몽하고 그것을 민족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급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오유환은 김규엽의 주장에 동조하고 함께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 1941년 10월에도 김규엽은 오유환에게 "여름 방학에 조선으로 돌아가 조선 농촌의 실정을 보니 일반 농민은 무지몽매하여 매우 피폐하다.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써 장래 조선에 돌아가 서로 제휴하여 조선 민족의 계몽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민족운동의 지도자가 되고자 전문부 졸업후는 대학부에 진학하여 면학하고 먼저 자기완성에 힘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오유환은 "나도 장래 취직 후 서로 제휴하여 조선민족의 계몽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16일 오유환의 하숙집에서 김규엽은 "일본은 5년간이나 중국과 전쟁하여 상당히 피폐하여 있고, 지금 또 세계의 최대 강국인 미·영과 개전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패전할 것이다. 이번 가을이 곧 우리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절호의 기회이다. 나는 근일 조선으로 돌아가 경성방면에 취직하여 지방의 동지와 암호 전보로 비밀리 연락을 하고 독립운동을 실행할 각오이다. 군도 크게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크게 공감한 오유환은 "일본이 아무리 무력이 강하다고 해도 세계의 최대강국인 미·영을 상대로 싸운다면 경제적으로 파탄을 초래하여 결국 패전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제휴하여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실행 방법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같은 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검거된 오유환은 1943년 4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육군형법위반, 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윤봉수(尹鳳水, 1889~19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출생.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윤수암(尹壽巖, 1906~199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출생.

1920년대 말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윤수암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신호(神戶)에서 노동을 하다가 대판(大阪)으로 가서 노동단체 등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대판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이 되었고, 1928년 4월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 겸 동동맹의 대판지부 상임위원, 정치부장이 선임되었다. 이처럼 그는 일본지역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청년운동에도 관여하였다. 1928년 7월 하순 대판시 동성구(東成區) 야압정(野鴨町)에 있는 동광학원에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조선』을 확장할 것, 청년동맹 대판지부에 공장반(工場班)을 확립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면서 윤수암은 일경에 붙잡혀 1930년 10월 6일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1933년 3월 23일 동경공소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4년 4월 2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윤진옥(尹瑨玉, 1926~195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출생.

1944년 부산제이상업학교(釜山第二商業學校)에 재학 중 울산비행장 확장공사와 부수 도로 건설공사에 동원되어 근로 작업을 하던 중 태업을 주도하였다. 또한 학우들에게 일본군에 지원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등의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윤진옥은 경찰서에 유치된 지 약 4개월 만인 1945년 6월 2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부산검사국에 송치되어 미결상태로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과 더불

어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윤학이(尹學伊, 1886~1945)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울산 하상면 서리에서 1886년 8월 2일에 출생하였다. 울산군 병영면에서 이틀에 걸쳐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200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

이근복(李根復, 1886~1964)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울산군 하상면에서는 1919년 4월 4일 오전 9시 경 일신학교와 경찰관주재소 앞 등지에서 약 200명의 군중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근복은 이 날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6월 16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이규린(李奎麟, 1856～19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이규린은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김창숙(金昌淑) 등이 유림(儒林) 대표가 되어 작성한 독립청원서에 유림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세칭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이라고 불리우는 이 거사는 김복한(金福漢)을 중심으로 한 호서유림과 곽종석(郭鍾錫)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 137명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림의 항일운동이었다. 파리장서의 요지는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광무황제의 시해와 한국 주권의 찬탈과정을 폭로하면서 한국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유림은 김창숙(金昌淑)을 파리로 파견하고자 상해로 보냈으나,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 문서를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金奎植)에게 송달했으며, 국내의 각 향교에도 우송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 경상북도 상주의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1919년 4월 12일 서명자의 한 사람이었던 송회근(宋晦根)이 피체되면서 발각되었다.

이로써 이규린도 일경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다. 일제는 이들 유림이 한국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으므로 민족적 감정이 더욱 번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

출옥 후에도 그는 항일의식을 굳게 지키며 독립운동에의 방도를 모색하던 중1926년 1월 경북 대구에서 김창숙(金昌淑)의 밀명으로 경북 지역의 담당자로 파견된 정수기(鄭守基)와 함께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경(北京) 등지에서 활동하던 김창숙은 1926년 1월 군자금 모금차 중국으로부터 밀입국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김창숙 등은 내몽고 지방의 미간지와 황무지 20만 정보를 매입하여 이상촌(理想村)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즉 만주 지역의 한인들을 집결시켜 개간사업을 일으키고, 그 수익금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는 둔병식(屯兵式)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10년동안의 실력양성을 통하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이 때 필요한 군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송영호(宋永祜)·김화식(金華植)·이봉로(李鳳魯) 등과 유림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에 힘을 쏟으며 유림단(儒林團)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던 중 1926년 4월에 발각되어 9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이동개(李同介, 1910~1955)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이명은 동계(東桂).
1925년 3월 경남의 언양청년단 간부로 있으면서 단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상품을 불매하자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1929년 4월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2년 6월 양산읍내 분규사건에 대하여 이영건(李永健)에게 격려편지를 보낸 일이 발각되어 구류 15일을 받은 바 있다.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그는 비밀결사 울산독서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1937년 3월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이무종(李武鍾, 1893~19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1919년 4월 2일의 언양(彦陽)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천도교도(天

道敎徒)인 그는 같은 천도교도인 이규인(李圭寅)·이성영(李成榮)·강경찬(姜庚贊)·최해선(崔海璇)·이규경(李圭庚) 등과 함께 몇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후, 4월 2일의 언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였다. 그러나 3월 31일 천도교도인 최해규(崔海圭) 형제와 곽해진(郭海鎭)·유철순(兪哲淳) 등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일제에 예비 검속되었으나, 그는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심하고 4월 1일 이규인의 집에서 이규인·최윤봉(崔允奉)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 42매를 제작하였다. 특히 4월 1일은 인근 양산읍(梁山邑)에서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모인 가운데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는 4월 2일 아침 일찍 태극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언양읍 남부리(南部里) 장터에 나아가 그곳에 모인 1천여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6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국가보훈처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민, 애국동지원우회, 1956

이문조(李文祚, 1902~1971)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1919년 4월 4, 5 양일간 경남 울산군 하상면(下廂面) 병영리(兵營里)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병영리는 조선시대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이 있던 곳으로 이곳의 청년들은 애국적 상무정신(尙武精神)이 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이문조는 일찍부터 항일의식을 길러 오면서 비밀결사 병영청년회(兵營靑年會)를 통하여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 유학생 한명조(韓命祚)·이영호(李永浩) 등이 3·1운동의 소식을 전해오자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워 나갔다. 이 때 그는 병영청년회 간부

이현우(李鉉禹)·이종욱(李鐘旭)·박영하(朴永夏) 등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4월 4일로 거사일을 정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3일에는 독립선언서 2백여 매를 작성하였고, 태극기 5백여 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종이와 명주에 '구대한국독립만세(舊大韓國獨立萬歲)'·'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심동체의 혈맹(血盟)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의아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결사보국(決死報國)'의 네글자를 혈서로 서명하였다. 거사일인 4월 4일 오전 9시경에 그는 청년회원들과 함께 병영일신학교(兵營日新學校) 교정으로 집결하여 학생들을 동원한 뒤 오전 11시 40분경에 축구공을 높게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준비해 간 태극기와 깃발을 앞세우며 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면내 각 동리를 진군하다가 일경의 탄압에 의해 주동 인물 몇몇이 피체되면서 일단 해산하였다. 이 때 일경의 검거망을 피한 이문조 등 청년회 간부들은 4월 4일 저녁에 모여 다음날에 만세시위를 재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4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이문조 등은 일신학교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시작하면서 1천여 명의 군중들이 가세하였다. 이 때 이문조는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들고 시위행렬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시위대의 만세분위기는 한껏 고조되면서 군중들이 주재소를 에워싸고 전날에 검거한 주동인물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때 울산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가운데 주동 인물들을 체포하였는데 이 때 이문조는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군중들은 더욱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수비대의 총격에 의해 문성초(文星超)등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다수가 총상을 입는 피해를 입고 해산하였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신분장지문원지』, 경찰청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국가보훈처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민, 애국동지원우회, 1956

이민연(李民淵)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다가 구타당한 후 연행되어 집행유예 3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나이가 61세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정사(正史) 울산 3.1운동』, 이춘걸, 처용기획, 1981

이용락(李龍洛, 1897~19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출생.

1919년 4월 8일 온양면 남창리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3월 1일 서울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귀향한 이수일(李樹一)」로부터 서울의 상황을 전해듣고, 이수락(李壽洛)·이희계(李希季)·이쾌덕(李快德)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중, 4월 4일과 5일에 걸쳐 전개된 인근 하상면 병영리의 독립만세운동에 자극을 받아, 4월 8일의 남창리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4월 7일 동지들을 그의 집으로 불러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는 4월 8일 아침 일찍 태극기를 몰래 지니고 남차리 장터에 나아가 장꾼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 오후 4시경, 장군이 더 이상 모이지 않자, 그는 동지들과 함께 수백명의 장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이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그를 따라 수백명의 장꾼들도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 군경은 공포를 발사하고 이수락·이쾌덕·이희계·이쾌경을 체포하였다.

이때 겨우 몸을 피한 그는 재빨리 동리사람 윤두찬(尹斗讚)이 경영하는 포목상으로 달려가 광목 4자를 얻어 '대한독립만세'라고 크게 쓴 기를 만들어 장대에 매단 후, 다시 장터로 나와 그것을 흔들면서 더욱 기세를 떨쳤으나, 일제의 무력행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이날 오후 11시경에 체포된 그는,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출옥 후에는 1943년부터 8년 동안 전국을 답사하여 생존자들의 체험담을 수집하여 『3·1

운동 실록』 이라는 책을 펴내어 민족운동을 후세에게 전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는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이성영(李成榮, 1878~19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1919년 당시 울산군 상남면 길천리(上南面 吉川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무종(李武鍾)·이규인(李圭寅) 등과 함께 언양(彦陽) 장날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높아가고 있던 3월 하순 이곳 상남면에서도 천도교 계통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계획이 추진되었다. 즉 그를 비롯하여 이무종·이규인·강경찬(姜庚贊)·최해선(崔海璇)·이규경(李圭庚) 등 6명이 주동이 되어 유지들을 비밀리에 규합해갔다. 이들은 4월 2일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숨겨 가지고 이른 아침 언양 장터로 잠입하였다. 이에 앞서 4월 1일에는 양산읍(梁山邑)에서 수천 명의 만세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 농민들의 항일의식은 보다 앙양되어 가고 있었던 때로 울산군내의 각 면과 양산 하북면으로부터 많은 장꾼이 모여들었다. 이날 주동인물 6명은 장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6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았고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6.28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이수락(李壽洛, 1899~198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출생.

1919년 4월 8일 경남 울산군 온양면(溫陽面) 남창리(南倉里) 시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군중을 주도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온양면 남창리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因山)에 참가했다가 3·1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재락(李在洛)이 이수락 등 마을 청년에게 만세소식을 알리면서 추진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을 길러오던 이수락은 한학자 이용중(李龍中)의 문하에서 동문수학 하던 이쾌덕(李快德)·이희계(李希季)·이용락(李龍洛)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 대한 의논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때 4월 4일과 5일에 걸쳐 일어난 이웃 하상면(下廂面) 병영리(兵營里)의 만세시위는 이들에게 더욱 용기를 복돋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수락 등은 4월 8일 남창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4월 7일에는 이용락의 집에서 밤을 세워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일인 4월 8일 오후 4시경에 장터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배포한 뒤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자 수백 명이 장꾼이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거행하였다. 이수락은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1919년 5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어 공소하였으나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5.7.

「판결문」, 고등법원, 1919.6.28.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원, 1978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

이우락(李宇洛, 1875~195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출생.

1919년 세칭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에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1926년 1월 제2차 유림단(儒林團)사건인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1차 유림단 사건인 세칭 파리장서사건은 김복한(金福漢) 등의 호서유림과 곽종석(郭鍾錫) 등의 영남유림 137명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청원서를 보낸 활동으로써 명실상부한 유림의 항일운동이었다. 파리장서 요지는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광무황제의 시해와 한국주권의 찬탈과정을 폭로하면서 한국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일은 경북 상주의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1919년 4월 12일 서명자의 한 사람이었던 송회근(宋晦根)이 피체되면서 발각되었다. 이우락은 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후 그는 김창숙의 참모(參謀)인 손후익(孫厚翼)으로부터 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1926년 1월 5일 경, 이우락은 경남 동래(東萊)의 오태환(吳泰煥) 등으로부터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던 중, 경북 경찰부 고등과 형사들에 의해 같은 해 3월 피체되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년 여의 옥고를 치른 끝에 1927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형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4권, 국가보훈처, 2000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이종근(李鍾根, 1896~1957)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출생.

1919년 4월 4일과 5일에 걸쳐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下廂面兵營里)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현우(李鉉禹)·이종욱(李鍾旭)·이문조(李文祚)·박영하(朴永夏)·양석룡(楊錫龍)·김장수(金長壽) 등의 청년회 간부 및 박영하와 그의 집에서 몇차례 만나 회의를 거듭한 끝에, 4월 4일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그는 4월 3일, 이현우·이종욱·이문조·박영하 등과 함께 그의 집에서 비밀 모임을 가진 후, 박영하와 권작지(權作支)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기를 제작하고, 카본 복사지로 2백여매의 독립선언서도 만들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다른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일신학교(日新學校, 현재 兵營國民學校) 교정으로 나아갔다. 그는 일신학교 학생들도 합세케 한 후, 오전 11시 40분경, 양석룡이 축구공을 하늘 높이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서리(西里)·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일대를 두 번에 걸쳐 시위행진하였다. 이 광경을 본 성내의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군중은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이곳 주재소의 응원 요청을 받은 울산경찰서장 이하 8명의 경찰과 일본군 수비대 5명이 출동하여 무력을 행사하며 해산시키려 하였다. 격노한 시위군중은 이들과 육박전을 벌였으나, 양석룡·이종욱·이종룡(李鍾龍) 등 14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울산경찰서로 압송되는 바람에 더 이상 만세시위를 전개하지 못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그는 이날 저녁, 이문조·이종필(李鍾弼) 등의 동지와 함께 곽남부락(郭南部落)의 김세진(金世鎭)의 집으로 피신하여 문성초(文星超)·윤학이(尹學伊)·최현구(崔鉉久)·황정달(黃丁達)·백봉근(白鳳根)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다음날의 재거사를 계획하였다. 이튿날 오후 3시경,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주재소 앞에서 모여 다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있을 무렵, 울산으로부터 13명의 일본 군경 응원 출동하여 이문조 등 9명의 주동자를 검거하였다. 이에 격노한 시위 군중이 검거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총·칼을 든 일본 군경에게 달려들자, 일본군 수비병이 발포를 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슴을 풀어헤치고 일본군에게 달려들어 강력히 항의하다가 체포되었으며, 이해 4월 22일 부산(釜山)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수형인명부(1919.4.22.)」, 부산지방법원울산지청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민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이종룡(李鍾龍, 1899~1986)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출생.

1919년 4월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비밀청년회 간부인 이현우(李鉉禹) 등과 함께 혈서로 '결사보국(決死報國)'이라 서명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4월 4일 오후 9시경 일신학교(日新學校) 교정에서 학생들을 규합,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의해 시위가 중단되고 그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이종욱(李鍾旭, 1896~1966)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1919년 4월 4일 하상면 병영리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종욱은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현우(李鉉禹)·이종근(李鍾根)·이문조(李文祚)·박영하(朴永夏)·양석룡(楊錫龍)·김장수(金長壽) 등의 청년회 간부들 및 이종근과 박영하의 집에서 몇차례 만나 회의를 거듭한 끝에, 4월 4일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그는 4월 3일, 이현우·박영하 등과 함께 이종근의 집에서 만나 비밀모임을 가진 후, 박영하와 권작지(權作之)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기를 제작하고, 카아본 복사지로 2백여 매의 독립선언서도 만들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그는 다른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일신학교(日新學校, 현재 兵營國民學校) 교정으로 나아갔다. 그는 일신학교 학생들고 합세케 한 후, 오전 11시 40분경, 양석룡이 축구공을 하늘 높이 차 올리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서리(西里)·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일대를 두 번에 걸쳐 시위행진하였다. 이 광경을 본 성내의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군중은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이곳 주재소의 응원 요청을 받은 울산경찰서장 이하 8명의 경찰과 일본군수비대 5명이 출동하여 무력을 행사하며 해산시키려 하였다. 격노한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이들에게 육박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울산경찰서로 압송되었다가, 이해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으로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0년에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이종필(李鍾弼, 1898～1968)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출생.

1919년 4월 4일 울산군 하상면 청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가 중도에서 좌절된 것을 분하게 여기고 이문조(李文祚)·이종근(李鍾根)등과 함께 김세진(金世鎭)의 집에 피신, 밀회하여 이튿날의 재기를 계획, 문성초·윤학이·최현구 등 동지들에게 연

락하여 거사를 준비케 하였다.

4월 5일 이른 아침에 문성초·윤학이의 연락으로 다시 일신학교(日新學校) 부근에 모여 오후 3시에 '대한독립만세'라 대서한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연호하면서 큰 길과 성둑으로 행진하였으며 그곳 주재소를 습격 파괴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군경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진 끝에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이쾌경(李快慶, 1900～19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이명은 일락(一洛).

이쾌경은 1919년 4월 8일 경남 울산군 온양면 남창리 시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군중을 주도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온양면 남창리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인산(因山)에 참가했다가 3·1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재락(李在洛)이 이쾌경 등 마을 청년에게 만세소식을 알리면서 추진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을 길러오던 이쾌경은 이수락(李壽洛)·이희계(李希季)·이용락(李龍洛)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 대한 의논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때 4월 4일과 5일에 걸쳐 일어난 이웃 하상면 병영리의 만세시위는 이들에게 더욱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쾌경 등은 4월 8일 남창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4월 7일에는 이용락의 집에서 밤을 세워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일인 4월 8일 오후 4시경에 장터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배포한 뒤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자 수백 명의 장꾼이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거행하였다. 이쾌경은 시위

대의 선두에 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1919년 5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어 다시 공소하였으나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이쾌덕(李快德, 1900～197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출생. 이명은 선걸(善杰).
이쾌덕은 1919년 4월 8일 경남 울산군 온양면 남창리 시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군중을 주도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온양면 남창리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의 인산(因山)에 참가했다가 3·1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재락(李在洛)이 이쾌덕 등 마을 청년에게 만세소식을 알리면서 추진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을 길러오던 이쾌덕은 한학자 이용중(李龍中)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하던 이수락(李壽洛)·이희계(李希季)·이용락(李龍洛)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 대한 의논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때 4월 4일과 5일에 걸쳐 일어난 이웃 하상면 병영리의 만세시위는 이들에게 더욱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쾌경 등은 4월 8일 남창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4월 7일에는 이용락의 집에서 밤을 세워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일인 4월 8일 오후 4시경에 장터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배포한 뒤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자 수백 명의 장꾼이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거행하였다. 이쾌덕은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1919년 5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어 다시 항소하였으나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이현우(李鉉寓, 1894~1959)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1919년 4월 4일 하상면 병영리(下廂面兵營里)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종욱(李鍾旭)·이종근(李鍾根)·이문조(李文祚)·박영하(朴永夏)·양석룡(楊錫龍)·김장수(金長壽) 등의 청년회 간부들 및 이종근과 박영하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나 회의를 거듭한 끝에, 4월 4일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그는 4월 3일, 이종욱·박영하 등과 함께 이종근의 집에서 만나 비밀모임을 가진 후, 박영하와 권작지(權作支)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기를 제작하고, 카본 복사지로 2백여매의 독립선언서도 만들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그는 다른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일신학교(日新學校, 현재 兵營國民學校) 교정으로 나아갔다. 그는 일신학교 학생들도 합세케 한 후, 오전 11시 40분경, 양석룡이 축구공을 하늘 높이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서리(西里)·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일대를 두 번에 걸쳐 시위행진하였다. 이 광경을 본 성내의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군중은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이곳 주재소의 응원 요청을 받은 울산경찰서장 이하 8명의 경찰과 일본군 수비대 5명이 출동하여 무력을 행사하며 해산시키려 하였다. 격노한 시위군중은 이들과 육박전을 벌였으며, 결국 그는 체포되어 울산경찰서로 압송되었다가, 이해 5월 23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민
『한국독립사』 하권 , 김승학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 국가보훈처

이홍준(李洪俊, 1893~1969)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이홍준은 1919년 4월 4, 5 양일간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병영리는 조선시대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이 있던 곳으로 이곳의 청년들은 애국적 상무정신이 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병영리에는 비밀결사 병영청년회가 결성되어 항일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이홍준은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병영리의 만세운동은 서울 유학생 한명조(韓命祚)·이영호(李永浩) 등이 3·1운동의 소식을 전해오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때 병영청년회 간부 이현우(李鉉禹)·이문조(李文祚)·이종욱(李鐘旭)·박영하(朴永夏) 등은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4월 4일로 거사일을 정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3일에는 독립선언서 2백여 매를 작성하였고, 태극기 5백여 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종이와 명주에 '구대한국독립만세(舊大韓國獨立萬歲)'·'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심동체의 혈맹(血盟)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의아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결사보국(決死報國)'의 네글자를 혈서로 서명하였다.

거사일인 4월 4일 오전 9시경에 이홍준은 청년회원들과 함께 병영일신학교 교정으로 집결하여 학생들을 동원한 뒤 오전 11시 40분경에 축구공을 높게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준비해 간 태극기와 깃발을 앞세우며 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면내 각 동리를 진군하다가 일경의 탄압에 의해 주동 인물 몇몇이 피체되면서 일단 해산하였다. 이 때 일경의 검거망을 피한 청년회 간부들은 4월 4일 저녁에 모여 다음날에 만세시위를 재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4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이홍준 등은 일신학교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시작하면서 1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를 에워싸고 전날에 검거한 주동인물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때 울산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가 무

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시위대 중 문성초(文星超) 등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다수가 총상을 입었다. 이로써 만세시위는 해산되었고, 이홍준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이희계(李希季, 1900~19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출생. 이명은 중걸(重杰).
이희계는 1919년 4월 8일 경남 울산군 온양면 남창리 시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군중을 주도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온양면 남창리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 인산(因山)에 참가했다가 3·1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재락(李在洛)이 이희계 등 마을 청년에게 만세소식을 알리면서 추진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을 길러오던 이희계는 한학자 이용중(李龍中)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하던 이쾌덕(李快德)·이수락(李壽洛)·이용락(李龍洛)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 대한 의논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때 4월 4일과 5일에 걸쳐 일어난 이웃 하상면 병영리의 만세시위는 이들에게 더욱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희계 등은 4월 8일 남창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4월 7일에는 이용락의 집에서 밤을 세워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일인 4월 8일 오후 4시경에 장터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배포한 뒤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자 수백 명의 장꾼이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거행하였다. 이희계는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1919년 5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어 항소하였으나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장상준(張相俊, 19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출생.
1935년 2월 이용선(李容先)이 일본 대판부(大阪府) 계시(堺市)에서 노동학교 출신의 박용덕(朴鏞德)·허영(許英)·김인만(金仁萬)·정암우(丁岩于)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전위대인 애국청년회를 결성할 때 핵심인물로서 동참하였다. 이들은 이후 같은 해 7월 하순까지 전후 6회에 걸쳐 항일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코자 회합을 가졌다.
회의 결과에 따라, 같은 해 7월 말 허영·박용덕 등 2명을 동경(東京)으로, 이어 9월 중순에는 김인만·정암우 등 2명을 명고옥(名古屋)으로 각각 파견하는 등 10월 초순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기까지 계속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장재술(張在述, 1916~198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출생.
본적은 울산시 용연동 87번지로 되어 있다. 14세 때인 1933년에 숙부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독학으로 일본제국대학 3년을 수료한 뒤 박열, 서상한 선생 등과 자주 독립 및 항일

투쟁을 하다가 1942년 9월 학도병 징집 거부 운동으로 인해 강제로 사할린(화태)으로 이주했다.

그해 11월 징용 조선인 처우에 대한 실상을 화태신문에 익명으로 기고한 이유로 1943년 9월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체포되어 3년 형을 선고 받고 사할린에 있는 사상범 집결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11월 광복으로 석방되었으나 일본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1958년부터 1985년까지 사할린 억류 귀한 한국인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966년 1월 사할린에 있는 징용 한국인의 참상을 폭로한 저서 『옥문도(獄門島)-화태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발간했고, 1973년 일제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日本之朝鮮(일본제국 한국 병합과 침략 사진 화보)』을 발간하여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67년 잠시 귀국하여 사할린 교포 귀환을 위한 탄원서를 관계 요로에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사할린 동포 귀환 노력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항일, 자주 독립운동의 공로로 1977년 대통력 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1985년 6월 향년 70세의 일기로 일본 가와시키시에서 작고했다.

그후 1990년 대한민국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다.

【참고문헌】

『울산남구문화』 5집, 「항일 자주 독립유공자 장재술 선생」, 2007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정용득(鄭龍得, 1885~193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출생.

언양 만세운동에 참가한 정용득은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정지모(鄭智謨, 1893~19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평리 출생.

1919년 4월 8일 동래군 장안면(長安面) 좌천(佐川) 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동래군 기장읍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영향을 받은 정지모·신두성(辛斗星)·김윤희(金允熙)·오진환(吳進煥)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은 4월 8일 장안면의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비밀리에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거사 당일인 4월 8일 오후 1시 30분 경, 정지모와 동지들이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그곳에 모여 500여 명의 시위군중도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리고 정지모의 주도하에 시위군중은 행진을 전개하였으나, 일경이 총칼을 휘두르며 폭압적인 방법으로 저지하자 시위군중은 해산하고 말았으며, 일경의 대대적인 검속에 의해 주도자들은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1919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석방 후 고문 여독으로 얼마 있지 않아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4권, 국가보훈처, 2000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정진근(鄭鎭根, 1921~194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출생.

일제의 중국 침략이 무르익던 1939년경부터 민족독립에 대한 의지를 길러 가면서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 섰다. 그는 울산군 두서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상만(李相晩)·

박근철(朴根澈) 등과 함께 중일전쟁의 정세 추이를 분석하고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는 한편 독립 달성에 대한 방도를 모색해 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 방안으로써 우선 주위의 동료·후배들을 대상으로 항일의식을 고취시기키로 결의하고, 동지 포섭에 힘을 쏟았다.

그러다가 이 일이 발각되어 피체된 그는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인하여 1944년 8월 29일에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정태원(鄭泰源, 1869~19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출생.

언양 만세운동에 참가한 정태원은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조형진(曺亨珍, 1896~?)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성남동) 출생.

조형진은 1925년 11월부터 경남 울산청년연맹 집행위원, 1926년 울산기자단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5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 울산자오회(蔚山子午會)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7년 10월 30일 울산군 방어진에서 열린 울산사회단체간담회에서 울산청년동맹을 조직할 창립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창립 준비를 위해 동년 12월 8일~9일까지 울산면 성남동 김정국(金正國)의 집에서 울산청년동맹의 강령과 정책 등을 세웠다. 강령의 내용은 조선청년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개방, 미조직된 조선청년 대중의 공고한 조직을 촉성, 조선청년 대중을 계급적 민족적으로 교양 훈련을 기함 등이었다. 정책의 내용은 조선민족의 전체적 이익을 대표할 전민족적 단일당 수립, 이것의 수립을 위해 신간회를 적극적으로 지지, 청년남녀의 언론집회 및 결사 출판의 자유 등 이었다. 이 문서를 울산군 하상면 병영청년회관에서 70부 인쇄하였고, 1928년 5월 16일 울산청년동맹 창립총회에서 배포되었다. 이로 인해 조형진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0년 9월 신간회 울산지회 대표회원을 역임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주사문(周士文, 1886~1919)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당시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그는 이곳의 비밀 청년회에 가입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1919년 3월 서울에서 귀향한 한명조(韓命祚)와 이영호(李永浩)로부터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4월 4일을 기하여 고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자기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희사하였다. 이달 3일 서리(西里)의 박영하(朴永夏)와 권작지(權作之)의 집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이튿날의 거사에 대비

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4월 4일 오전9시경, 문성초(文星超) 등 청년회 회원들로 주축이 된 독립만세 시위군중은 병영국민학교에 모여 태극기를 꺼내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인근의 서리·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등을 행진하며 시위운동을 벌였으나,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행사로 여러사람이 검거되고 해산하였다. 이에 그는 이문조(李文祚)·이종필(李鍾弼) 등의 동지와 함께 김세진(金世鎭)의 집으로 피신하여 이튿날 다시 거사하기로 계획하고 다른 동지들에게 연락하였다.

4월 5일 오후 3시경, 다시 병영국민학교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인근지역을 시위행진하고 일제의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때 독립만세 시위군중이 1천여명에 이르러서 사태의 급박함을 느낀 일본 관헌은 급히 울산으로부터 13명의 군경을 증원받아 시위군중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결국 이문조 등 9명이 일본 군경에 의해 체포되자 그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에 투석하였다. 이에 일본 군경은 시위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였으며, 선두에 활약하던 그는 다른 3명의 동지와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들의 나라위한 충정을 중앙하여 1967년 4월에 병영·서동 삼일사에 3·1충혼비를 건립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차영철(車永澈, 19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출생.

1943년 12월 북경에서 광복군에 현지입대한 후 동지 초모공작(招募工作) 일본군열차 파괴 등 혁혁한 공을 세우고 1944년 3월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동년 12월 12일 징역15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조국광복으로 석방된 사실이 확인되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

최금석(崔金碩, 1897～1979)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출생.

1919년 4월 4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청년회 간부 양석룡(楊錫龍)등이 계획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일 오전 9시 병영리 일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가로 행진하자, 만세소리를 듣고 수천 군중이 이에 가담하여 주재소로 돌진하다가 때마침 시위 주모자들을 체포하여 압송하는 수비대를 만나 주모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수비대를 포위하였으나 일군의 무차별 발포로 시위대가 해산되고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최윤봉(崔允奉, 1898~193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최윤봉은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언양 장날의 만세시위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천도교 계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상남면의 천도교 유지인 최윤봉은 이무종(李武鍾)·이규인(李圭寅)·이성영(李成榮) 등과 함께 비밀리에 만세시위를 계획하였고, 4월 2일 언양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만세시위준비를 진행해갔다.

그러던 중 거사 이틀전 주동 인물가운데 최해규와 곽해진 등 4명이 일제의 검거망에 걸려 예비검속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윤봉 등은 비밀을 유지한채 거사 전날인 4월 1일에 동지 이규인의 집에서 밤을 세워 태극기를 제작하였으며, 거사 당일인 4월 2일에 예정대로 언양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거행할 수 있었다.

최윤봉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1천여 명의 군중이 함께 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어 그는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위행진을 시작하였으며, 시위를 탄압하는 일경에 대하여 투석으로 맞섰다.

그러던 중 일본군 수비대의 총격에 의해 시위군중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최윤봉은 현장에서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공소하였으나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최을택(崔乙澤, 1925~1976)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출생.

1942년 7월경 창원군 동정리(東井里) 소재 창원신사(昌原神社) 뒤에서 창원보통학교(昌原普通學校) 출신의 급우 박상규(朴尙圭)·박대근(朴大根) 등 10여 명과 함께 조국 독립을

목적으로 청년독립회를 조직하여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한국을 강점한 일관되어 온 것이었으나 1931년 만주침공이후 강화되었으며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폭압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전세가 기우는 상황에서 일제는 소위 국민총동원체제 아래 민족말살의 일환으로 산사참배를 더욱 강요해 갔다.
이러한 때 최을택 등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면서 1943년 4월 '조선독립 만세'라고 쓴 벽보를 창원역과 주요 관문에 붙임으로써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이들의 활동이 1944년 12월 진해헌병대에 의해 발각되었고, 일제는 이일을 '창원만세사건'이라 불렀다.
이로 인하여 그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첩 계류되어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8·15 광복을 맞이하여 부산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이때 고문의 여독으로 백정기(白政基)·김명수(金明洙)는 출옥 직후 순국하였고, 최을택도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고생해야 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최한홍(崔翰鴻, 1898~1949)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1919년 4월 울산군 언양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학국사데이터베이스

최현구(崔鉉玖, 1898~1941)

독립운동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출생. 외솔 최현배의 친동생이다.

당시 경남 울산군 하상면 서리(현재 중구 서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최현구는 1919년 4월 4일 울산군 하상면 서리의 일신학교(현재 병영초등학교)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동참하여, 일신학교와 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 등지에서 약 2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4월 5일에도 일신학교에서부터 하상리의 경찰관주재소까지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현구는 1919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대구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최현표(崔鉉杓, 1902~1941)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출생.

최현표는 1919년 4월 4, 5 양일간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병영리는 조선시대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慶常左道兵馬節度使營)이 있던 곳으로 이곳의 청년들은 애국적 상무정신이 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김장수는 일찍부터 항일의식을 길러 오면서 비밀결사 병영청년회를 통하여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 유학생 한명조(韓命祚)·이영호(李永浩) 등이 3·1운동의 소식을 전해 오자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워 나갔다. 이 때 그는 병영청년회 간부 이현우(李鉉禹)·이문조(李文

祚)·이종욱(李鐘旭)·박영하(朴永夏) 등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4월 4일로 거사일을 정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3일에는 독립선언서 2백여 매를 작성하였고, 태극기 5백여 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종이와 명주에 '구대한국독립만세(舊大韓國獨立萬歲)'·'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심동체의 혈맹(血盟)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의 아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결사보국(決死報國)'의 네 글자를 혈서로 서명하였다. 거사일인 4월 4일 오전 9시경에 그는 청년회원들과 함께 병영일신학교(兵營日新學校) 교정으로 집결하여 학생들을 동원한 뒤 오전 11시 40분경에 축구공을 높게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준비해 간 태극기와 깃발을 앞세우며 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면내 각 동리를 진군하다가 일경의 탄압에 의해 주동 인물 몇몇이 피체되면서 일단 해산하였다. 일경의 검거망을 피한 김장수를 비롯한 청년회 간부들은 4월 4일 저녁에 모여 다음날에 만세시위를 재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4월 5일 오후 3시를 기해 김장수 등은 일신학교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시작하면서 1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를 에워싸고 전날에 검거한 주동인물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때 울산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시위대 중 문성초(文星超) 등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다수가 총상을 입었다. 이로써 만세시위는 해산되었고, 김장수는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황정달(黃丁達, 1897~1971)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

1919년 4월 4일과 5일에 걸쳐 하상면 병영리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황정달은 4월 3일 거사 계획을 듣고 이에 적극 찬성하여 박영하의 집에서 이문조·이종필(李鍾弼)·최현구(崔鉉久) 등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기를 제작하였으며, 다른 주동자들은 권작지(權作之)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카아본 복사지로 2백여매의 독립선언서도 만들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그는 다른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일신학교(현재 병영국민학교) 교정으로 나아갔다. 그는 일신학교 학생들도 합세케 한 후, 오전 11시 40분경, 양석룡이 축구공을 하늘 높이 차 올리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서리(西里)·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산전리(山田里) 일대를 두 번에 걸쳐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이곳 주재소의 응원 요청을 받은 울산경찰서장 이하 8명의 경찰과 일본군 수비대 5명이 출동하여 무력을 행사하며 해산시키려 하였다.
이에 격노한 시위군중은 이들과 육박전을 벌였으나, 양석룡·이종욱·이종룡(李鍾龍) 등 14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울산경찰서로 압송되는 바람에 더 이상 만세시위를 전개하지 못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그는 이날 저녁 곽남부락(郭南部落) 김세진(金世鎭)의 집으로 피신한 이문조·이종필과 문성초(文星超)·윤학이(尹學伊)·백봉근(白鳳根)·최현구와 연락을 취하며 다음날의 재거사를 계획하였다.
이튿날 오후 3시경, 그는 수천여명의 시위군중과 주재소 앞에서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울산으로부터 13명의 일본 군경이 응원 출동하여 이문조 등 9명의 주동자를 검거하였다. 이에 격노한 시위군중은 이들에게 대들며 육탄전을 벌였다. 이때 사태의 급박함을 느낀 일본군 수비군이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시위대열은 해산하였다.
이후 그는 일제의 검속으로 체포되어, 이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살인 등의 협의로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공훈전자사료관

허황(許璜, 1874~?)

독립운동가.

상남면 길천리(吉川里)에 사는 이무종(李武鐘)·이규인(李圭寅) 등 6인은 비밀리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의거일을 4월 2일 언양 장날로 정하였다. 4월 1일 밤 이규인 집에 모여 내일의 거사를 의논하면서 밤을 새며 많은 태극기를 만들었다. 장날인 다음날 이른 아침 수많은 장꾼들 사이에서 주동 인물 6인은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준 후 읍내 시장 복판인 남부리 도로상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장꾼 1,000여 명은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만세를 외치니 시장은 삽시간에 감격과 흥분으로 휩싸였다.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은 시위군중을 저지하며 주동 인물을 언양주재소로 연행하였다.

허황은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9. 여성

이순금(李順金, 1912~?)

사회주의운동가. 경남 울산 범서 입암 출생

1946년 정판사(精版社) 위조지폐 사건으로 미군정에 검거되어 1950년 6월 대전형무소에서 복역중 처형당한 이관술(李觀述)의 여동생이다. 한때 이재유와 동거하기도 했다.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9년 4월서울실천(實踐)여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년 뒤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반제동맹(反帝同盟)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책임자를 지냈고, 1932년 3월 졸업하였다.

1932년 5월 '경성학생알에스(RS)협의회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1933년 2월 또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3월 경성지법 검사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뒤 이재유(李載裕)와 비밀리에 결혼하였고, 경성고무공장 여공들을 동지로 규합해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1934년 1월 일본 경찰에 다시 검거되어 1935년 1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937년 7월 만기 출옥하였다. 출옥 후 운동자금 조달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으나 1938년 6월 경성지법에서 예심면소되었다. 1939년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였다. 1941년 9월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았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 중지되었다. 이후 남조선노동당의 거두로 활동하였던, 북한에서 1955년 12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처형된 박헌영(朴憲永)과 함께 전라남도 광주로 피신하여 은둔하면서 경성콤그룹 조직원들간의 연락활동에 종사하였다. 1945년 8월 조선공산당 재건 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하였고, 9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원이 되었다.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참가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조선공산당 중앙 및 지방동지 연석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같은 해 8월 조선부녀자총동맹 결성에 참여하여 조직부에 소속되었다. 11월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부녀부에서 일하였고, 남조선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하여 조직부원으로도 지냈다. 1955년 박헌영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참고문헌】

『남로당연구』, 김남식, 1984

이효정(李孝貞, 1913~2010)

사회주의 항일운동가. 경상북도 봉화군 출생. 박두복과 결혼하였다.

1930년대 초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효정은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만세를 부르고 종로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으며, 3학년 때는 시험을 거부하는 백지동맹을 주도해 무기정학을 당했다.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1933년 9월 21일, 종연방직[鐘紡] 경성제사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그녀는 이재유(李載裕)의 지도를 받아 여직공을 선동하여 총파업을 지도하였다. 노동쟁의의 확대를 꾀해 공장 내 조직의 확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적색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계획 하에 파업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종방파업 이후 1933년 10월 17일 청량리에서 동대문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35년 11월, 이효정은 서울에서 이재유·권우성(權又成) 등이 주도 조직한 '경성지방좌익노동조합 조직준비회'에 가담하여 동지 규합과 항일의식 고취에 주력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약 13개월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해방이 되자 그녀는 남편을 따라 울산시내로 나왔으나 집이 없어 부녀동맹회관에서 살면서 남편이 간부로 활동하는 건국준비위원회 울산지부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남로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기도 했던 남편이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월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친척들이 울산보도연맹 학살사건 때 많이 죽었고, 시동생은 간첩으로 몰려 자살했다.

2남 1녀의 아이들과 함께 남한에 남겨진 그녀는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 찍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다. 수시로 찾아오는 형사들 때문에 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교단에서 쫓겨나 과일행상 등을 하며 세 아이를 키워야 했다. 취직하는 곳마다 형사가 따라붙어 쫓겨나기 일쑤였고, 이사 가는 곳마다 감시가 붙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 남편이 남파간첩으로 활동하다 또다시 월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다시 요시찰인물이 된 그녀는 영장 없이 수시로 사찰기관에 연행돼 고문과 취조를 당하면서 고문으로 팔목이 부러지는 장애를 입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6·10 민주항쟁'으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뤄지자 그녀에 대한 사찰도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명필이 되는 게 꿈이었던 그녀는 시집으로 1989년 『회상』, 1995년 『여든을 넘기며』를 발간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재조명되면서 93세 때

인 2006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건국포장을 받았다. 2010년 8월 14일 97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참고문헌】

『피의자 소행조서(1935. 12. 25)』, 동대문경찰서

『결정서(1936. 5. 13, 7. 14, 11. 11)』, 경성지방법원

『신분장지문원지』, 경찰청

『노동쟁의 배후선동 기타에 관한 건, 경동경고비 제3248호1933. 10. 26, 사상에 관한 정보 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발각에 관한 건, 경서고비 제8613호의31934. 2. 7, 사상에 관한 정보 7』, 국사편찬위원회

『동아일보』, 1933.10.19, 10.21, 1935.12.28.

『조선중앙일보』, 1935.11.08

『조선일보』, 1936.12.2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7권, 국사편찬위원회

이옥주(*, 1917~2009)**

울산광역시 출생.

2004년 8월 울산양육원 원장에서 물러나기까지 41년간 부모를 잃거나 가정 해체 등 갖가지 사유로 고아가 된 아동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

1946년 울주군청이 귀환동포의 자녀들과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한 울산양육원의 원장으로 남편 고 이봉석 장로가 48년 원장으로 취임하자 자신은 보모로 투신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여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복지 불모지였던 울산에 고아들의 안식처를 마련했고, 굶주리고 버려진 아이들에게 자신의 7남매 자식들과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왔다.

특히 1명의 아이도 양육하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평균 120여 명의 고아들을 돌봐왔으며, 별세 전까지 남들처럼 잘 해주지 못했는데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줘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만큼 헌신적이었다.

아동복지사업 외에도 한국부인회 울산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울산지역 여성들의 위상을 높였으며, 울산여성문화봉사상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용신봉사상, 울산외솔상(나라사랑부문) 등의 다양한 수상경력을 보유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참고문헌】
「울산CBS 뉴스(2009~12~15 09:53)」

조화자(曺花子, ?~?)

울산 출신.

대한적심자사 울산부녀봉사회장, 구국여성봉사회 울산지구회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원, 1978

10. 종교계

성수 대종사(性壽 大宗師, 1923~2012)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출생.

19세 때 천성산 내원사에서 성암스님을 만나 출가하였다. 구족계를 받자마자 전국 각지의 선원을 찾아다니다가 성철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에 동참하였고, 30대에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과 대면하였다.

경봉스님과의 만남으로 입적에 들 때까지 눈 밝은 선지식을 배출하는 선원을 건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서울 법수선원과 함양 황대선원, 산청 해동선원이다. 법수선원 외 나머지 선원은 모두 대종사가 일흔을 넘긴 세수에 지어져 스님의 원력이 어떠했는지 증명해주고 있다.

사(事)와 리(理)에 밝았으며,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등 지역 대찰의 주지 소임을 원만히 수행했다. 조계사 주지 당시 초파일 석탄절 등 여러 말로 사용되던 부처님 탄신일을 순 우리말인 '부처님 오신날'로 통일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때 발생한 10·27법난 때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총무원장으로서 시련을 극복해갔다. 대종사는 수행에 철저하고 행정에 통달했으며 인재 양성에 매진하면서 스님으로서 70년 세월을 살았다. 종단 전계대화상으로 지낸 것은 3년(2005~2008년)이었지만, 구애 받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곳이라면 높고 낮음, 쉽고 어려움, 덥고 추움을 가리지 않았다.

대종사는 평소 눈 푸른 선지식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그래선지 '사자새끼'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 고찰(古刹)들은 죽은 땅이라 새 땅에서 사자새끼를 키우겠다. 난 아직도 살아있는 사자새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염원을 품었던 스님은 2012년 4월 15일 오전 6시경 영축총림 통도사 관음암에서 입적했다.

【참고문헌】

『울산제일일보』, 「울산 불국토가 배출한 근현대 승려 한국 불교에 큰 획」, 2013.05.15.

성해당 남거(聖海堂 南居, 1854~1927)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출생.

17세에 기장의 장안사로 출가. 취룡 태일(鷲龍泰逸)스님을 은사로, 해령(海嶺)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0년 뒤인 1880년부터 은사를 따라 통도사에 주석하게 된다. 이듬해 1892년 조선조 이후 끊어진 계맥을 이은 당대의 율사인 만하승림(萬下勝林)스님에게 대소승계(大小乘戒)를 수지, 눌암(訥庵)스님 문하에서 대교(大敎)를 마쳤다. 이후 화두를 들고 참선 정진했다.

39세(1892년)에 통도사 승통(僧統)에 취임해 사격(寺格)을 일신하였고, 51세(1904년)에 통도사 총섭(總攝)이 됐다. 1906년 황화각(皇華閣)에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해 원장 소임을 보면서 10여 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그 가운데, 황화각과 동곡루(同穀樓)를 중수했으며, 1911년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보수할 때 총지휘를 했다. 61세 되던 1914년에는 보광선원(普光禪院) 원장이 되어 납자들을 지도했고, 1927년 음력 12월29일 자시(子時)에 열반했다. 장례는 3일장으로 거행됐다.

비는 통도사 부도전에 봉안돼 있고, 문하에 구하천보(九河天輔), 재하법성(齋河法晟), 경봉정석(鏡峰靖錫), 경하달윤(鏡河達允)이 있다.

【참고문헌】

통도사 http://www.tongdosa.or.kr/

『울산제일일보』, 「울산 불국토가 배출한 근현대 승려 한국 불교에 큰 획」, 2013.05.15.

천보(天輔, 1872~1965)

근현대의 고승. 본관은 경주.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출생 호는 구하(九河), 자호는 축산(鷲山). 성은 김씨. 부친은 김한술(金漢述) 선생이다.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모에게 출가를 하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 이때가 1884년 겨울로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였다. 13세가 되던 1884년 천성산 내원사에서 출가하여 행자생활을 시작했고, 경월도일(慶月道一)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이듬해인 1890년 예천 용문사에는 용호해주(龍湖海株)스님 문하에서 경학과 참선을 공부하고 18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같은 해 성해남거(聖海南巨)스님의 전법제자가 되어, 구하라는 법호를 받았다. 수행을 거듭하여 1905년 통도사 옥련암에서 정진하였다.

1908년 명신학교를 비롯해 입정상업학교(현재 부산 해동고등학교)와 통도중학교(현재 보

광중학교)를 설립하여 교감·교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절 살림과 암울한 일제치하의 시대 속에서도 인재양성에 힘썼다. 또한 통도사 주지로서 1910년 한일합방 후 30본산 주지가 되었으나 사규가 점차 무너짐을 보고는 후진으로 물러나 있었다.

1919년 무렵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님은 통도사의 재정으로 군자금을 지원했는데, 임시정부 국무총리인 안창호가 보낸 밀사에게 5천원, 경성 '화신공보' 사장 초월동조(初月東照)에게 2천원, 지암 종욱(鍾郁)이 군자금을 모집할 때 3천원, 독립운동가 정인섭에게 1천원 등 모두 1만3천원이었다. 또한 상해에서는 그와 성월 등이 함께 대한승려연합회 대표자 12인 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어린이 교육에도 힘써 마산 대자유치원, 진주 연화사 유치원, 울산 동국 유치원 등을 설립하였다. 1911년 11월부터 1925년 8월까지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고, 1917년 1월부터 3년간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을 지냈다. 불교중앙학림(현재 동국대) 학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포교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마산 포교당 정법사(1912), 진주 포교당 연화사(1923), 창녕 포교당 인왕사(1923), 물금 포교당(1924), 언양 화장사(1927), 창원 구룡사(1929), 의령 수월사(1930), 부산 연등사(1932), 울산 포교당 해남사(1936), 양산 포교당 반야사(1940) 등 많은 포교당을 설치하여 부처님의 전법을 전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역경사업에도 힘써 통도사·해인사·범어사 3곳이 힘을 모아 해동역경원(海東譯經院)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1912년 11월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 발표 동참, 백산상회 안희제와 범어사 김상호를 통해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 제공, 1920년 3월 의춘상회(의춘신탁)를 설립해 독립자금 마련, 1920년 4월 동아불교회를 설립해 항일불교운동을 시도하는 등 조국해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1949년에는 중앙불교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1963년 10월3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94세. 법납 81세였다. 제자는 전 종정 월하(月下) 스님 등 30여명의 출가제자가 있다.

문손들에 의해 구하스님의 시문과 금강산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인 『축산문집(鷲山文集)』과 『금강산관상기(金剛山觀相記)』가 최근 출간되었다.

【참고문헌】

통도사 http://www.tongdosa.or.kr/

『울산제일일보』, 「울산 불국토가 배출한 근현대 승려 한국 불교에 큰 획」, 2013.05.15.

최맹도(崔孟道)

종교인(불교도). 본관은 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출생.

성균사성(成均司成) 최예(崔汭)의 후손이다. 일찍 출가하여 광복 후 석남사의 주지를 역임했으며, 상북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학교시설을 위한 기부금 모금과 더불어 신축교사용 목재를 기부하였다. 환속(還俗)한 후 제2대 상북면의회의원(1956~1960)을 역임했지만 재가승(在家僧)으로 일생토록 신앙심이 독실했다. 석남계곡에 그의 시암(詩巖)이 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해담 치익(海曇 致益, 1862~1942)

일제시대 조선불교를 이끈 대표적인 고승.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출생. 호는 해담(海曇).

19세이던 1880년 양산 통도사의 춘담 스님에게 출가했다. 소백산 용호 해주 스님에게서 경전을 배웠다. 이후 1894년 경북 의성군에 있는 등운산 고운사에서 수월 스님으로부터 선을 전수받았다. 수월 스님은 근세의 선지식으로 충남 서산의 천장사에서 태허 스님에게 득도하고 경허 선사의 법을 이었다. 해담 스님은 1895년 출가 본사인 통도사로 돌아와 강주가 되어 후학을 지도했다. 1929년 선교 양종 7교정의 한 사람으로 추대됐다. 통도사 안양암에서 주석하다 세수 81세, 법랍 62세로 입적했다. 저서로는 『증곡집』 1권이 있다. 이는 활자판으로 부산의 대원사에서 1934년에 간행된 것으로 현존한다.

【참고문헌】

『울산제일일보』, 「울산 불국토가 배출한 근현대 승려 한국 불교에 큰 획」, 2013.05.15.

11. 기타

노덕술(盧德術 松浦鴻(마쓰우라 히로) 1899~1968)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출생.

울산보통학교 2년을 중퇴, 경남순사교습소를 졸업하였다. 그뒤 울산에서 일본인(松垣米作)이 경영하던 잡화상의 고용인으로 근무하다가 일본 홋카이도로 취직을 위해 도일했으나 곧 귀국했다. 귀국 후 경찰관을 지원하여 1920년 6월 경상남도 순사에 임명되었다. 그해 9월 경남순사교습소를 졸업한 뒤 경상남도 경찰부 보안과를 거쳐, 울산경찰서 사법계에 근무하였다. 이어 순사부장을 거쳐, 1924년 12월 경부보(지금의 경감부)에 승진하고 의령·김해·거창·통영 등 각 서(署)의 사법주임을 맡았다. 1932년 경부로 승진해 울산과 서울 본정(本町 : 현재의 명동)·인천·개성·양주·종로경찰서 사법주임을 역임한 후, 1943년 9월 경시로 승진해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장, 1944년 수송보안과장을 맡았다. 경찰을 재임하는 동안 독립운동가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일삼아 악명이 높았다. 해방 후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내다가 1949년 1월 24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까지 모의 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26일 특위위원장 김상덕(金尙德) 등을 불러 그의 석방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헌병으로 전직하여 1950년부터 육군본부 제1사단 헌병대장, 1954년 부산 제2육군범죄수사단 대장 등을 지내다 1955년 뇌물수뢰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6월을 받고 파면되었다. 1960년 제5대 민의원 선거에 경상남도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8년 4월 1일 사망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실록 친일파』, 임종국, 돌베개, 1991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2009

김도현(金度賢, 1973~2006)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대 블랙이글스 소속 군인. 울주군 신현리 187번지 출생.
울산옥성초등학교 졸업, 울산제일중학교 졸업, 울산학성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졸업하였다. 1992년 3월 2일 공군사관학교 제44기로 입교하여 4년 후 공군소위로 임관했다. 1997년 6월 2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전투조종사로 시작하여 2005년 2월 14일 최정예 전투조종사로서 8전투비행사 제239특수비행대 블랙이글스 멤버가 되어 55회의 에어쇼에 참가하는 등 총 950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하며 조국영공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06년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 임수수행 중 순국하였다.
합참의장상, 작전사령관상, 작전사령관 공로표창을 수상하였고 또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잡고 있던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고인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살신성인의 업적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2006년 5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정두표(鄭斗杓, 1935~1967)

본관은 동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출생. 정판수(鄭判守)의 장남이다.
1949년 길천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육군 헌병으로 만기제대 후 가족들을 데리고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뫼밭(山田)을 개간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 1967년 6월 14일 그의 집에서 약 15리 떨어진 운문산 기슭 삼계리 생금비리에서 밭을 개간하던 중 무장간첩 4명이 나타나 식량 등 생필품을 요구하자 거짓 호응하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하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16일 군경과의 합동작전에 참가하여 단신으로 약속장소에 나가 그들이 요구한 물품을 건내주는 척하면서 권총으로 두목을 사살한 후 매복한 잔당의 집중사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장렬히 순국하였다. 청도군 운문면 삼계리의 운문계곡 도로변과 그의 모교인 길천초등학교 교정에 각각 추모비가 세워졌고, 1967년 8월 보국훈장증과 1993년 6월 국가유공자증이 각각 추서되었으며 그의 장렬한 의거는 이 고장 애국애향정신의 귀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 현재 자료는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